

건축사

1998 **03** vol. 347

칼럼 김대중대통령 각하

작품리뷰 진도향토문화회관

테마기획 지역건축탐방⑩ - 아산, 공주, 부여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개관 - 김순하(원)

K O R E A N A R C H I T E C T U R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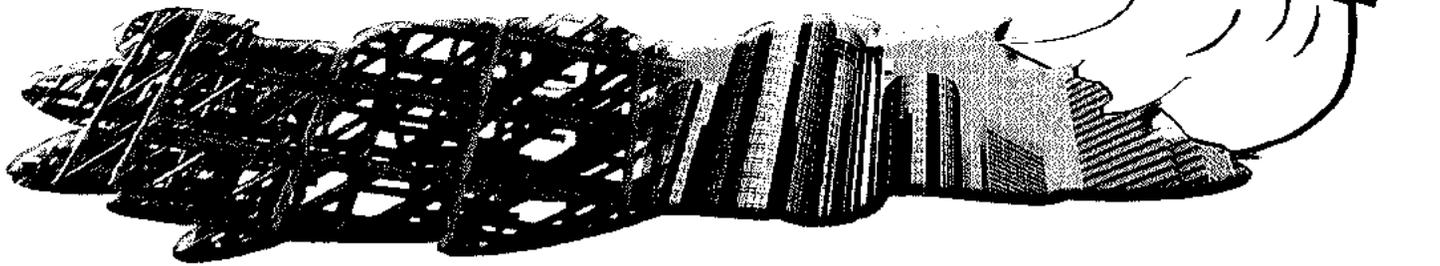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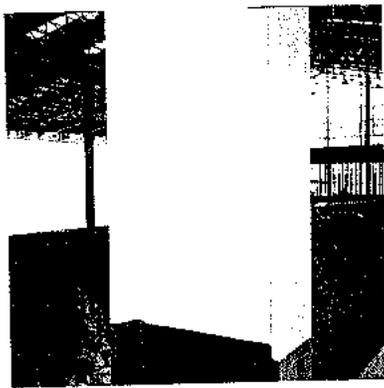


첨단 철골내화 페인트

FIRE CONTROL 국립건설시험소 고시 제 1996-33호

공장 건축물에서 일반 건축물까지 ...

취급, 보관, 시공, 화재등 어떠한 단계에서도 냄새, 분진, 가스등의 유해 위험요소가 전혀 없는 청정내화재 FIRE CONTROL은 페인트 타입으로는 국내 최초로 일반 건축물용 시험에 합격하여 공장 건축물에서 일반 건축물까지 사용 대상의 한계를 극복한 제품입니다.



용도

철골 구조의 건축물 / 철골 구조의 공장 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창고 물류센터 / 근린 생활시설 / 발전소 선박, 프랜트, 산업시설

특성

- 자체 독성이 전혀 없는 무해 재료이다.
- 화재시 유독한 연기를 방출하는 기존의 제품과 달리 발포성형체가 그대로 유지되는 완전 불연재이다.
- 시공시 페인트 타입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안전상 문제점이 전혀없다.
- 시공후 깨끗하고 미려한 외관을 유지하며 자체강도, 부착강도가 강하여 변형, 변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성능

	대 상	내화시간	사용부위	도막두께
내화구조 지정	일반건축물 공장(2층이상) 창고, 물류센터 등	1시간	철골 (기둥,보)	하도:0.05mm 중도:2.95mm 상도:3.20mm
	공장(1층,중2층)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1시간	철골 (기둥,보)	하도:0.05mm 중도:1.95mm 상도:2.20mm

FIRE CONTROL은

건축법 제2조 제7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화성능을 갖춘것"으로써 내화구조 의무화 건축물의 준공검사시 필수적인 내화성능도로입니다.

H 하이템주식회사
HITEM CO.,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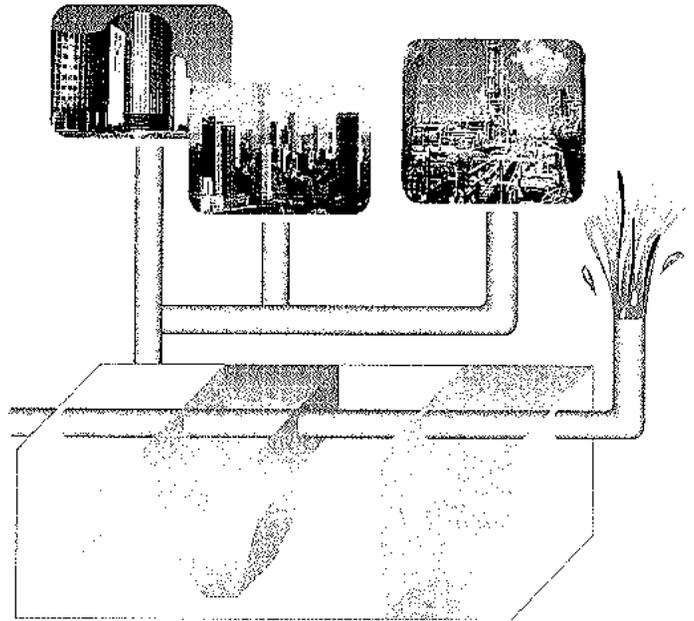
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92-4
남성 B/D 4F
TEL: (02)535-7230(대) · FAX: (02)535-6503
공장: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목리 861
TEL: (0335)33-6074~5

혁신적인 구조 / 경제적인 구조 / 탁월한 처리효과

경제적이고 안정적이며 내구성이 긴 오, 폐수 정화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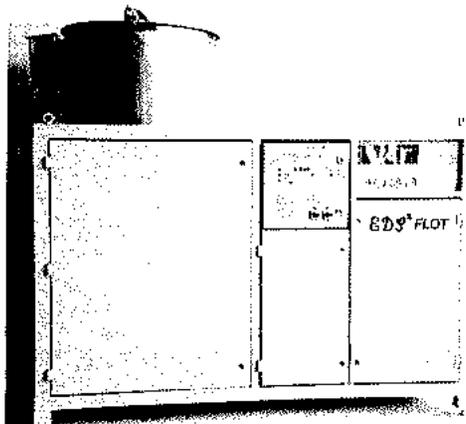
오수(합병) 정화장치

- 선진기술 도입 국내 제작으로 우수한 성능과 효과
- 형식적인 설치효과가 아닌 탁월한 효과와 함께 정확한 산출에 따른 크기
- 4인용부터 2,000인용까지 폭넓은 사용선택
- 설치대상자 : 상수도 보호지역 및 정부지정 의무설치 대상지역, 연면적 200㎡ 이상 장소
- 신규 건축물 대상자
- 처리기준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가 각각 20ppm 이하
- 높은 안전도와 손쉬운 유지보수 관리
- 뛰어난 정화 능력 및 용량
- 예비침전조(전처리 침전)가 필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슬러지 발생량이 없게 됩니다.
- 불쾌한 냄새가 확실하게 없어집니다.
- 비질소는 물론 질소와 슬러지의 산소 안정화를 동시에 이룹니다.



EDS® Bio Pack

컴팩트 타입 폐수 처리 시스템



EDS® FLOT

- 모든 산업체 공장 폐수와 오수를 본 장비하나에서 모두 처리합니다. (약품 자동투입 - 반응 - 응집 - 침전분리)
- 설치, 이동, 운전이 간편하고 운전유지비가 저렴합니다.
- 설치면적의 최소화로 기타 여유면적은 공장 생산 면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 처리속도가 1분 40초로써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어 이에 따른 수질개선이 향상됩니다.
- 컴팩트하며, 무인 자동운전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 점검개소가 한눈에, 한장소에서 한번에 확인 가능합니다.
- 제2의 오염물질 발생(슬러지)을 극소화시킵니다.

[적용처]

각종 공장 폐수, 호텔, 아파트, 병원, 세차장 등등

제조원 : 株式會社 에바다 德成

공급원 : 덕성 EDS (주)

김승동



국내 최고의 CAD/CAM/CG/GIS 기술세미나

전세계 CAD/CAM/CG/GIS 솔루션을 국내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오토데스크 솔루션 '98을 잡으면 IMF가 잡힌다!

- 행사일 1998. 3. 23(월)~24(화)
- 시 간 오전 9:30 ~ 오후 5:40
- 장 소 KOEX 4층 국제회의실,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 3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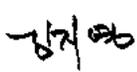
- 주 최 (주)오토데스크코리아
- Gold Sponsor **COMPAQ DELL**  
- intel**  **IBM**
- 3월 24일

시간	국제회의실	소회의실	중회의실	대회의실
9:30~10:00	등록			
10:00~10:25	간접/간접 나어링/간접의 최신경영기회 발표	프로젝트형의 자동설계 및 기공 솔루션	상계로/상계/비로/관리시스템 수제지도 관리 관련 시스템	영상관리 장비에 관련된 3DS MAX
10:25~10:50				
11:00~11:25	AEC Techno 현황 및 향후 Technology Trends	2차원/3차원 통합 기계설계 소프트웨어 Mechanical Desktop R20	강남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사례	3DS MAX를 활용한 인터넷에 제안 시뮬레이션
11:25~11:50	5차원 프리젠테이션 기술 구현 - 3D Showcase V12			
12:50~1:15	FY99 AEC Vision	FY99 MCAD Vision	FY99 GIS Vision	FY99 Multimedia Vision
1:15~1:40				
1:50~2:15	통합설계를 위한 해외건설 업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오토데스크 기계설계 전문가들을 위한 솔루션	GIS Imaging Technology	오토데스크 솔루션을 위한 10-100의 하드웨어 플랫폼
2:15~2:40				
2:50~3:15	Top Ten Troubleshooting for AutoCAD users	MDT와 CATIA의 Data Interface 개발 사례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례 소개 MapGuide 3.0	3DS MAX를 활용한 3D Digital Animation 제작 사례
3:15~3:40		IGES/STEP 최신 동향		
3:50~4:15	음반트 설계 통합 솔루션	MDT를 이용한 진동공구 모델링 사례	GIS 요건분석 및 설계	3DS MAX를 활용한 Music Video 제작 사례
4:15~4:40				
4:50~5:15	건축설계 사무소를 위한 인터넷 구축 방안	AutoManager Workflow를 이용한 도면관리 시스템	하수도 시설물 관리 시스템	MCAD 전문가를 위한 위 활용사례의 솔루션
5:15~5:40				

시간	국제회의실	소회의실	중회의실	대회의실
9:00~9:30	등록			
9:30~9:55	레스타이저 리스 개발방안, CAD Overlay R14 제품 소개	DB설계 자동화 시스템	중이 도면의 CAD 파일화	CAD/CAM 사용자를 위한 IMF 디자인쇼 솔루션
9:55~10:20				
10:30~10:55	통합 도로설계 시스템, KACE-Road	토지행정 종합 전산화 구축 사례	역사적인 현역 국형설계 기준 CAD/IT/ModelSpace MIDDLE/WT 활용사례	3DS MAX R2의 새로운 기능 소개
10:55~11:20				
11:30~11:55	설계 통합화를 위한 최신 자료 교환 체계	행정용현역 정보관리시스템 소개 MapGuide 3.0 활용 사례	중간스텝 제품과 유용해석 및 최신의 CAM 활용기술	3DS MAX를 활용한 만남에 의한 Animation 및 제1회 데탕팅 위한 Animation
11:55~12:20				
1:20~1:45	건축분야 CAD 환경의 최근동향	Autodesk World를 활용한 사실물 관리 모델 소개	오토데스크 기계설계 전문가들을 위한 솔루션	3DS MAX R2의 새로운 Plug-in 소개
1:45~2:10				
2:20~2:45	도로설계를 위한 3차원 설계시스템, Softdesk Civil/Survey 8	AutoCAD Map 2000 이용한 시뮬레이션 및 수치지도 출력 프로그램 소개	Mechanical Desktop을 이용한 Sheet Metal Design	AutoCAD 사용자들 위한 3D/4D의 Concept Visualization 구축방안 소개
2:45~3:10				
3:20~3:45	먼지 토목 설계 통합 시스템	인터넷 GIS의 소용기술과 동향	MDT의 Working Model 3D를 이용한 유압식 프래밍 일 예의 시뮬레이션 사례	3DS MAX를 활용한 건축 시뮬레이션 제작사례 및 IMF 마케팅의 워크스테이션의 시장동향 및 전망
3:45~4:10				
4:10~5:10	고객과 함께 맥주론			

* 상기 행사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221-5 M/B/D 6F



Architecture

GIS Mapping

Civil Engineering

Facilities Mana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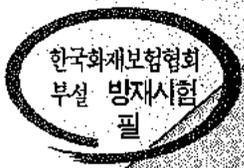
Data Management

Process/Plant

Mechanical

Multimedia

신기술 혁신으로 안전을 생각합니다.



실용신인등록 제076984호
PUMA상표등록 제281348호
일본국(출) 평성4년37180호

“푸마방화셔터는 별도 방화문이 필요 없습니다.”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래의 방화문, 방화셔터의 2중 구조를 하나의 방화셔터 시스템으로 통합했습니다.

경계성 절대단축, 안전성, 편의성 등이 만족 시키며 세계최초로 방화셔터시스템을 “푸마”의 신기술로 완성시켰습니다.



푸마 방화 셔터만이 당신에게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푸마셔터 설치업체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도파 상계점 · 현대백화점 입구점점 · 롯데쇼핑 본점, 청량리점 · 대구 동아쇼핑 · 신세계 영동점 · 경방빌 프리자 · 부산 리베라 쇼핑 · 명동 SS 패션매장 · 대한루자신락사옥 · 제일은행 구본점 · 하이아트호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히텔 · 워커히호텔 · 숙조아남하이츠 · 세브란스빌딩 · 영도구청사 · 아주대 무속병원 · 제주중앙병원 · 보령제약사옥 · 중앙대학교 · 이화여대 · 외 100여 업체서중 |
|--|---|

세계전시회 출품

- '93동경 GOLD LIVING SHOW
- '93 서울 국제건축건설전
- '94 경향 하우징페어

- 푸마 방화셔터 국내 총판
- 전문건설업 · 창조 · 철물면허보유
- 국내유일 설계 · 제작 · 설치업체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
東樂産業株式會社

본 사 : 서울特別市 九老區 九老3동 15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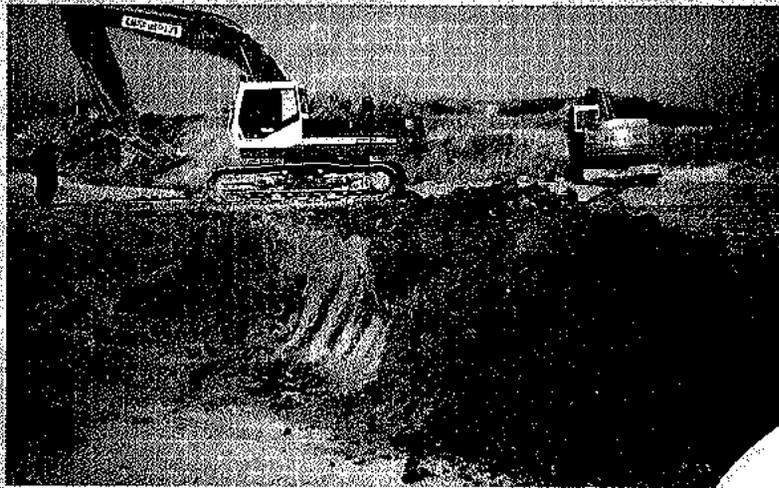
T E L : 838-4545(代)

F A X : 838-0474

공 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공단 156-14 B/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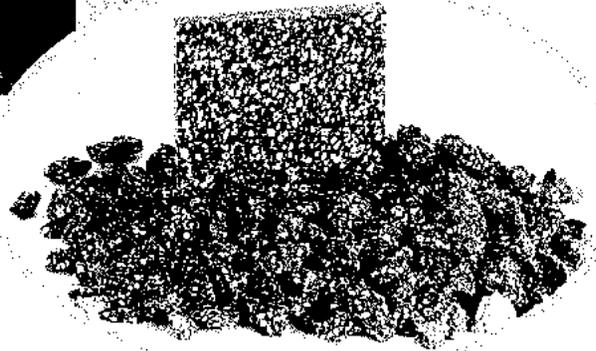
제조원 : **아주셔터공사**

황토방



磁玉山 황토방

맥반석을 첨가합니다.
 피부를 곱게합니다.
 건강에 좋습니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17년 전통 자옥산 맥반석



자석에 붙은 자옥석

磁玉山 건강 온돌재

자석에 붙습니다.
 수막을 차단합니다.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수면시간이 단축됩니다.
 건강에 최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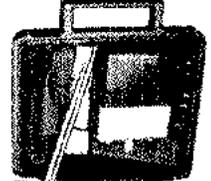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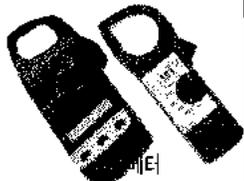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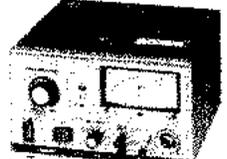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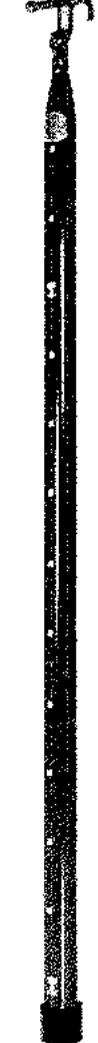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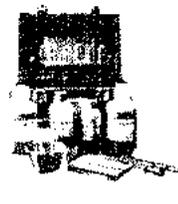


자옥산 세라믹스

계측기 및 전설공구

MULTI 누설전류계로 절연저항 비교측정, 누전사고예방, 10,000V 절연저항계 KYORITSU

전기감리 · 소방감리 장비 판매중

 누설전류계 M ϕ 40 m/m 0.01mA~10mA 누전사고예방	 유압식 단자 압착기 9H-150(14°~150°)	 전선압착기(유압식) EP 430(Y-35)	 유압식 절판현공기 SH-10(2" 3" 4")	 절지 저항계 디지털 41050~2000 Ω	
 누설전류계 ϕ 80 m/m 0.01~1,000A 누전사고예방	 유압 압착기 12호 A (14°~325°)	 유압 수동 펌프 HP 700A	 특고저압검전기	 절지 저항계 41020-1,000 Ω	
 COS MOS 가스 측정기 LNG LPG xP 702SA	 DIGITAL 소음계(1350) 35~130db	 DIGITAL 온도계(1330) 0.1~20,000	 비접촉식 온도계 ST-2P-18-400°C ST-6L-20-500°C	 비접촉식 온도계 2007 600A 750V 2002 1000A 750V	
 절연저항계 3213A 500V 1,000V 1,000V 2,000V	 디지털 미크로미터 234301 650V 1,000A	 절지 저항계 3235	 다기능계측기 MET500	 절연저항계 3165 500V 1,000M 3166 1,000V~2,000M	
 005 Alms 레온 가스 측정기 R134a R22 R12	 절연장갑	 장화	 50,000V 내전압시험기	 후크론식 절지 저항계	 특고압 COS 조작봉 3단 4M 5단 6M
 DC Hydrot tester 60kV 5mA	 절연유신속 측정기(HD 101)	 절연유 시험기(HDSS)	 계전기 시험기(8510)	 절저공구	 온도기록계 SR 1,000 UR 1,000 UR 1,800

취급 회사 제품

 KYORITSU KIKUSUI 내전압 시험기
 MULTI 누설전류계 MUSASH O.T 테스트
 IZUMI 압착기 HIOKI 계측기

 국산 메가 흑크메타 아쓰테스타 소방장비 차압계

YOKOGAWA 기록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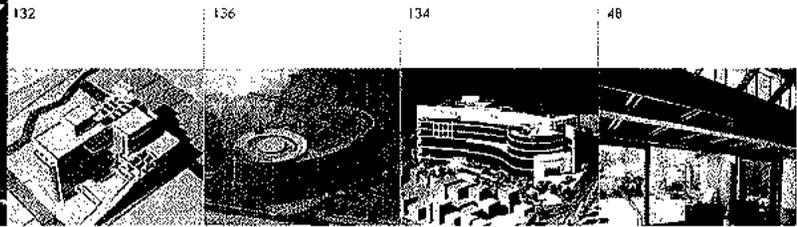
내전압 시험기 제작전문
현대 전기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99-1
 TEL : (02)279-0427, 278-3944
 FAX : (02)273-8758

차례 1998 03 347호



진도향토문화회관(류연창작)



발행인: 김영수
 편집기획: 편찬위원회
 편찬위원: 방철린(위원장), 송효상(부위원장), 동정근, 심영섭, 양남철
 편집·취재: 정효상, 조한국, 윤태일, 진현경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1965년10월23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U. D. C: 69/72(054-2) : 0612(519)
 인쇄인: 이봉수/정문사 (02)266-4555

Publisher: Kim Young-Soo
 Editor: Editorial Committee
 Editorial Member: Bang Chul-Lin, Seung Hehioh-Sang, Dong Jung-Geun, Shim Young-Sub, Yang Nam-Chul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06-8823
 U. D. C: 69/72(054-2) : 0612(519)
 Printer: Lee Bong-Sool(Cheong Moon Printing Co.)

칼럼	김대중 대통령 각하!	최영집	12
작품리뷰 / 진도향토문화회관	대담: 매스의 분할과 공간간의 상호관입	류연창	14
	비평: 전통적 지역속의 친근한 문화마당	신남수	26
		오세규	31
회원작품	한남동 다세대주택	삼우설계	36
	신사동 청학빌딩	함인선	40
	흥국생명분당사옥	부대진+김무현	44
	동암당	손두호	46
	태평로 빌딩	(주)간·삼건축사사무소	49
	천주교 오금동교회	박재환	52
	극동건축사옥	황규태+황재원	55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 [III] - 김순하(완)	천득염	58
기고	희망이란 판도라상자와 희생	김희곤	62
	건축사 행정처분에 대하여	박성근	64
	나진·선봉 기행	최동규	66
	2천년대 성당건축	박태형	120
테마기획 / 지역건축탐방 [3] : 아산·부여·공주	지역문화경관과 현대도시건축	정무웅	72
	백제문화권에 관한 소고(小考)	김역수	76
	아산·천안의 변천	신문기	81
	아산·천안 도시탐색	이재훈	85
	부여지역의 고대문화	이영훈	88
	역사도시 부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한필원	91
	살아있는 역사박물관 공주	이해준	96
	공주시도시계획, 관·학·민 협동의 도시계획은 가능한가?	조기호	100
	백제문화권의 현대건축	고인통	106
	좌담: 지역문화경관과 현대 도시, 건축		112
	건축마당	협회소식	
건축계소식			126
현상설계			132
인터넷 건축여행			137
통계(설계도시신고현황)			140
신입회원			142

김대중 대통령 각하!

건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결국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되는 가시적인 총체적 결과물이 건축일 수밖에 없음을 아십니까? 차체에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건축은 크게 다음 몇 가지의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문화 예술로서의 건축

건축은 필요과정과 생산과정의 동거나 목적에 상관없이 문화와 예술로서 시대를 대변하며 도시사회를 구성하고 역사에 남겨집니다. 이것은 총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건축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수립 전개되어 나가야 하는가를 말해 주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문화라는 것이 바로 세계를 지배하는 중요한 상품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문화로서의 건축은 세계의 역사 속에서 뚜렷한 흔적을 남기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우리의 건축유산을 지키고 남겨주려는 인식은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물론 이 난국에 첫째로 경제대통령이 되셔야 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문화대통령이 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 주십시오. 각하처럼 해박한 지식과 경륜을 지닌 준비된 대통령을 만나는 일이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와 문화는 삼두마차와 같아서 호흡을 같이 하면서 함께 달려야 그 성취가 극대화 될 것입니다. 건축의 문화로서의 정책을 수립해 주시고 장려해 주셔서 건축가들에게 문화 창작인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건축 환경을 넘겨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문화의 주역이 건축이 될 수 있다면 유관 예술분야와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더욱 상승 효과를 일으킬 것이고 세계적으로 한국 건축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도시 행정으로서의 건축

건축의 산업 규모가 국민총생산량의 13%를 넘고 있습니다. 건축은 이제 국민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이고 경제 행위의 중요한 기반임과 동시에 도시화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통, 환경 등의 제반 문제들이 건축 행정의 중요한 코드가 될 것이고 도시정책과 건축정책들의 효율적인 집행만이 민간 주도형의 건축에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사유재산으로서의 건축에 공공재산으로서의 사회성을 인식시키는 슬기로운 방법을 정비하여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자율과 창의를 건축 스스로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바탕이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건설 산업으로서의 건축

건축도 Software와 Hardware로 나눌 수 있으며 건축은 수많은 기술과 자재들이 모여 현장 생산을 통해 완성되는 종합산업입니다. 건축의 질을 얘기할 때 첫째로 중요한 것이 Software인 설계이기는 하지만 설계만 가지고 건축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의 품질과 건설기술 수준들이 집대성되어야 비로소 건축의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건설에 있어서 자재 산업과 건설기술 산업은 고도로 전문화되고 기술 집약적인 체제로 효율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Software인 설계까지 경쟁력을 높인다면 대기업에 예측시키고 건설의 휘하에 두겠다는 발상은 주객이 바뀌어도 한참 바뀐 얘기입니다. Software와 Hardware는 상호 보완 관계로서 일체인 듯 하나 견제균형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한 몸이면서도 저마다 지켜야 할 역할과 분야가 있습니다. Software는 나름대로의 동기와 명여가 주어져야 발전될 수 있는 분야이고 Hardware는 고도로 기술 집약적인 효율성과 경제성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일한 가치로 같이 취급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점을 깊이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대중 대통령 각하!

다 잘 아시는 얘기를 증언부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 문제는 이렇듯 여러 상반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졸속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결과를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문화로서의 건축을 만들고 지켜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욕을 주셔야 하고 건설산업은 활성화시켜야 하며 도시행정은 맑고 발전적이어야 합니다. 10년전 정치적 목적으로 급조된 200만호 건설이라는 공약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피드백해 보신다면 정말 건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동시에 또 각하같은 준비된 지도자를 주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경제불황, 건축불황이 건축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모두 이 시련을 통해서 단련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각하의 경륜이 건축계에도 미쳐 우리나라의 건축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발휘되기를 기원하면서 졸필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각하

80년대 각하의 '육중서신' 을 읽으며 각하의 애국심과 국민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애정에 눈물로서 감동했던 한 사람으로서 각하께서 각하로 호칭되어 마땅한 훌륭한 대통령으로 퇴임 후에도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격무에도 건강을 잃지 않으셔야 합니다. 철들고 처음 대통령에게 존경과 사랑을 보냅니다.

진도향토문화회관

작품리뷰 review

Jindo Regional Culture Center

류연창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류가람건축
Designed by Lyoo Yun-Chang

건축개요

위치	전남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1194-1번 지 일대
용도	관람 집회시설
지역지구	군민회관부지
대지면적	26,681.00㎡
건축면적	4,064.44㎡
연면적	4,550.26㎡
건폐율	15.23%
용적률	15%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철골트러스조
실내마감	바닥 - 인조석물갈기, 데코타일 벽 - 무늬코트 스프레이, 메를섬 스프 레이 천정 - 텍스코트 스프레이, 아미텍스
외부마감	데콜섬 스프레이
옥외바닥마감	석재타일
유리	착색패어글라스, 유리블럭
구조설계	목포대학교 김동석
건축설비설계	기계설비 - (주)한경설비엔지니어링 전기설비 - (주)한국전기기술사사무소 무대기계설비 - (주)원산정공 무대음향설비 - (주)아이테크산업 무대조명설비 - (주)영화스테이지엔지 니어링
감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류가람건축
시공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설계기간	'93. 11. ~ '94. 3.
공사기간	'94. 10. ~ '96. 10.

본란사진 : 박영채, Photographer : Park Young-Chea



모형

진도는 전통문화의 본고장으로 여항남도의 대표적인 고장이다. 이러한 전통문화의 중심지에 지역민의 문화예술적 욕구충족 및 전통문화계승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지역문화의 중심지로서 지역공동체역의를 함양하고자 이 향토문화회관이 계획되었다.

이 향토문화회관의 부지는 진도 도심진입로 변에 위치한 시각적 인지성이 높은 위치로 전면 25m도로와 부지 후면에 25m 계획도로가 개설예정 으로 되어 있어 두 도로 흐름의 연계성 확보 및 전통문화계승의 중심지로서의 진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계획에 주안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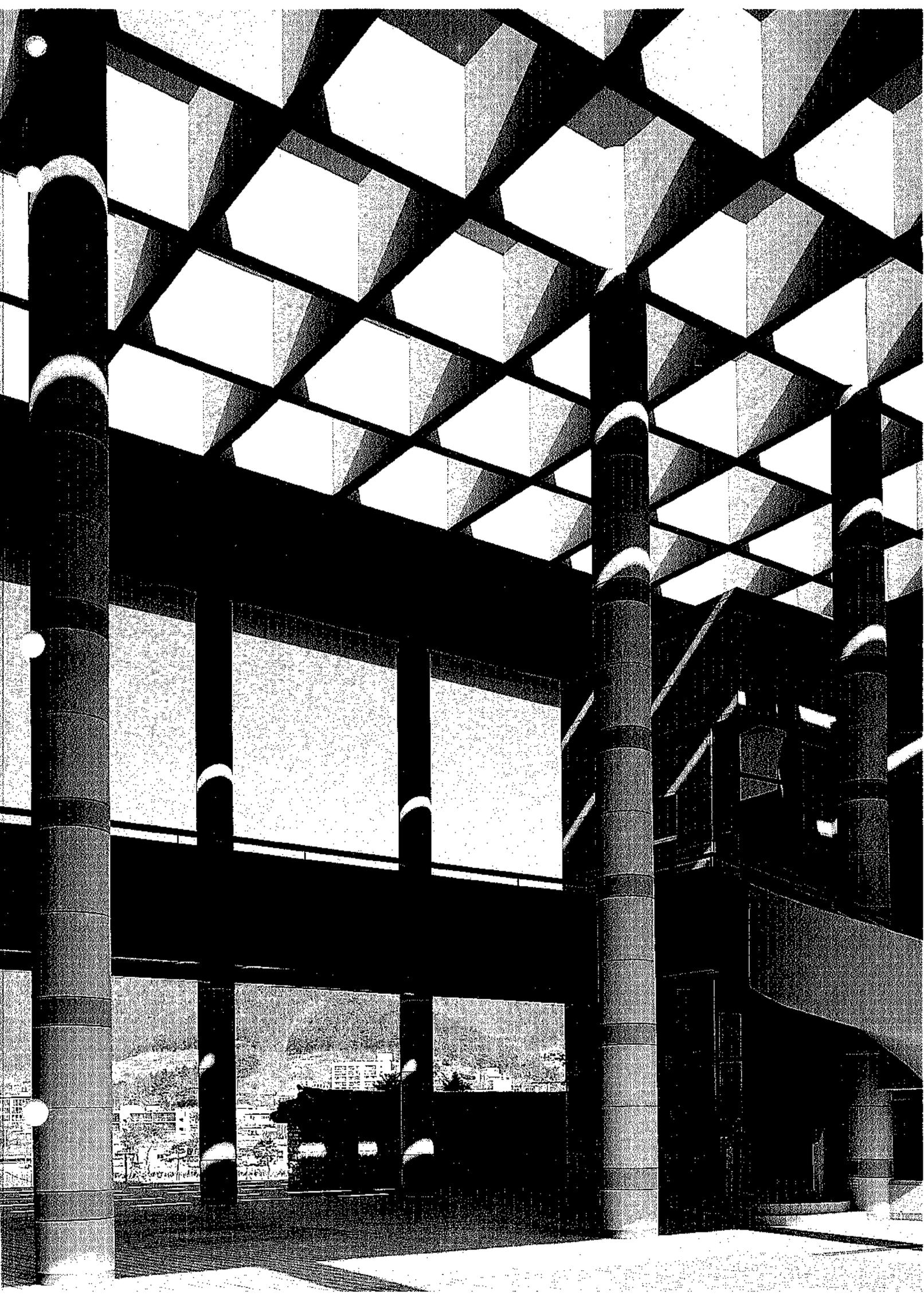
우선, 전후면 도로의 흐름에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당동과 전시관리동의 두 매스를 분리하여 가운데에 개성있는 오픈 공간으로서의 중정을 확보하여 전면도로 - 진입도로 - 축 전이의 상징광장 - 주광장 - 내부중정 - 후면도로의 오픈공간의 연속적인 흐름을 연출하여 무리없는 전후면 두 도로의 시각적·개념적 흐름을 강조하고 외부 오픈 공간과 내부 각실의 유기적인 연결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개념적 외부공간의 흐름으로 인해 이 건물이 진도 도심 진입도로와의 여가로 약간 틀어 배치된 그리 크지않은 건물이지만 매스의 다양한 조합으로 진도방문자에게 시각적 볼거리를 제공하고 여항 진도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이 건물 방문자에게는 기존의 다소 권위적이고, 경직된 전면 진입개념보다는 약간 측면의 진입 및 내부 중정에서의 극장 및 전시동의 접근동으로 편안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어 지방화시대의 시대이념과도 흐름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기능계획에 있어서 가운데 중정을 중심으로 강당동과 전시·관리동의 분리는 방문자의 원활한 동선 분리가 가능하였고 두개동의 계단실 중앙부에 연결로를 설치하여 긴밀한 연계감을 유지토록 계획하였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휴게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면 주광장 진입전에 보차를 분리, 주차장은 차후 개설예정도로와 접근성을 고려하였고 주광장은 보행자만의 공간으로 소규모 옥외집회, 산책 및 만남의 장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건물 우측면에는 옥외 놀이마당 및 휴게공간을 마련하였다. 지하층은 선큰 기둥을 도입하여 자연채광과 통풍의 환경친화적 계획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대강당동은 문화·예술 활동의 공간으로 전시·관리동은 1층에 전시실과 민속실을 배치하여 전시공간과 유물전시에 활용할 수 있게 하였고, 2층에는 소강당과 사회단체 사무실을 두어 정적 공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특히 소강당은 강연회와 지역주민들의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조형계획에 있어서도 기능적으로 분리된 강당동과 전시관리동 매스 사이에 확보된 중정에 피로티 개념의 지붕을 씌워 두 매스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였고 원편에 메뉴먼트 타워를 세워 균형있는 조형을 갖추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전통문화계승공간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기 위하여 분리된 두 매스는 현대적이고 단순한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반면 중정에는 전통 지붕의 개념을 현대적디자인으로 해석한 피로티 개념의 지붕을 씌우고 건물의 내외부 요소소스에 담장 및 격자문양 등의 오브제 등으로 한국 전통건축개념을 도입·반영하였다.

이곳 진도 향토문화회관에서는 매주 진도셋굿춤 등 전통예술공연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진도의 주요한 볼거리로 그 지역의 소득증대 및 전통향토예술 계승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 바란다.



Jindo, the home town of folk culture, has set upon, to meet the artistic requests of citizens and encourage the formation of a community through the succession of tradition, a construction of a local civic culture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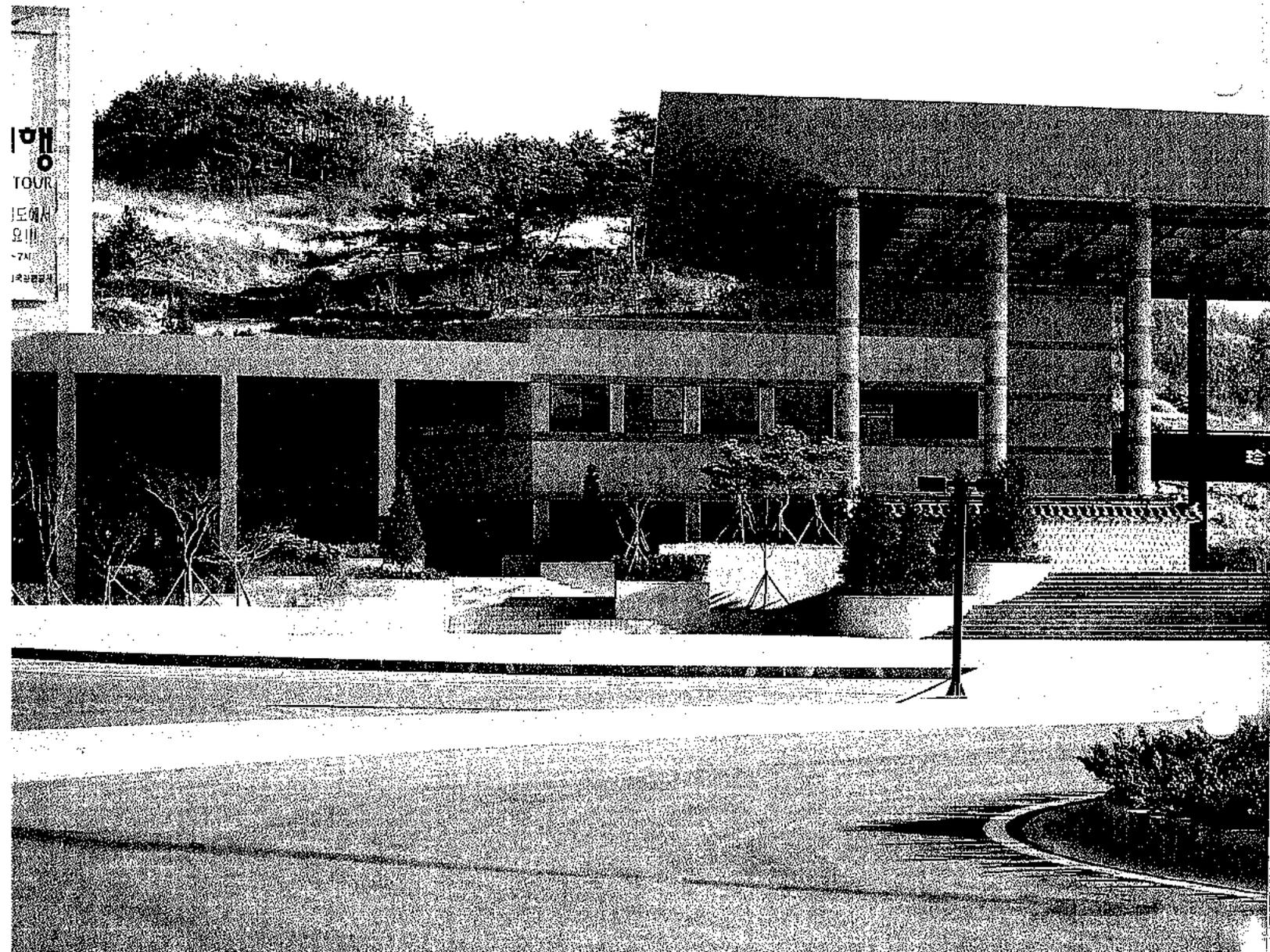
The site was located at the corner of a approaching road to Jindo, with high visual profile. Two 25m wide roads were to be constructed on the front and back of the site, which called for a layout that forms a linkage to these two roads. This object was solved by dividing the whole program into 2 parts - one for the auditorium and the other for exhibition and office space - thus creating a path that connects the two roads, which itself performs as an open space that arranges the organic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buildings and the outside. This conceptual flow of the exterior spaces has created an acute angle between the building and its approaching road, but the not-so-huge mass with variant harmonies provides a warm welcome to the visitors of Jindo. A rather authoritative method of a frontal

approach has been replaced by a diagonal one, which then gets connected to the inner plaza that connects the various facilities with ease. We hoped it could meet the zeitgeist of the age of regionalism.

The distribution of programs was arranged with a plaza in the middle, enabling easy access to the facilities, and a connecting road between the two stairways of the masses heightened the overall correlation.

To provide the local people with a comfortable rest area, the access to the front main plaza has an independent set of pedestrian road that makes the plaza available for various uses of small assembly, promenade and meetings. To the right of the building was prepared an outdoor amphitheater and a rest area, and the road for vehicles was planned to be linked to the main roads to be constructed in a near future.

The basement area was put together with sunken gardens for



lighting and ventilation, and the large auditorium has the exhibition rooms and the folk room on the first floor, while the second floor has the small auditorium, which could be used for marriage ceremonies, and offices for social institutions.

The formal aspect of the composition was furnished by a roof with a row of columns which balances and harmonizes the overall masses, and a vertical tower was added to the left.

While the two masses were modern, simple forms, the shape of the roof on the middle yard was a modern variation of a Hanok roof, providing a touch of historical value which was enhanced by the inclusion of traditional fences and window patterns.

This Culture Center now houses various cultural activities every week. May it play a good part in the successful inheritance of cultural values and growth of the regional income.

Site Chulla-Namdo Jindo-gun Jindo-ub, Dongoye-ni 1194-1

Function Auditorium Facility

Site Area 26,681 m²

Building Area 4,064 m²

Total Floor Area 4,550 m²

Building Coverage ratio 15%

Gross Floor Ratio 15%

Total Floors 2 Stories, 1 Basement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Steel Truss

Structural Design Kim Yong-suk, Mokpo University

Mechanical Installation Environmental Installation Engineering

Electrical Installation Hankook Electrical Engineering

Electrical Installation for the Stage Wonsan Machines

Sonic Installation for the Stage Itech 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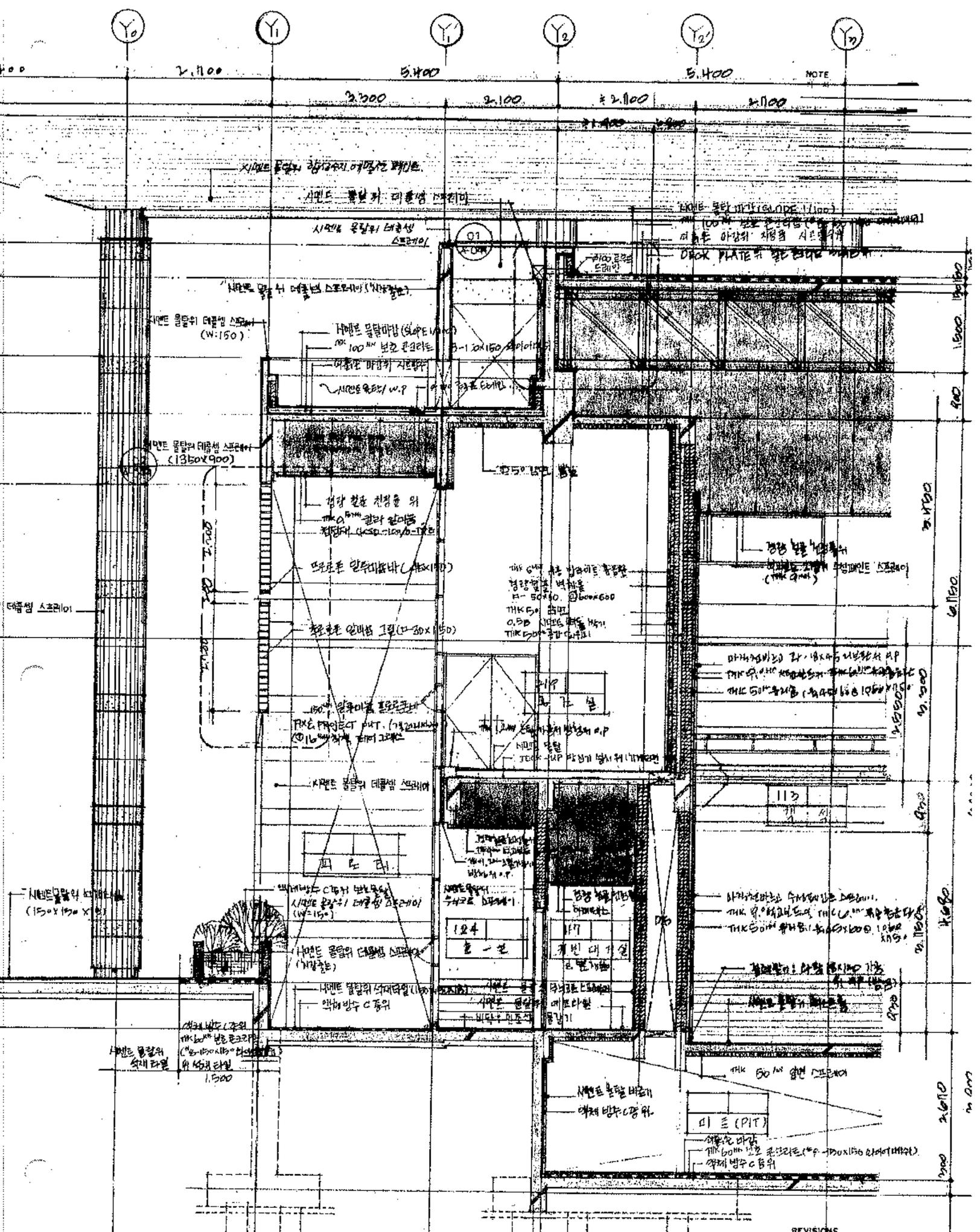
Lighting Installation for the Stage Yunghwa Stage Engineering

Construction Daiji Construction Co.

Design Period Nov 1993 - Mar 1994

Construction Period Oct 1994 - Oct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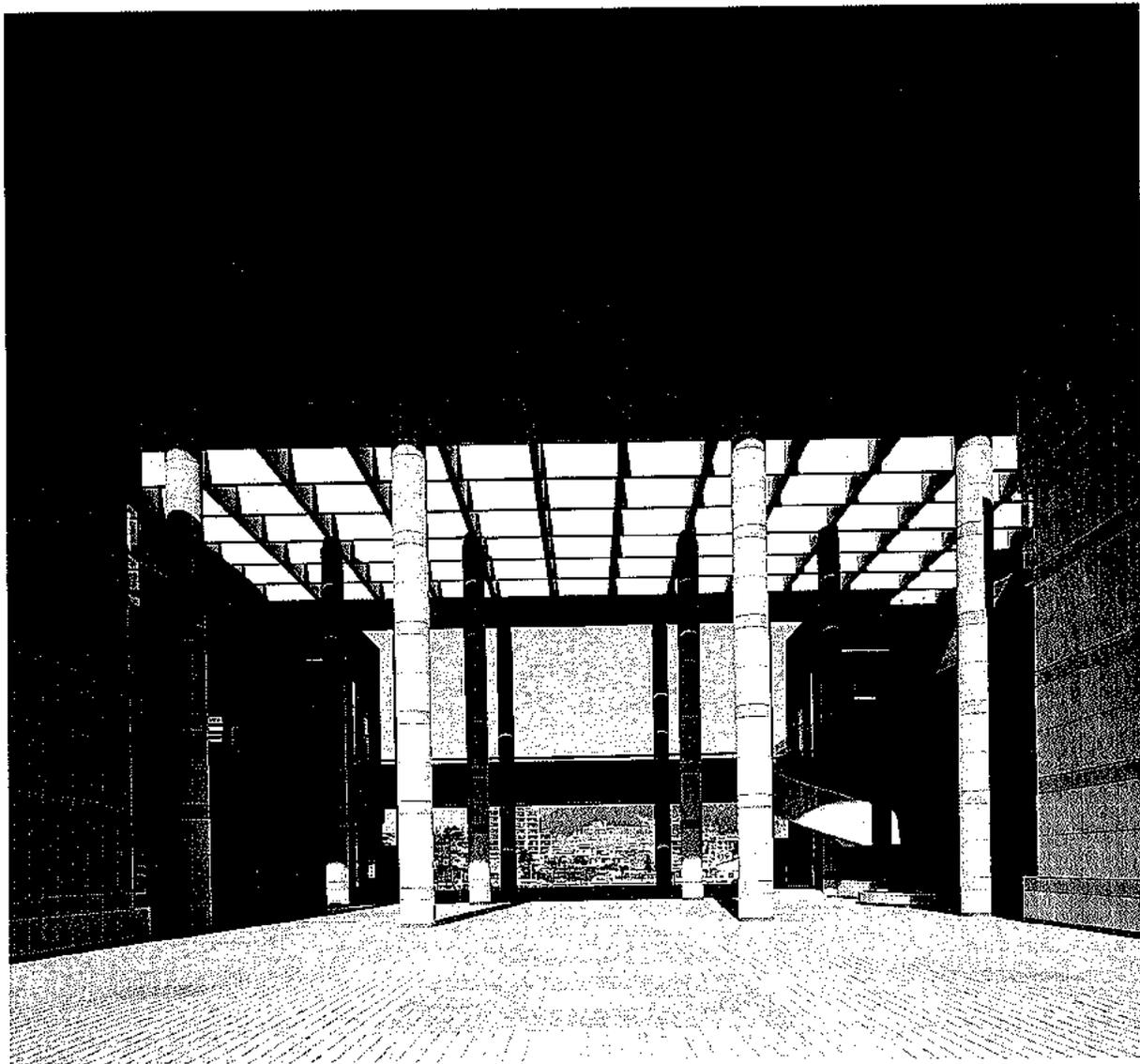




01
A-043
(대강동) 5단면 상부도 (2)
Scale: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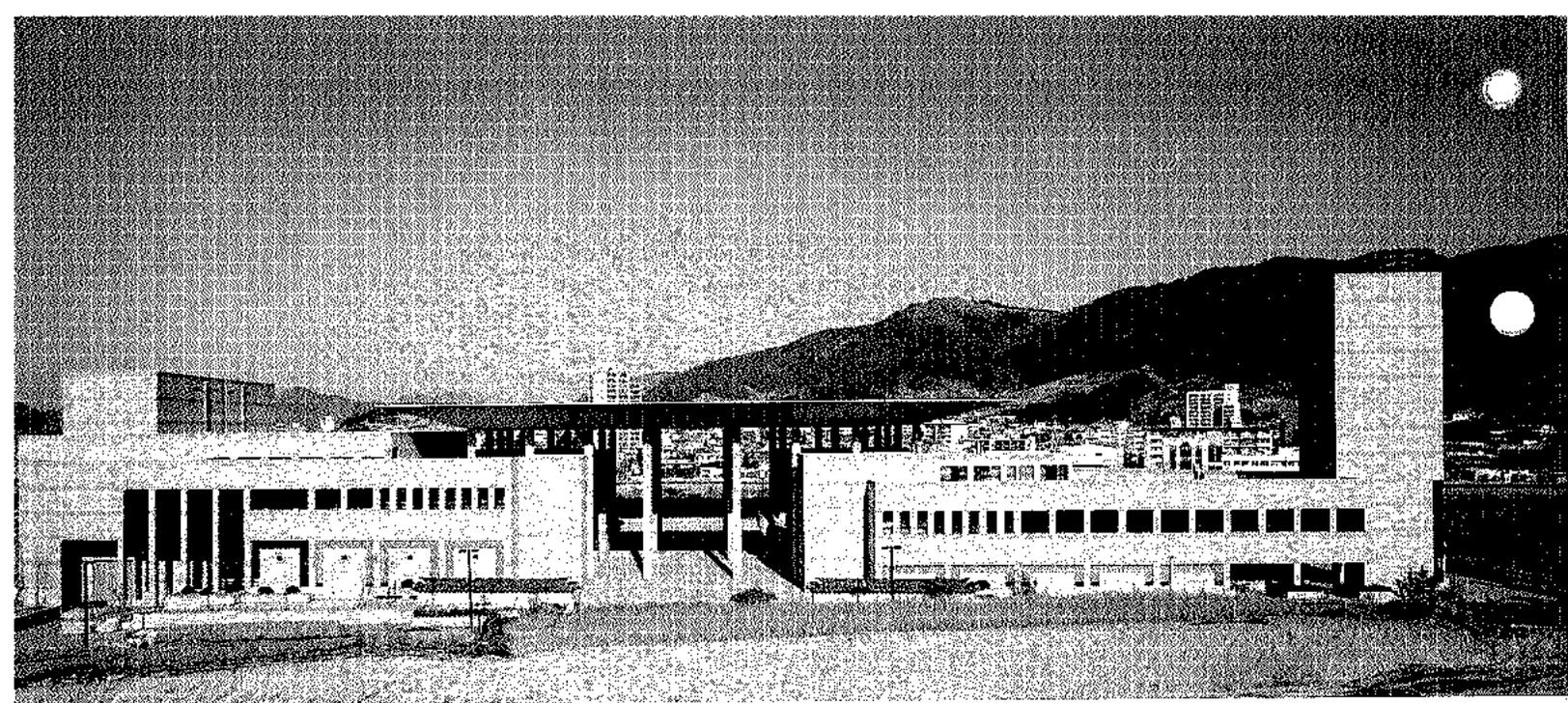
REVISIONS

수	정	일
1	2017.07.27	2차도면: 2단면 상부도 → 5단면 상부도
2	2017.08.02	대강동 5단면 상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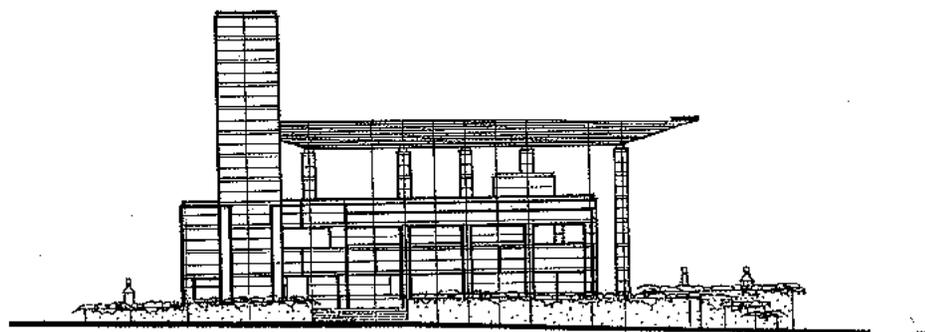


남동측 부진입로에서 피로티를 통해 전면을 바라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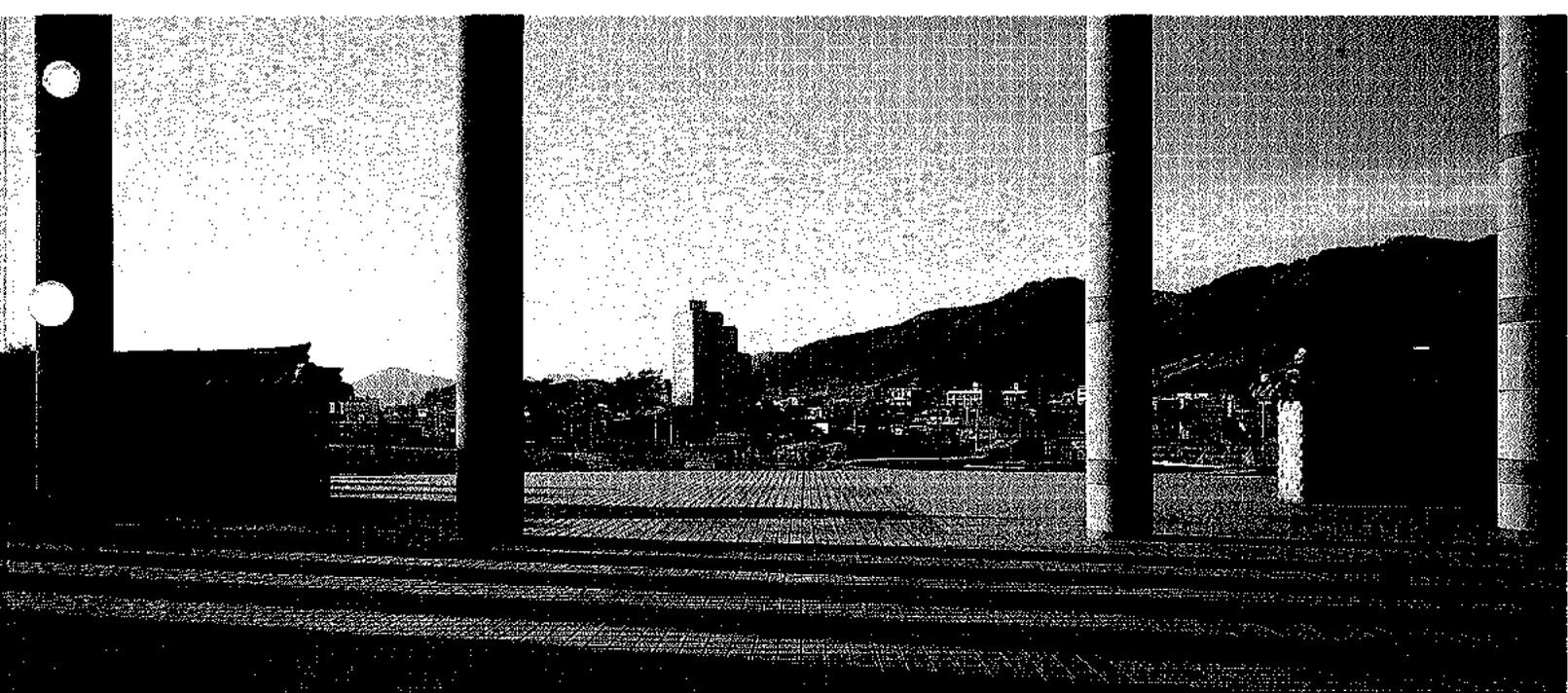
남동측 배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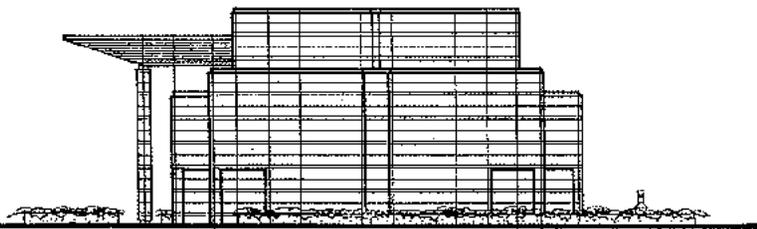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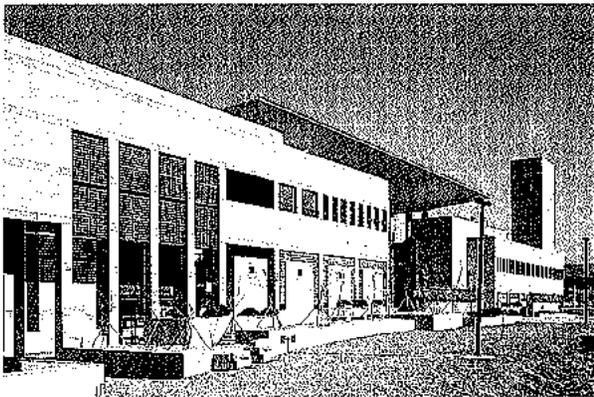
서쪽 놀이마당에서 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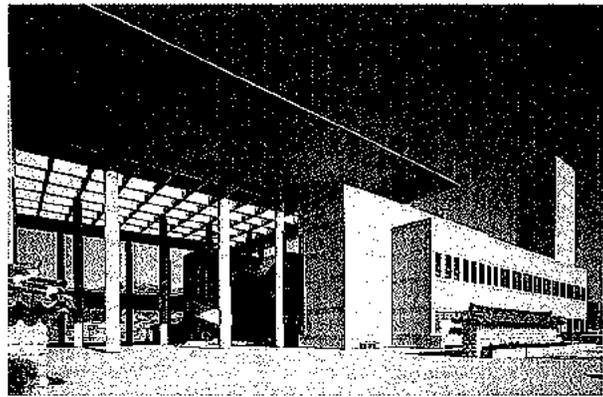
피로티에서 전면 주광장쪽을 바라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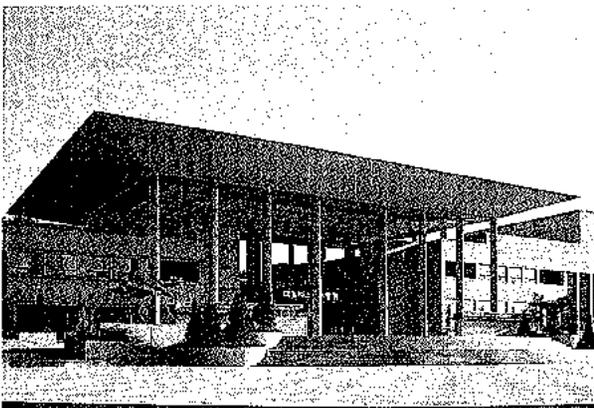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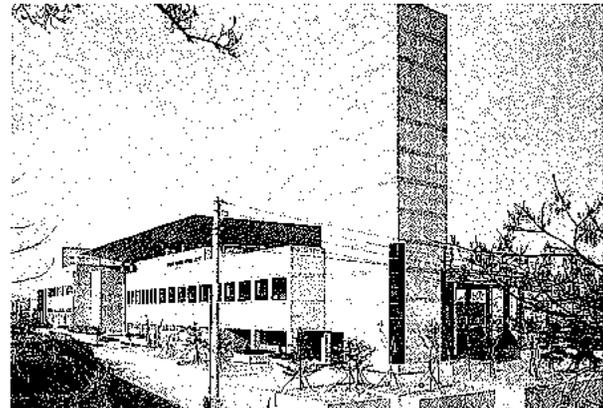
남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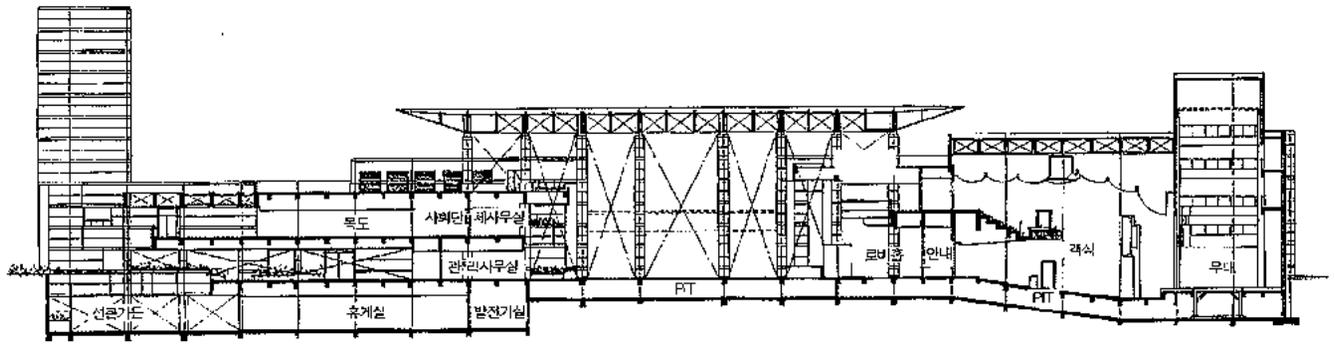
남측에서 본 피로티와 관리동



북서측에서 본 전면 피로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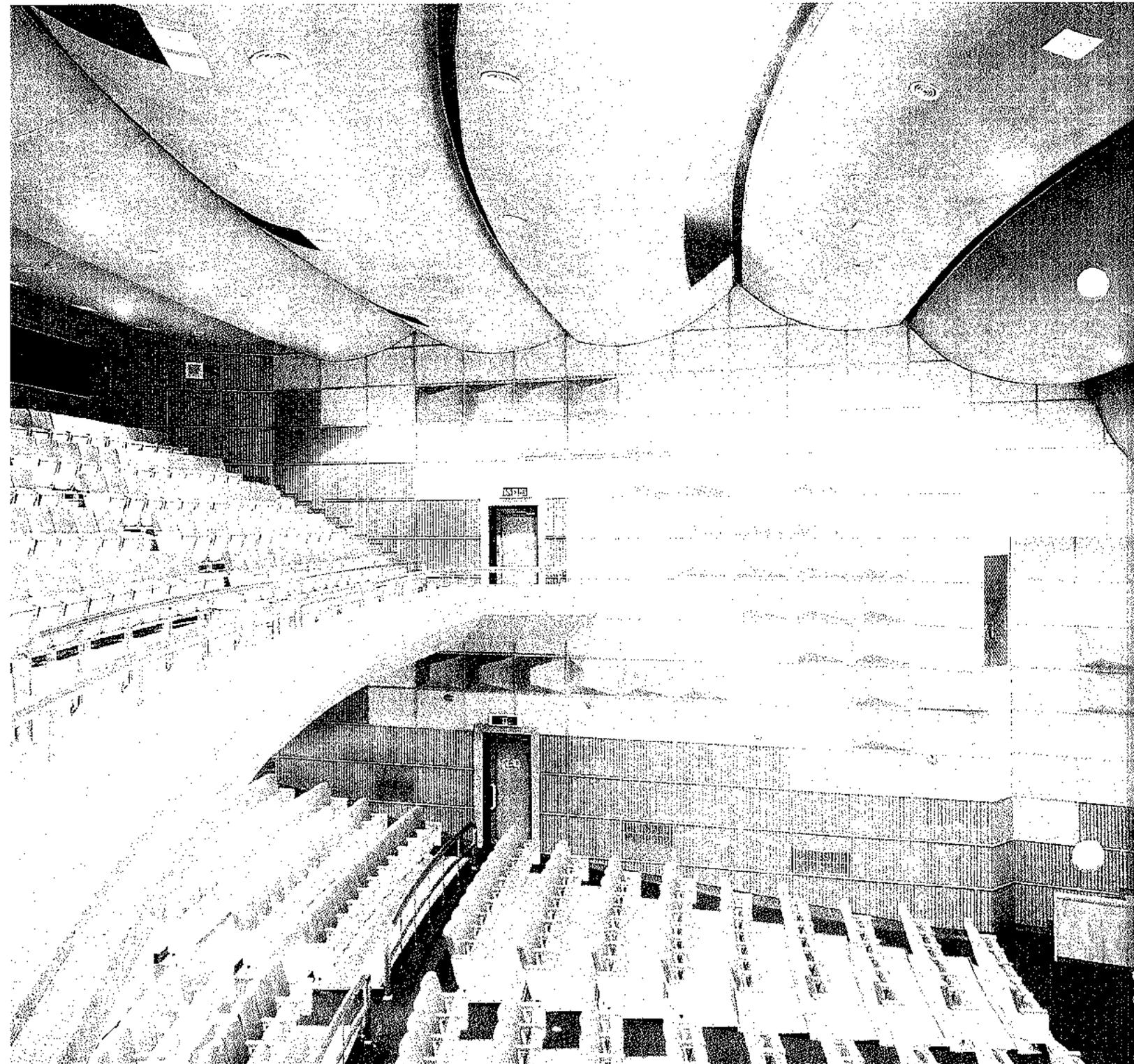
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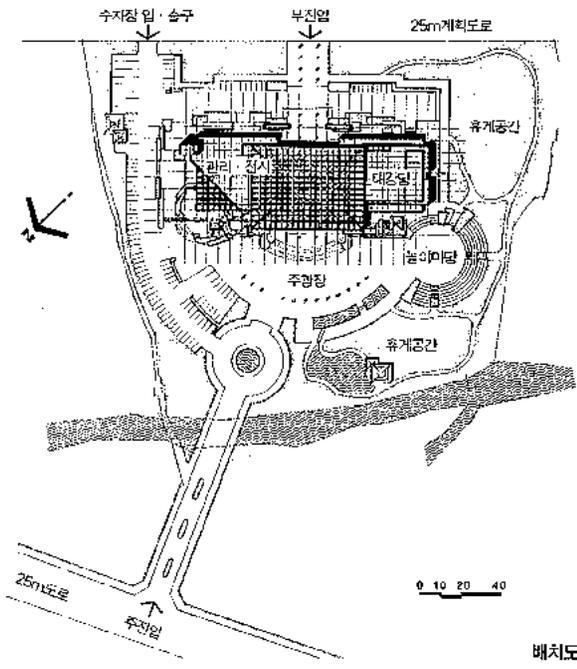


0 5 1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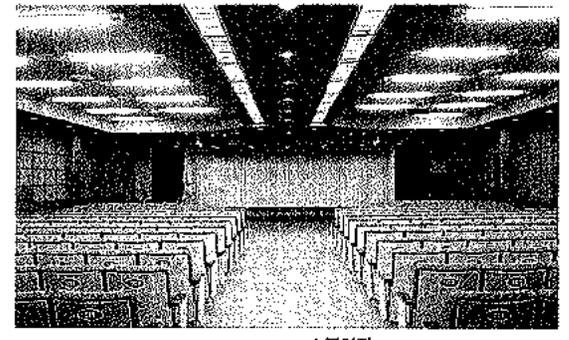
평 단면도

대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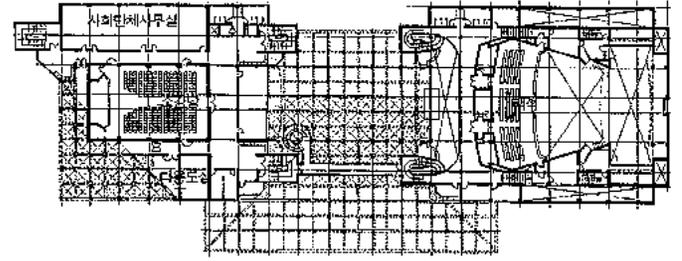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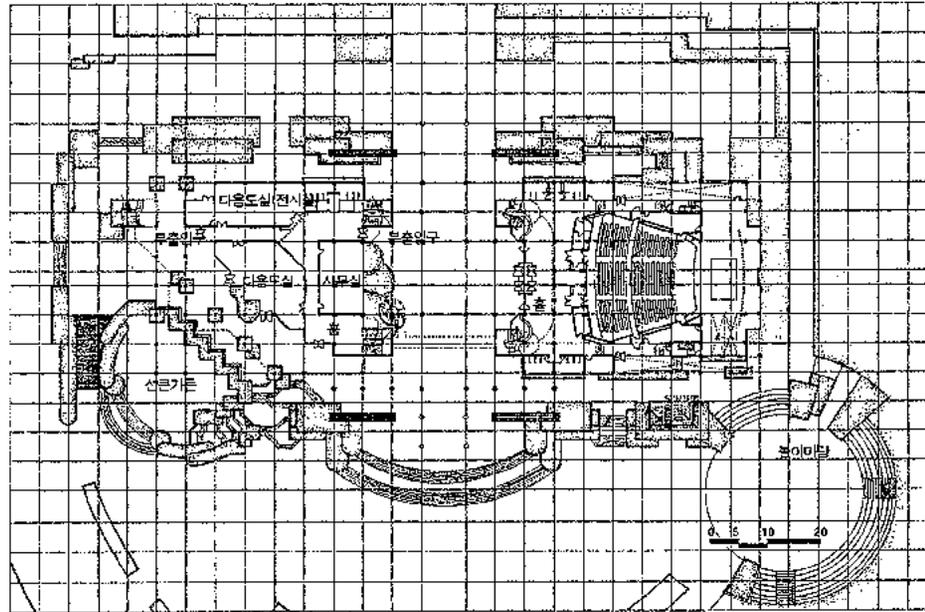
소공연장



2층에서 본 대공연장 현관 홀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매스의 분할과 공간간의 상호관입

The Fragmentation of Masses and The Interpenetration of Spaces

대담자 / 신남수(전남대 건축학과 교수)

설계자 / 류연창((주)종합건축사사무소 류가람건축)

by Shin Nam-Soo & Lyoo Yun-Chang

일 시 / 98. 2. 11(금) 14:00~

장 소 / 류가람건축



대담광경(좌: 류연창, 우: 신남수)

신남수 _____ 광주에서 건축활동을 하신 지 20년 가까이 되시죠?

류연창 _____ 에, 그렇습니다. 광주에선 약 17년 정도 건축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신남수 _____ 이제 류소장님도 '하늘의 뜻을 알 나이' 를 넘어서신 것으로 압니다. 광주에서 만17년 가까이 건축을 하시면서 느끼신 점도 많으셨을테고 그동안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하셨을텐데요, 먼저 류소장님의 건축에 대한 생각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류연창 _____ 건축을 시작한 지는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건축가 선생님들 밑에서 건축수업을 받은 기간이 10년 정도 됩니다. 그 기간 동안 한국의 현대건축을 이끌어 오셨던 김종업, 김수근 선생이나 이희태 선생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그분들중 한 분을 잠시동안 모시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대건축의 초창기에 있었던 기능주의 건축이나 근대건축의 경향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그후 80년대 초에 우연히 고향인 광주에 모 프로젝트의 스케치를 해주려 왔던 것이 계기가 돼 광주에 사무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열심히 헌답시고 하긴 했으나 특별히 제자신의 어떤 건축관을 심으려 했다고보다는 건축인으로서 건축을 대하는 애정과 건축의 기능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 건축예술의 흐름을 좀더 나은 쪽으로 가져가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건축인들이 좀더 굳은 의지를 갖고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는데 보다 큰 의의를 두어야 한다는 평소의 생각에 따른 것입니다.

신남수 _____ 광주에서 활동하시는 동안 지금까지 의료시설이나 학교시설, 상업시설 등 다양한 건축을 다

루어 오셨는데 오늘 좌담의 대상인 「진도향토문화회관」을 설계하게 된 배경과 이 건축물이 갖는 문화공간으로서의 특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갔는지 말씀해 주시죠.

류연창 _____ 진도향토문화회관을 설계하게 된 동기는 현상설계에 참여해 당선작으로 선정된 것이 인연이 됐습니다. 진도는 호남권 남도문화의 중심지이자 국악이나 서예 등 전통문화의 본고장입니다. 큰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그런 전통문화의 중심지에 보다 한국적인 문예활동의 중추시설을 건립코자 했습니다. 진도향토문화회관은 650석 가까이 되는 대극장과 연극이나 결혼식, 각종 회의 등 소규모 행사를 벌일 수 있는 250석 규모의 소극장을 갖추고 있으며 이외에도 전시동과 관리동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건물은 진도군민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서, 휴게공간으로서의 작은 '터' 라 할 수 있습니다. 진도적인 것을 찾는다고 보다는 한국적인 요소 자체를 어디에다 부여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중점을 두고 계획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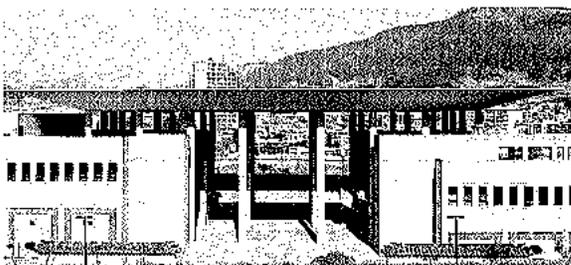
신남수 _____ 사실 '문화는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기도 힘든데 그것을 형상화하는 과정은 더욱 힘들었을 줄로 압니다. 제 경우는 문화를 정적으로 봤을 때 '삶의 방법의 표현' 으로 보고 있으며 동적으로는 '어떤 사상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 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도향토문화회관이 진도라는 지역성을 가지려면 당연히 삶의 방법의 표현이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이건 지역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지녀야 진정한 문화회관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류소장님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 특별히 신경쓰셨고 또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았는데 어떠신지요?

류연창 _____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크게 보면 중정은 진도 군민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그 오른쪽엔 대극장 메인홀이, 왼쪽에는 관리동과 전시동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예식 등 소규모 행사를 벌일 수 있는 소극장 밑에 선관을 두어 이곳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담소를 나눌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지하층 레스토랑과 더불어 옥외에서 소규모 집회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외부에는 양쪽 건물사이의 중정으로 오르면서 피로티개념이 도입된 격자형 지붕을 접할 수 있습니다. 앞쪽 마당은 모든 진도 군민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곳이며 오른쪽엔 민속행사가 가능한 놀이마당을 두었습니다. 대지 전면에는 진도 도심권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도로가 놓여져 있고 대지 후면에는 25m 계획도로가 있어 건물전체의 전면과 후면이 균형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처음엔 앞마당에다 작은 수공간을 두려 계획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실현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조경에 있어선 향후 좋은 수목들이 들어서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앞쪽에 있는 15m 폭의 작은 개천과 전면도로를 브릿지로 연결했습니다. 건물이 들어서기 전엔 대지전체가 거의 논밭이었던 탓에 전면과 배면의 도로레벨에 맞춰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설계에 임하므로써 지금의 마당형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산에 맞춰 건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으나 다만 최근에 와서 부근 일대가 도시계획이 진행돼 가고 있어 그나마 도시계획의 일환이 된 것에 다행스러움을 느낍니다. 도로부터 만들고 후에 택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건축하는 사람과 협의의 통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신남수 _____ 이 건물은 진도 도심진입 과정에서 눈에 띄는 랜드마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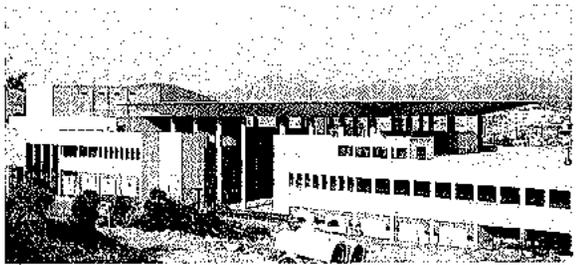
류연창 _____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건축물의 형태나 기능보다는 작은 휴게공간, 다시 말해 진도 군민을 위한 문화공간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설계를 했습니다. 주어진 대지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군민 모두가 즐기고 쉬면서 문화와 친숙해질 수 있을까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기능적인 면에



선 우측에 대극장을 두고, 좌측에 소극장과 관리·전시장, 식당을 두어 두 개의 큰 매스로 분리시키고 그 중앙에 중정을 두었습니다. 오른쪽 650석 규모의 대극장은 상시 활용되는 공간이 아니기에 사용할 때에만 오픈시키므로써 관리가 용이하도록 했으며 대지를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건축물이 전면도로와 배면 계획도로간의 흐름을 차단해선 안되겠다고 보아 매스개념 자체를 가운데 중정을 둔 상태에서 피로티로 되어 있는 지붕을 씌웠고 양쪽 매스가 정확하게 조율이 되면서 왼쪽에 모뉴먼트타워가 좌우의 균형을 맞추도록 했습니다. 외부마감재로나 창호재는 현대건축의 조류에 거부감이 없는 재료들을 선택했고, 중정쪽에서 바라보이는 일부 커튼월과 건물 외부 하나하나에서 기동을 노출시킨 피로티 개념, 모든 군민들이 걸어다니는 공간, 그런 것들을 연출시키는데 주목적을 두었습니다.

신남수 _____ 앞에서 류소장께서 '건축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접근방법이 건축관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류소장의 건축작품들을 보면 나름대로 유연창류(類)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매스의 분할이라든지, 자연스러운 기능의 배분, 직제된 수평선, 장식없이 세로로 길게 뚫린 창 등이 유연창 건축의 특징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래에 와서 몇가지 새로운 특징적인 것이 나타나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솔리드를 중시하면서 보이드된 공간에 대한 배려가 다소 약했다고 보는데 진도향토문화회관의 경우 가운데 강한 안상의 앞마당을 두므로써 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또 류소장께서 평소에 주장하셨던 대로 피로티를 과감하게 도입한 점도 이 작품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중 하나입니다. 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건축언어들, 즉 입구부분의 네 개의 담장이라든가, 장식적 격자창 등은 원숙의 경지에 이른 류연창류(類)의 새로운 시도일까요, 아니면 일시적 외도인가요?

류연창 _____ 최근의 여타 제 작품들에서 수직으로 올라가 있는 거동과 거동 사이의 공간에다 한국적 문양의 격자를 창문앞에 설치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진도



진도향토문화회관

향토문화회관에서 양쪽 측면에 일부 격자로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커튼월로 되어 있는 개념에서 강한 햇빛을 차단하는 효과와 더불어 우리의 전통건축을 현대건축에 도입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격자문양을 자연스럽게 두어 조금이라도 한국적 문장실을 통해 안에서 창너머로 내다 볼 수 있도록 한 개념을 조금씩 조심스럽게 도입해 보았습니다. 또 건물 내면 요소 요소에 한국적 답장을 두었는데 이는 수직으로 된 열주와 수평으로 된 담장과의 조화를 통해 현대적 건물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것을 찾고자 한 시도라 하겠습니다.

마당쪽에서라든가 건물 부분 부분에서 우리것들을 좀 더 표현해 보고 싶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전부 반영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계획 당시보다 담장높이가 높아진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병원이나 학교 등 그동안 해왔던 제 작품들 대부분이 기능이 뚜렷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병원의 경우 고객이라 할 수 있는 환자와 진찰을 맡는 의사의 동선 흐름이 정해져 있기 마련이어서 건축물의 기능이 그러한 프로세스에 맞게 되어야 하고 호텔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고객동선과 서비스동선이 기능주의적인 것을 만족시키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호텔이나 병원 등은 대지여건에 따라 큰 디피컬티 라운드나, 직선인가의 차이일 뿐 매스가 큰 변화없이 정해져 있는 만큼 매스분류를 우선 정확히 해야 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교실들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최근엔 학교건물도 학생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의 배분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건축에서도 중정이나 피로티 공간들이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현대건축에 있어 어디까지가 근대건축이고 그 밖의 사조는 또 어디서부터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상업주의적 건축의 흐름 속에서 일부 작가들이 다른 것들을 찾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깊게 찾아내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신남수 _____ 류연창류(類)를 하나 더 꼽는다면 형태전체를 오브제로 보아 매스를 중요시하면서도 눈높이에서 자기자기한 변화를 중시하는 이원성을 들 수 있을텐데 이 작품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보여집니다. 특히 이 작품에선 눈높이

이에서의 자기자기한 느낌 뿐만 아니라 전체 전면 매스에서 느끼는 안정감과 슬리드의 중후함이 엿보입니다. 안마당에서 양쪽건물을 본 느낌은 여성적이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선 과다자인 된 부분도 없지 않은데 이를 이 작품의 특생이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류소장님의 외유내강의 표출이라 봐야 할까요?

류연창 _____ 건축에는 확실하게 정해진 해답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작품들중에는 가끔 건물내에서 느끼는 것보다는 건물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자기자기한 것들이 많이 표출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작품에선 양쪽에 두 개의 큰 매스를 두고 가운데 중정과 안마당과의 연결고리로써 앞쪽에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자체를 아무 장식없이 자기보다는 양쪽으로 대칭되어 있는 느낌 속에서 그것들이 분산돼 가는 자기자기한 꽃대들의 흐름과 또 그 앞에서도 일부 보여져 있는 피로티의 개념 자체를 같이 연출시켜서 조금은 위의 햇살에서 비취오는 흐름을 차단하고 가리고자 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만족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하나의 광장이기에 조금은 과장되게 자기자기한함을 표현해 본 것입니다.

신남수 _____ 이 작품의 전체적인 느낌은,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본 것일지언만, 류소장님의 기존의 다른 작품보다는 좀더 발전된 형태라고 보고 싶은 것이 전체형태는 기능적인면을 따라가고 있는 듯 하지만 이 작품의 내용속에는 안마당을 중시하고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상호관입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간간 상호관입의 절묘한 수법은 남도인의 정서를 잘 표현해내고 있는 듯 합니다. 따라서 류소장께서 지금껏 보여주었던 기능주의적 사고가 이제는 한국사람들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전이되어 가고 있고 또 다른 프로젝트인 동신대학교 문화회관에서 표출됐듯이 전에 없이 내·외 공간의 상호관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나타내셨는데 이 점이 앞으로의 류소장님의 작품활동에 어떤 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광주과학고등학교



광주과학고등학교



광주광역시 교육청 도서관(동명동)

류연창 _____ 금방 말씀하신 동신대문화회

관을 비롯해 최근에 문화시설을 몇 작품 하게됐지만 실은 학교 졸업 후 이화태선생님을 모시고 일할 당시 정충동 국립극장 소극장 무대의 음향과 실링 등을 접하면서 그때부터 우리 문화공간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이 좋겠단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의 문화회관 작품들은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문화공간이란 특수성이 있어서 다른 변화를 추구해 보았던 것으로 조금은 다른 의미에서, 다른 시각에서 디자인 요소를 찾아내 보겠다는 생각이 가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변환점을 찾아보셨다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 알게 모르게 광주에서 17년간 활동하면서 점차 토착화된 저희 사무소가 광주적인 흐름 자체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쪽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의 표출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금은 더 한국적이고 광주적인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겠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얼마만큼 만족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제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신남수 _____ 근대주의 건축에서 탈피하겠

다는 류소장님의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또한 본질적으로 근대건축의 실패를 광주건축으로 대처하겠다는 선언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이 건물을 보면서 너무 강렬한 기념비적 성격, 다시 말해 랜드마크적 성격 등에 대해 조금은 거부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실제 군단위 도시에서 650석 규모의 대극장을 일년에 백회이상 사용한다는 것에 의문을 가졌고 이것이 진도문화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처음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이 건물의 현상설계 당시 저도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었습니다만 그때 이 건물이 기능적인면에서 명쾌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던데 반해 프로그램 자체가 관리 면에서 잘 될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용률이 높은 것을 보면서 참 잘 풀어나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극장 얘기가 나와서 애굽니다만 또 군단위의 문화회관으로선 다소 고급스런 무대장치에 비해 실내 방음판을 모두 회색으로 처리하셨는데 무슨 특별한 이

유라도 있었나요?

류연창 _____ 사실 극장홀은 공연직전까지

차분하고 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도록 내부의 벽체디자인에 목재격자를 도입하였습니다. 코펜하겐 리브를 사용하여 나무의 결 그대로 가져갈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해야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채광의 흔들림이 없는 정적인 색으로 회색을 선택했습니다. 만일 코발트나 노랑, 적색계통의 다른 색을 썼다면 들뜬 분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고 조명 역시 햇빛과 달리 실내조명과 잘못 조화되면 관객들을 들뜨게 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안식을 주고 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해내기 위해 회색을 선택한 것입니다. 대신 천정은 조명을 끄고 난 다음에도 반사가 되지 않도록 베이지색 계열을 사용했고 윗부분 음향반사판 일부도 베이지색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벽면 디자인 요소 몇가지에는 다른 색깔을 주어서 균형을 맞추고자 했는데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제대로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메인로비 같은 곳은 예산문제 때문에 밝은 색의 무늬코트 뿔기 페인트워크로 처리하였고 바닥도 비교적 비용이 저렴한 인조석 물갈기로 했습니다. 외부도 처음엔 석재로 계획했다가 결국엔 페인트 뿔기 마감처리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료에서 오는 질감을 얻기가 어려웠고 전체적으로 매스공간과 그의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조화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군단위의 도시에서 이만한 문화공간을 건립할 수 있었던 데는 클라이언트측의 열의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설계자인 저 역시 여건에 맞춰 최선을 다한 결과라 하겠지요.

신남수 _____ 말씀을 듣고보니 프로젝트가

완성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대해 축하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끝내시면서 아쉬움도 많으셨을테고 자부심 같은 것도 느껴셨을 줄 압니다만...

류연창 _____ 제일 아쉬웠던 것은 예산이



광주광역시 교육청 도서관



K씨 주택



K씨 주택

적든, 많은 처음 현상설계에 입할 당시의 면적개념을 살리면서 다른 조형성과 기능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았을텐데 쓰고자 하는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체면적은 1/4정도를 줄여달라는 요구가 있어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층에 계획했던 농수산물특판장 같은 시설들은 차후에 점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양쪽 두 개의 매스를 연결시키고자 계획했던 지하층의 회랑과 피로티가 빠지게 된 것이 아쉽습니다. 또 주민전체가 바라던 문화공간이 설계부터 시공이 끝날때까지 온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관계자들의 협조하에 무사히 진행됐던 것이 큰 보람으로 남습니다.

신남수 _____ 어려운 상황에서도 끊임없는 창작활동으로 오늘에 이르렀는데 오늘의 현안과 앞으로 건축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남다른 포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건축계의 전망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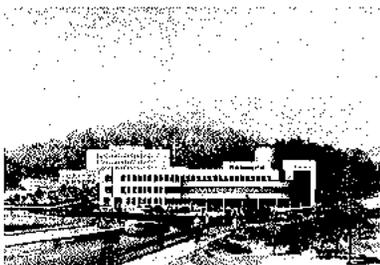
류연창 _____ 건축행위 자체는 건축과를 졸업하고 금방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므로써 사회적, 경제적, 예술적, 기능적 요소들을 종합 예술로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은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빨리 성장해 모든 좋은 것을 빠른 시간내에 만들겠다는 생각은 금물이란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열심히 자기 할 일을 다하는 것 자체가 건축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진정한 건축인의 자세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건축계 전망을 구체적으로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다만 우리의 건축이 그동안 자연스럽게 성장한 건축이 아니라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보여 주기 위한 건축, 무엇인가 만들었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려 드는 건축으로 커온데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현대건축을 이끌어 오신 여러 선배건축가들로부터 배워왔던 부분들이 오늘의 건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처럼 건축은 멀리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하는 동안에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또한 설계에 입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갖느냐도 중요합니다. 근래 외국건축가들의 국내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한국의 건축은 한국건축가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보며 건축적

인 계획이나 기획 정도는 우리 건축가들이 더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외의 엔지니어링 분야나 건설계약시에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계속 스테디해 나간다면 한국건축의 미래는 밝다고 봅니다. 이는 제 생각이라기 보다는 건축계 선배들의 생각이기도 한데 한국건축엔 발전적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신남수 _____ 일반적으로 건축은 종합예술이라고 합니다. 종합예술이란 말의 뜻을 '삶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만 건축도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야 할 것 같은데 이는 1세대와 3세대를 이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루이스 칸이 했던 말로 기억됩니다. 이제 건축활동기간이 30년을 바라보는 중년이 되셨으니 류소장님의 건축이 더욱 원숙해 지실 것으로 보는데 향후 건축에 있어 류소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류연창 _____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해온 설계 경험을 토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 이외에 더 무엇을 얘기할 수 있었습니까? 국제적 건축사조의 흐름을 더 공부해서 이를 원동력으로 보다 한국적인 요소들을 디자인에 도입하고 싶고 늘 배우는 자세로 작품 활동에 임하고자 합니다.

신남수 _____ 류소장님의 말씀은 건축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혼이 담긴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앞으로 류소장님이 우리 남도 사람들의 혼이 담긴 훌륭한 건축물을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장시간 대담에 응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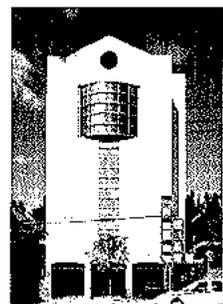
동신대학교 전산센터



윤씨 근린생활 시설



호남신학대학교 본관동



류가람건축 사옥

전통적 지역속의 친근한 문화마당

An Intimate Plaza of Culture In the Traditional Region

오세규 / 전남대 건축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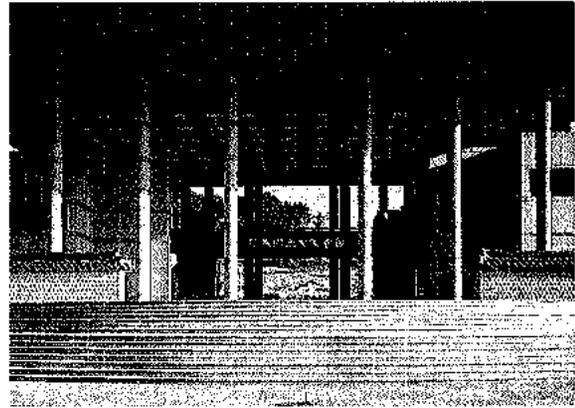
by Oh Se-Kyu

전남 진도는 한국화, 민속, 국악, 서예 등 남도 문화와 예술의 집산지이다.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독특한 특색과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쳐온 전남 진도에서 이에 적합한 새로운 문화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재 지어진 진도향토 문화회관의 구체화를 위한 시작은 현상설계를 통해 건축가 유연창 소장을 선정하게 되면서다. 건축가 유연창 소장의 현상설계 경기에서 당선 계획안은 초기부터 재정적 한계와 지역민의 추가적인 새로운 요구 등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게 된다.

건축이 현실로 실현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그 건축환경을 활용하는 대중적 가치와 건축할 수 있는 경제적 역량 등 제반여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진도회관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었으며 오히려 그 영향정도가 더욱 컸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필자는 현재의 결과물을 생각하기 전에 이 건축물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수정되고 변화되는 과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건축가와 지역주민, 그리고 추진 과정 등의 제반여건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지금의 건축물에 대해 조명코자 한다. 왜냐하면 지금에 제시된 이 건축물을 깊이있게 이해하고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전후과정을 살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필자는 진도향토문화회관을 비평이라는 관점에서 다루는데 있어 독자에게 찾을 만한 것을 많이 제공해 주고,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능케 하고자 건물자체의 이야기에 좀 더 충실하려 노력하였다.

초기 현상설계안

진도향토문화회관이 자리잡은 진도군 진도를 동위리 1194-1번지 일대의 입지는 군청에서 남동쪽으로 약 900m 거리에 있는 야산이었다. 그 주변에는 진도를 방면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건물들은 찾아볼 수 없으며 시방으로 트인, 원근의 산과 논밭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대지의 형상은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지만 간선도로에서 접근은 정면이 아닌 사선방향으로 접근로가 형성되어 있었다. 대지 후면에는 전면의 진입



주출입구 피로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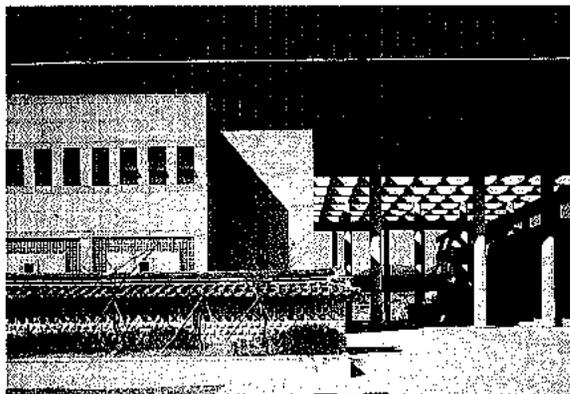
공간보다 레벨이 높아진 25m 계획도로가 통과할 예정이었다. 위와 같은 내용이 대지의 주변상황이었고 부여된 기능구성 프로그램은 집회(대강당, 소강당), 전시, 관리, 사무, 부대(판매, 휴게, 식당 등)기능 등이 요구되었다. 배치는 2개의 도로에 대한 정면성 확보를 위해 남동측(후면) 계획도로를 배치의 장축으로 설정하여 계획도로 경계선에 근접시켜 놓여진다. 따라서 진입측면은 정면이 아닌 좌측 사선방향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외부공간은 진입방향의 좌측에 주차공간, 정면에 주 광장, 우측에 휴게공간과 놀이마당을 부여하였다. 배치에서 나타난 가장 큰 의도는 관리 및 전시동(좌측)과 대강당(우측)을 2개 동으로 분리하고 그 사이를 옥외공간으로 오픈시켜 후면 계획도로와 연계시킨 점이다. 이는 주 진입공간인 전면과 새로 형성될 후면의 계획도로에서의 접근성을 부여하면서 전,후면 자연경관의 상호연계를 의도하여 차단시키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두 매스 사이를 묶고 있는 오픈된 옥외공간은 레벨업되어 후면의 계획도로와 연결된다. 따라서 전면광장에서 좌우측면으로의 진입은 레벨차를 이용한 선론공간을 형성하여 판매, 식당공간으로 진입이 가능하였다. 2개의 매스로 분절되면서 각 매스의 주 출입구는 가운데 있는 오픈된 중앙 옥외공간에서 연결되게 처리하였다. 기능배분 측면에서 우측 매스에는 1, 2층을 공유하는 대강당의 기능을 놓고, 좌측 매스에는 1층에 민속관(후면부)과, 전시실(정면부)을, 2층 주변에는 사회단체 사무실, 중앙에 옥상정원, 입구부에는 관리사무실 등을 위치시켰다. 2개의 매스에 부여된 기능상호간의 명확한 수평적 연결과 오픈된 중앙공간에 면한 부분에서 수직동선의 연결을 꾀하고 있다. 재료는 문화회관에 주로 사용하는 회강석을 제시하였다. 주 건물의 전·후, 좌·우에 전통요소의 답장으로 영역을 한정함과 동시에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며 대칭성이 강한 두 매스 사이에는 사야의 개방성을 주어 자연경관을 자연스럽게 전면 광장과 중앙의 오픈된 공간에 도입하고 있다. 유연창 소장이 초기의 현상설계안을 통해 제시한 개념에는 명확한 기능배분, 철저한 모듈러 플랜링에 기초한 구조개념, 명쾌한 공간구성, 단정하고 군더더

기 없는 깨끗한 형태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여기에는 가식이 없는 진솔한 정제미가 있었다.

새로운 요구와 수용과정, 그리고 또 다른 변화

어떤 계획안이든 처음의 개념과 의도한 생각들이 완벽하게 실현된 예는 드물다. 진도향토문화회관 역시 그 예외는 아니다. 건물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위해서 계획된 건축의 사회 경제적인 맥락에 대한 정보를 살필 필요가 있으며 어떤 장애가 있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축비평도 완성된 작품의 관찰에만 국한될 수 없으며 부과된 제약조건과 해결된 문제에 대한 완전한 지식 없이는 진정한 비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건축을 의뢰한 건축주, 이용자들의 제반 요구조건들과 건축가가 마주친 어려움이 최종적인 결과물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어떤 점에서는 건물자체보다는 차라리 건축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바라보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으며 개념의 생성, 변화, 수정해 가는 과정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그 건축속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규모의 축소, 선택된 재료의 변경, 대중적 가치의 강력하고 상징적 이미지 구축에 대한 새로운 요구는 초기의 현상설계안에 무거운 짐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요구들이 솔직하고 명쾌한 기능 구성, 정제된 형태요소와 구조계획, 처음 의도한 재료가 수정되기에 이른다. 규모의 축소로 인한 기능구성의 변화,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중앙의 오픈된 공간에 지붕요소의 도입은 가장 큰 변화요소였다. 이러한 요구를 건축가 유연한 소장이 어떻게 수용하며 대응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처음의 계획안에서 변화된 주요 내용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진입부가 사선으로 접근하는데 대한 처리이다. 간선도로에서 좌측 사선방향으로 방사형의 진입광장에 접근한다. 전면 방사형 광장과 연결된 선큰공간, 중앙의 오픈된 소광장과 연계시키기 위해 레벨업 된 데크를 형성한다. 여기에서 불가피하게 광장쪽으로 볼록한 라운드 형태의 계단들이 만들어지는데 좌측면의 사선방향으로 접근하다 보면 실제보다 훨씬



배면에서 본 대강당동 벽면과 피로티

더 시각적으로 돌출되어 보인다. 사선방향으로 진입되는 점은 정면에서 접근한 것과 유사하게 처리한 좌우대칭적 형태구성을 제시한 초기안과 비교해 좌측의 피로티 처리와 좌측지붕의 격자보에 의한 처리, 우측 무대부를 의식한 좌측의 모뉴멘탈한 형태요소의 도입 등은 또 다른 이미지를 연출한다.

둘째, 기능배분과 구성, 그리고 공간상호간의 연결방법의 변화이다. 이는 재정적 현실여건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부분이다. 특히 규모의 축소요구는 기능배분 측면에서 단위실의 규모변화와 총별 기능배분의 내용이 달라지게 하였다. 규모의 축소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초기안의 분명한 기능부여에서 구조체는 그대로 두고 가감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제 시각적 공간관입에 따른 깊이감과 시각적 여유로움을 제공하였다. 대강당은 초기안과 동일하게 기능상 1, 2층을 공유한 1개의 매스로 분절됐으나 관리 및 민속관 전시실은 반대쪽 매스의 1층으로 그 위치가 바뀌었고 또 2층엔 소강당과 사회단체 사무실을 위치시켰다. 중앙부 오픈된 공간상부에 브리지를 두어 분리된 내부공간을 연계시켰고 전시공간 부분의 감소된 면적은 피로티로 처리한 선큰공간에 휴게기능을 부여하여 진입하는 외부공간과 연계성을 도모하였다. 여기에서 재고해 볼 수 있는 점은 중앙의 오픈된 공간과 우측의 대강당과 좌측의 소강당 및 전시공간과의 관계성이 긴밀한 초기안에 비해 수정된 안에서는 특히 좌측동의 1층부분의 기능변화(관리, 다용도)로 그 관계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기능별 조닝에 따른 총별 공간배분 프로그램에서 많은 수직계단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점은 다시한번 되새겨볼 문제이다.

셋째, 중앙의 오픈된 공간상부에 지붕요소를 도입한 점이다. 이는 분절된 매스에 오픈성을 살리면서 중앙부에 지붕과 열주를 취하여 분절된 두 동의 큰 매스를 강하게 묶어 일체화시키고 있다. 한옥지붕을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역으로 처든 지붕의 처마와 양측 전, 후면에서의 가벽의 의미인 돌담을 세트화시켜 한국적인 전통이미지를 의도하였던 것 같다. 또한 전, 후면에서의 강한 대칭성이 작용하는 체계에서 균형감을 깨뜨리는 요소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왼쪽의 타워와 무대상부, 공간의 깊이를 느끼게 만든 피로티와 면적인 구성이 강한 우측매스, 좌우의 담장, 좌측의 연결브리지에 있는 계단 등이 대칭성 속에 비대칭성을 추구하는 그 예일 것이다. 여기에서 재고해 볼 수 있는 것은 지붕의 도입이 공간을 묶는 수단인가 아니면 단지 형태 이미지의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오픈된 중심공간에서의 좌, 우의 입구성에 대한 분명한 처리에서 수정된 안은 열주 속의 오픈된 공간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연결됨에 따른 입구성을 애매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2.7m×2.7m의 구조개념이 지배하는 공간구획 개념에서 형태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도입된 지붕을 형성하다 보니 공간개념의 변화에 따른 구조체계의 수정을 가져왔다. 가장 강력한 요

소인 두 매스사이의 오픈된 공간의 성격은 전면의 광장과 건물 내부와는 또다른 의미의 활동들을 위해 의도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공간을 강력하게 한정하는 열주는 지붕을 받드는 기능이 주가 되어버린 듯하다. 중심공간의 열주체계는 지붕요소만을 위한 받치는 구조체계는 아닐 것이며 중심공간의 의미를 살리는 구조체계가 아닐까. 아울러 가벼운 성격의 돌담이 전통요소로 채용된 조형적 의미만을 담는지 아니면 영역을 한정하는 의미있는 요소인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넷째, 스케일감과 디테일 부분에 관한 것이다. 서양건축에서 오다가 스케일 감을 느끼게 하는 기준이 되는 점은 부분의 요소들 간의 관계성의 의미를 함축한다. 재료의 수정에 따른 열주의 두께변화가 있었던 것이 처음에 의도한 느낌과 다르게 변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지붕을 받쳐주는 열주의 높이, 진입계단의 높이, 담장의 위치, 열주와 상부 지붕 및 아래 지면과의 접합부 처리도 다른 느낌을 만드는 측면이었을 것이다. 소성건축의 대표적 재료라고 하는 철근콘크리트 재료는 가구식 구조재의 목재 결구방식과는 구별에서 나타난 느낌들이 실제와는 매우 다르다. 따라서 열주의 직경과 높이, 지붕과의 접합부의 위치와 접합되는 형식, 열주 기단부, 지면과 접합 담장의 세심한 처리가 아닐까.

다섯째, 내·외부의 재료 변화에 따른 색채 및 질감의 표현이다. 가장 경제적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재료선택의 문제이다. 건물의 성격이나 품격에 맞게 처음에는 외장재를 화강석으로 선택했다가 데콜셈 스프레이 석재타일로 대체되었으며 내부 또한 가장 저렴한 재료로 마감되었다. 여기에서 의도한 재료미를 보완하고자 건축가 류연창 소장의 특유의 내부공간에 대한 감각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의 손길이 소품과 감각적인 목재 격자그릴, 색채의 선택에서 엿볼 수 있다. 재정적 어려움을 디자이너의 손맛으로 정리한 예로 정적인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재료의 변화는 오히려 형태미와 공간구성보다는 좀 더 소박하고 군림하지 않으며 친근한 분위기의 문화공간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내부의 재료 또한 소박하고 경제적인 재료와 디자이너의 감각적인 재료구성 및 손맛들이 깔끔한 외부의 질감에 대비해 부드럽고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토속적 예술활동을 담은 친근한 문화마당

진도향토문화회관은 자체의 기능적인 측면 이외에도 군민들이 소중히 하는 가치특질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머리 속에 떠오르는 많은 생각 속에 몇가지를 생각해보면서 현재의 진도향토문화회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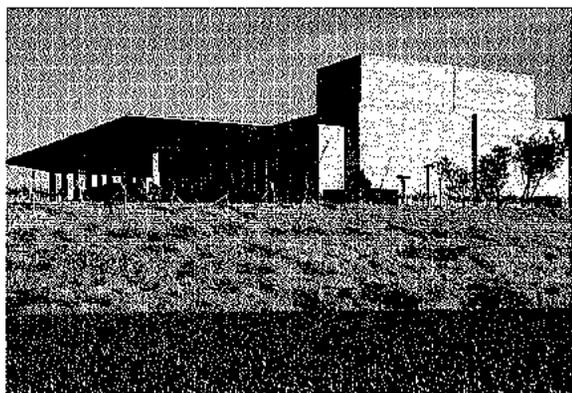
이 건축물은 무엇의 한 부분인가, 이 건축물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 건축물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건축물은 과연 주민들의 요구뿐만 아니라 사회의 요구도 만족시키고 있는가, 이 건축물은 보다

큰 유기체, 즉 지역공동체와 어떻게 호흡하고 있는가 등에 대한 생각은 구체적으로 건축물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람들이 주어진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환경을 경험한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것일 것이다. 흔히 지역마다 있는 문화예술회관, 군민회관 등은 값어치 나가는 화려한 재료, 기념비적인 규모, 지역사회와 유리되어 쉽고 편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시설과 공간의 크기만 놓여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진도향토문화회관만은 그 예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1년동안 100회이상의 각종 문화예술활동이 쉬지 않고 일어난다는 점이다. 군민들은 생활속의 공간으로 부담없이 편하게 접근하여 애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 공동체외에도 타 지역에서 주말이면 관광객으로 문화활동을 관람하러 오는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이 지역민들은 진도를 표현하는 트레이드 마크로 활용함과 동시에 군 단위에서 이러한 문화공간을 지니고 있다는데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화려하지 않은 곳, 부담을 주지않는 곳 그래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곳이기때 사회적, 문화적 프로그램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고 진단해 본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중요한 또 다른 것은 건축가 류연창 소장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것이다. 특히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추구한 내용을 몇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쾌한 공간개념에서 새로운 이미지의 추구, 둘째, 정제된 형태요소에서 지역성과 한국적 전통미의 추구, 셋째, 분명한 기능부여에서 여유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추구, 넷째, 깔끔한 재료 미에서 소박하고 친근한 재료의 선택 등이 아닐까 싶다.

건축가 류연창 소장이 진도향토문화회관을 만들면서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점들은 무엇인가? 그는 아마도 기존의 문화예술회관이 갖기 쉬운 기념비적 요소에서 탈피한 친근한 오브제로서의 건축을 추구한 것이며 다양한 행위를 유발시키는 시골마당에 깔린 명석같은 옥외공간의 분위기와 압도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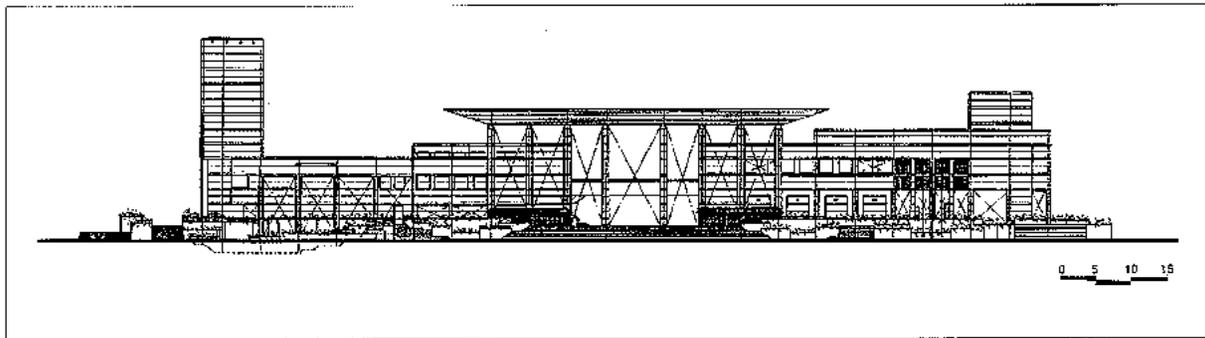


서측전경

고 부담스럽지 않은 친근하고 천막같은 분위기의 건축을 생각했던 것 같다.

우리는 진도향토문화회관의 설계과정에서 여건의 변화와 추가되는 요구사항들을 건축가가 어떻게 소화해내고 대응해 갔는가란 점, 다시말해 항상 최선이 아니면 실현을 위해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건축가라고 하지만 초지일관 지킬 것은 지키면서 변화시켜 나간 점과 그 변화방법 등이 우리에게 많은 점들을 시사해 준다. 건축가 자신은 자신의 환상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 혼돈을 어떻게 승화시키는지, 그것을 어떻게

'예술단위(Artistic Unit)'로 빚어내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고독과 열정을 이해하고 모든 편린에서 영감을 얻어 그것을 건축으로 표현하는 건축가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탐구와 철학을 살펴볼 수 있었다. 고뇌하는 건축가, 고집스러운 신념의 소유자 그러면서 우리의 것, 지역의 토속적인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너무도 잘 알고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건축가, 항상 베투를 즐겨 쓰는 소탈한 그에게 무르익는 또 다른 작품과 마주하기를 기대해 본다.



정면도

Jindo of Chulla-Namdo is the home of various traditional art and culture, including Korean traditional paintings, folk music and calligraphy, and a growing activity concerning these tradition has led to the necessity for a new culture center. The competition of Jindo Civic Welfare Center has appointed the proposition by architect Lyu Yun-chang, but due to financial limits and additional requests of the citizens, continuous changes has been made until its final realization. Since the external influences heavily acted upon this work of architecture, I would like to trace, before looking into the finished building itself, the long, changing processes and phases of this project. Only then would it be possible to comprehend the depth of the Welfare Center.

Early Scheme - Competition Entry Project

The site was on a hill 900 meters south-east of Jindo Municipal Office. Apart from the direction towards Jindo-up, the neighboring area was almost devoid of buildings, with long stretches of mountains and fields. The shape of the site was close to a square, but the approach from the principal road was made in a diagonal direction. In this site, the program of large and small auditoriums, exhibition space, managing offices, stores, rest areas and a cafeteria was requested.

The layout was made to present a frontality towards the two main roads, which the arranged the approaching road in a diagonal way. To the left of this was the parking lot, to the right the resting areas and outdoor stage, and on its front was the main plaza. The most clear intention of the designer was to divided the function into two parts - managing offices and exhibition space to the left, and the large auditorium to the right - and emptying their middle as an open space

connected to the rear road. The entry to the left and right buildings from the plaza made good use of the level differences and formed sunken gardens used as stores and the cafeteria. The Center was surrounded by traditional fences, or Dam, constructing a clear boundary and presenting intimacy to its users. The landscape planning for the plaza and the middle yard was also characteristic. This early scheme had a clear distribution of functions along with structure system based on modules, presenting a crisp, modest and humble form.

A New Request and The Process of Reforming The Scheme

Not much works of architecture get to be built as the architect envisioned them in the early phase of design. Jindo Welfare Center was no exception: it was subject to more requests of the clients, the change of materials, financial shortcomings, and the need for a strong symbolic form of mass value. The change in its size has been followed by the rearrangement of the composition and location of programs, and the middle yard was added with a ceiling to generate a new image. Some essential modif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approaching road, from the principal road, comes to connection in a diagonal direction with the entrance plaza. This plaza, in order to be linked with the sunken space and the middle yard, forms a lifted deck.

Second, the functional programs and their composition, and the link between spaces has been altered. This is the part most heavily influenced by economical constraints. The obvious result of reducing the overall building area has been dealt by preserving the original structure while erasing and adding

parts. This, to one's relief, has produced the positive effect of enhancing the depth of space by visual penetrations between them.

The redistribution of programs, however, has made a not so practical result sin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ddle yard, the small auditorium on the left and the large auditorium on the right do not show punctuality, as was the case in the early version. The layout of programs and grouping zones in stories, has also produced many vertical staircases, is another point to be considered.

Third, the addition of the roof on the middle yard. This was, while maintaining the openness of the yard, to induce, by the roof and the row of columns, a connection between the two masses and thus forming an integrated wholeness. The roof with an inverted shape of a traditional Hanok building's, along with the Dam which encircles the building enriches the overall image with a traditional touch. The strong symmetrical composition is subverted in various portions, such as the tower on the left, the piloti displaying the depth of space, a two-dimensional mass composition on the right, the surrounding Dam, and the stairway of the connecting bridge.

Whether the roof was intended to form a unification among spaces or simply to produce a formal effect is problematic. Whereas the formal scheme presented a clear orientation of the entrance, the developed plan, with a connection in different directions amid the forest of columns, has been somewhat obscured. The middle yard between dominating masses would have been differentiated from the main plaza, providing space for a different event, but the columns which substitute the openness seems to submitted be to function. They should not have been merely structural elements which support the roof, and should have been concerned more with spatial aspects. The effect of Dam, whether it renders a touch of tradition or is a meaningful component constructing a boundary, is also arguable.

The fourth point is related to the scale and the detailing. The fact that order, in Western architecture, functions as a criteria of scale is connected to their relational aspects between elements. The change in material of the columns which constitute the middle yard has resulted in an effect totally disparate from the architect's early intentions. There should have been more regard for the height of the column, the staircase, the location of Dam, the meetings of the column, the roof and the ground, since the detailing of wood structures and reinforced concrete, and their impressions are thoroughly different. Finally, on the expression through the colors and materiality of the finishing elements: this is also where the economical factor played a great part in. The initial plan to furnish the exterior surface with granite has been altered to a less priced stone tiles, which was a similar case in the interiors. Lyu has overcome this shortcomings of materiality through a sensitive interior design, with particular wood textured grids and a idiosyncratic choice of colors. The change in materials has emphasized, rather than the formal and spatial aspects, the intensified meaning of a culture center with a sense of intimacy, which can be discovered in both the exterior and interior of the Culture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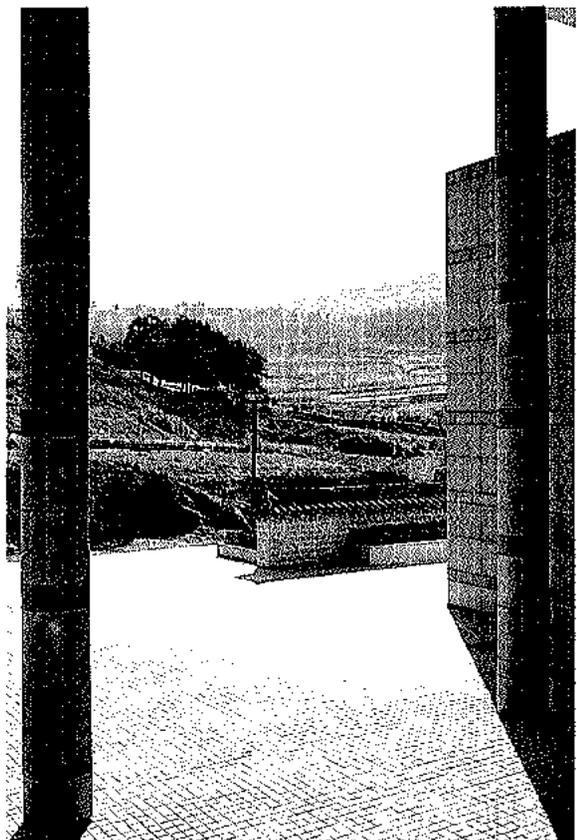
An Intimate Cultural Plaza For Traditional Art Activities

A civic center should not only perform its use and function but become an intimate and beloved place for the citizens. Most culture or art centers, however, which are not so rare these days, boast extravagant materials and

grand, monumental scale; they are often difficult to access, thus large volumes of space remains devoid of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citizens. In the case of Jindo Civic Center, various activities are held well over 100 times a year. It became an ordinary part of the citizens lives, and what's better, provides an attraction for the visitors who travel to this city during the weekend. It is nominally a landmark of contemporary Jindo which the citizens have enormous pride in. In a modest, comfortable atmosphere, the Civic Center surely satisfies its social, cultural role.

Notwithstanding the long and laborous process of the project's actualization and the various change in design which accompanied it, architect Lyu has succeeded in achieving several objectives: to present a fresh image from apparent spatial ideas; to display regionalism through refined forms and a traditional touch; by a clear distribution of functions, to produce an atmosphere of comfort and placidity; and finally, to show a fine example of material use.

The main objective of Lyu's approach to this center must have been to overcome the usual monumentality of cultural facilities and redefine them into an intimate building. A Culture Center should be like the middle garden, or Madang, of traditional housings, where comfortable mood and scale enables free and variant use of the inhabitants. The finished object clearly shows how the architect has controlled his imaginations, how he has built order from chaos, and how he has produced an artistic unit from them. Through his compassion to solitude and passion, receiving inspirations from every objects and expressing them into the work of architecture, we can read the architect's pursuit for essential values. With this, and his insight on traditional, regional meanings, we look forward to see another mature work in a recent future.



피로티 열주 사이로 보이는 후면 오픈공간

한남동다세대주택

Hannam-dong Residence

삼우설계

Designed by Samoo Architects & Engineers

삼성전자 기술고문속소는 한남동 UN빌리지내 위치하고 한강변이 내려다보이는 최상의 전망을 갖고 있으며 대지내 3m의 Level 차이를 가지고 있다.

계획당시 기본개념은 대지내 경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전망을 최대한 살리며 이용자가 외국기술고문들임을 고려하여 서구식 Life Style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계획전제로는 사택으로서 규모가 85㎡를 넘을 수 없고 4세대 이하인 다세대 주택이었다.

또한 추후에 2세대를 통합할 수 있는 계획이 요구되었다.

2세대 통합의 전제는 건물전체의 Volume 및 평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거실이 추후 통합될 수 있도록 마주보고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Symmetric한 배치가 이루어졌으며 층고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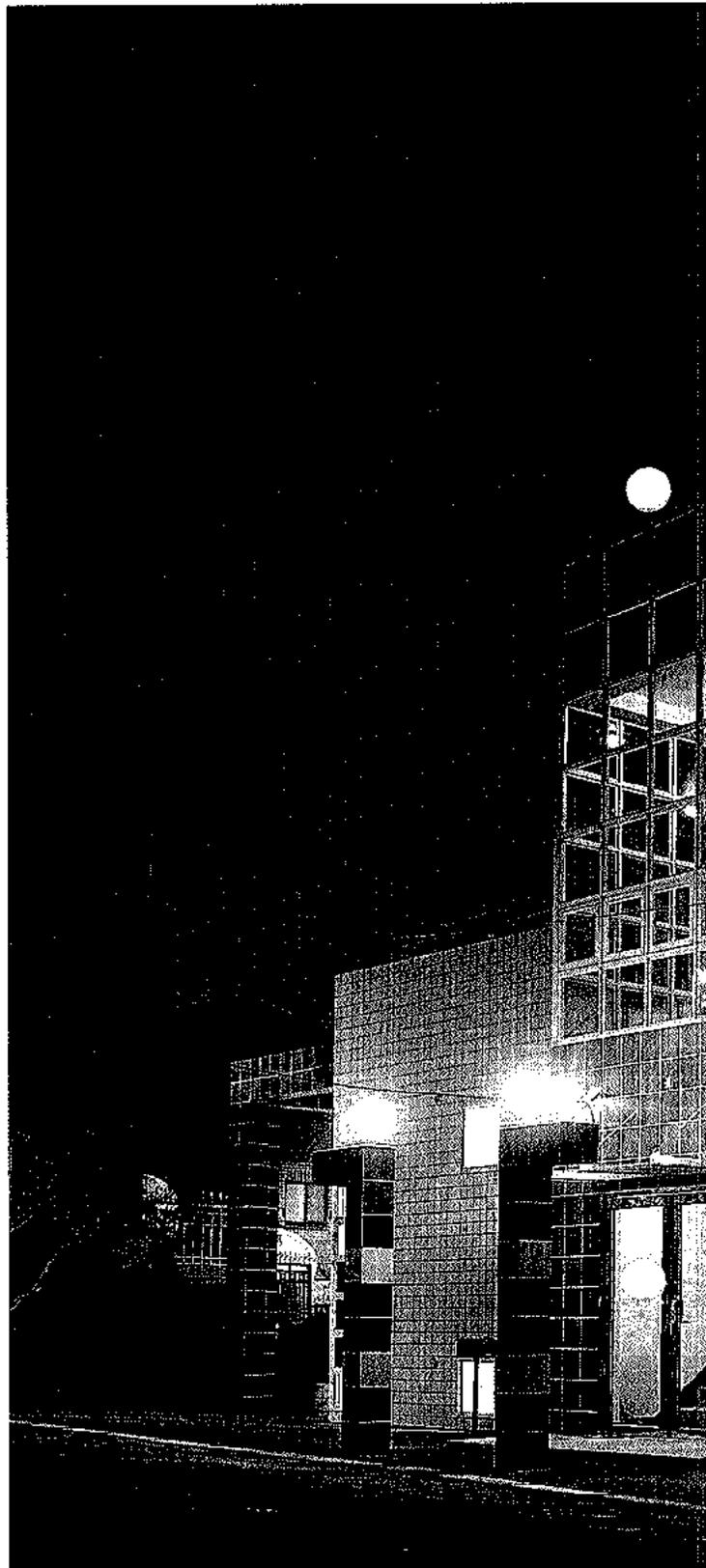
대지내 경사를 수용하는 측면의 Skip Floor 형태의 단면구성과 추후 2세대 통합시 거실의 개방감을 고려한 거실내 층고를 높게 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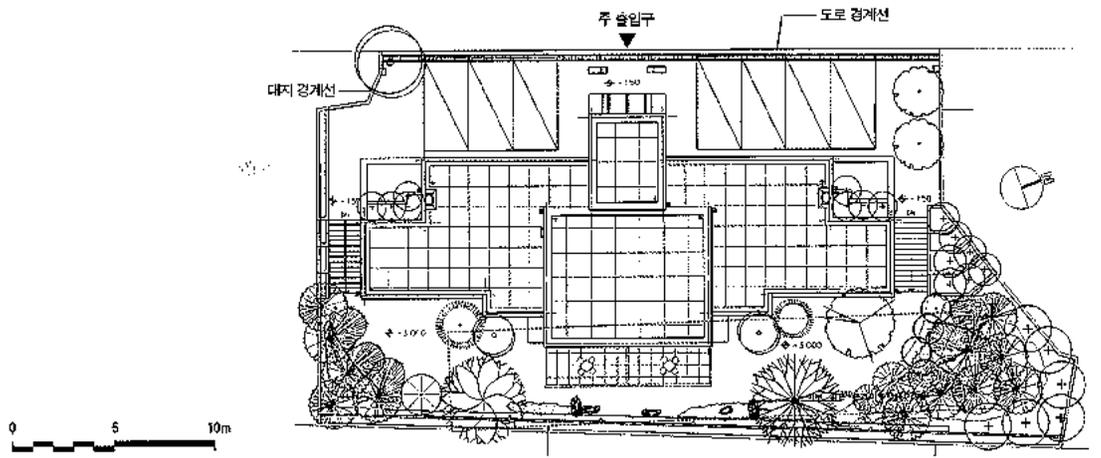
외벽 마감재료는 건축주와 여러번 협의하에 타일로 결정이 되었고 정형적 Module(150×150, 300×300)에 근거하여 전체를 구성하였다.

주 진입도로에서의 출입 및 차량 진출입을 고려하여 담장을 없애는 대신 대문을 형상화한 기둥으로 Image화 하였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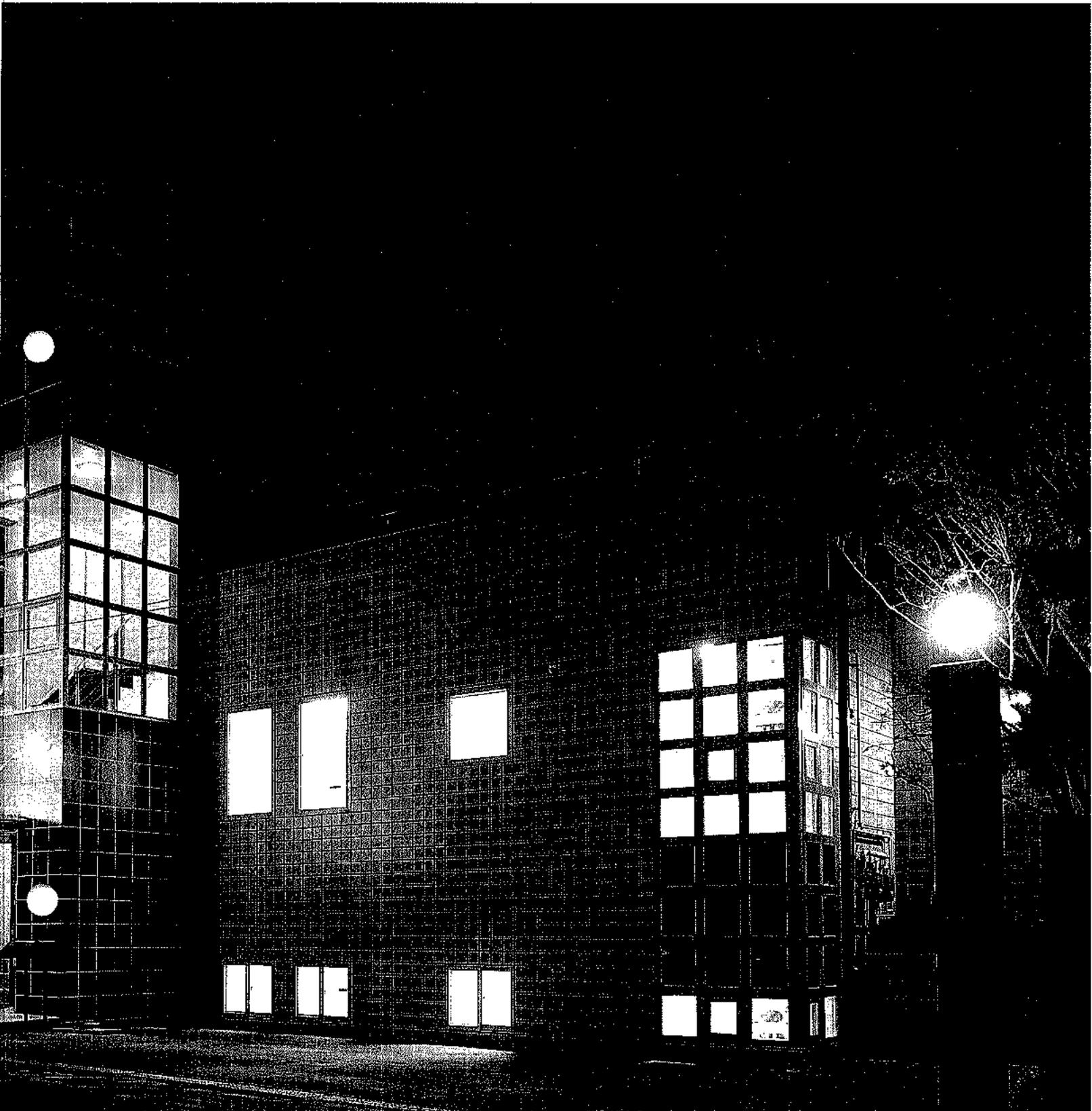
위치	서울시 한남동 11-261(1필지)
대지면적	628㎡
건축면적	185.55㎡
연면적	544.65㎡
건폐율	29.55%
용적률	59.09%
주차대수	옥외 7대
건축설계	이종원, 박영택, 이은진
구조설계	김남희
설비설계	장원근
전기설계	장원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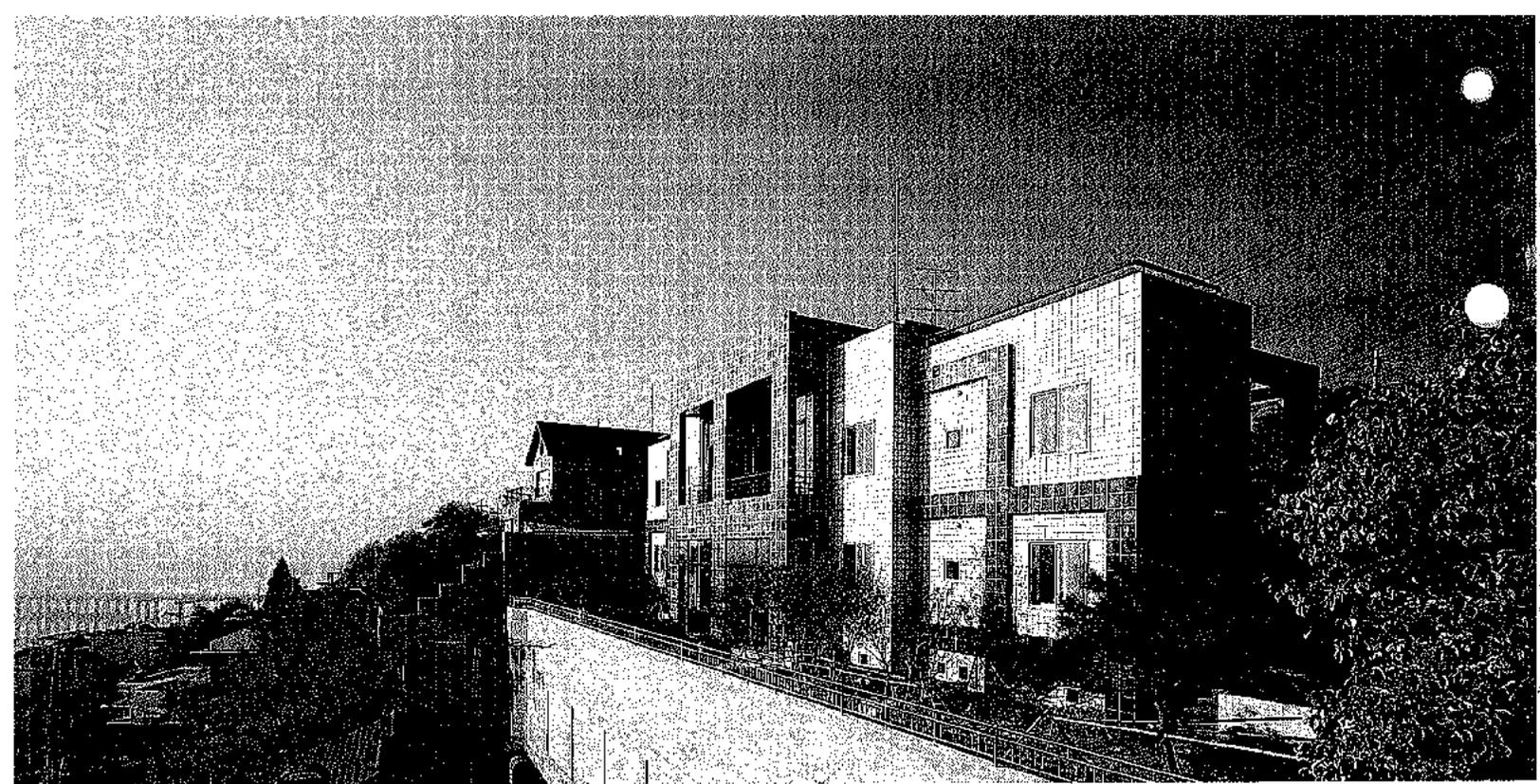




서측야경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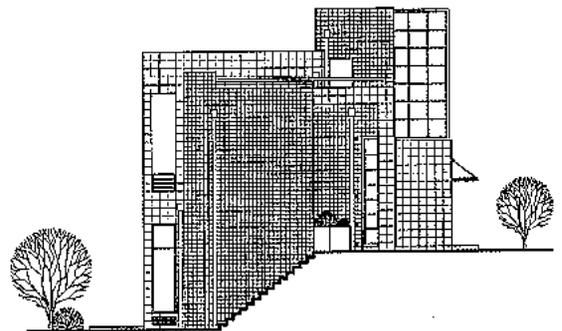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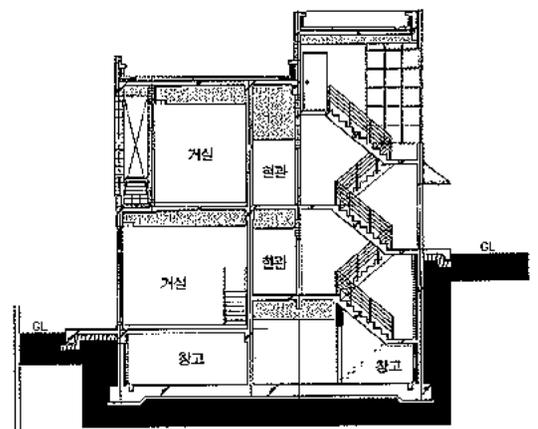
북동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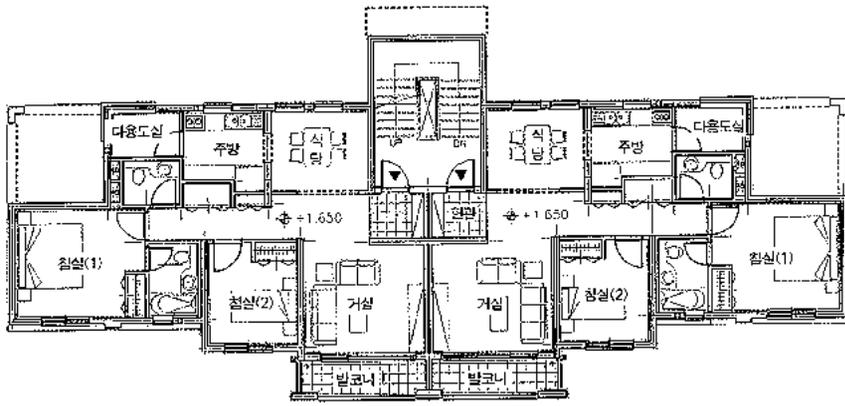
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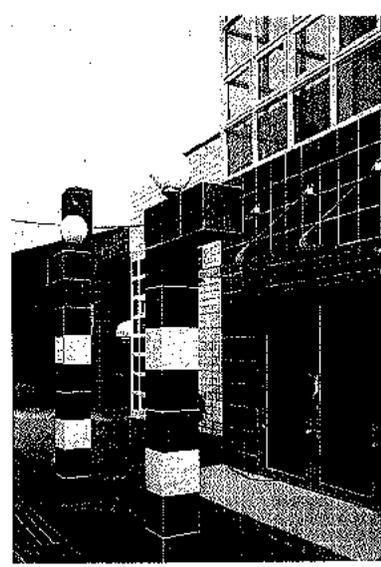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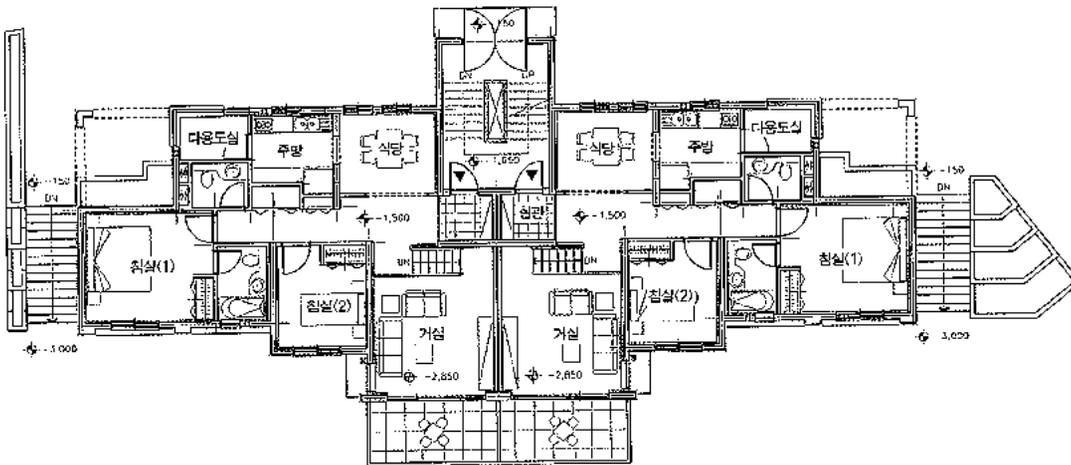
단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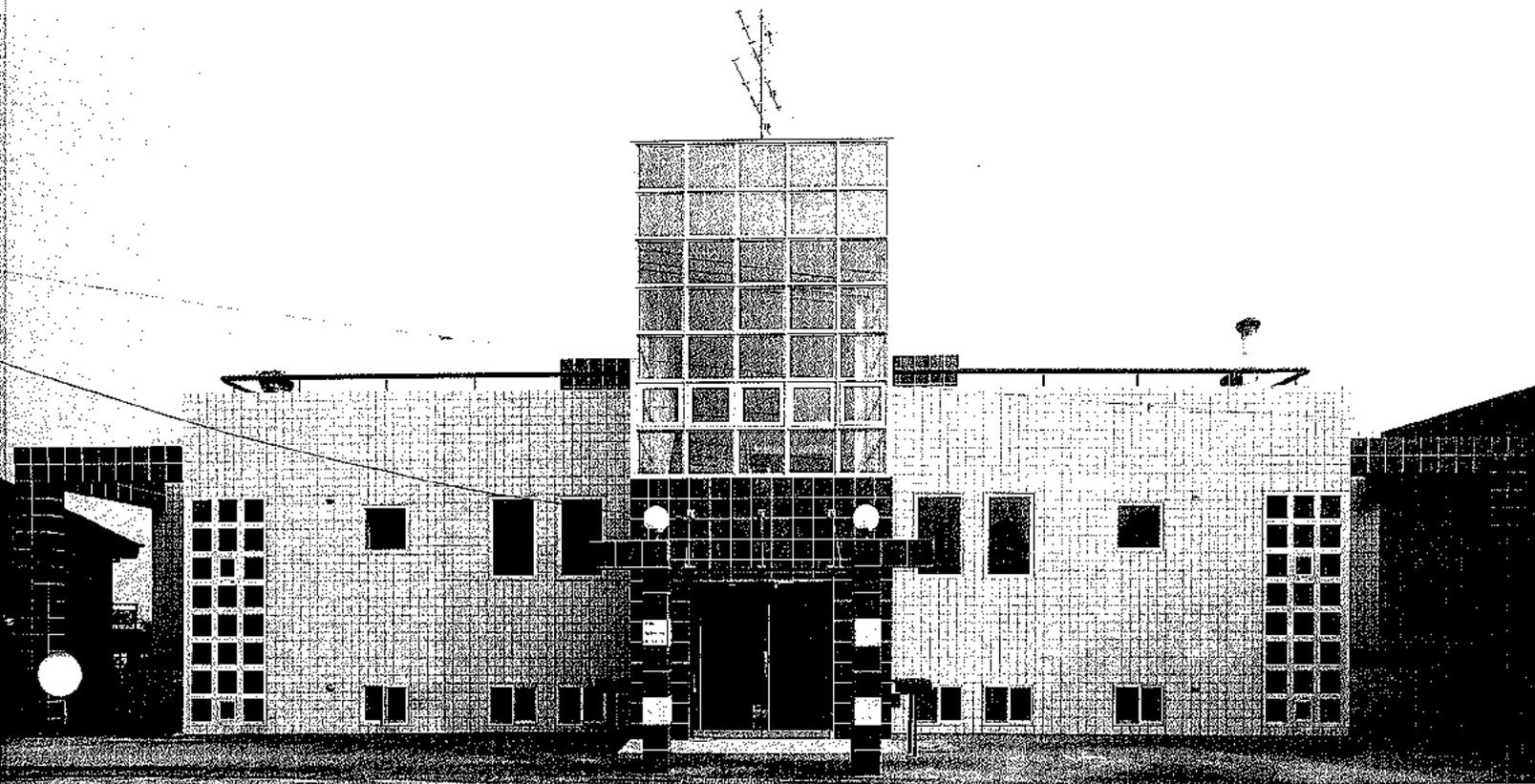
주출입구 상세



1층 평면도



메인 가든



북서측 전면 전경

신사동 청학빌딩

Chunghak Building Extension, Shinsa-dong

함인선 / (주)인우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Hahm In-Sun

이 프로젝트는 개발기획 단계로부터 시공까지의 전과정을 일종의 턴키베이스로 참여한 경우이다. 토초세라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궁극적개발(Ultimate Development)을 수행할 상황은 되지 않고 있는 건축주에게 우리가 제시한 프로그램은 궁극적 개발의 시점까지 견딜 수 있는 '장갑다리 건물'을 최소의 면적, 최단의 공기, 최소의 비용으로 지어보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채택되었다.

첫째, 리노베이션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타석 부분은 기존에 있는 3층 R.C.조 건물의 조적벽을 걷어내고 철골로 3개층을 증축하면서 유리 커튼월을 붙였다. 이는 상당한 구조비용과 공기를 절감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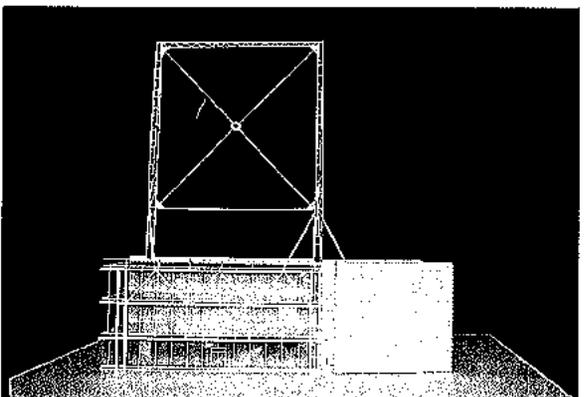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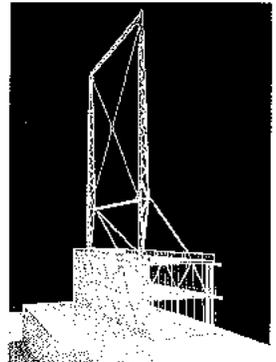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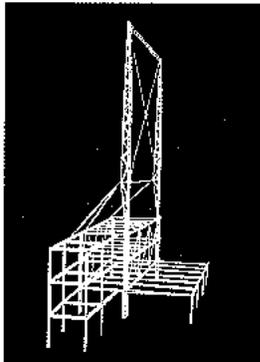
둘째, 미니멈 건축의 도입이다. 전체 건물을 철골구조+R.C.슬라브+유리커튼월로만 구성하였다. 이는 대지 배면에 위치한 도산공원에 대한 전면도로로부터의 투명성 확보의 측면에서도 필요했거니와 비용-공기 측면에서도 유일한 선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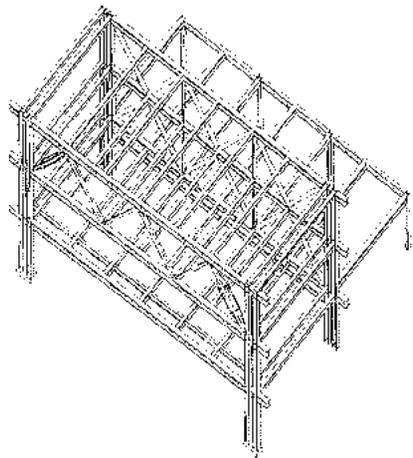
셋째, Fast Track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였다. 허가후 바로 착공하여 토공사중 철골설계, 발주를 하고 철골공사중 건축설계를, 건축공사중 골프관런시설 및 인테리어 설계, 발주를 하였다. 주요구조체를 제외한 공사는 우리림의 건설관리(C.M.)하에 건축주 직영으로 하였다.

넷째, 모든 부위설계에 코스트 개념을 도입하였다. 현실적으로 아작은 Dry Wall보다는 조적벽이, Deck Plte보다는 재래식 거푸집이 싸다. 공기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싼 공법을 채택하였다. 유리가벽이나 유리카노피의 경우에도 S.P.G공법의 5분의 1의 비용으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디테일을 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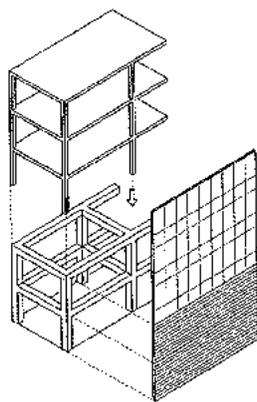
건축개요

위치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3		
용도	운동 및 업무시설		
대지면적	7,525.50㎡	건축면적	4,050.56㎡
연면적	8,063.33㎡	건폐율	53.82%
용적률	89.80%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구조	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외부 마감	철골 위 우레탄페인트, 복층유리, 사이딩패널		
설계담당	기본설계/황세열, 임홍순, 신영훈 실시설계/이문석, 이창우, 정재만, 강재은, 추정희 인테리어/이희웅, 박현신 건설관리/박재환		
시공	(주)AC종합건설+(주)인우건축 CM		
구조	(주)건양구조	전기	(주)일봉 엔지니어링
설비	(주)일봉 엔지니어링	조경	(주)인우건축
인테리어	(주)인우건축, 국보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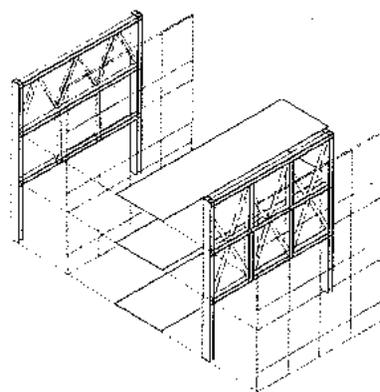




구조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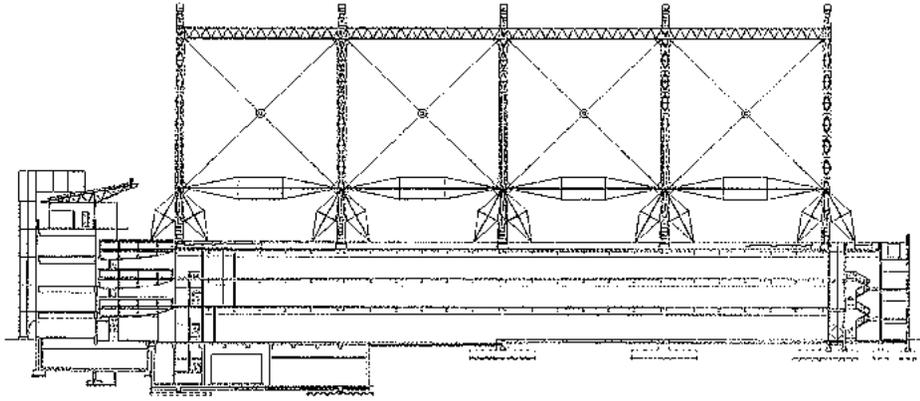


중축동 개보수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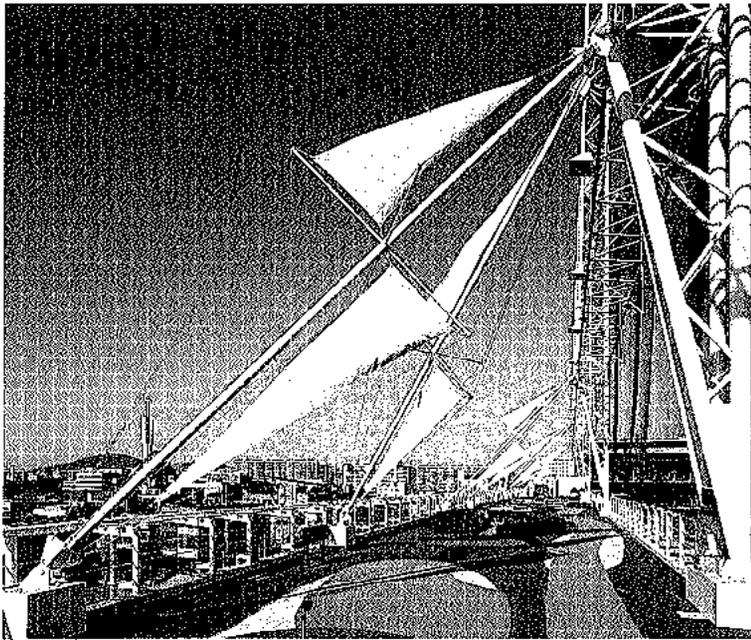


신축동 구성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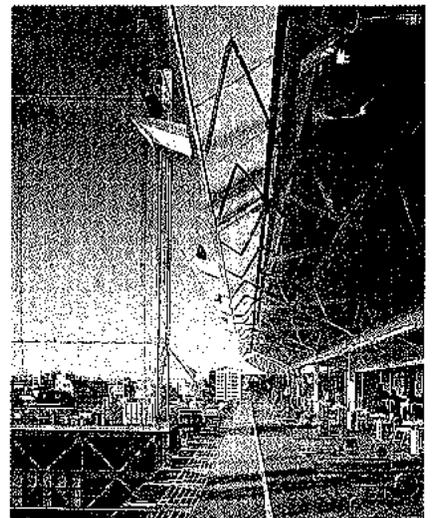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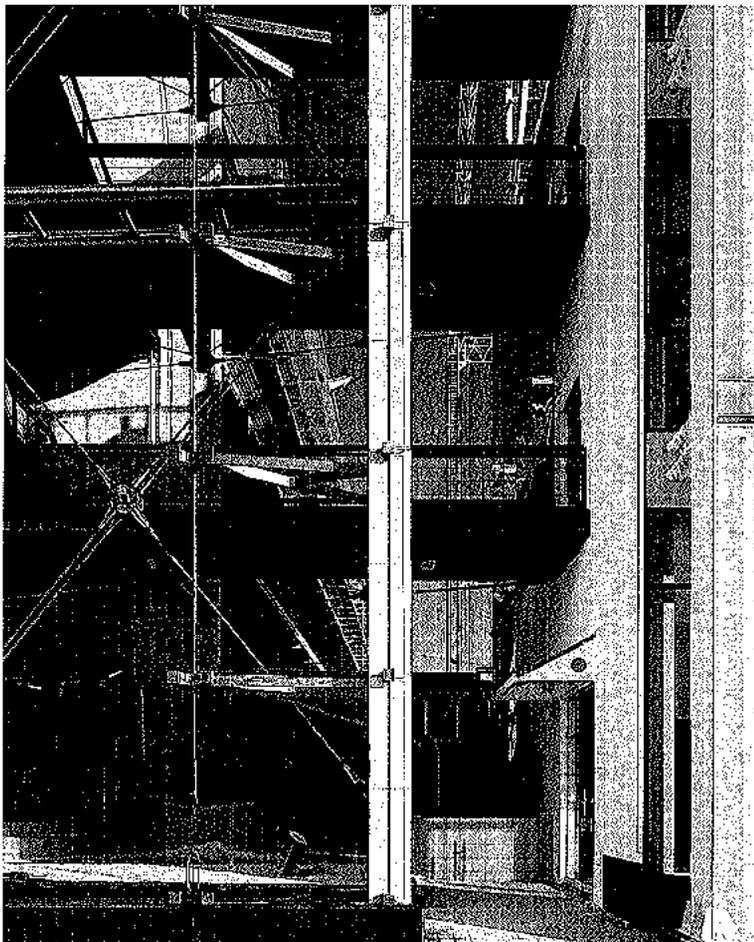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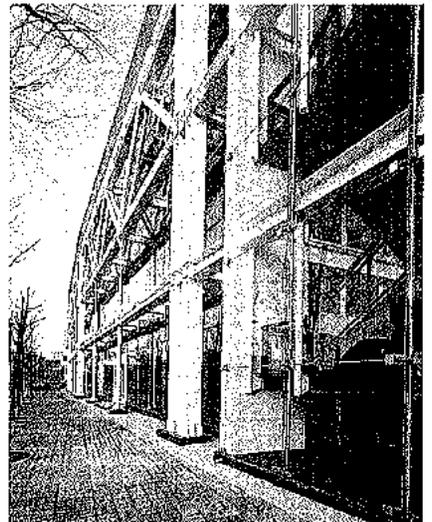


필드 간이 연습장

가벽 입면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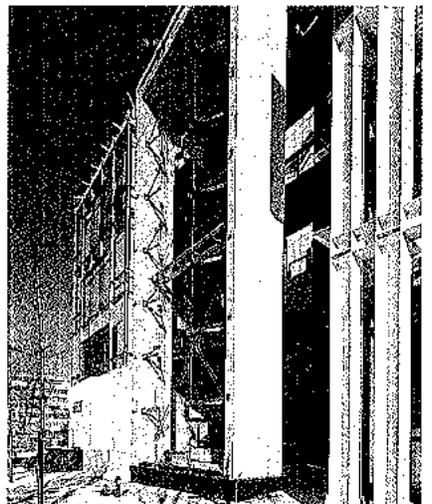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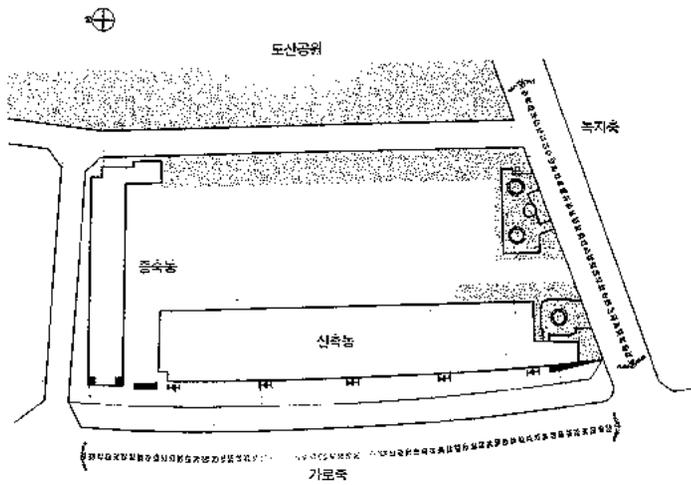
골프 연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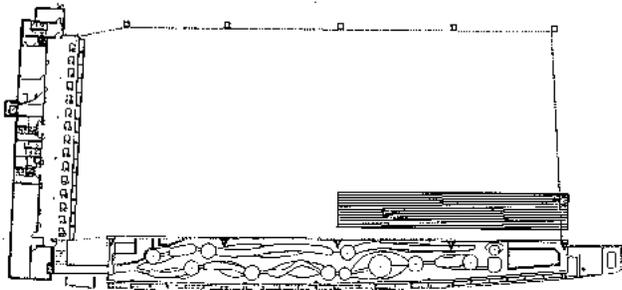
신축동 가벽 상세

신축동 우측 입면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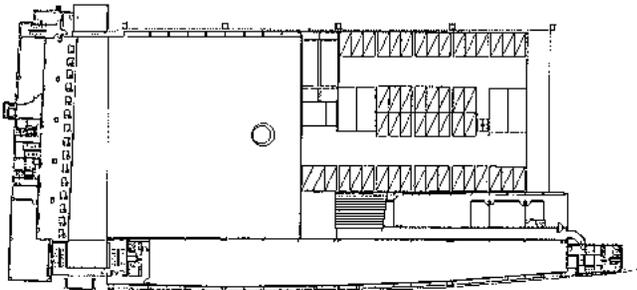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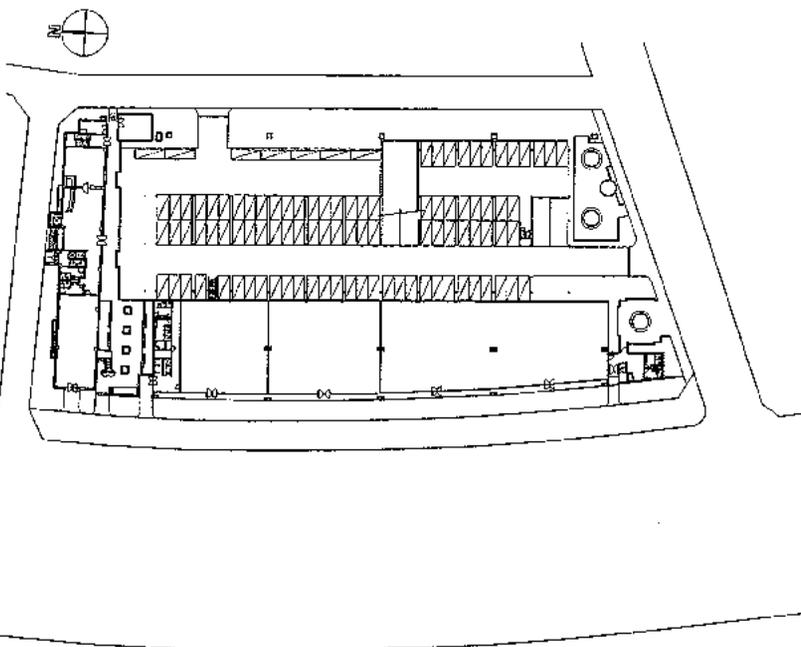
배치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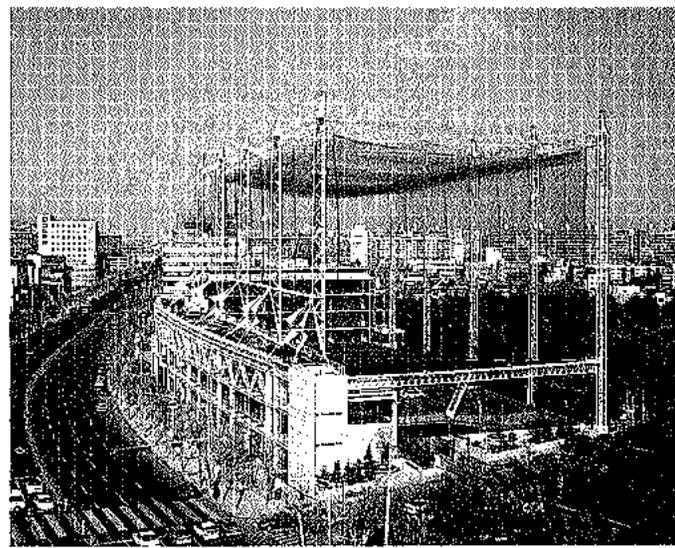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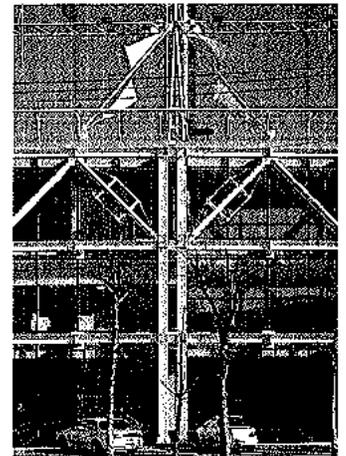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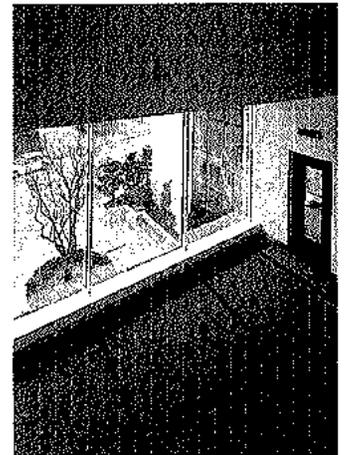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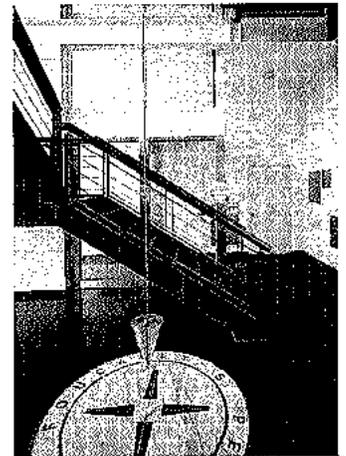
남측전경



신속동 서측입면 상세



신속동 2층 사무실



신속동 계단실

흥국생명분당사옥

Pundang Branch of Hungguk Life Insurance Co. Bldg.

부대진 · 김무현 / (주)진아 · 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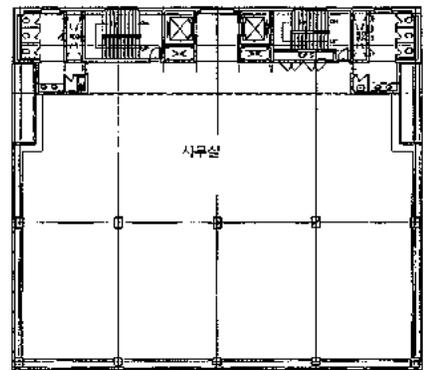
Designed by Bou Dai-Jin & Kim Moo-Hyun

신도시의 격자형 도로체계에 의해 구획된 분당의 중심 상업지역내 한 칸을 차지한 이 건물의 외부는 돌과 새시라는 대비되는 재료와 컬러로 상·하층부를 구성했다. 하부 2층은 화강석으로 마감하며 상층부에 대한 베이스로 읽혀지는 기단 개념으로서 안정감을 갖게 하고, 상층부는 알루미늄 커튼월 박스를 한꺼번에 포개어 놓아 가볍고 상쾌한 느낌을 갖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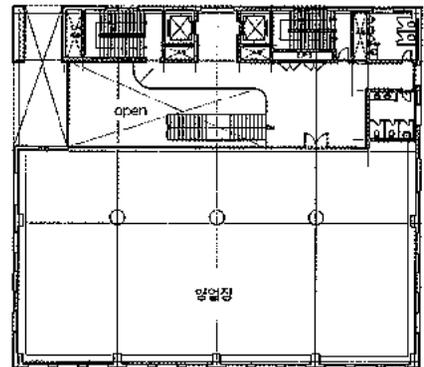
코어부분은 이런 규모의 건물에서 흔히 그러하듯 측면에 집중하여 전용면적 비율을 높였으며, 건물 정면, 배면에서의 코어부분과 커튼월의 대비는 코너스로 처리하여 엮고, 코너스를 관통하는 수직선은 시선을 상층부로 유도한다. 그 끝에 날렵하게 얹혀진 파라펫은 시선을 허공으로 날려보낼 듯 버티고 서 있다.

건축개요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6-7		
지역지구	중심 상업지역, 도시설계구역		
공사종별	신축		
주요용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1,233.30㎡	건축면적	826.20㎡
연면적	9,356.77㎡	건폐율	66.99%
용적률	608.49%	규모	지하2층, 지상10층
주차	117대		
외부마감	알루미늄 쉬트, 18mm복층유리, 화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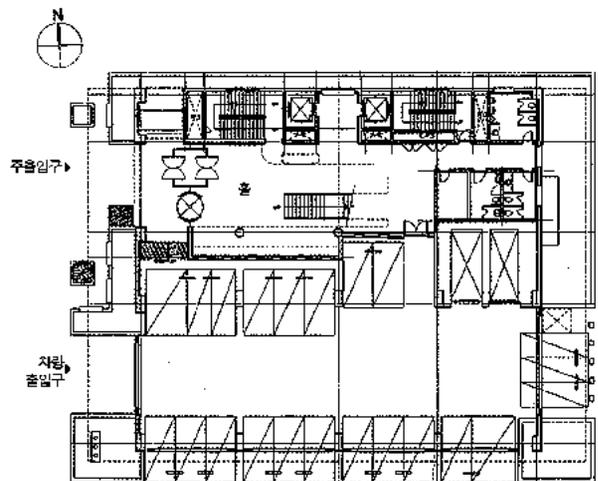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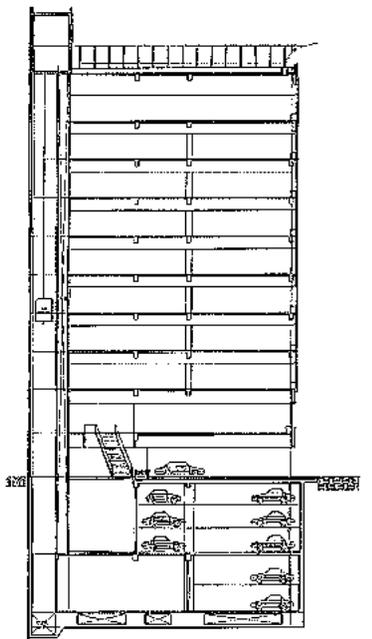


주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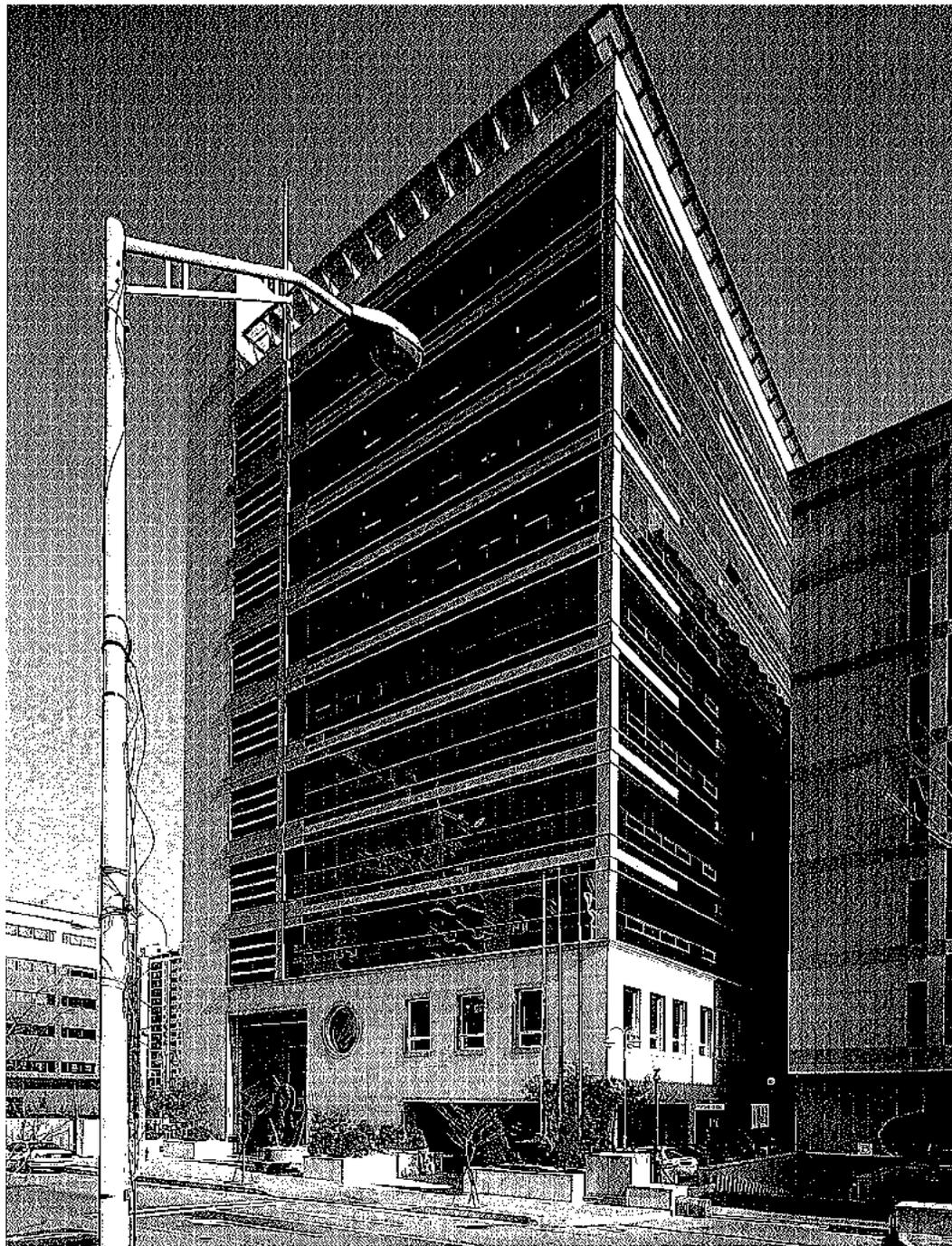


0 1 2 5m

1층 평면도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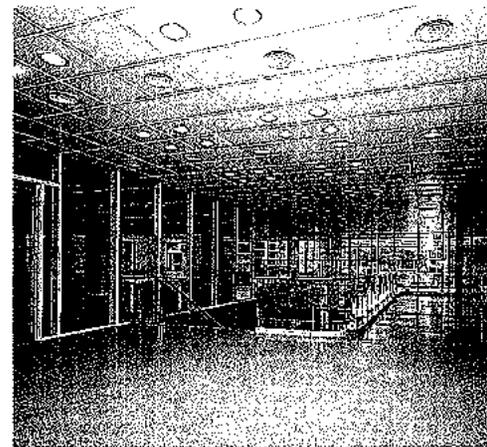
남서측 전경



북서측 전경



1층 홀



2층 홀

동암당

Dong-Am-Dang

손두호 / (주)건축사사무소 모람
Designed by Sohn Doo-Ho

과천과 평촌 두 도시 사이의 전원에 위치한 「동암당」은 관악산의 안양방향 남서쪽 자락에 자리잡은 동말이라 불리던 마을의 안쪽에 있다. 동말은 아직도 과거의 마을 모습이 남아 있어 멀리 남쪽으로 보이는 평촌의 높은 아파트군이 낯설어 보이는 그런 마을이다. 오래된 낡은 고향집을 허물고 살기 편한 집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지에 가보니 도회지 건물 사이의 심터가 생각났다. 서쪽은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있고 남쪽의 원경과 동쪽의 앞산줄이 보이는 경관이 좋은 입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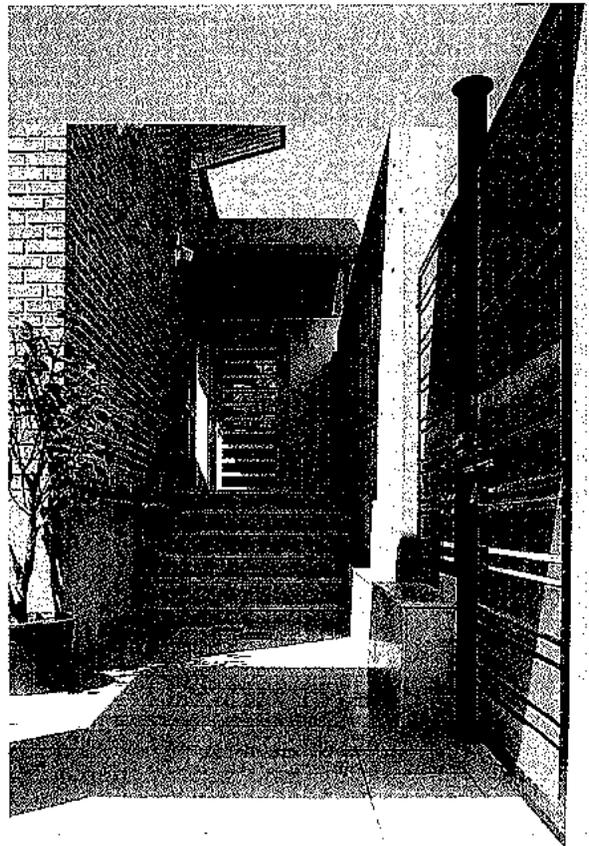
대부분의 건축이 마감가지지만 특히 주택설계에 있어 대지와 프로그램의 해석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주어진 대지마다 형태와 환경이 다르므로 대지의 특성을 잘 해석해 대지와 건물-집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과거 선조들이 중요시했던 풍수(風水)라든지 양택(陽宅)이라든지 하는 것도 입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프로그램은 어떠한 내용의 주택이 요구되는 가이다. 동암당의 프로그램은 방이 세개이고 분가한 가족들이 모일 수 있게 거실이 넓어야 하며 내부에 계단이 없는 단층집으로 은퇴한 부부가 관리하기 쉽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이어야 했다. 살기 편하다는 것은 단지 기능적 편리성보다는 공간의 짜임새가 자연스럽고 편안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형태적으로 화려한 집보다는 삶을 포용할 수 있는 소박한 주택을 생각하게 했다. 비교적 넓지않은 대지에 속이 깊은 집을 짓기 위해 먼저 대문에서 현관에 이르는 진입공간을 하나의 커로서 구분했고, 이 커는 공용의 길에서 사적인 개인공간으로 들어오는 문간 역할을 하게 했다. 안채는 안마당을 중심으로 한 'ㄷ'자 형태의 건물로 설계했다. 남쪽의 트인 경관은 마당을 통해 대청마루인 거실로 들어오며 안방에서는 앞산의 모습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현관쪽에는 손님방을 두어 창을 열면 툇마루를 통해 마당공간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우리의 전통주거가 가지고 있는 열림과 단침의 어휘들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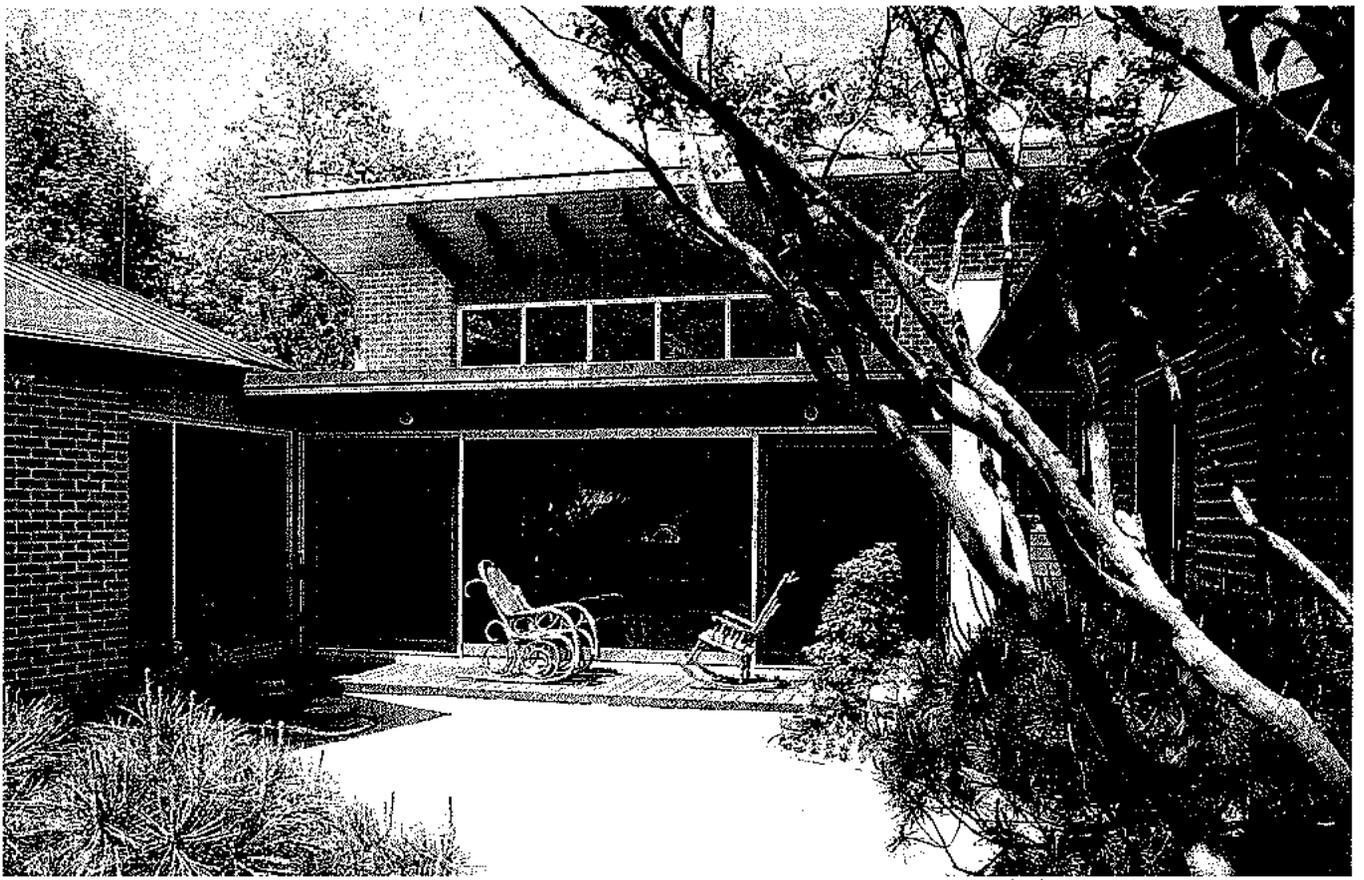
안방과 거실 식당 등은 경사지붕으로 처리해 담고 있는 공간이 크기가 변하는 것을 느끼게 했으며, 이들 공간은 현관이나 통로같은 서비스공간으로 연결이 돼 하나가 됐다. 현관에서 거실을 거쳐 식당으로 연결되는 공간의 변화는 식당 외부의 테라스를 통해 서쪽의 산속으로 향하는 하나의 흐름으로 마무리했다.

건축개요

위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34
지역지구	개발제한지역
대지면적	932㎡
건축면적	168.55㎡
연면적	199.68㎡
건폐율	20%
용적률	20%
규모	지상1층
구조방식	조적조
내부미감	벽 - 수지페인트, 바닥 - 온돌마루, 천장 - 적삼옥 후로링
외부미감	벽 - 적벽돌, 노출콘크리트, 지붕 - 아스팔트 싱글, 동판
건축주	이서구
시공자	(주)모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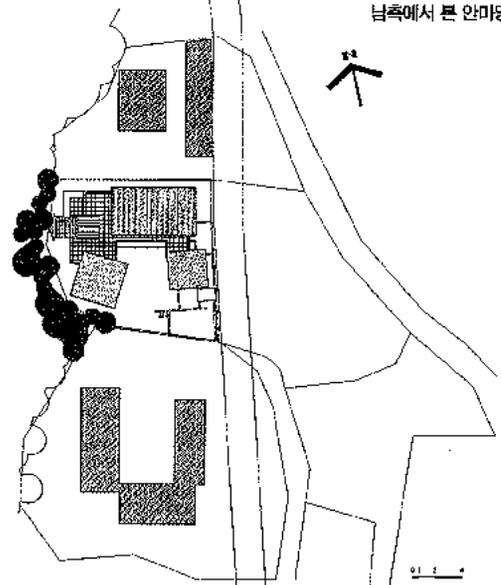
주출입구 전경



남쪽에서 본 안마당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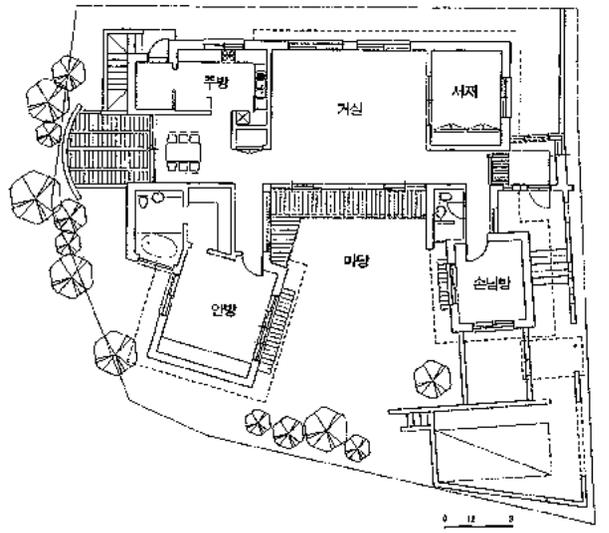
동쪽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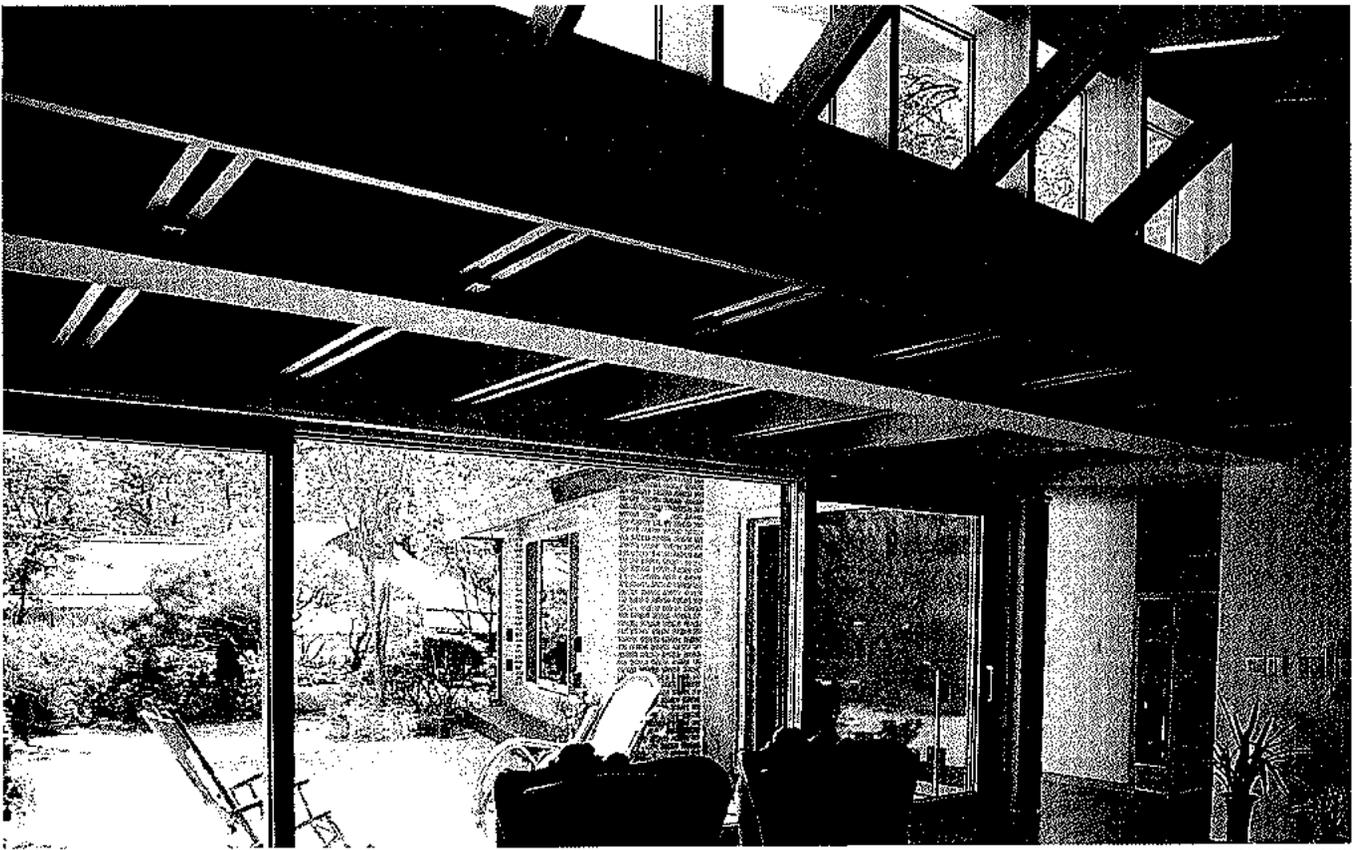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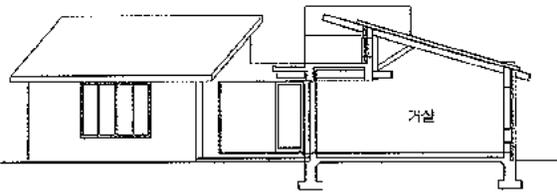
거실에서 안마당을 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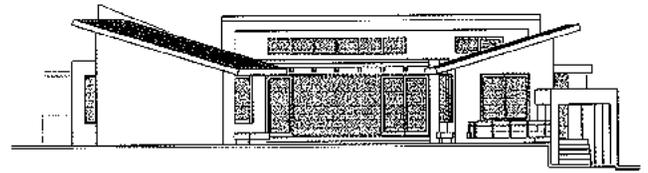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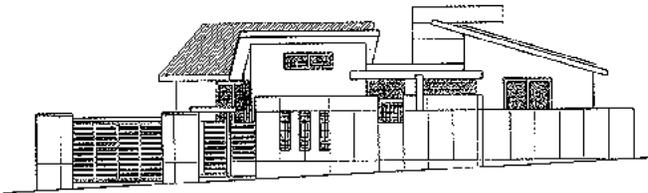
거실 천정부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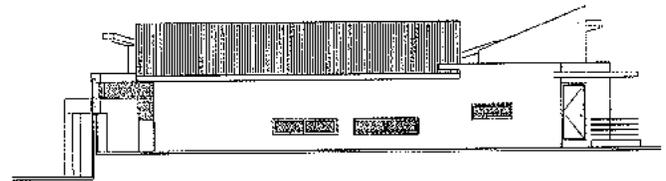
종단면도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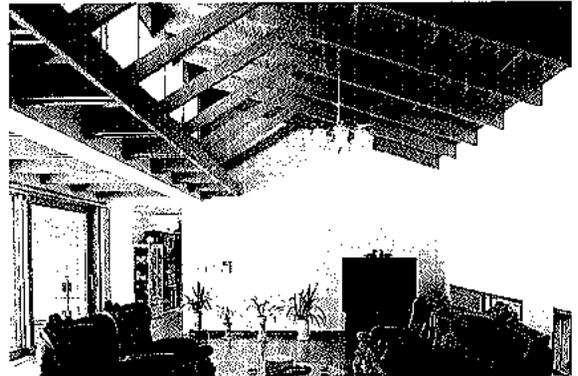


동측면도



북측면도

식당에서 현관을 바라본 모습



거실

스님방 출입구 상세



태평로 빌딩 Taepyong-no Building

(주)간·삼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Group 3 Architects & Associates Inc.

남대문에서 광화문까지의 거리는 도시의 척추이며, 서울의 얼굴이다. 서울시청, 삼성빌딩군이 주도하고 프라자 호텔이 등을 돌리고 서있는 태평로 거리가 아직도 어수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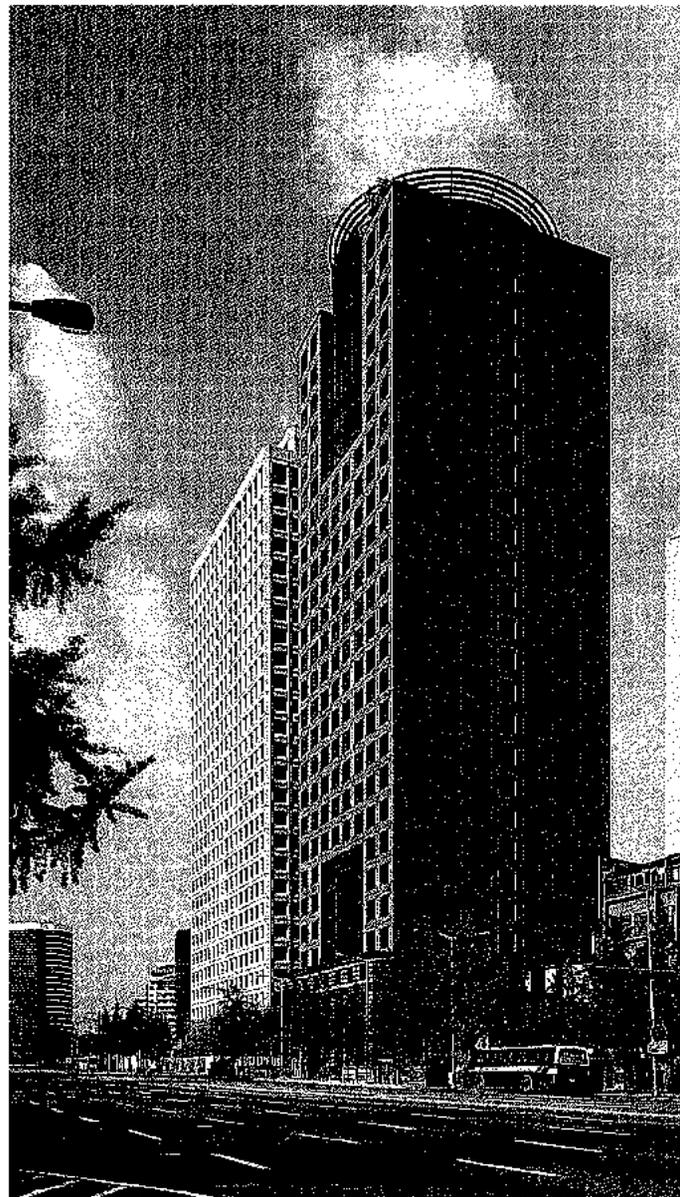
삼성생명빌딩이 들어서면 지랑스러운 서울 도심의 모습을 가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예상하고 깊이 파고 들며 오랜 설계 과정에서 따졌다. 새로우면서도 안정된 건축이어야 하고 쉽고 경쾌하게 인지되는 추세의 건축형태에 맡겨줄 수 없고 권위와 독선의 기업 상징은 더욱 경계하였다.

검은 석조의 건물 몸통과 투명성의 원통이 관통되면서 변형되어가는 움직임의 이미지, 그리고 제멋대로 생긴 가로망으로 형성되어진 고층빌딩의 옥탑 조형들이 무질서한 Sky Line을 형성하는 가운데서 원형으로 하늘을 순화시키는 역할로 시각적 안정을 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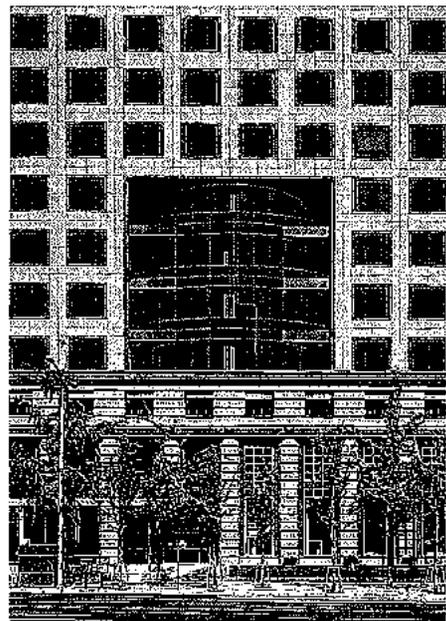
북쪽 옥외공원을 두어 시민들과 휴식을 함께 하면서 내외공간을 유기적으로 개방 연결하여 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장소와 서울 도심의 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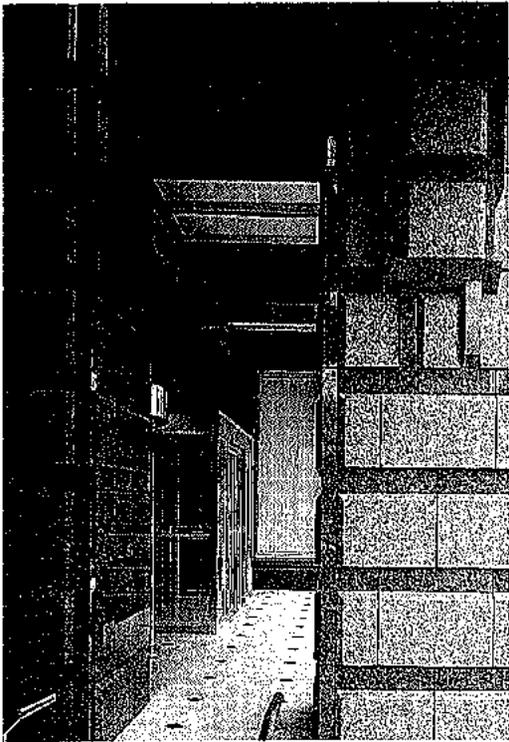
위치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309-1번지 일대 50필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주차장정비지구, 1종미관지구, 재개발, 집단방화지구
대지면적	2,905.7㎡
건축면적	1,158.09㎡
연면적	40,001.79㎡
건폐율	39.85%
용적률	949.84%
규모	지하6층, 지상26층
용도	업무시설, 아파트, 판매시설
최고높이	107.7m
외부 마감	알미늄새시 + T24복층유리, T30회강석
구조	철골조



복동축 전경



전면 저층부 벽면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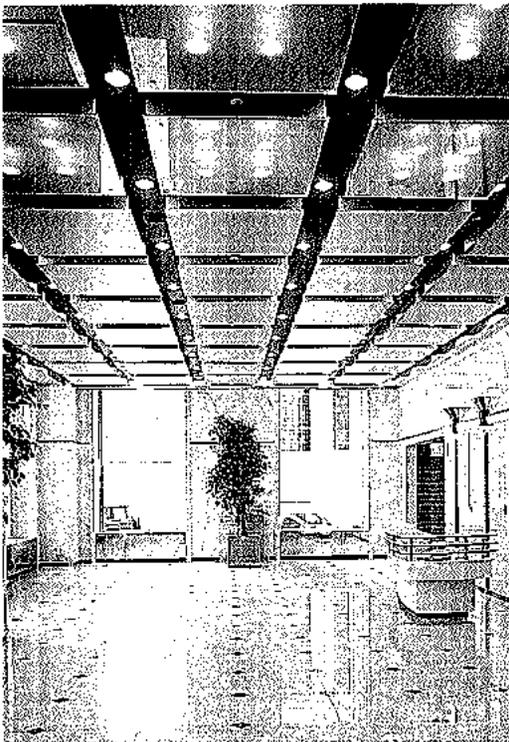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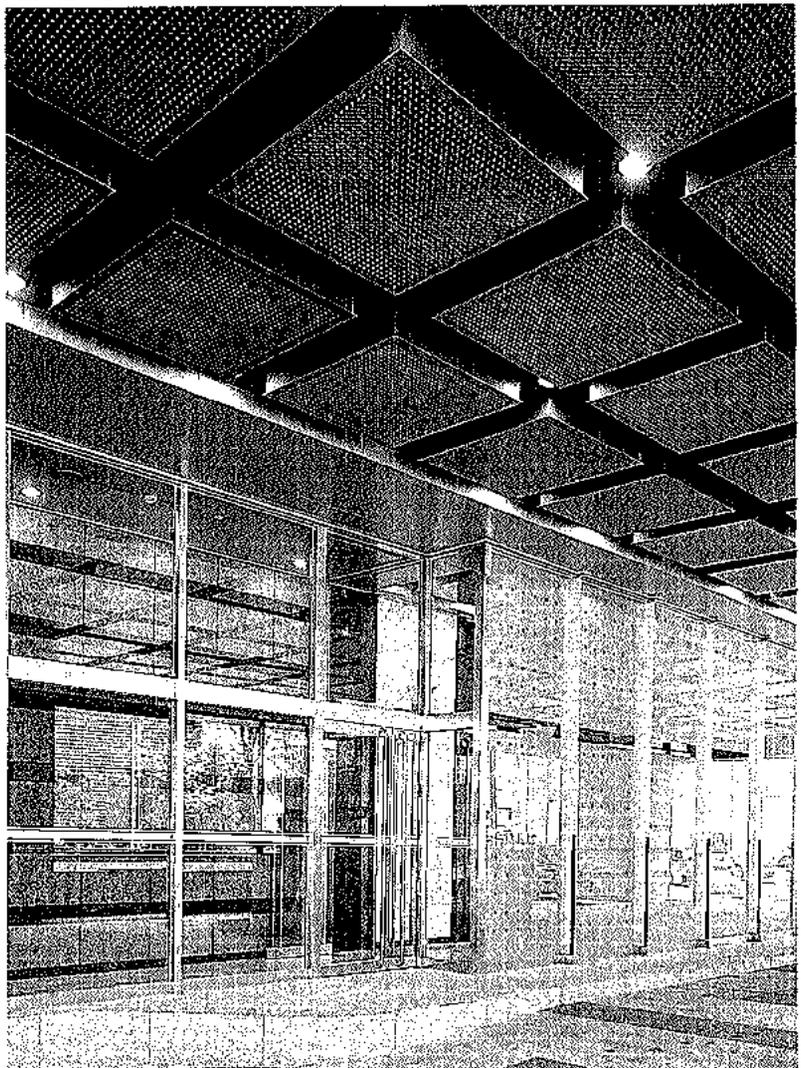


흑면에서 본 주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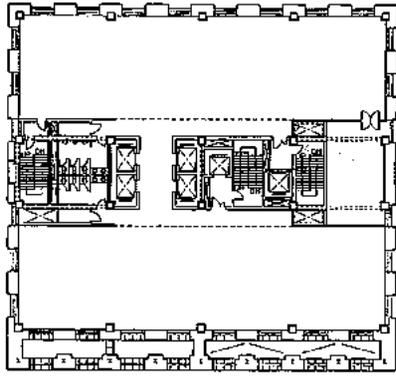


캐노피에서 올라다 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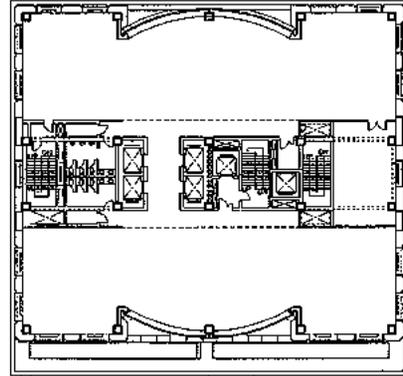
바편 저층부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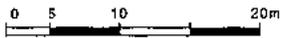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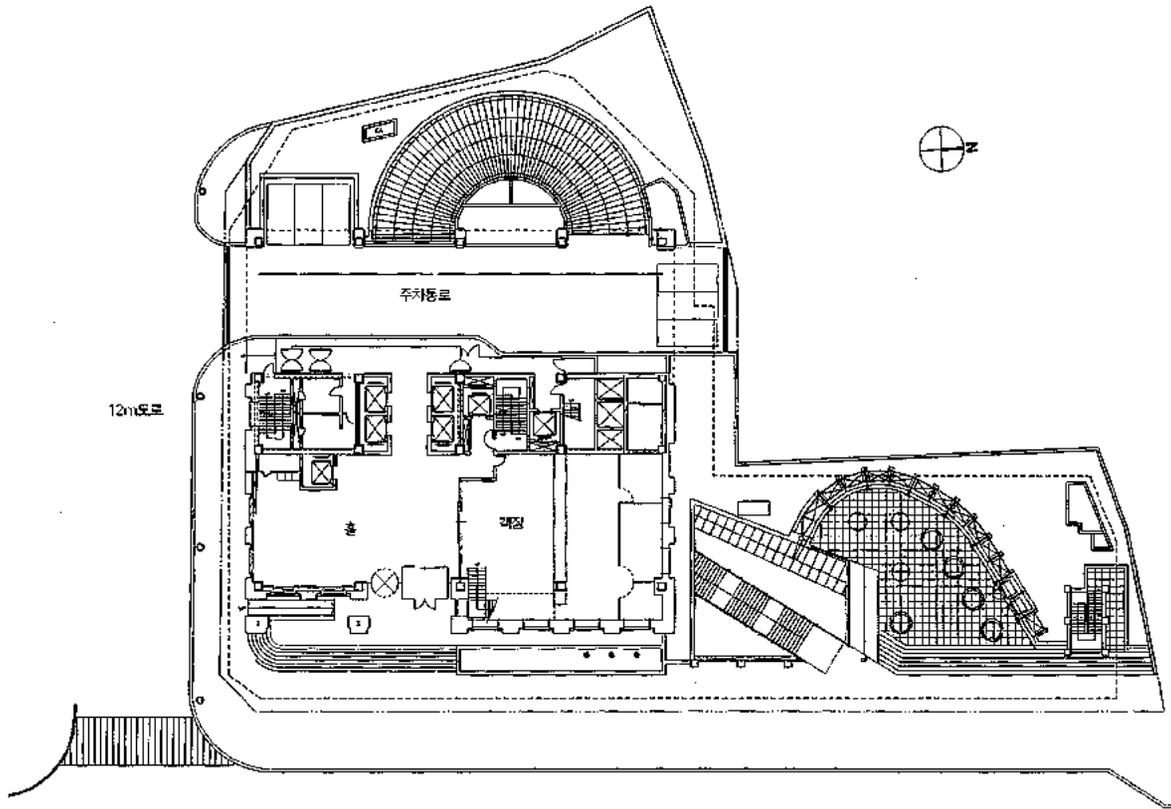
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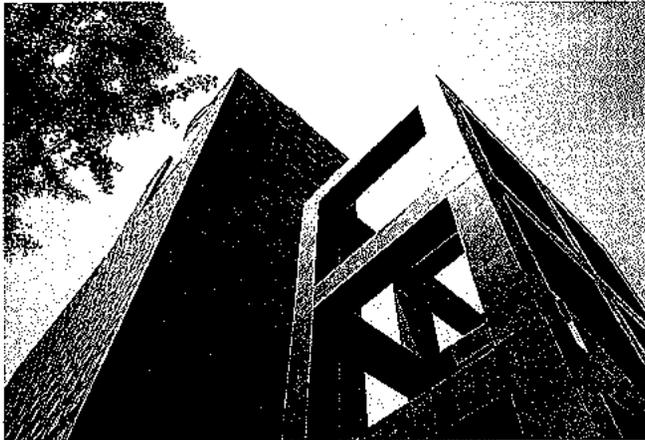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북동쪽에서 올라다 본 모습



원경

천주교 오금동 교회

Ogeum-dong Presbyterian Church

박재환 / 종합건축사사무소 도성건축
Designed by Park Chae-Whan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오금동교회는 송파구의 올림픽아파트 단지를 북측에 두고 주변의 대부분이 아파트로 밀집되어 있는 신심본당이다.

신축부지는 50m의 간선도로에서 한블럭 들어와 3면이 6~8m 도로와 접한 700여평이 조금 못되는 장방형의 평탄한 대지로 서측 6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조그마한 어린이공원이 있어 그나마 시야를 확보하고 있다.

배치 및 동선계획

건물은 동쪽으로 배치하여 남서측으로 Open Space를 계획함으로써 인접 어린이공원과의 연계성을 갖도록 하였다.

계획건물은 대지주변의 여건으로 볼 때 접근방법이나 정면성의 부각이 양면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어 정사각형의 구형건물이 진북방향과 일치되는 45°의 사선방향으로 중심축을 갖도록 계획하였다.

신자들의 주출입은 남서측의 광장을 통해 종탑과 연결된 옥외계단을 오르면서 대성당으로의 진입이 이루어지며 주차 진입은 입구와 출구를 남, 북측 반대 방향의 도로에서 이루어져 보차분리 및 차량동선을 편리하게 하였다.

평면계획

약 1,200여명의 신자를 수용하게 되는 대성당은 지상 2층에 위치하며 그 형태는 정방형으로서 미시집전사제와 참석

신자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공동체의식의 일치감을 갖도록 사측 성대칭 형태를 취하였다.

지상 1층에는 친교의 공간인 만남의 방을 중심으로 회의실, 사무실, 면담실, 서고, 성물판매소 등이 있어 각층으로서 동선과 활동의 중심이 되도록 하였다.

지하1층에는 소성당과 다목적홀 및 각 단체의 회합실이 있고 지하 2, 3층에는 68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계획되었다.

Mass 및 단면계획

건물의 Mass는 정사각형의 기본 평면위에 사측성의 장방형 지붕형태를 얹어놓아 종탑과 연결된 피로티를 만들므로서 단순한 형태를 구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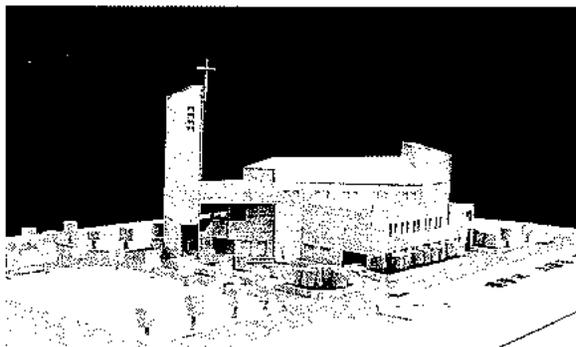
수직적요소(종탑)와 수평적인 요소(지붕형태)의 조화는 자칫 위압적이거나 비인간적인 형태가 되기 쉬운 교회의 이미지를 불신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대성당 평면과 단면형태의 공간구성에서 가시거리, 음향, 빛의 양과 질, 중심성, 일체감 등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추구하는 현대의 전례의식에 충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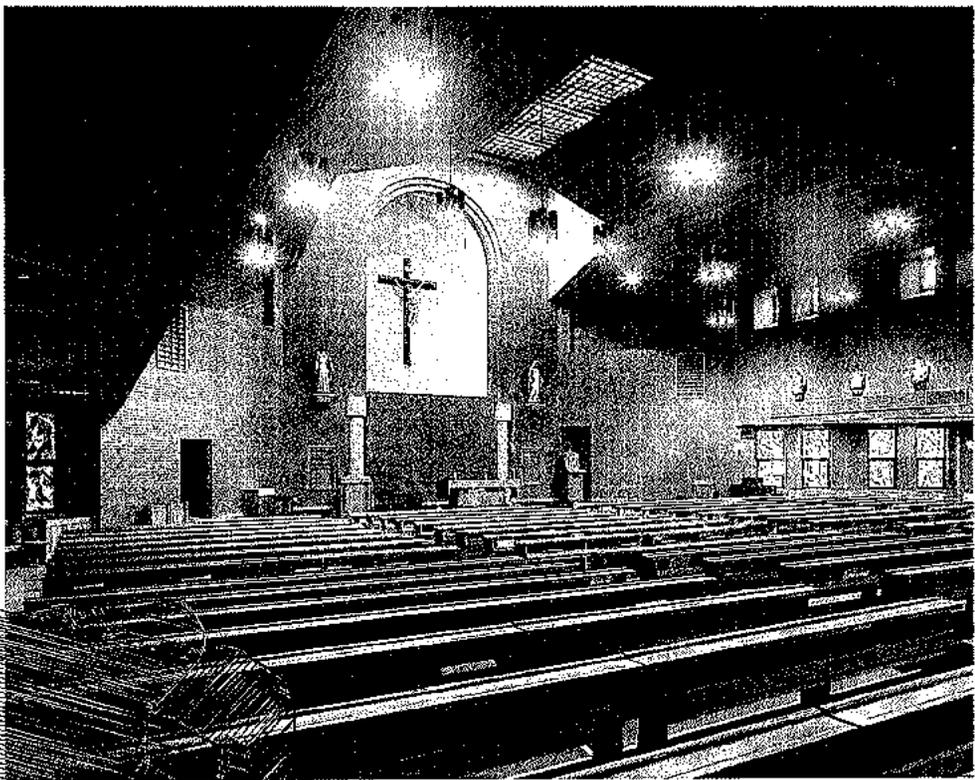
준공된 지도 1년이 훨씬 넘은 성당이지만 건물에 대한 평가는 건축가 자신도 건축주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신자들과 사목을 담당하는 성직자, 수도자들의 올바른 판단기준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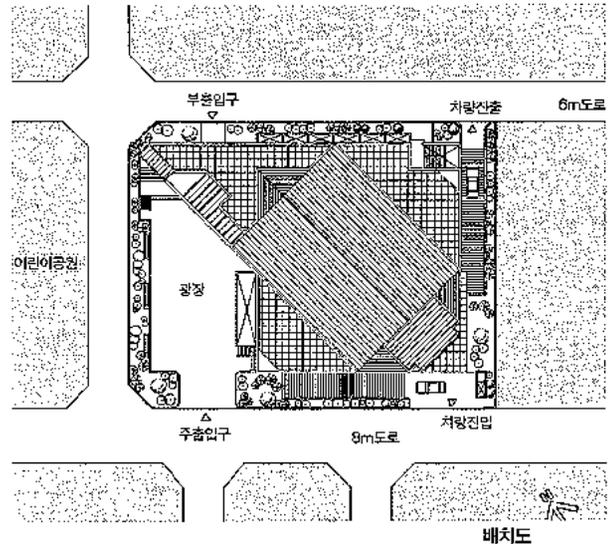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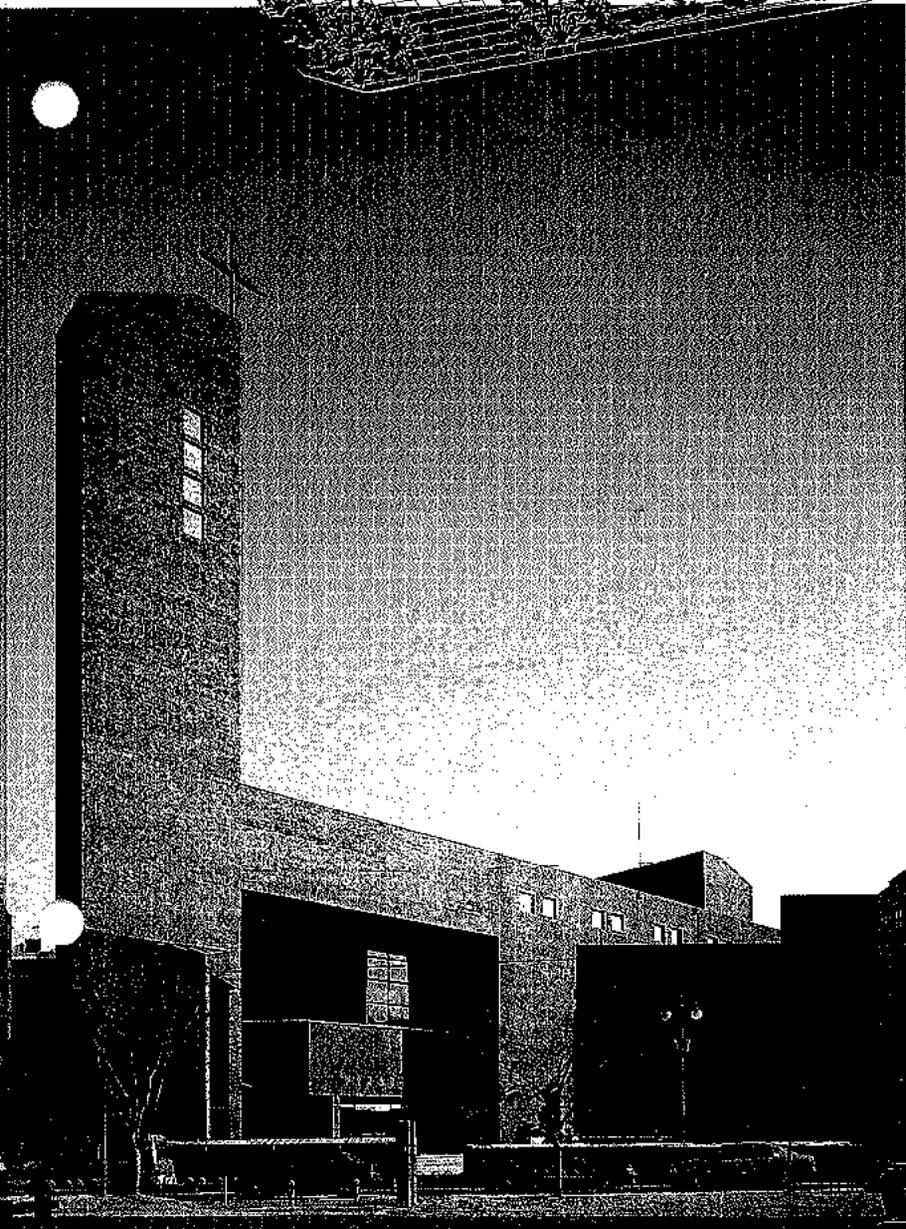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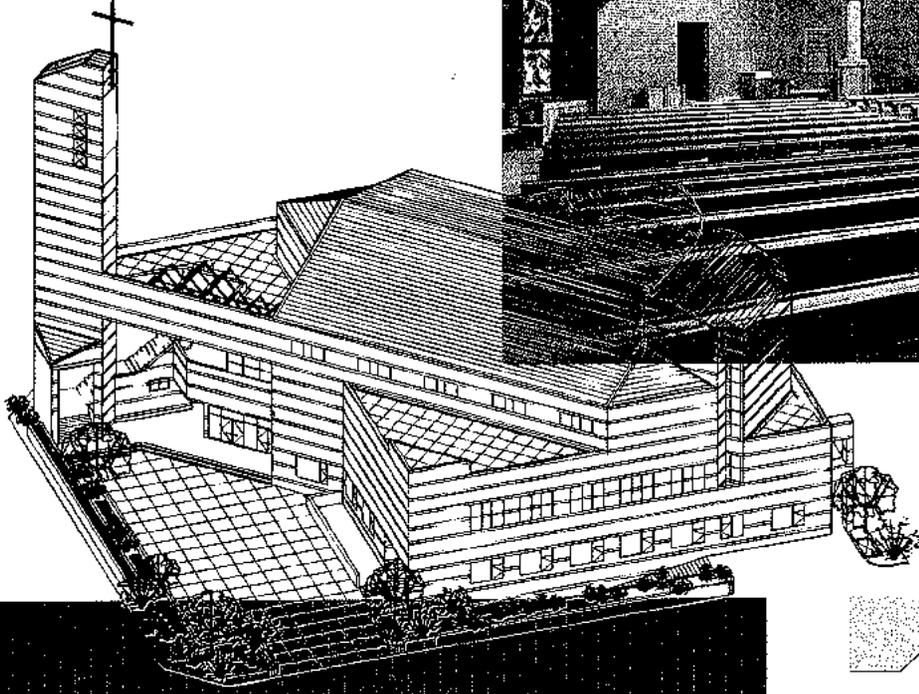
위치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22외 4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2,284.3㎡	건축면적	1,127㎡
연면적	8,088㎡	건폐율	49.36%
용적률	102.19%		
규모	지하4층, 지상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철골지붕		
주차대수	지하68대		
시공자	한울 종합건설 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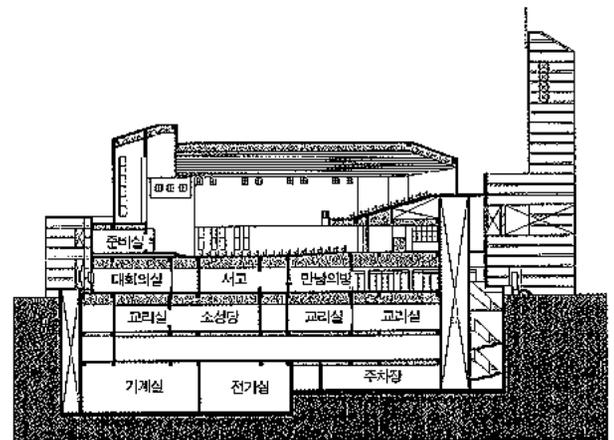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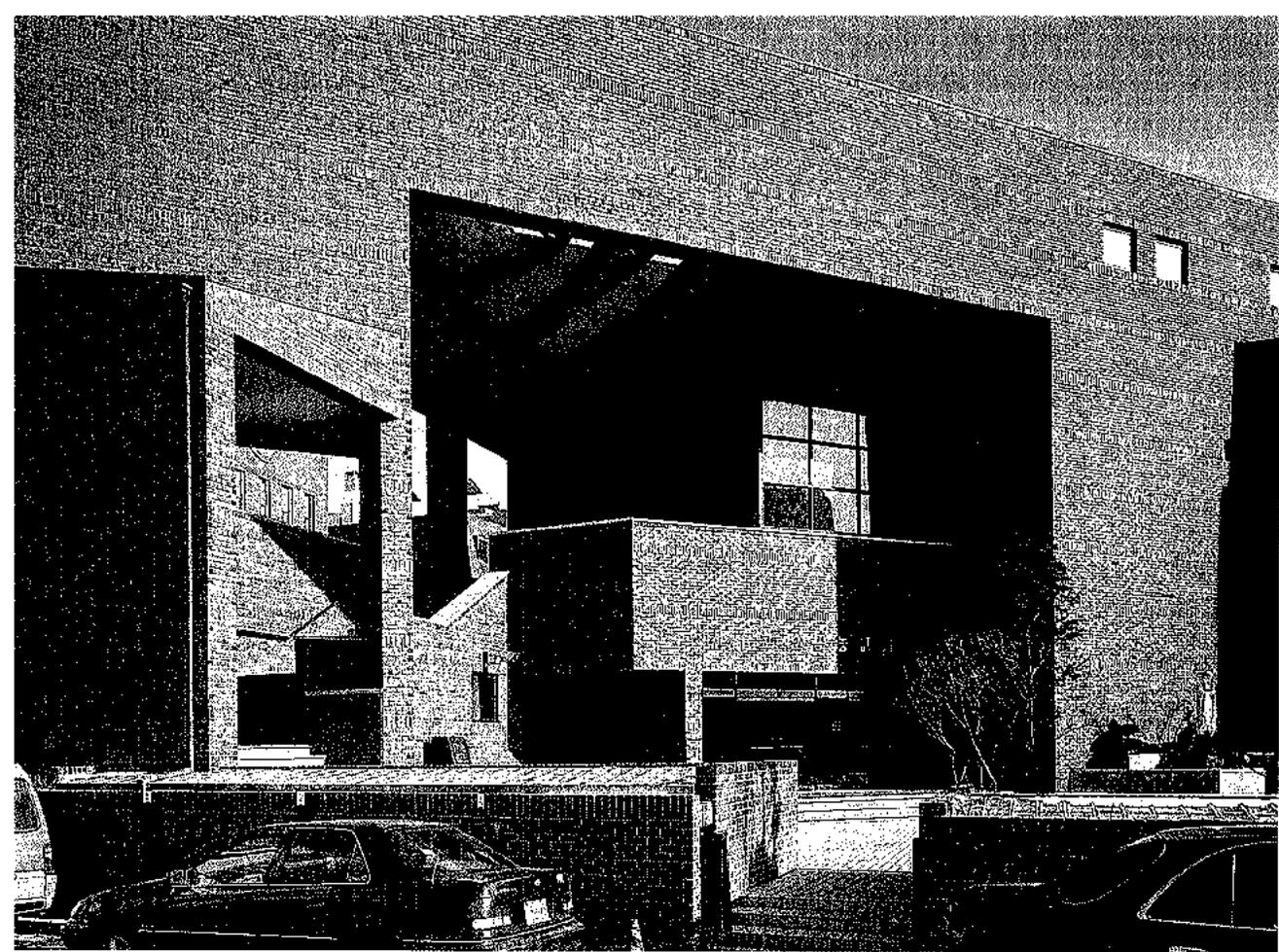
교회내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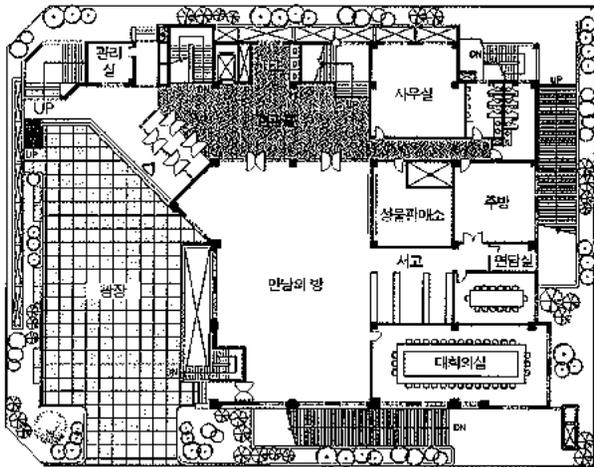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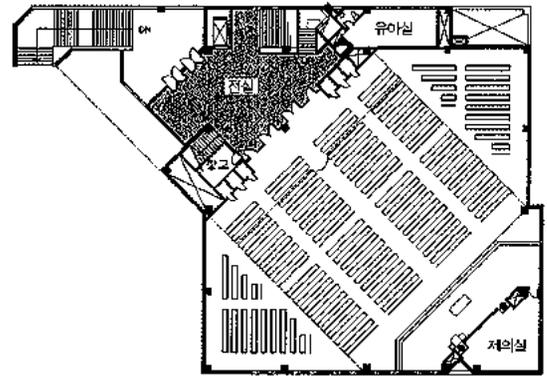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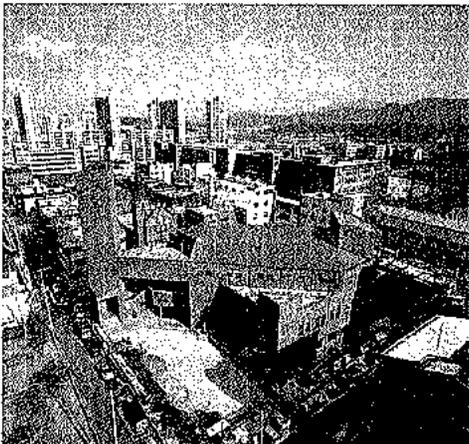
주출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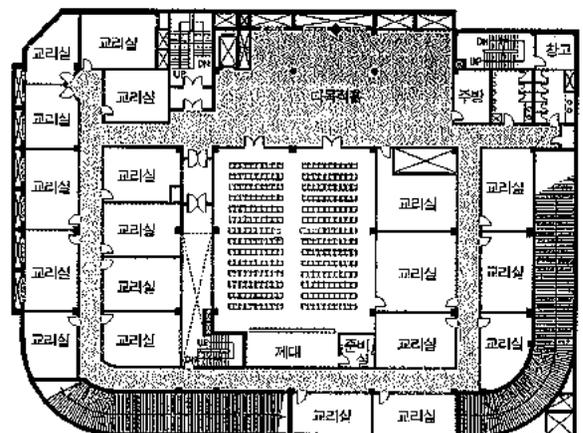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현장



지하1층 평면도

천주교 오금동 교회

Ogeum-dong Presbyterian Church

박재환 / 종합건축사사무소 도성건축
Designed by Park Chae-Whan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오금동교회는 송파구의 올림픽아파트 단지를 북측에 두고 주변의 대부분이 아파트로 밀집되어 있는 신심본당이다.

신축부지는 50m의 간선도로에서 한블럭 들어와 3면이 6~8m 도로와 접한 700여평이 조금 못되는 장방형의 평탄한 대지로 서측 6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조그마한 어린이공원이 있어 그나마 시야를 확보하고 있다.

배치 및 동선계획

건물은 동쪽으로 배치하여 남서측으로 Open Space를 계획함으로써 인접 어린이공원과의 연계성을 갖도록 하였다.

계획건물은 대지주변의 여건으로 볼 때 접근방법이나 정면성의 부각이 양면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어 정사각형의 구형건물이 진북방향과 일치되는 45°의 사선방향으로 중심축을 갖도록 계획하였다.

신자들의 주출입은 남서측의 광장을 통해 종탑과 연결된 옥외계단을 오르면서 대성당으로의 진입이 이루어지며 주차 진입은 입구와 출구를 남, 북측 반대 방향의 도로에서 이루어져 보차분리 및 차량동선을 편리하게 하였다.

평면계획

약 1,200여명의 신자를 수용하게 되는 대성당은 지상 2층에 위치하며 그 형태는 정방형으로서 미시집전사제와 참석

신자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공동체의식의 일치감을 갖도록 사측 성대칭 형태를 취하였다.

지상 1층에는 친교의 공간인 만남의 방을 중심으로 회의실, 사무실, 면담실, 서고, 성물판매소 등이 있어 각층으로서 동선과 활동의 중심이 되도록 하였다.

지하1층에는 소성당과 다목적홀 및 각 단체의 회합실이 있고 지하 2, 3층에는 68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계획되었다.

Mass 및 단면계획

건물의 Mass는 정사각형의 기본 평면위에 사측성의 장방형 지붕형태를 얹어놓아 종탑과 연결된 피로티를 만들므로서 단순한 형태를 구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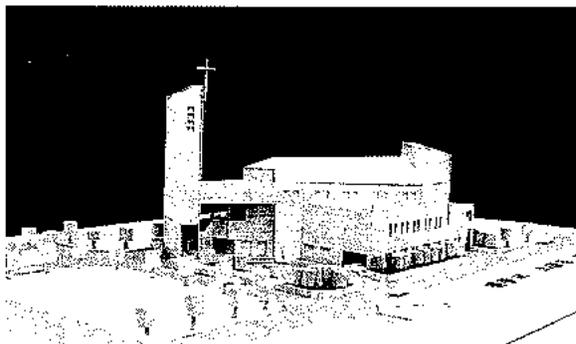
수직적요소(종탑)와 수평적인 요소(지붕형태)의 조화는 자칫 위압적이거나 비인간적인 형태가 되기 쉬운 교회의 이미지를 불신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대성당 평면과 단면형태의 공간구성에서 가시거리, 음향, 빛의 양과 질, 중심성, 일체감 등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추구하는 현대의 전례의식에 충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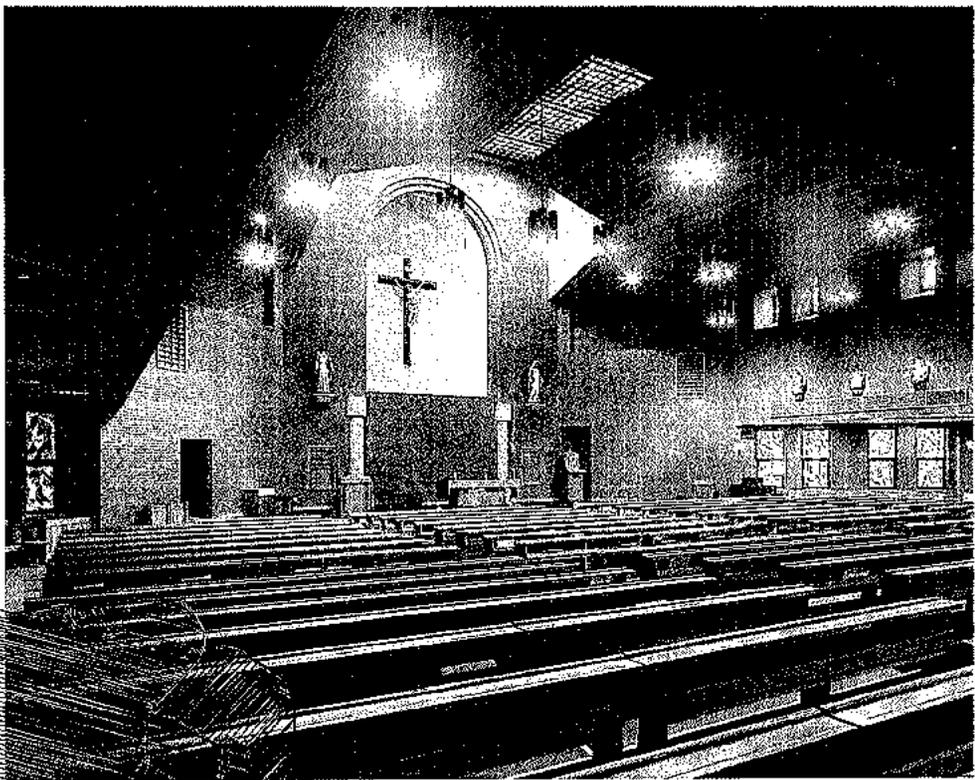
준공된 지도 1년이 훨씬 넘은 성당이지만 건물에 대한 평가는 건축가 자신도 건축주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신자들과 사목을 담당하는 성직자, 수도자들의 올바른 판단기준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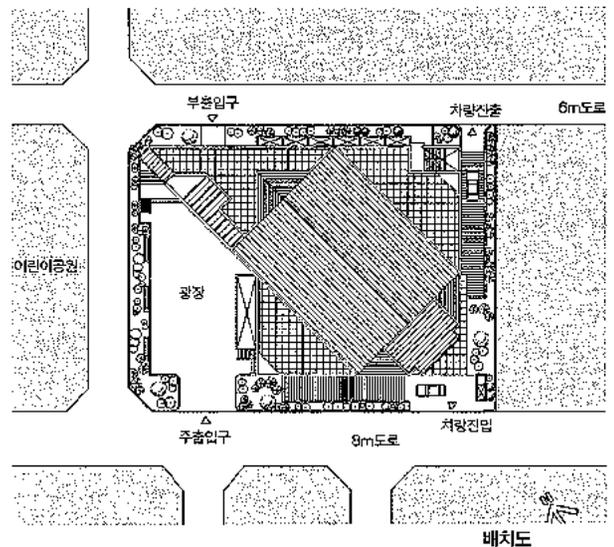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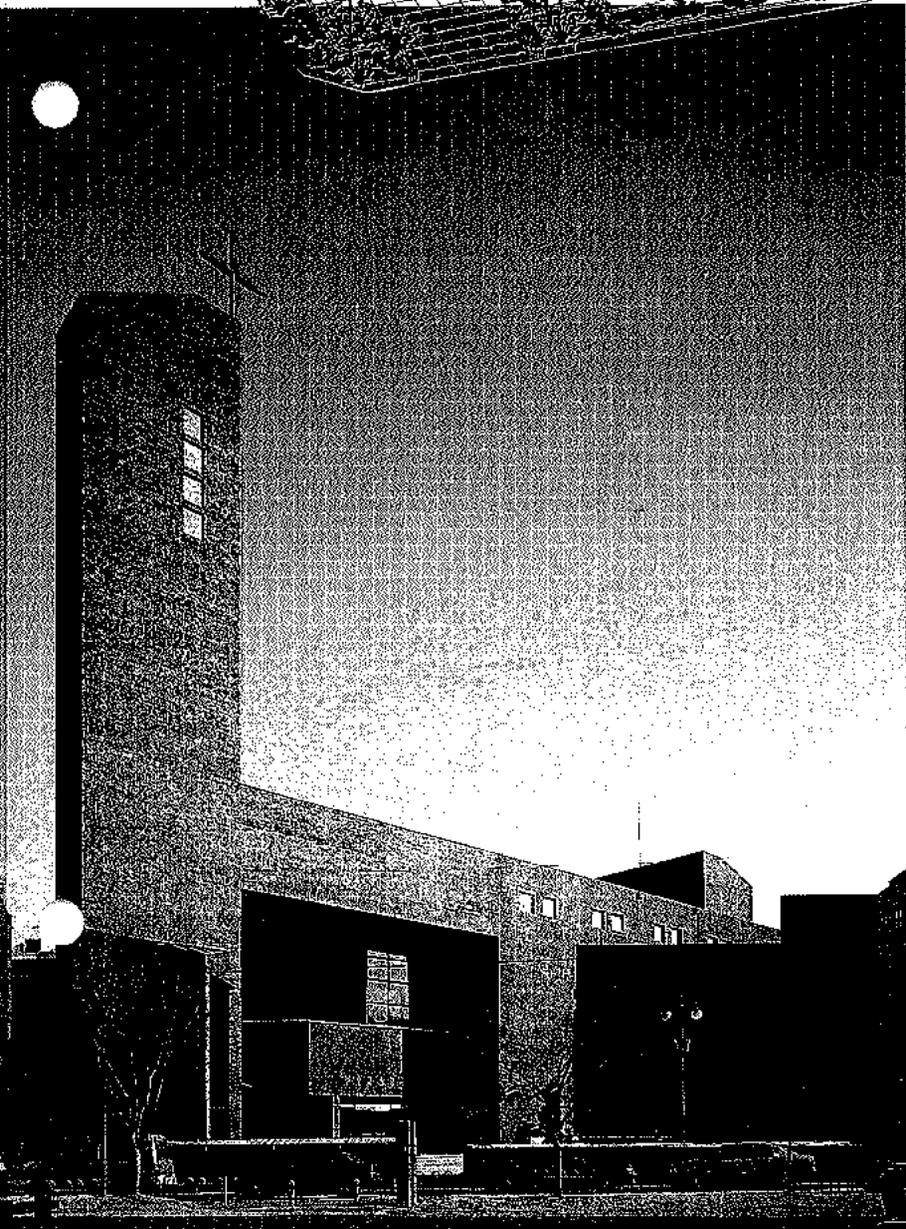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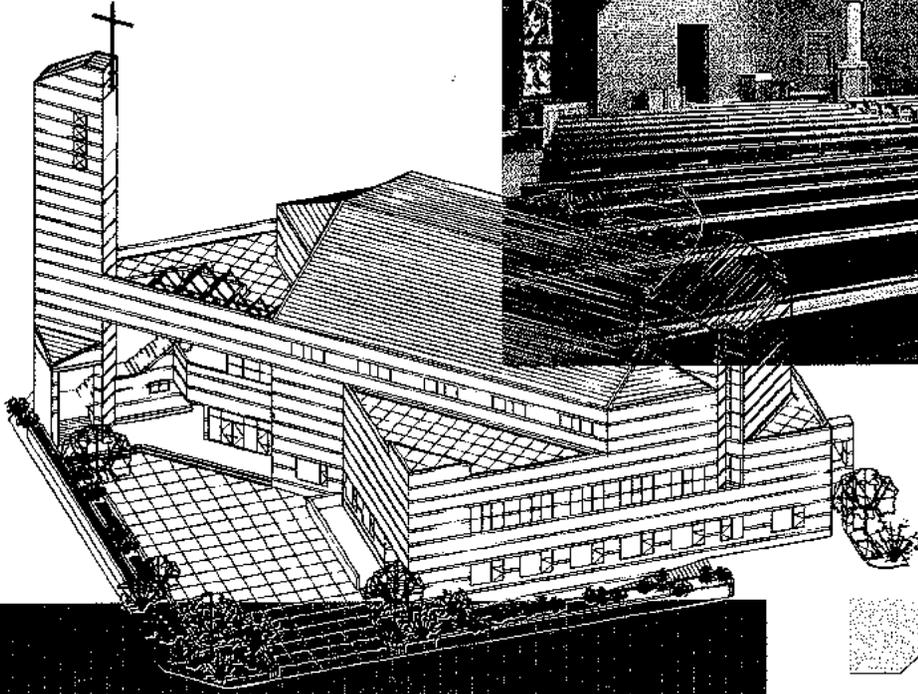
위치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22외 4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2,284.3㎡	건축면적	1,127㎡
연면적	8,088㎡	건폐율	49.36%
용적률	102.19%		
규모	지하4층, 지상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철골지붕		
주차대수	지하68대		
시공자	한울 종합건설 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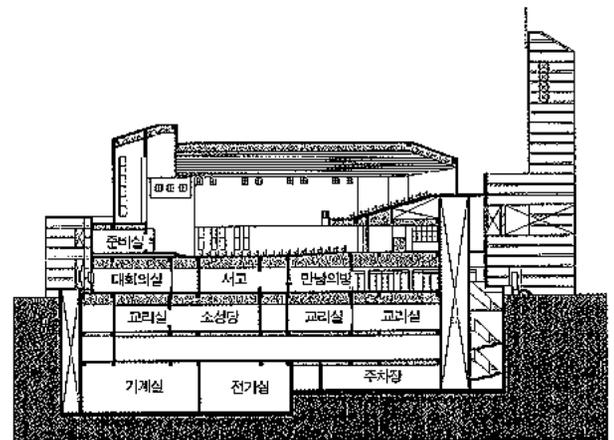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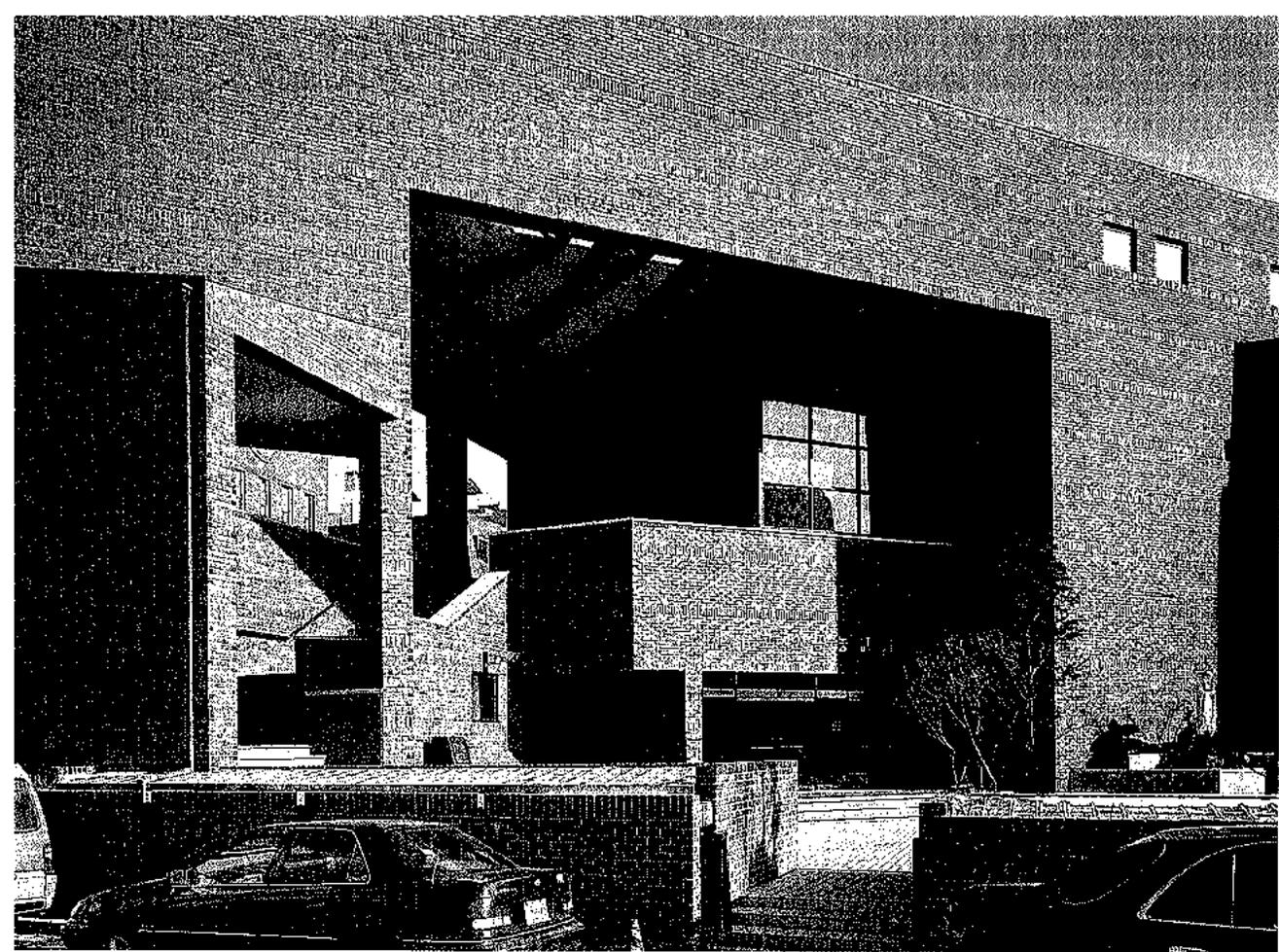
교회내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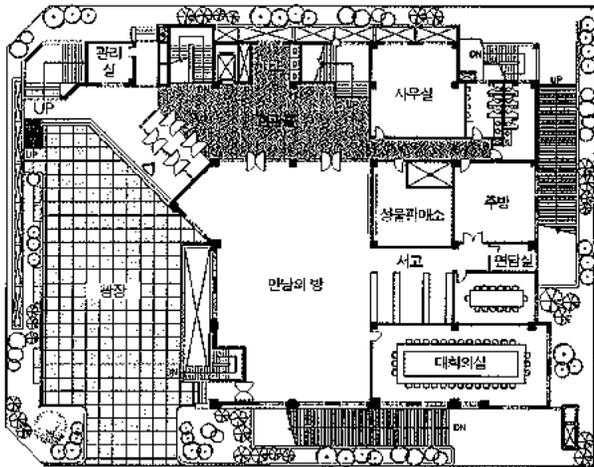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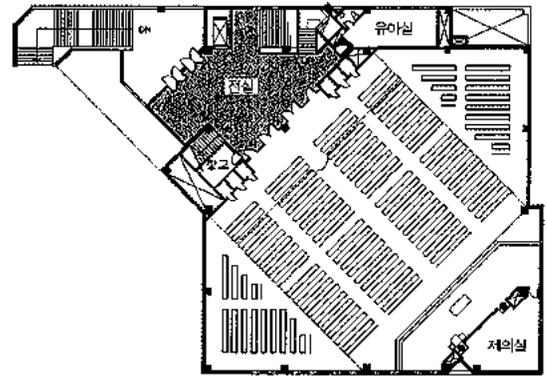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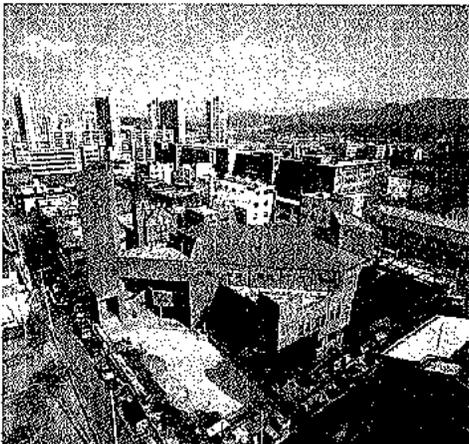
주출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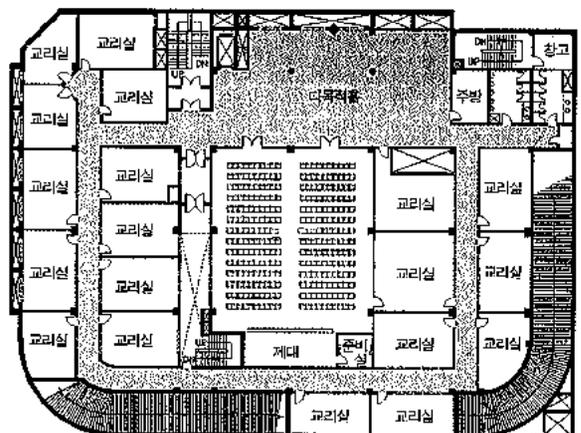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외관



지하1층 평면도

극동건축사옥

Far-East Architect's Office

황규태 · 황재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극동건축
 Designed by Far-East Architects & Engineers

30여년동안 건축설계에 몰입해 지금에서야 조그마한 사옥 하나를 갖게 되었다. 정사각형에 가까운 100여평 남짓한 Site, 전면에 시설녹지와 3m 후퇴한 건축선이 더욱 경직된 대지 성격을 부여하였다. 다행스럽게도 구룡산, 구룡사, 능인선원 등이 시각적인 해방감을 준다. 오피스 건물이기엔 일단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였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우측면과 배면에 골조를 노출시키고 외벽을 골조 내측으로, 코아는 건물 좌측면으로 최대한 Tight하게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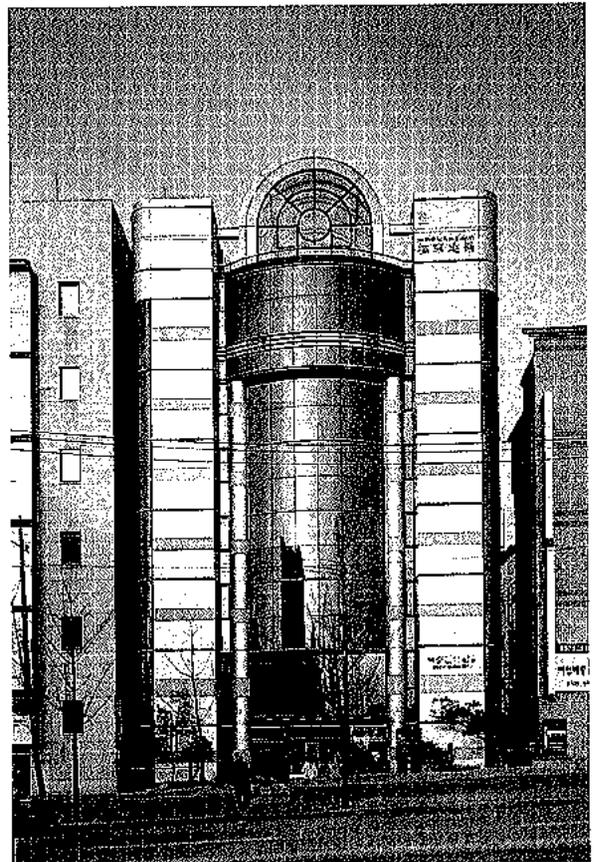
외부 Design에 있어서는 대지위치가 강남의 마지막 개발지라는 이미지를 고려해 신선하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추구하였다. 은색(알루미늄복합패널, 스텐레스 몰딩) 청색(불소수지 코팅알루미늄바, 반사복층유리), 적색(ISO COAT)의 3가지색으로 옥상측에 Arch를 들고 전면창과 코너를 곡면화시켜 유선형의 형태를 의도하였으며 주·부출입구의 캐노피와 후면장식기둥(초기에 각층의 보를 매달아주는 구조체로 계획하였으나 시공비의 상승으로 장식기둥으로만 역할을 하게 되었음)에 청색의 조명을 매입시켜 소소한(?)재미를 주고자 했다.

내부 Design은 준공후 Interior를 위해 재시공하는 낭비를 막기위해 용도가 미리정해진 부분(6층, 7층 공용면적)에 대하여 Interior를 설계 및 시공에 포함시켰다. 공용면적 벽면에 대리석(보디치노)과 즐리톤(43-24827 SS)바닥에 화강석(로사이드) 붉은색 방화문을 사용하여 외부의 찬 이미지와 대조적으로 따뜻한 분위기를 의도했다. 여기에 천정과 벽체 마감부분에 청색과 은색 커튼박스를 이용하여 외부 이미지의 관입을 의도했다.

이 프로젝트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옥상 정원과 냉방부하를 줄이기 위한 고려이다. 옥상에 화단을 구룡산이 배경으로 보이는 옥탑 맞은편에 위치시켜 외부의 자연환경(구룡산)을 시각적으로 내부로 끌어들이는 자연(徛然)기법을 빌어 사용했다. 옥상층바닥은 단열을 위해 이중 슬래브로 하고 마감재로는 스텐실공법을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패턴을 연출하였다. 이곳은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에너지를 고려한 부분으로는 7층하단부에 통풍창을 만들어 자연환기를 유도했으며 6층 상단부에 살수용 유공관을 설치하여 여름철 전면창에서 발생하는 냉방부하를 물을 낙수시키므로써 증발열을 이용해 낮추려고 의도했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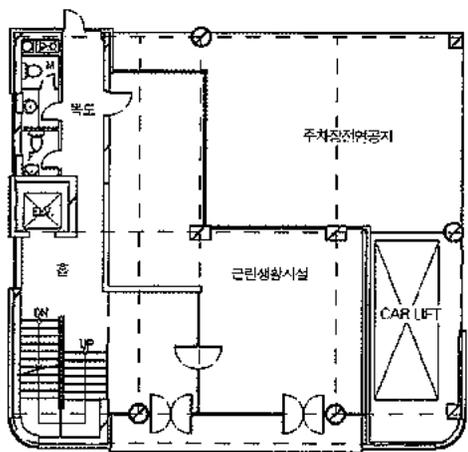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포아동 163-7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4종미관지구
대지면적	336.2㎡
건축면적	198.03㎡
연면적	1,566.65㎡
건폐율	58.9%
용적률	397.98%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용도	업무시설
외부마감	알루미늄 복합패널, ISO COAT, 반사복층유리
주차대수	16대(2단 수평순환 기계식)
계획설계	황규태 · 황재원
실시설계	이경환 · 박영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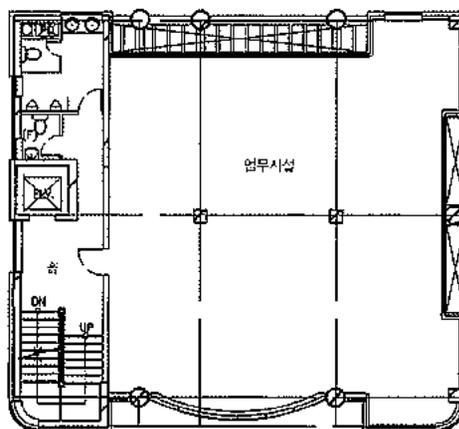
남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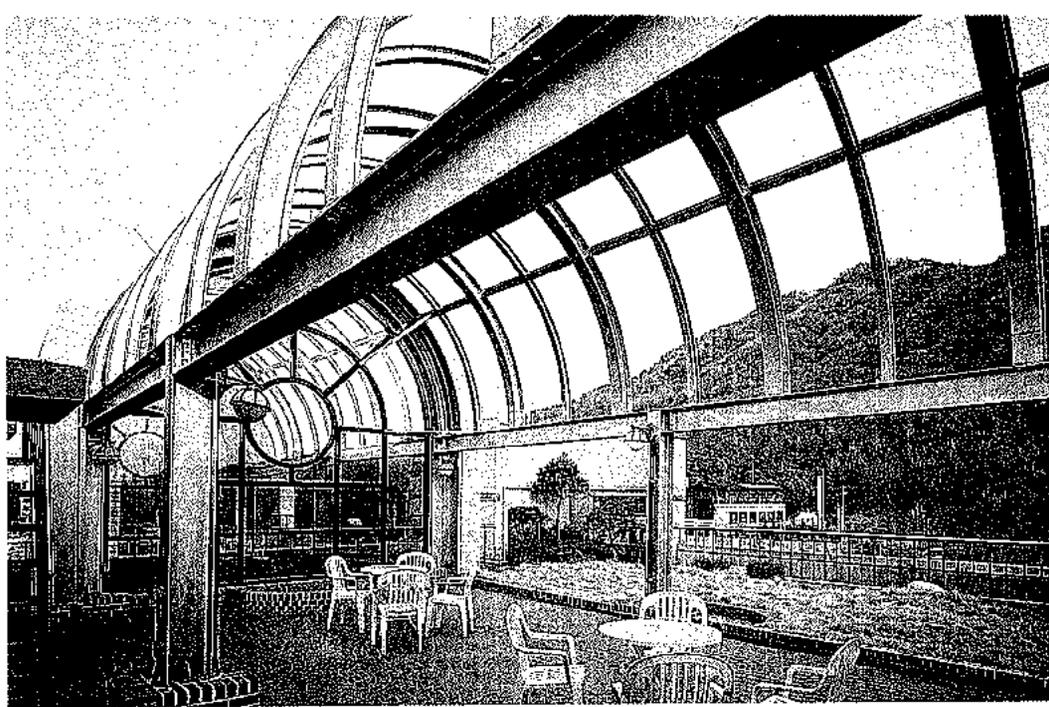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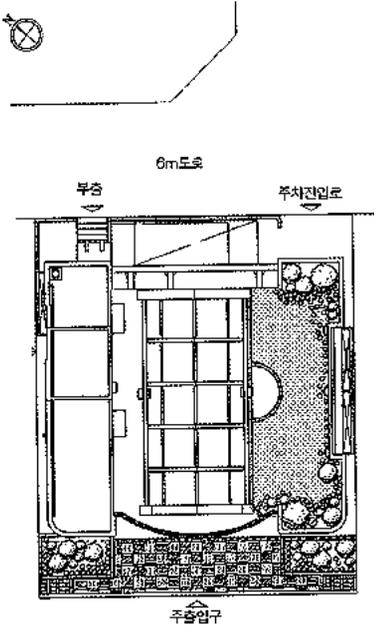
주출입구에서 올려다 본 모습



1층 평면도



3~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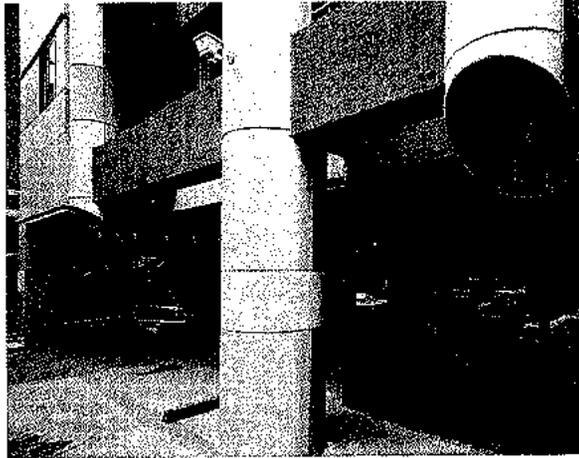


목상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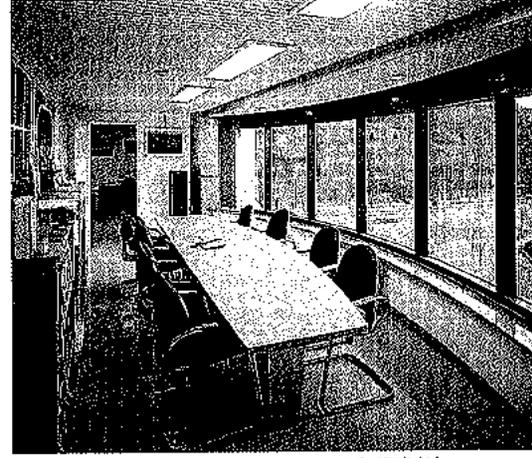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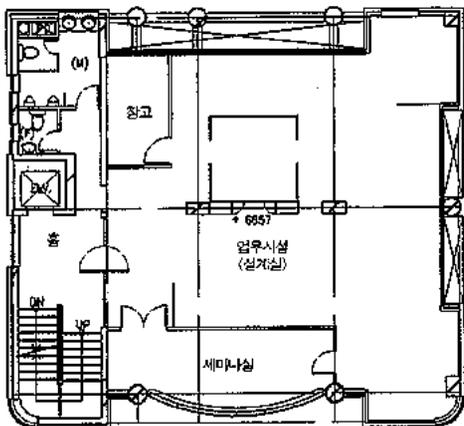
동측 배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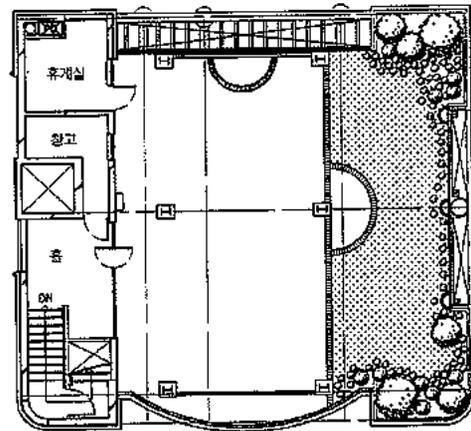
배면 저층부 상세



6층 세미나실



6층 평면도



육층평면도

한국의 건축가 11 - 김순하(완)

Korean Architect, Kim Sun-Ha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천득엽 / 전남대 교수
by Chon Deuk-Yeom

◇ 연재목차 ◇ (계재월)

1. 이희태 (9503~9505)
2. 김정수 (9506~9508)
3. 김수근 (9509~9512)
4. 정인국 (9601~9605)
5. 박길룡 (9607~9608)
6. 박동진 (9609)
7. 강 윤 (9610~9612)
8. 이천승 (9701~9702)
9. 김종업 (9703~9707)
10. 배기형 (9710~9801)
11. 김순하 (9802~9803)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난 김순하는 서울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학교를 졸업한 뒤 전남도청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면서 건축계에 첫발을 내딛었다. 이 때부터 선생의 작품활동이 시작되었는데 이들 작품들의 경향은 섬세하고 우아한 것이 특징이다. 그 중에서 근·현대 건축에 기억될만한 몇 가지 작품을 선정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전라남도청

전남도청은 여러가지 역사적 사건으로 점철된 현장이다. 이곳은 일제하에는 전남 민중에 대한 수탈이, 해방 후에는 새로운 억압체계의 재편이 이루어졌던 곳이며, 현대로 거슬러와서는 광주항쟁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다. 광주가 전라남도의 행정중심지가 되었던 것은 1896년 8월 4일 나주에 있던 전라남도 관찰부가 옮겨오면서부터다. 한일합방 직후인 1910년 9월 30일 도 관찰사는 도 장관으로 바뀌고, 관찰부를 도청이라고 치면서 광주시 광산동 현 도청 자리에 서양식 목조 단층 건물이 세워졌다. 지금의 청사는 1920~1930년대 전남 유일의 한국인 건축사였던 김순하(金舜河)에 의해 1930년경에 설계되었던 것이다. 초기에 설계된 당시 건물의 형태는 붉은 벽돌을 사용한 2층 조적조 건물이었다. 중앙에 계단을 두고 남쪽으로 실을 배치한 편북도 형식의 건물은 북쪽을 향하고 있는데 이는 광주 읍성 때의 동헌(현 도청 광장 분수대 자리)을 바라보고 배치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해방 후 미군정청이 들어오면서 미국의 백악관을 연상시키는 흰색 페인트칠을 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행정의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불가피한 증축이 요구되어, 1975년 김태만씨에 의해 현재와 같은 3층으로 설계 증축되고 좌·우에 새로 지어진 건물들과도 확장시켜 연결하였다. 그래서, 지금은 원래의 모습을 쉽게 파악할 수가 없는 아쉬움이 남는다.

2) 전라남도 회의실

본 전라남도 회의실은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에 있는 전남도청건물의 좌측에 자리잡고 있으며 광주지방유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어 있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조적조 붉은 벽돌 건물이며 2층의 주공간은 높이가 높게 통칸으로 되고 외부에서 보았을 때 창문이 상하로 나뉘어 있어 밖에서는 3층으로 보이는 아담한 건물이다. 본 건물은 1930년대 광주라는 지방도시에 건립된 건물로는 대단히 시험적인 건물이었다. 도로면의 출입구 상부에서 옥상까지 전면을 수직선을 강조하여 유리로 장식하였고, 건물 前面의 좌우 모서리를 곡면으로 처리한 점과 원형창 및 전면출입구 앞 계단 난간의 곡선처리 등 당시 건물로는 혁신적인 기법이 도입되어 있다.

현재는 붉은 벽돌이 보이지 않게 흰색 칠이 되어 있고 정면 현관 출입구 부분만 석재를 사용한 것이 남아있다. 정면 출입구와 측면 출입구가 내부를 통하여 연결이 되어있으나 현재는 막아놓은 상태이고 전면으로 돌출된 유리 뒤편으로 2층과 옥상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인다.

원래 이 지역은 광주 음성지가 있던 곳으로 1908-1918년에 걸쳐 樓門이 마지막으로 철거되었는데 그 뒤 현재의 도청 뒤편에 돌무더기 등 약간의 흔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찾아볼 수 없다. 광주읍지 城址條에는 "石築周八千二百五十三尺"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高三尺"이라 하였고 성의 외부는 斷崖絶벽이 있었으며 성의 내부에서는 왕래에 용이하도록 성곽구조가 완벽했던 것 같다.

본 건물은 일제치하에서 활동한 몇 안 되는 한국인 건축가에 의해 설계된 건축물로 시대를 앞선 선각적 조형구상이 나타나 있는 점에서 한국 근대건축의 귀중한 작품의 하나로 높이 평가된다. 이 건물은 해방 후 전라남도 평의회회의사당으로도 활용되었고 현재는 민원실로 사용되고 있다.



전라남도청 전경



전남회의실 현재 모습(지금은 전남도청 민원실로 사용)



1932년 준공당시 전남회의실 전경
(자료제공: 김정동 목원대 교수)

1930년대~1950년대 광주의 변화가인 금남로와 충장로 주변에는 한식기와 또는 슬레이트를 얹은 지붕의 단층 목조가구와 조적식 2층의 일식 건물이 섞여 있었고, 금남로는 15m, 충장로는 현재와 같은 7m 정도의 노폭이었다. 개구부는 거의가 목조창틀에 유리를 박아 넣은 형태였으며 상층부는 주택, 하층부는 점포로 이용하거나 단층일 경우에는 전면부를 점포로, 안쪽을 주택으로 이용하였다.

입면의 형태는 하층부를 전면창으로 하고 상층부가 상하로 길쭉한 장방형 창을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고, 전면부에만 타일붙임을 하거나 격자형의 장식을 넣은 것들이 많았다. 일층과 이층의 사이에는 1m 정도의 켈틸레버, 슬레이트 지붕, 천막 등을 돌출시켜 비를 막고 遮光을 시켰다.

3) 전라남도 회의실 설계도

- 지정 종 별 :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4호
- 수 량 : 일괄 8매 (총 9매 중 1매 유실)
- 제 작 시 기 : 1930년대 초 (건물은 1932년 준공)

○ 건물 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1번지
설계도는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만국공용의 건축언어이다. 특히 설계도면은 건축적 작업 중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창작활동으로 장차 이루어질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설계도는 작가의 내면세계를 건축적 언어로 나타내주는 귀중한 예술작품이다. 즉 건축가들은 일차적으로는 설계도면으로 자기의 작품세계를 얘기하고 이차적으로는 완성된 작품으로 검증받게 된다. 결국 설계도면이란 건축인들이 추구하는 건축적 삶의 장이며, 건축인들의 연륜이 새겨진 얼굴인 것이다.

설계도면은 이처럼 건축인들에게는 의미가 깊은

것이지만 우리의 선조 장인들이 그들의 기능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꺼린 탓인지 전통적인 한국건축의 조영과정에서는 건축도면을 찾아볼 수 없다. 물론 營建儀軌類등에는 부분적으로 건축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붓으로 그린 초기적 外襟圖일 뿐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설계도면은 조선조 말경 개화기에 이르러 외국인들에 의하여 현대적 건축도면들이 한국에 소개되면서 알려졌을 것이라 짐작된다. 특히 외국인들이 그들의 주거나 관공서를 건립할 때 그들의 풍토나 기호, 습관에 맞는 건축을 우리 땅에 건립하면서 자연스럽게 건축기술이나 재료, 특히 설계도면이 소개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설계도면은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에게 현대건축을 배운 한국인 건축가 김순하가 작성한 것으로 이 설계도면이 지니는 의미는 대단한 건축사적 가치를 갖는다 할 것이다. 즉 단순한 건축작품을 그린 도면이라기 보다는 일제시대에 전라남도청 영선계에서 일본인들에게 현대식 건축기술을 배워 당시 광주에서는 파격적인 건축을 계획하고 축조하여 오늘에 남긴 선각자적 의미를 나타낸다 할 것이다. 즉 아직까지는 전남지방에서 이 보다 앞선 설계도서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설령 이 보다 앞선 시기의 것들이라도 家圖정도에 불과한 배치도의 성격만을 지닌 것들이라 할 것이다. 본 도면은 종이유 위에 가는 필과 검정색깔의 먹으로 그린 것이라 판단된다. 본 도면은 평면도와 단면도, 입면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縮尺, 재료표시, 鐵筋配筋圖, 도면번호 등이 나타나고 있어 현대건축의 도면과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다. 정면도와 측면도는 100분의 1이고 상세도는 20분지의 1의 축척을 하고 있다.

당시 광주에서는 시멘트나 철근 등 건축자재가 아주 희귀할 때였는데 도청과 도청회의실 공사는 콘크리트 라멘조의 형식을 취한 2층 건물로서 완벽할 정도로 구색을 갖춘 건축공사였다고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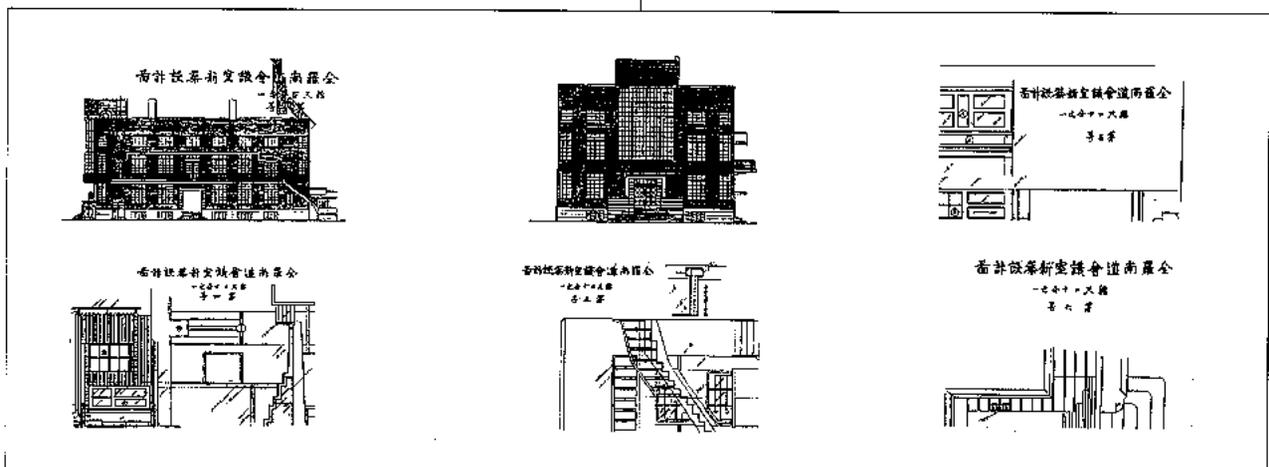
광주에서 당시 활동하였던 원로 건축인들의 말에 의하면 철근이 없어서 드럼통을 잘라서 철근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 건물은 철근의 두께와 배근간격까지를 상세히 명시하고 있고 벽돌과 유리, 철근과 철재 강재를 사용하여 소위 국제주의적(?) 양식을 갖추려 한 콘크리트 라멘조의 3층 건물로 대단한 역사였을 것이다.

본 도면은 일제시대에 건축물을 그린 설계도면으로서 전남광주지방 최초의 현대식 건축설계도면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건축을 조영할 때 우리의 선조 장인들이 설계도면을 사용하였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설계도는 의미가 큰 작품이라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시기나 혹은 훨씬 이전 외국의 경우는 대부분 건축가의 작품을 보여주는 도면이나 건축모형을 박물관에 잘 보관하고 있어 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즉 르네상스시대 건축작품의 모형이나 설계도면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우와 비교하면 우리의 처지가 이해될 것이다.

4) 춘목암

김순하에 의하여 설계된 春木菴(전 광주미문화원)은 당시 광주에서 가장 인기 있고 규모가 큰 한국식 요리집이었다. 춘목암은 황금동 80-81번지에 있었는데 4백41평의 넓은 대지에 연건평 2백21평의 큰 규모였다. 1917년 마산에서 광주에 온 李春贊은 황금동 네거리 골박스 부근에서 우동집을 시작하였다. 그의 뛰어난 요리솜씨와 타고난 근면성 그리고 정직한 경영으로 우동집은 해를 거듭할수록 번창하여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다. 그 덕으로 지금의 리버사이드호텔 자리 황금동의 넓은 부지에 저택도 갖게 되었으며 구 광주미문화원자리를 사서 1925년경 춘목암이라는 요리집을 치렀다. 사업은 순조로웠으나 이춘실은 병



전남회의실 도면

을 얻어 1929년 세상을 떠났다. 당시 아들은 어려서 그의 여동생인 李珍이 남편 趙成海과 함께 요리집 경영을 맡게 되었다. 춘목암은 조성순의 능란한 사업솜씨에 의하여 날로 번창하였으며 옆의 목욕탕까지 사들여 새로 건물을 지었으며 1933년경 무동산 기슭 중심사 입구에 각종 나무를 심은 대규모 정원에 분수까지 갖춘 호화스런 춘목암 별장(현 삼애산장)을 신축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김순하의 작품인지 분명하지 않다. 김순하는 춘목암의 경영자였던 조성순의 요청에 의해서 건물설계를 맡았다. 그후 춘목암은 해방 직전 일제의 전시체제 전환에 따른 유흥업소 정비로 폐쇄되었고, 건물은 순천철도국에 매수되어 광주보선구 사무소의 직원합숙소로 사용되었다. 해방 후 이 건물은 敵産으로 처리되어 미군 숙소와 미군 장교구락부로 이용되었다. 그러다가 1919년 9월에 광주 미국공보원으로 사용되었고, 1970년대 후반에는 광주 미국문화원으로 개칭되었다. 현재는 옛 건물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주차장건물이 들어섰다. <조선과 그 예술>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일본 동양대학교수 야나기(柳原院)가 1937년 이곳에 들러 당시 호남은행장인 현준호에게 저녁대접을 받은 이야기는 더욱 흥미롭다.

5) 김순하의 생각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김순하의 생가는 200여 년 전에 세워졌다. 강원도에서 유형문화재 제 84호로 지정되었으나 현재 소유자인 김동성(선생의 막내 동생 아들)씨가 문화재 지정취소를 한 건물로, 지금은 유지 보수가 개인의 자력으로는 어려워 문화재 재지정을 바라는 상태이다. 김순하의 섬세하고 우아한 작품 경향은 선생이 태어나고 자라온 생가가 규모는 작으면서도 섬세하고 여성적인 단아한 기품을 풍기고 있어 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져 선생의 작품은 아니지만 그의 생각을 소개한다.

건물의 향은 남향으로서 안채는 안방과 부엌을 왼쪽 뒤편에 배치하여 남성공간이 형성되도록 하고, 사랑채는 오

른쪽 앞 편에 배치하여 남성공간이 형성되도록 하였다. 진입동선도 남녀공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외양간과 거름더미를 경계로 하여 남녀출입동선이 분리되도록 하였다.

처마도리 높이에 있어서는 전면부(3.3m)를 후면부(3.0m)보다 높게 만들어 안채부분에 있어서의 채광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대청의 전면부분은 개방되고 후면은 전부 벽으로 폐쇄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壁龕은 대청왼쪽 뒤벽 상부에 두어 조상의 신주를 모셨다.

집안에서의 다른 공간에 비해 부엌 면적이 가장 넓어 이는 집안의 대소사를 위한 여성들의 작업공간 및 식품보관 저장고로서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뒷간 사용에 있어서는 남녀구분이 명확하다. 안채에는 여성전용인 內廁이 부엌 쪽인 오른쪽 바깥마당에 설치되었으며, 남성전용인 外廁은 사랑채 바깥마당에 떨어져서 설치되었다.

뒤안은 안채부엌과 통하도록 하고 사랑채 쪽의 바깥마당은 격리되게 토담을 설치하여 여성만의 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참고 문헌>

- 천득업, 광주지방의 일제치하기 건축, 안당 임영배교수회갑기념논총, 1992.
-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40년사, 1985.
- 전라남도지 및 광주시사
- 박선홍, 광주백년 2, 금호문화, 1994
- 정근식 외3인, 근현대의 형성과 지역 엘리트, 새길신서 40, 김순하, "근대건축사의 큰 발" (김순하의 해방 후 건축설계 활동은 유경철씨의 증언에 의함)
- 최장순, 김순하선생의 생가에 대한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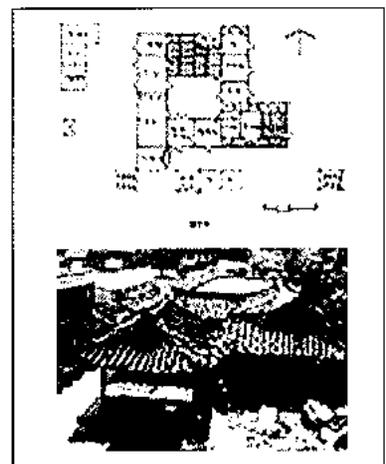
전남회의실 계단내부



대청성이 강조된 전면부



건물 모서리의 곡면처리와 개구부



김순하 생가

(자료제공: 최장순 동해전문대 전임강사)

희망이란 판도라상자와 희생

Hope and Sacrifice in the Pandora's Box

김희곤 / 흥간건축사사무소

by Kim Hee-Kon

인간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희망의 판도라상자를 하나씩 간직하고 살고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 논리와 부합되는 아메리칸 드림이 바로 희망의 판도라상자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화 이후 경제발전의 제일원천이 교육이었다는 데에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 교육의 이면에는 고생하는 부모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달라는 부모의 간절한 희망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 희망의 무분별함으로 인한 피해들이 오늘날에 와서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적절한 인고의 대가와 희생을 치러야 하는데 그 희생을 희망의 판도라상자안에 넣어두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다. 현 이 사회의 부모나 선배, 원로는 이제 미래를 위한 길을 인도해야 한다. 그러나 그 길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마 희생을 담보로 한다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근대의 인간성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생활조건 아래에서는 쓰이지 않고 있는 양어의 모든 시적 역량이 조금도 축소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하나의 명확한 목적을 향해 걸집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 목적이란 현재를 묘사하거나 과거를 부활 또는 요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 할 길을 가리키는 것이어야 한다.”
- 니체 -

미래를 향해 나아가 할 길

우선 건축계를 한정해서 접근해 볼 때 우리 건축계는 선배, 원로, 교수들의 희생을 담보로 미래의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건축 3단체, 예컨대 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건축확회는 이제라도 공동의 목적을 향해 머리를 맞대고 한 목소리로 미래를 걱정하는 고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기구 축소, 인건비 삭감이라는 하위적 차원이 아닌 희생을 담보로 하는 상위적인 정신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해야 한다.

심사의 공정성 확보

건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찾아내서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 제일 시급한 문제는 각종 공개경쟁에서 선명한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인 승자를 가려야 한다. 진정한 눈물은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좋다. 분노의 눈물은 그 반대이다. 조금 힘이 들더라도 심의과정이나 심사과정을 공개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밤을 꼬박 새운 심사의 실체들은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 가능하면 초기 아이디어단계와 프리젠테이션을 구분하여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하고 시행자에게는 보다 더 좋은 안이 탄생되는 촉제가

되어야 한다.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후배, 제자를 위해 이 일만은 해야 하는 것이다.

정보은행 설치

'호랑이는 죽어도 풀을 먹지 않는다'는 우리네 속담이 있다.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종합건축사, 개인건축사 최근들어 법인, 개인 등 수없이 우리만의 카테고리를 끌고 다닌다. 마치 그냥두면 뭔가 허전해서인지 아니면 스스로의 통제력이 없어서인지 자꾸만 무언가 족쇄를 만들고 있다. 지금의 현실은 개인, 법인 할 것 없이 '풀'을 먹고 있다. 토끼는 풀을 먹어도 살 수 있지만 호랑이는 살 수 없다. 사는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할 뿐 결국 죽는다.

96년 말경 일본의 건축가 이토도요를 대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조그만 사무실에서 10여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대운동장을 설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유럽의 건축가들도 마찬가지다.

정말 미래를 위해서 3단계는 과감히 우리를 쫓고 있는 족쇄를 풀어야 한다. 노력과 예산을 모아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써야 한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먹이사슬에 놓여져 있다. 토끼가 잘 뛰어놀아야 호랑이도 산다. 정보은행을 과감히 설치하여 미래를 위해 중복투자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다같이 고통스럽지만 미래를 향해 걸어가야 한다. 현재와 같이 과거를 부활하는 듯한 감리제도나 법인·개인식의 눈감고 아웅하는 형식으로는 안된다.

값싸고 더 좋은 재료, 공법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여 건축주는 물론이고 사회에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 소규모 사무실과 대규모 사무실이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정보는 흐른다. 정보는 지식이다. 그러나 현재는 동맥경화지경이다. 그러나 그 지식과 정보는 누구에게나 아름답다.

후배들의 프로정신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선배들이 후배들을 질타하는 말로, 건축사시험을 예로 들면서 5년만 되면 사무실을 그만두고 공부해 사무실에 결원이 생긴다라는 탄식적인 말을 많이 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를 다시 떠올리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간은 누구나 뺨만으로는 살 수 없다. 창조적인 직

업인 건축가에게는 목말라하는 정신적 가치에 대해서 충분했는가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현재의 세계 건축계 흐름을 주도하는 일본의 1941년생 이토도요나 안도다다오, 유럽의 장누벨 등 상당수의 건축가들에겐 건축의 스승이나 선배가 없다. 그들 스스로 철저한 프로정신에 입각해 오늘날 명성과 업적을 획득했다. 단 하나 일에 국한해서 원칙을 준수하며 철저한 프로정신을 지키느냐가 문제이다. 일본의 경영귀신인 마쓰시다웅이 프로정신에 대하여 언급한 것을 보면, "어느날 극장에 구경을 갔었는데 그날의 쇼에 중국인 곡예사가 벽면에 아름다운 여인을 세워두고 그 사람을 향해서 단검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던져진 단검이 그 여인의 몸 근접한 곳에 꽂힐 뿐만 아니라 연이어 던져진 단검이 여인의 몸 곡선을 따라서 가지런히 꽂혀졌다. 그때 나는 그것이 바로 프로라고 생각했다. 보고있는 사람도 두렵지만 하는 사람들도 자칫하면 인명에 관계되는 일이다. 만일 지푸라기 인형을 세워둔다면 관객은 보러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아마추어 경지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이제껏 아마추어경지를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하며 이제라도 우리의 관객인 고객을 위해 철저한 프로가 되어야 한다.

어리석은 이의 바람

어리석은 필자가 코끼리 다리를 보고 기둥이라고 하지 않았나 송구스럽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프로의 정신에 자칫 밥그릇싸움이 되지 않게 해야만이 우리의 건축계도 발전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현재 우리의 위치에 맞는 굴기가 생각난다.

"사무소를 시작하면서 다소 절망적인 전망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나는 두려움을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였다. 이 두려움은 천재적인 것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목적지를 정하지 않은 채 항해를 하지만 생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는 일종의 낙천적인 확실함에서 나온 것이다."

- 모포시스 -

낙천적인 확실함은 프로의 정신을 자양분으로 하여 탄생되는 미래의 희망이다. 이제 다같이 회생을 희망의 판도라상자안에 넣어두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미래의 희망을 간직하면서...

건축사 행정처분에 대하여

On the Administration of Licence for Architects

박성근 / 서울시 송파구청 건축과장
by Park Seong-Keun

건축사중 48%의 문제

건축사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부분은 공사감리중 건축법 위반사항 적출에 기인하고 있다.

97년도 서울시 위법건축사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총 1,297건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 등록 건축사 2천7백여명의 48%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축사중 절반가량이 행정처분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일에 관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97년도 한 해에만 국한된 건수이고 또 건축사 한 명이 여러 건의 행정처분을 받는 일도 많아서 이러한 비율대비는 단순한 기능자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으나 건축사에게 있어서는 그 업무수행상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주요 현안임은 분명하다.

(단위 : 건)

합계	등록취소	업 무 정 지				경고
		소계	2월 이하	3월~5개월	6월~1년	
1,297	12	703	599	98	6	582

〈97년도 서울시 위법건축사 행정처분 건수〉

몇가지의 불만들

이에 대해 일선 구청에서 건축사행정처분 업무를 해오면서 들은 건축사쪽 얘기는 대체적으로 불만스런 것이다. 첫째 행정처분의 기준이 지나치게 경색적이라는 지적이다. 건축법위반에 대한 건축사법 시행규칙상의 처분기준을 보면 위반사항에 따라 건축사에게 최저 업무정지 2월에서 등록취소까지 처분토록 되어 있고 각 위반사항별로는 처분 개월 수가 명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감리중간 보고서를 제출치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5월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5월로만 처분이 되고 5월 이상으로도 5월 이하로도 처분되지 않는다. 다만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과 서정노력 등 정상을 참작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데 아마저도 기급적 경감처분을 지양하고 무거운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관청의 분위기 때문에 건축사에게 우호적인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미한 위반인 경우 행정목적 달성상 불문 또는 경고로 처분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96. 8. 7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축사법 제28조 규정에서 처분권자에게 건축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처분여부는 처분권자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회신한 바 있다.

결국 처분 양정(量定)은 불문, 경고 아니면 최저 1월(2월을 경감할 경우)이상이 될 수밖에 없어, 대개의 법률상 벌칙규정이 어느 상한선이하로 처분하도록 한 것과 건축사법 자체에서도 "처분할 수 있다"는 재량적 표현을 했고 처분전 청문을 통해 의견진술토록한 규정들 둔 취지를 볼 때 시행규칙상의 처분기준이 경색적이라는 주장은 일용 이유가 있다고 본다.

둘째는, 위반행위 관계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들고 있다. 대부분의 건축법위반사항은 건축주나 시공자(건축업자)가 위반주체가 되고 감리자는 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저지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인데도 건축주, 시공자는 몇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칠 뿐이고, 건축공사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챙기는 반면 감리자는 업무정지라는 회복키 어려운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입는다는 것이다. 즉, 곳간의 양식을 훔친 사람보다 이를 지키는 사람이 더 큰 벌을 받는 꼴이라는 비유를 들기도 한다. 위반빈도가 높은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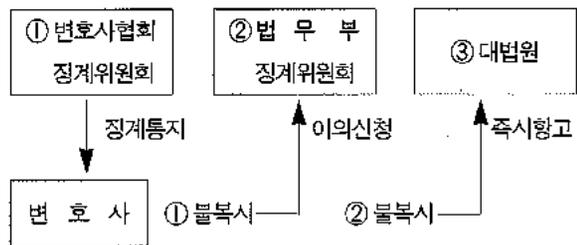
규모 건축공사의 실제 시공자에 대해서도 "현장관리인"이라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명칭으로 규제하는 것 보다는 일련한 시공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의 틀 안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을 한다. 또 한가지는 감리업무의 책임한계를 시기적으로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건축법에 규정된 위반공사에 대한 감리건축사의 조치 흐름을 보면 "위반공사발견→시공자에게 시정 요청→미시정시 공사중지요청(서면)→불응시 시정요청 명시기한 완료후 7일 이내 위법공사 보고서 제출"로 되어 있는데, 경미한 사항이라면 몰라도 보통 구조를 철거가 수반되는 사항이라면 이러한 조치 흐름을 따르다 보면 한달 또는 몇 달이 걸리게 되며 비상주 감리 상태에서 시공자가 계속 공사를 강행하면 위법보고서 제출도 못해보고 공사가 완료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그 사이에 관청의 점검으로 위반사항이 지적되면 그대로 행정처분 절차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해명에 시간과 노력을 쏟게 되고 시공자에게는 애원하다시피 시정해 줄 것을 간청하는 현실이다보니, 내용증명과 인감첨부 자인서라는 저품격의 서류에 매달리게 된다는 얘기가. 이에 대해서는 공사감리기준에 위법공사 보고에 대한 시기, 방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위법공사 보고서 제출시기를 최초 시정요청후와 공사중지명령후로 이중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감리자가 부여하는 시정기한도 주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최초로 위반공사 발견 및 시정지시로부터 최후의 시정명령기한 만료후 7일까지의 기간은 감리건축사에게 보장된 기간이므로 이 기간내의 시정조치중인 사항은 행정처분대상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하고 처분관청에서도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건축사의 업무는 처분시효가 없어 이미 오랜기간이 지났는데도 건축사의 귀책여부를 가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과, 행정처분이 단심(單審)으로 결정된다는 것 등등의 얘기가 더 있었다.

변호사와 일본(日本)건축사의 징계제도

그렇다면 변호사의 징계제도는 어떠한지, 또 일본의 건축사법규정에서 징계에 관한 규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먼저 변호사법을 보면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징계 불복시에는 3단계의 심의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변호사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과 법무부에서 각각 추천하는 판사, 검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징계의 종류는 제명, 2년이하의 정직, 과태료, 견책 등이 있다. 또한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협회의 청구에 따라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결정을 하게 되는데 징계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징계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에 대한 처분과의 차이점을 요약해보면 협회 자체에서 징계를 한다는 것, 3단계의 심의절차가 있다는 것, 징계의 시효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건축사법에서도 수용한다면 건축사에게 있어서는 모두 포지티브(Positive)한 것이 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의 현행 건축사법 제10조의 징계규정을 보면 건축사가 건축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할 때에



〈변호사 징계 절차도〉

는 면허부여 관청에서 계고, 1년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특이한 것은 업무정지나 면허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건축사 심사회(審査會)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사심사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은 10명내인데 그중 과반수는 건축사중에서 나머지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된다. 또 건축사심사회는 건축사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도 맡고 있어 건축사 중심의 심사회가 건축사 선발과 징계업무를 동시에 간여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사협회의 자율성 높여야

위 사례비교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징계는 스스로 자율성을 발휘토록 하여 단체자체의 권위향상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히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우리나라의 건축사법은 어느 면에서는 매우 과감한 자율성을 건축사와 건축사협회에 부여하고 있다. 그 예로써 건축허가서와 사용승인시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허가신청을 대신하여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건축사보의 신상관리, 외국건축사 면허 취득자의 업무수행신고수리와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 예비시험관리 업무를 건축사협회에서 관장토록 한 것이다.

이 정도면 건축사징계에 관한 업무도 시기적으로 건축사협회에 위탁할 단계에 와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 건축사의 등록, 변경사항과 처분사항은 건축사협회에서 통합전산관리되고 있다. 행정처분에 있어 전문성과 형평성을 보다 더 기할 수 있고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기술단체의 자체대응력을 높임과 동시에 작은 정부를 지향한 공공업무의 과감한 민간이양이라는 현 서류에도 부응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건축사행정처분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아울러 건축사등록업무까지 위탁하는 것도 그리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건축사의 시험관리에서부터 등록·징계업무까지를 협회에서 일괄관리하게 하고 정부는 엄격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으면 되리라고 생각한다.

맺는말

그러나 이와같은 제안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다. 다음아닌 건축사 개개인의 뼈아픈 자기발전 노력을 통한 건축사협회의 위상이 제고되어야 하는 것이다. 철저한 공인의 식으로 설계나 공사감리업을 수행하면서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한 모습을 좀 더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 건축사의 자질과 능력을 볼 때 이러한 것은 의외로 갖는다면 손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더욱 분발하는 건축인의 자세가 기대된다.

나진 · 선봉 기행

A Visit Najin and Sunbong of North Korea

최동규 / 서인디자인 그룹

by Choi Dong-Kyu

북한을 방문한다는 것이 그렇게 신기한 것은 아니지만, 막상 내가 가게된다고 하니 약간 긴장도 되고 묘한 기분이 느껴진다. 심지어 아내는 안갈 수 없느냐고까지 했다. 혹시 못오면 어떻게 될까하고 걱정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행태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나 보다. 통일연수원에서 몇 명의 일행과 같이 교육을 받았다. 같은 피, 같은 언어를 가진 민족이 인위적으로 나뉘어 상대방을 방문하는데 이렇게 하루종일 지루하게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한편으론 가슴 아프기도 했지만 서로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다르기 때문으로 이해했다.

마지막 교육시간에는 북한에 가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교육받았는데, 그때서야 긴장감이 생겼다. 마침 슈퍼 옥수수 종자개발로 유명한 김순권박사와 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 분은 식량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북한에서 자신이 개량한 옥수수 종자가 그곳 기후와 풍토에 맞는지 알아보러 가는 길이었다. 한국도 예고없이 닥쳐온 경제한파로 나라전체가 뒤숭숭한 편인데, 북한은 왜 그토록 대책없이 식량위기를 맞았던 말인가? 이점에서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남한이나 폐쇄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이나 정도의 차이일 뿐 큰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민들이 고생하는 것은 남북이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한가지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북한에는 자유가 없다는 점일 것이다.

처음 북한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통보받은 날짜가 작년 12월이었는데, 그것이 예고없이 늦어지면서 이리다 못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또 한편으론 북한가게 됐다고 괜히 주변사람들에게 슬쩍 얘기했던 것이 후회되기도 했다. 사실 처음 이북가게 됐다고 하니까 이북이라는 말을 못 알아듣고 미국 가느냐고 되물어서, 북한이라고 했더니, 다들 반응이 어떻게 해서 가게 됐느냐고 궁금해 했다.

이 부분에서 북한에 가게 된 경위부터 조금 밝혀야겠다.

필자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전직 대통령이 장로로 있는 교회고, 또 독일켈른에 있는 고딕식 대성당을 흉내내어 지은 교회라. 이름만 대도 대부분 잘 안다. 이 교회가 주축이 되고, 또 몇 교회가 힘을 합쳐서 추진했던 일중에 북한의 나진 · 선봉에 교회와 병원을 건립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었는데 마침 필자가 이일을 맡아 계획안을 그려주고, 이른 아침에 브리핑까지 해준 적이 있었다. 그것이 94년이였다. 이일을 추진한 분과 평소 잘 아는 사이여서 부탁을 받고 일을 해준 것인데 잘 추진도 안되고 해서 헛일 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뜻밖없이 한민족복지재단에서 전화가 오더니 나진 · 선봉지역내에 제약공장을 짓게 되었다고 부지조사차 가야된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호기심반, 그리고 가기 쉬운 곳도 아닌데 이 기획에 한 번 가

보자 하는 생각에서 함께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는 상당한 기일이 흘러 북한으로부터 조선인민 민주주의공화국 명의로 된 초청장과 신변담보서가 98년 1월초나 되어서 온후에야 마침내 출발일자를 1월 19일로 잡게 되었다.

속초에서 떠나면 배편으로도 5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는 나진을 서울에서 대련으로, 중국 북방항공 비행기를 타고 1시간 30분동안 날아갔다. 그리고는 대련에서 국내선으로 1시간 비행후 연길에 도착, 이곳에서 다시 대우연변호텔소속 20인승 버스를 갈아타고 3시간 30분 동안이나 혼쉴을 거쳐 도문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마침내 원정리라고 불리는 국경선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다리를 건너야 북한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 필자는 우리가 힘들게 가지고온 회충약을 포함한 약보따리와 함께 차를 타고 건너려 했으나, 중국과 북한의 경계인 다리를 차를 타고 건너가기 보다는 일행들이 감격스러운 이 순간을 걸어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필자도 함께 매서운 바람을 맞아가며 다리를 건넜다. 다리를 건너자 초소에 아주 어려보이는 북한군인이 두 명 있었다. 어린 북한군 병사를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의 적으로 교육받아 온 저들 아닌가? 이미 그곳에는 경제를 주로 가르치는 김책대학 출신의 나진·선봉 대외경제협력국 부국장 리철수와 김형직사범대학 출신인 대외사업부 박영일 등이 녀대의 성능 좋은 일제 지프차를 가지고 우리 일행을 맞으러 대기하고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북한운전수를 보는 기분도 그렇고 도대체 이게 무슨 감정이란. 거의 50년간을 총칼을 맞대고 매일 적으로 느껴졌던 그들이 아닌가? 가끔씩 방송을 통해 서로의 사회상황을 조금은 알지만, 모든 것이 서먹서먹하면서도 같은 동포인

데 하는 애뜻한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

북한국경 세관사무실 오른쪽으로 멀리 북한내의 유일한 자유시장이 보인다. 흡사 서부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디언 공격을 막기 위해 만든 나무울타리를 두른 요새처럼 생겼다. 그곳에서 우리는 1시간 30분을 함경도 북단길을 털 털거리며 비포장길을 달렸다. 우리 눈에 익숙한 소나무가 길아래쪽으로 보인다. 남쪽에 있는 소나무와 생김새가 조금도 다를 게 없다. 왜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지, 왜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다. 나무, 돌, 흙... 주변의 무엇을 쳐다봐도 예사로 보이지 않는다.

자나다보니 곳곳에서 가끔 언론에서 북한의 실상을 전하기 위해 보여주던 자료화면 속의 낯선 구조물과 함께 그들이 위대한 지도자로 받드는 김일성의 사진이 걸려있는 것이 눈에 띈다. 거기엔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수령과 함께 영생하자.",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는 등의 각종 구조물이 나뉘어 있다. 왜 허름하고 칙칙은 산하에 저렇게 강력한 구조물만 무성할까? 어찌보면 자신감 없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오후 느지막하게 나진·선봉 호텔에 도착했다. 호텔로비의 그 을씨년스러움이라니. 그래도 우리는 타국땅 낯설은 어느 곳엘 가도 호텔을 정해 짐만 풀면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던가? 그런데 여기서는 도저히 그럴 기분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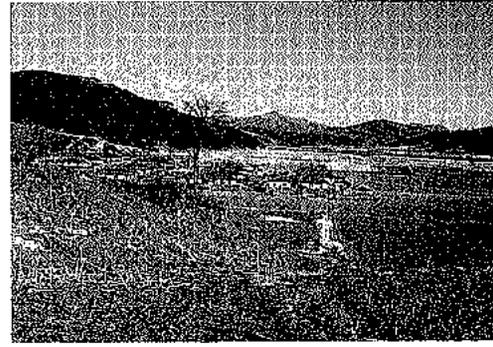
로비 천정에는 수없이 많은 전등이 달려있지만, 그 수많은 전구중에 3-4개만 켜져 있을 뿐이다. 전력사정의 어려움을 알 것 같다. 방은 Suite라고 불리우는 특실이었는데 우리 일행은 호텔복도 양쪽 끝 두 개의 객실에 여장을 풀었다. 객실은 방 2개에 화장실이 2개인데 화장실 하나 크기가 무



나진·선봉 공업특구에 편입되어 있는 논과 밭. 오른쪽에 나지막한 폭이 보인다.



시내중심에 있는 민가군집



왼쪽에 보이는 산능선이 나진·선봉 특구의 경계선. 공업지역으로 개발되면 어딘가로 사라져야 할 민가들이 산자락에 사이좋게 모여 있다.

려 호텔객실 크기만 하다. 그리고 짐을 풀자마자 저녁무렵에 대외경제협력국 신문순 국장이 주최하는 만찬이 어딘가에서 벌어졌다. 여기서 '어딘가에서' 라고 모호하게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남쪽같으면, 아니 유럽이나 다른 여러 나라에선 식당이나 호텔, 여타 어느 장소를 가더라도 어느 정도는 방향을 짐작할 만한데 이곳에서는 캄캄한 밤에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서 들어 간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걸 도대체 대외경제협력국 건물의 어느 곳이다 만찬을 치린 것인지, 다른 곳인지 알 수가 없었다. 만찬장에는 떡, 해물, 국, 룽용술 등이 정성스레 차려져 있다. 여자 종업원들이, 그들식 표현대로라면 '접대원동무'가 열심히 음식을 나르고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주량이 도량이라고 하면서 빈속에 술부터 권한다. 그것이 북한식 식사방법이라 한다. 앞서 돌, 물, 흙, 나무 등 어느 것 하나 예사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들을 대하고 보니 하나하나 구사하는 말도 다르다. 술잔을 들고 하는 말이 "쭉냅시다" 였다. '쭉들이킵시다' 라고나 해석하면 맞을 듯싶다. 이거 같은 민족끼리 우습다. 룽용술이 계속 받아 마셨더니 곧 취기가 오른다. 나중에 뒷골이 조금 무거울 것이라고 주의를 준다. 식사중에 담배야기기가 나왔는데 신국장은 하루 두 갑씩 피운다며, 담배를 끊고 싶어도 끊으면 입을 벌리고 자게 된다고 하소연 한다. 누가워서 고쳐주면 끊겠다.

다음날 아침 호텔창으로 나전향을 바라보았다. 길거리에 지나 다니는 사람들은 식량보따리를 등에 지고 가는 사람, 쌀감을 조그만 수레에 담아 끌고가는 사람, 깃발을 앞세우고 건설현장으로 가는 사람들, 그리고 학교가는 아이들 정도로 아주 쉽게 구분이 된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깃발을 들고 갔던 사람들은 시내에 새로운 구호간판의 구조물을 설치하

기 위한 일꾼들이라고 하였다. 나진·선봉은 개방한 지 3년이 됐다고 하는데 무언가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 그래서 그런지 리철수 부국장은 이번 제약공장건을 성사시키려고 어지간히 서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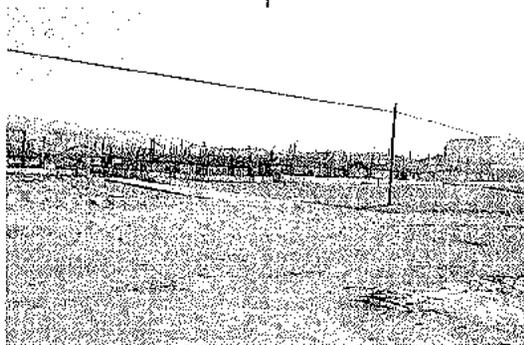
아침 일차 후보지로 선정됐던 후창리를 갔다. 호텔에서 차로 약 40분가량 달려 나진·선봉지대의 경계 지역까지 갔다. 도로보다 1.5m 정도가량 낮은 논이 넓게 펼쳐져 있다. 그리고 산자락에 한무리의 민가들이 모여 있다. 땅을 파려면 지적도가 있어야 하는데 지적도는 고사하고 지도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적당히 알하던 시절이 남한에도 있지 않았던가.

나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해오고 없으면 그것을 탓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건설국장에게 바람의 속도, 동결심도, 적설량, 강우량, 기타 건축에 관계된 기술적사항 등을 자세히 물어보았다. 후창리 대지를 보고 우리가 내린 결론은 나진·선봉에 와서 그멀리 떨어진 허허벌판에 제약공장을 굴이 지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시내중심과 가까운 곳에 대지를 선택하기로 하고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땅을 그들에게 부탁했다. 그래서 청계동과 신흥동 두 곳을 보았는데 두 곳 모두다 마음에 들었다. 우선 시내에서 가깝고 또 제약공장이 생각보다 규모도 작고, 공해물질 배출도 얼마 안되고, 또 최종목적이 선교이니만큼 시내와 가까워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전략상 필수였다.

우리의 최종계획은 한국전쟁 당시 울지로5가에 세웠던 메디칼 센터와 비슷한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었다. 그 곳에는 좋은 음식점까지 있지 않았던가? 나진에는 바람이 몹시 분다. 그날 시내근처에 있는 땅을 보러갔던 날은 모든 일



나진시내 민가집단. 나무울타리를 보는 순간 30년전으로 시계를 돌려놓은 듯한 느낌이 들고 흡사 영화세트를 보는 것 같다.



시내 신흥동 지역에 있는 빈 땅과 인근 민가군의 모습



시내에 있는 편복도형 6층 아파트. 도로에는 차량들이 보이지 않고 보따리를 지고가는 사람들만 보인다.

정을 마치고 북한을 떠나던 날이었는데 바람이 어쩌나 심하게 부는지 질차문을 두 손으로도 열 수가 없을 정도였다. 「나진바람에 황소머리 깨진다」는 옛 속담의 의미를 실감케 했다.

또 하나 이번 여행에서 소개할 인물이 있는데 그냥 '심선생'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다. 그는 충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학생 때는 학생회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졸업 후 신학대학교까지 졸업하고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1년간이나 나진·선봉호텔 사장을 지내기도 한 친구인데, 미국시민권자이기도 하다. 성격이 워낙 대담하고 통이 커서 그런지, 그는 거의 말조심을 하지 않는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북한사람들하고 시원스레 터놓고 이야기하는 편이다. 농담도 잘섞어서 이야기한다. 옆에서 보기에 아슬아슬할 정도다. 마지막날 대외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인 엄홍남 위원장이 주최하는 만찬이 있었다. 이때 일어난 대학 한토막을 소개해 본다. "심동무, 남조선 '말' 지에 북한의 쌍소리에 대해 2개월에 걸쳐 연재한 것 읽었습니다. 내용은 객관적인데, 결국 자유주의 분자가 쓴 글이야! 우리 공화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북한에서는 '자유주의 분자'란 말이 제일 나쁘게 평가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한다. 그러자 옆에 있던 리철수 부국장이 한마디 더 거든다. "심동무는 부러운 운동주의자야!"

그는 그 말뜻을 못알아 들었다. 브라운 운동이란 말은 물리학에 나오는 용어라고 하는데,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극히 불규칙하게 운동하는 것을 이른다. 엄위원장의 자유주의분자라는 지적에 약간 당황한 듯 심선생의 말수가 적어진다.

어쨌거나 심선생은 복잡해서 잘 풀리지 않는 남북관계에 있어, 긍정적인 인물임에 틀림없다. 그가 그곳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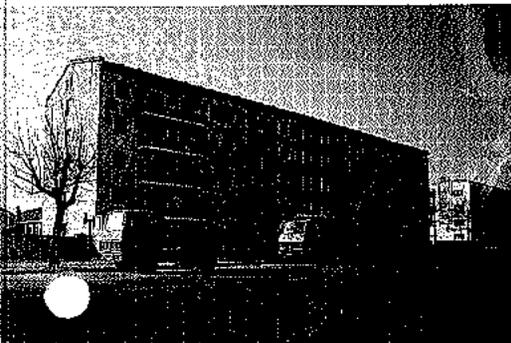
년간 있으면서 리부국장이나 김현철과장 등과 많이 친해져서 가끔 그들의 집에까지 놀러갈 정도라고 한다. 원래 북한에서는 외국인들 자기집에 데려오면 안되게 되어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 집에 갈 때는 빙빙돌아서 다른 곳에 가는 것처럼 하고 간다고 한다. 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가? 그리고 개인에게 선물을 줄 때도 개인적으로 몰래주어야지, 같이 있는데서 주면 절대로 받지 않는다. 희의맨 김형직사범대학을 나온 박영일이 대화내용을 일일이 기록한다. 얼마나 피곤한 사회인가? 나는 대화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저기 있는 심선생, 재미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들도 맞다고 화답한다. 나같은 저사람이나 나진·선봉개발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나, 아나나만 가지고 판단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라고 한다. 나진·선봉을 개방해서 경제특구를 만들어 보겠다는 사람들이 그 정도 융통성이 없겠는가? 김현철 과장은 국제관계 대학을 졸업했고 프랑스어를 전공했다고 한다. 꿈이 프랑스에 가서 활동하는 것이었는데 나진·선봉특구에서 근무하게 된 셈이다.

이튿날은 선봉에 있는 중국과 합작한 제약공장을 보았고, 또 선봉병원을 둘러보았다. 병원건물은 우리 60년대 다니던 국민학교 건물에 병원시설을 설치한 것이라고 상상하면 될 것이다. 바깥날씨가 비교적 추운편인데도 병원내부는 온기가 별로 없다. 부족한 의료장비를 남쪽에서 끌고루 챙겨서 보내주겠다는 말에, 그들은 그저 고맙다고 하면서 어서 빨리만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다.

나진에서 선봉가는 길에 일단의 민가들이 모여 있었는데, 집집마다 허름한 나무판자로 된 울타리로 구분되



나진시내에 있는 한 아파트.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다.



나진호텔 객실내에서 바라본 나진항. 왼쪽위에 침수함이 가량하고 있는 듯하다.



나진항구 전경. 움직임이 거의 없어 개발계획이 잘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어 있고 지붕은 금시라도 떨어져 내려올 듯한 모양으로 기와로 이어져 있었다. 골짜기에서는 밥을 짓는 것인지, 난방을 하는지 연기들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집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 정말 궁금하다. 집들 주변엔 별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길거리에는 주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식량같은 것을 머리에 이고 가는 사람, 산에서 땀감을 모아 조그만 수레에 싣고 가는 사람, 또 간혹 어디론가 걸어가는 군인들의 모습도 눈에 띈다. 가끔 트럭들이 지나다니고 트럭위에 일단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나진역을 가본다. 나진역은 일제시대 지은 것인데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일제시대 부산역을 설계했던 건축가의 솜씨라고 한다. 나진역장실에 가서 평양까지의 교통상황을 알아본다. 기차로 20시간 걸린다고 한다. 우리에게 너무 느려서 놀라운 이야기이지만, 단선이기엔 역마다 서로 교행을 하며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아마 목선으로 해야 할만큼 인·화물의 물동량이 많지 않은가 보다. 뒤이어 나진항에 갔는데, 컨테이너가 한쪽에 쌓여있고 컨테이너를 들어올리는 기중기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마치 정지화면을 보는 것 같다고나 할까?

결국 나진, 선봉지역을 개방은 했지만 투자자들이 물려들만한 특별한 매력은 없는가 보다. 그러나 나진 시내가 이렇게 정적에 휩싸여 있을 수밖에... 그들이 이 조그만 제약공장을 성사시키기 위해 저지도 열심인 것을 보니 짐작이 간다. 드디어 시내에 있는 부지후보를 몇군데 보고 다시 들어왔던 순서의 역순으로 바쁘게 국경쪽으로 떠난다. 우리 일행은 세관에서 그동안 잠시나마 정이 들었던 그들과 작별하고 북한

땅을 훌훌히 떠났다.

'선봉'이라는 지명은 혁명의 선봉이 되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라 하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지명인 아오지탄광은 '은덕'이라는 지명으로 바뀌었다는데, 이는 아마 북한체제내에서 소위 반동분자로 분류

된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 남쪽에 알려져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들말로는 '수령님이 배우신 은덕'이란 뜻에서 지명을 '은덕'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본래 북한의 건축을 보려고 갔던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다니면서 찍은 사진중 건축에 관계된 사진 몇 장을 함께 소개한다.



우리측 일행과 북한관계자들. 오른쪽 세 번째가 나진·선봉 대외경제협력국 리철수부국장이고 왼쪽에서 세번째가 나진 건설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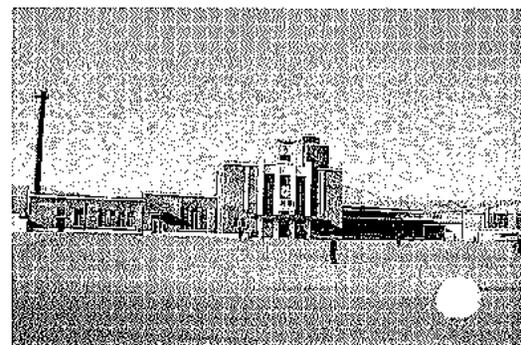
나진역장실에 걸려있는 나진항개발지도.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이 심선생이다.



시내중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타원형 6층 아파트.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궁금하다. 밤에는 한층에 전등이 한 개 정도만 켜져 있다.



나진·선봉 합영제약공장내에 있는 탁자소



나진역 전경.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데 부산역 설계자의 솜씨라고 한다. 역광장인데도 사람이 별로 없다.

지역건축탐방 ③ - 아산 · 부여 · 공주

Visiting Regional Architecture/ Asan · Puyo · Kongju

지역문화경관과 현대도시건축

Landscape of Regional Culture and Contemporary Urban Architecture

정무웅 / 아산 · 부여 · 공주지역 편집디렉터, 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 공학박사
by Jung Moo-Woong

본 특집은 지방시대에 지역건축문화가 어떻게 변화→정착되고 있는가? 그 지역만의 갖고 있는 도시+건축문화의 아이덴티티(Identity)는 무엇이고, 현대화과정에서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경관요소가 개발과 보존이라는 병립된 사회요구 속에서 어떻게 적응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봄을 의도하고 있다. 특히 백제문화권의 중심도시인 아산, 부여, 공주의 도시특성을 이루고 있는 도시공간구조 및 구성요소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문화경관요소의 현황을 살펴본다.

본고는 현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전통성이 있는 문화요소를 지역성의 개념과 상관적으로 관련시켜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가 지역을 초월하여 국제적으로 교류되면서, 생활의 편익성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은 국가와 민족의 차이를 넘어 동일한 지구문화형성의 과정으로 급속히 진행하고 있다.

현대화=서구화라는 등식은 서구문화의 간결한 편익성이 낳은 전 세계적 현상이다. 따라서 현대화를 생활의 변화로 이해할 때에 전통논의의 여유가 있고, 전통논의에 대한 객관성이 있으며, 편협된 전통관으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생활이 변하고, 특히 생활을 담는 그릇으로서 건축환경이 변한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서서히 건축환경이 변하지만, 누적된 변화는 커다란 차이로서 나타나고, 이에 따라 적응(Adaptation)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많이 논의되어온 보전과 보존의 방법론적 세분화에 의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서 전통성을 갖춘 도시·건축구조물을 단순한 유적, 유물로 보존할 것인가, 실생활과 관련된 생활과 함께 하는 문화현상으로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우리의 과제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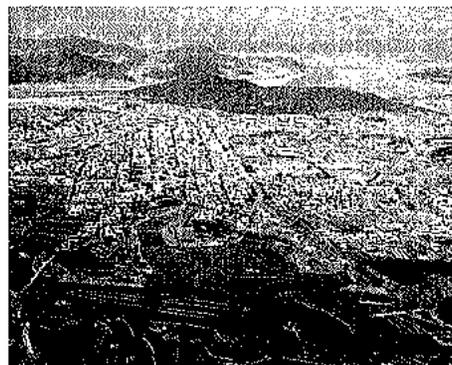
1. 지역문화

1) 지역문화경관

어느 지역(또는 도시)의 경관은 오랜 시간동안 퇴적, 침식과정을 거쳐서 그 시대의 단편적 모습으로 표현된다. 도시경관은 그 지역의 고유한 자연풍토(산, 강, 미기후...)를 배경으로 하여서, 각종 인공구조물(도로, 교량, 건축물...)으로써 그 시스템(System)이 형성되며, 그 속에 오랜 시간을 통해서 형성된 고유한 생활양식으로 활성화된다. 이때에 삶과 함께 오랜 시간 속의 삶의 흔적(유물, 유적, 관습, 양식...)을 문화경관요소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도시경관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청안시 전경



부여시 전경



공주시 전경

(As It is) 어우러질 때에 그 도시는 생동감있는 탄력성을 지닌다. 본고의 대상지역은 금강과 백마강, 계룡산과 부소산 등의 자연요소에 의해 도시공간의 규모감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삼국시대 백제문화권 수도로서의 고유한 문화풍토와 각종 유적(건축, 고분, 탑...)등은 이 지역의 고유, 우세한 문화경관요소(Dominant Cultural Landscape)이다. 자급적인 현대 도시기능과 우수문화경관요소의 보호(Wants)라는 양립된 시대적 요구(Needs) 사이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2) 건축의 문화현상과 생활양식

문화란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 총체개념으로서, 라틴어의 'Cultura'에서 파생된 번역어이며 그 본래의 뜻은 경작, 재배이다. 문화에 대한 사전적 개념은 '인류에서만 볼 수 있는 사유, 행동양식(행태) 중에서 유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습에 의해서, 소속하는 사회로부터 습득하고 전달받는 것 전체'를 포괄하는 총칭이다. 문화에 대한 개념 정의는 관점에 따라서 수십 종류가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개의 개념으로 집약된다.

- ① 어느 집단의 생활양식(A Way of Life)
- ② 상징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일련의 상징, 의미, 규범 (System of Symbols, Meanings and Schemata)
- ③ 자연과 생태계에서 생존을 위한 일련의 적응단계(A Set of Adaptative Strategies)

즉, 위의 사항을 요약하면 「시간을 통해 학습에 의해 전승하는(받는) 생활양식, 생활규범과 생태적 적응현상」이다. 또는 「일련의 인간의 학습을 통해 정착된 행동양식(A Set of Human Behavior)」이다. 이 때 주요 관심사항은 어느 지역·시대의 인간의 행동양식(Behavior)에 의해서 표현되는 생활양식(Life Style)과 그 생활양식 속에 내재되어 생활에 기준이 되어, 주도하는 상징적인 생활규범(Meaning and Schemata) 그리고 이를 위한 일련의 생존적응수단(Adaptative Strategies)이다. 즉, 문화는 생활환경→행동양식간의 상관적 관계(Environmental Behavior Relationship)를 통해 드러나는 현상이고, 그 상관성은 문화의 주요한 요소이다. 인간 생활을 위한 모든 생활환경과 행동양식(Behavior)과의 상관적 현상인 문화개념은 건물은 물론이고 그 안팎에서의 생활과 깊이 관련된다. 생활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건물과 담겨진 생활자체를 포함한 포괄적인 총체가 문화이다. 건축을 한다는 것 또는 건축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의 문화현상(Culture in Architecture)이고, 그 형태나 내용(공간질서+생활양식)의 체계화 작업(계획 및 설계)은 그것이 속해있는 문화환경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Architecture in Culture) 그래서 건축

(Architecture)은 건물(Building)과 구분되어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건물은 구조체계와 재료배분 및 기술적 환경설비체계 등의 물적 요소와 그러한 물적 요소의 조직체계속에 공존하는 공간과 시지각 대상으로의 심미적 형태 등을 이르고, 건축은 건물의 목적의식, 시대배경, 역사적 장소성, 주변과의 상관성(Context), 기능용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의 생활이 총체적 문화개념으로 이해된다. 이는 주거와 거주에도 함께 적용되는 사항으로써, 실질적인 생활과 그 생활이 영위되는 배경적 장치(건축환경)로 이해할 수 있고, 생활→환경간의 상관적 현상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건물의 단계를 넘어서 건축문화현상으로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인간이 건축환경(Built Environment)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환경이 인간을 만든다.』 --처칠-- 환경이란 「유기적 생명체는 물론 그를 에워싸서 영향을 주고받는 유형·무형의 모든 것(Surroundings)」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 건물 및 도시구조물을 포함한 인공환경과 인간생활과의 상관성은 건축을 문화현상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유효한 관점임을 전술한 바 있다. 이 경우 어떤 생활환경과 그 환경을 배경으로 형성된 행동양식을 포함해서 새로운 문화환경이 되는 순환관계에서 상호작용되는 현상 또한 주요한 사항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생활양식(Life Style)은 어느 지역·집단의 누적된 여러 행동양식에 의해서 표현되고, 이 행동양식(행태)은 일상생활 속의 여러 행위 및 행위조직(Activity & Activity System)의 조합으로 표현된다. 이 때 행동양식이나 행위 등은 그 시대의 시대정신, 종교, 가치관, 윤리성 등에 의해 조절·형성된다.

2. 문화경관과 가변적 융통성

생활은 고정되어 경직된 것이 아니라 항상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끊임없이 유동적으로 변화함이 생활의 특성이고, 이러한 변화의 동인(動因)을 한계없이(Open-Ended)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서 있는 그대로의 현상이 드러나게 함은 건축행위를 문화현상으로 이해하고 생활화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이다. 도시건축문화현상 속에서 건축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복합적 그리고 대립적 구성은 현대건축의 특성인 동시에 현대건축을 바르게 이해하여서 건축행위에 적용하는데 어려운 요인이 되기도 한다. 건물의 용도가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사용자 계층이 불특정 다수로 형성되어서 건축공간의 배분과 조합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많이 체험한 바 있다. 현대생활의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건축행위의 수단으로서 생활환경은 어떻게 변화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현대건축문화의 어려운 점이다. 상황의 변화(시간, 지역, 요구)에 따라서 생활양식이 변하고, 그 생활을 담는 생활환경 역시 변한다.

이때에 쉽게 또는 빠르게 변하는 요소를 주변요소(Periphery Elements)라 하고, 변치 않거나 느리게(조금씩) 변하는 요소를 핵심요소(Core Elements)라 한다. 핵심요소에는 언어, 종교, 가족제도, 식사, 영역성이나 사적보호의식(Privacy), 생활규범이 있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그 종류, 크기, 정도 등은 점차 약화되고, 반면에 주변요소의 종류, 크기, 범위 등은 증대한다. 즉 주변요소는 생활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며 동화하지만 문화적 핵심요소는 생활 속에서 오랫동안 상처·대립·충돌하면서 아주 천천히 생활양식을 변형시키거나 생활환경을 일부만 변형시키면서 적응한다. 이러한 적응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행동양식과 생활환경이 결합된 새로운 생활양식이 발생하며, 이 개념을 보다 넓게 전개하면 그 시대·지역을 대변하는 한 집단의 또는 한 국가나 민족의 생활양식으로 정착하게 된다. 또한 아모스 라포포트는 건축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그들의 가변적 융통성을 중심으로 3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는 고정요소(Fixed Elements), 반고정요소(Semi-Fixed Elements), 그리고 비고정요소(Non-Fixed Elements)이며, 고정적 요소에는 자연요소(산, 강, 자연구조체계), 역사문화유적, 도로 시스템, 건물 주요구조부, 설비시스템, 동선체계 뿐 아니라 정신적·문화적 정주양식을 포함하여 정리하였다. 다양성 요구에 적응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가변적 융통성(Flexibility)의 사전적 개념은 유연한 상태, 즉 외적양태를 크게 손상시키지 않고 내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중요한 성능의 안전성이 유지되면서 형태나 조직을 변경시키는 능력이며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기도 하다.

또한 가변적 융통성은 경직성(Rigidity)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이 경직성에 해당되는 요소는 전술한 고정적 요소와 관련되기도 한다. 생활환경-행동양식의 적응과정에서 가변적 융통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경직성 요소의 크기, 종류 등을 감소시키므로써 가능하고 반고정 또는 비고정 요소에 대해 적절한 조절방안이 필요하다. 고정요소가 결정된 상태에서의 생활환경에서는 고정요소를 변화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며, 가변의 과정에서도 유지되어야 할 요소이다. 이 지역은 도시의 형성과정과 배경이 역사적으로 볼 때, 자연요소에 의해 1차적으로 한정되어서 고유한 문화경관요소가 오랜 시간동안 축적되어 형성된 특성있는 곳임을 주지하는 바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지역의 문화경관요소는 도시공간구성요소 중 가장 우세한 고정요소이며, 자연요소, 기존 도시골격과 함께 이러한 것들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도시는 그 속의 생동감있는 삶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 존재의의가 있고, 이러한 생동감은 시간과 함께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이때 도시구성의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고정요소들의 전체파악이 이루어진 후, 도시 및 지역계획 그리고 건축계획적인 실천적 대응방안이 가이드라인(Guideline)으로서 설정될 때 가변적 융

통성(변화요구대응)의 범위와 방법이 구체화될 수 있다.

3. 현대화와 보존, 개발 그리고 전통성

현대의 특성은 복합대립성, 급속한 변화, 아메 모호한 불투명성(익명성)으로 대변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급속한 변화는 현대화의 특성이다. 국토계획·지역계획을 통한 개발의 현실적 필요성(Needs)은 보존의 원함(Wants)과 병립되게 되고, 이 두 가지 사항의 거리를 좁히거나, 연결시키는 현실적 지혜와 지식이 동시에 요구된다.

현대화 과정에서 문명의 편익성에 익숙해진 후손들이 전통적인 도시건축환경에서 체감하는 생활의 적응과정은, 본 주제를 전개하는데 매우 유효한 사항이다. 따라서 이질적인 두 개의 문화가 만나 서로 주고 받는 영향요소는 무엇인지, 도시건축문화로 정착하는 과정(Cultural Adaptation)의 현상 파악을 통해서 접근해 보기로 한다. 이때 이질적이란 개념은 시간적 차이에 의한 이질성, 지역적 차이에 의한 문화배경의 차이를 의미한다. 즉, 전통적 생활공간 속에서의 현대인의 생활의 적응은 전자의 사항이고, 한 문화배경에서 사회화 과정(성장과정)을 거친 후에 문화배경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후자의 사항이다.

도시, 건축공간을 포함한 모든 환경요인은 인간생활에 영향을 주고, 또 인간의 여러 생활양식은 새로운 환경요소로서 인간생활에 영향을 주는 순환성이 있다. 박물관 속에 진열되어 있는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유물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생활과 관련되는 여러 사항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현상은 진열장 속의 고정된 관람대상(또는 관광대상)으로만 존재할 수 없는 특성 때문에 보존과 보존의 문제점이 있다. 박제(剝製)된 또는 동결(凍結)된 상태로 보존할 수만은 없는 문화의 특수성과 함께 또한 역사적 원형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양면성은 전통성이라는 문제와 함께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원형과 변형에 대한 유연성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축적된 연구성과와 우리들의 문화의식의 고양이가 중요사항이다. 이에 '전통성'이라는 중요하고 포기할 수 없는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전통'이란 어휘의 사전적 개념은 '계통을 전히 받음' 또는 '이어받은 계통'이다. 이때에 시간성이 논의되어지고, 시간을 통해서 변치않는 요소(Cultural Core)의 발견이 문제가 된다. '전통'이란 어휘의 개념이 '오랜 세월을 통해 오늘날까지 전히 내려오는 원형적 요소(Core Element)'로 이해될 때에 자연히 '현대와 결부되어진다. 즉, 그것을 논하는 시점에서 소급되어지는 시간성과 생활(Life-Behavior-Activity)로써 체험, 공감하는 공간성의 양면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질적 배경의 두 개(또는 그 이상)의 문화가 접했을 때 나타나는 적응과정 및 현상결과는 전통적 요소의 파악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보편적으로 우세한 경우의 문화를 호스트 컬처(Host Culture)라 하고, 지엽적이고 약세의 경우를 마이그먼트 컬처(Migrant Culture)라고 한다. 대개의 경우 'Migrant Culture'는 'Host Culture'에 흡수·동화되고, 그 과정에서 서로 상치·충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개개문화의 Core요소는 쉽게 변하지 않고, 원형을 보존하거나 두 문화의 혼화(混化)된 변형(變形, Syncretism)으로 지속한다. 과거(또는 이 지역)와 현재(저 지역)의 두 문화요소의 혼화성(混和性)은 그 시대(그 지역)의 새로운 전통성으로 인식할 수 있다.

두 문화가 접했을 때 약세의 문화는 우세한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크게 변하다가 시간흐름에 따라(Generation이 바뀌면서) 고유의 전통적인 것을 원하게(Wants)되고, 그 다음에 실제생활에서 필요한 것으로 요구(Needs)하게 된다. 실제생활에서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으며, 그 관계는 실제생활에서의 적응과정에서 문화배경의 강약에 의해 변화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활에 대응하는 환경적 요소로서 보존·보존대상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전통성에 대한 유연성있는 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문화경관 요소의 양식·구법·장식·재료·규모·위치 등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할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대상으로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되, 현대인의 생활과 직접 대면될 수 있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요구된다.

4. 도시문화경관 보존사례: 일본

지역적 전통성에 대한 높은 관심과 문화규범이 정착된 여러 나라에서는 보존과 보전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의 제도가 제정되어, 대학에 설강되거나 전문연구기관에서 높은 관심하에 연구·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고 근대화에 의한 고도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 및 결과를 먼저 체험한 일본 경우의 연구·시행사례를 살펴봄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계기를 찾는데 유용하다 하겠다. 일본은 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고유한 문화권 배경하에서 독특한 지역적 전통건축문화가 형성되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건축물이 파괴·훼손되었고, 따라서 수많은 건축물의 수요가 일시에 발생하던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은 이같이 단절되어 온 전통과 근대화 사이의 연속성을 위한 작업을 목조건축 기술개발을 통해 시작하고 있다. (安藤邦廣)

우선 목조건축의 퇴보원인을 살펴보면, 목재자원이 고갈되었다는 점과 전통적인 장인(匠人) 조직이 붕괴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급속한 도시화·근대화 경향과 함께 목조건축을 다른 구법의 건축으로 대체 요구되는 상황과 순환적 상관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목조건축의 재평가와 전통계승이라는 관점에서 목조건축 부흥의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목재자원을 풍부하게 하고 새로운 목구조기술(Pre-Fab)이 개발되었다. 또한 생활방식이 바뀌고 이에 따른 건축공간의 용도가 비좁은 부분적으로 건축의 내부기능과 외부형태가 변화되는 현상을 낳는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다루는 지역성을 위한 필수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로서의 전통적인 기술을 계승한다는 것은, 사회적 관심과 문화의식이 고양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도 절실한 과제이다. 이러한 현상이 아마로 전후의 경제불황을 극복하고 경제적 여유를 생활화하는 일본인들이 실제생활에서의 필요성(Needs)과 여유있는 전통성에 대한 원함(Wants) 사이에 안정된 감각을 회복한 상태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다음은 개체건물의 점적(點的) 요소가 선적(線的) 환경으로, 다시 면적(面的)인 지역·지구로 확산·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실생활이 함께 하는 건축환경의 건전한 가치성 회복이라는 명제와 함께 일본에서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자. (西村幸夫)

195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의 일본은 고도경제성장에 힘입어 1964년 동경올림픽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 세계적 축전을 계기로 동경의 광역도시 재계획이 수립되어서 시행되고(首都高速道路·環狀道路·東海道新幹線 등), 이러한 건설과정에서 보존·보전에 대한 문제가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정착되었다. 1958년 '三溪園(神奈川縣橫市) 건설을 시작으로 1960년대에 여러 곳에 건축박물관·민가촌(民家村)·민속촌(民俗村)을 건설하여 도시의 각종 공해요소로부터 격리·보호시키는 보존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국민적인 높은 관심과 긍정적 평가를 얻게 되었다. 이 과정 중에서 중요한 사실은, 1966년에 자발적인 주민들에 의한 보존회의 결성이다. 즉, 생활이 빠져나간 공허한 박물관 속의 진열품이 아닌, 생활이 살아있는 보존을 위한 가치있는 계획이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1970~79년 사이에 약 400여개 지구에서 주민들 스스로에 의한 보존회 결성과 시행으로 활기를 띠게 된다. 이와 함께 1968년 '金沢市傳統環境保存條例'와 같은 지방정부에서의 법적제도 및 지역설정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1975년 문화재보호법개정과 함께 '傳統的建築物保存地區制度'가 도입된다. 동시에 1978년에 건설성(建設省) 주관하에서 462개 지역에 대한 '歴史的環境整備實態調査'의 대규모 조사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존과 보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설정되면서, 절대적인 보존사업은 그대로 설정 시행하되, 생활이 함께하는 보전을 위한 지혜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건축·도시설계 전문가, 주민들의 의견수렴으로 모아지고 있다. 즉, 그 지역의 고유한 역사·풍토·문화적 배경에 맞는 실생활을 전제로 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고정된 환경요소(Fixed Elements)로서의 양식(생활+건축)은 지키되, 재로나 부속물은 변경 가능하게 한다든지, 원형과 변형의 범위를 분명하게 결정하여 준수하되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디자인 가이드라인(Design Guideline)의 몇몇 유형을 마련하여 선택시행하게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5. 결론

본 특집의 대상지역은 전술한 바와 같이 삼국시대에서부터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문화, 행정, 교육의 중심지이다.

상위계획인 국토개발계획에서부터 지역, 도시 계획에 따른 그 도시의 잠재력 개발을 통한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산업구조의 새로운 개편이 요망된다. 문화관광자원의 물성적인 것은 물론이고 이 지역의 비가시적인 역사·문화, 삶, 시대정신은 이 지역의 우세요소이면서 도시환경 측면에서 볼 때 고정요소(Fixed Elements)이다. 도시기본구조, 문화유적, 지하구조체(Infra System) 등의 고정요소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 보존하되, 현대화에 따른 생활의 편의성 해결을 위한 반고정, 비고정 요소는 가변적 처리에 의해서 생활양식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 지역은 옛 도읍 형성과정에서도 작용하였듯이 산, 강 등의 자연요소에 의해 도시의 골격과 규모가 한정되었으므로 새로운 도시구조, 산업체계형성을 위해서는 강을 경계로 한 미개발지역에 신도시(Newtown)조성을 하되 도시산업 구조에 맞는 적정규모의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하며, 자생력확보를 위해서 관광자원의 잠-선-면적인 위계를 갖춘 연계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공업지역에 입주하는 산업체는 시각적 위해요소, 공기오염 등의 공해요인이 적은 산업체의 선별이 필요하다. 문화경관요소는 고립된 분리개념이 아닌 쉽게 접근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하되, 새로운 인공환경건설(계획)시에 그 형태, 규모(건폐율, 용적률, 층수)와 색상, 재료(색상, 질감)의 가이드라인(Guideline)이 필요하고, 도시가로공간 중 주요지점에서 연결되는 통경선(View Corridor) 확보를 위한 도시경관광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건전한 문화의식이 고양될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의 실천이다.

백제문화권에 관한 소고(小考)

A Study on Paekche Cultural Region

김억수 /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장

by Kim Euk-Su

1. 머리말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19세기와 20세가 경제위주의 시대였다면 곧 다가올 21세기는 문화나 정보의 시대가 될 것이다. 경제위주가 되었던, 아니면 정보위주가 되었던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의 정신 속에 문화의식이 깃들여 있어야만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정신적인 성숙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적 주체성을 바탕으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작업은 경제력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전통문화의 하나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백제문화권을 조명하는 것은 매우 가치있는 일이다.

백제문화권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는 백제가 개국하여 멸망할 때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공간적으로는 백제의 문화가 영향을 미친 영역을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백제문화권이라는 용어는 명확한 개념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 영역의 범위가 일정하지 않았고 문화적으로도 백제의 범위 속에 포함되는 것이 달랐으며, 또한 백제가 멸망한 후라도 백제의 문화전통이 남아 있어서 그 일정한 한계를 분명히 가릴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백제문화권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 초반 경주를 집중적으로 개발하자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은 호남지방에서 개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게 되자 신라문화권에 대한 상대적인 용어로 막연하게 사용한 것¹⁾으로 추정된다.

본고(本稿)에서는 백제의 역사·문화·정치·종교·사상·생활 등 기존의 연구 성과 및 업적을 참고하여, 백제사 연구의 현황과 지금까지의 백제문화권 개발상황을 고찰(考察)해 봄으로써 백제문화권의 현재적(現代的) 의미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백제사(百濟史) 연구의 현황

「역사」라는 말은 「과거에 일어난 일, 그리고 그 것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가나

1) 李康承, 「백제문화권 개발의 현황과 과제」 《일민출판》 제3권 제4호, 충남발전연구원, 1997.

설정되면서, 절대적인 보존사업은 그대로 설정 시행하되, 생활이 함께하는 보전을 위한 지혜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건축·도시설계 전문가, 주민들의 의견수렴으로 모아지고 있다. 즉, 그 지역의 고유한 역사·풍토·문화적 배경에 맞는 실생활을 전제로 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고정된 환경요소(Fixed Elements)로서의 양식(생활+건축)은 지키되, 재로나 부속물은 변경 가능하게 한다든지, 원형과 변형의 범위를 분명하게 결정하여 준수하되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디자인 가이드라인(Design Guideline)의 몇몇 유형을 마련하여 선택시행하게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5. 결론

본 특집의 대상지역은 전술한 바와 같이 삼국시대에서부터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문화, 행정, 교육의 중심지이다.

상위계획인 국토개발계획에서부터 지역, 도시 계획에 따른 그 도시의 잠재력 개발을 통한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산업구조의 새로운 개편이 요망된다. 문화관광자원의 물성적인 것은 물론이고 이 지역의 비가시적인 역사·문화, 삶, 시대정신은 이 지역의 우세요소이면서 도시환경 측면에서 볼 때 고정요소(Fixed Elements)이다. 도시기본구조, 문화유적, 지하구조체(Infra System) 등의 고정요소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 보존하되, 현대화에 따른 생활의 편의성 해결을 위한 반고정, 비고정 요소는 가변적 처리에 의해서 생활양식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 지역은 옛 도읍 형성과정에서도 작용하였듯이 산, 강 등의 자연요소에 의해 도시의 골격과 규모가 한정되었으므로 새로운 도시구조, 산업체계형성을 위해서는 강을 경계로 한 미개발지역에 신도시(Newtown)조성을 하되 도시산업 구조에 맞는 적정규모의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하며, 자생력확보를 위해서 관광자원의 잠-선-면적인 위계를 갖춘 연계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공업지역에 입주하는 산업체는 시각적 위해요소, 공기오염 등의 공해요인이 적은 산업체의 선별이 필요하다. 문화경관요소는 고립된 분리개념이 아닌 쉽게 접근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하되, 새로운 인공환경건설(계획)시에 그 형태, 규모(건폐율, 용적률, 층수)와 색상, 재료(색상, 질감)의 가이드라인(Guideline)이 필요하고, 도시가로공간 중 주요지점에서 연결되는 통경선(View Corridor) 확보를 위한 도시경관광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건전한 문화의식이 고양될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의 실천이다.

백제문화권에 관한 소고(小考)

A Study on Paekche Cultural Region

김억수 /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장

by Kim Euk-Su

1. 머리말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19세기와 20세기가 경제위주의 시대였다면 곧 다가올 21세기는 문화나 정보의 시대가 될 것이다. 경제위주가 되었던, 아니면 정보위주가 되었던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의 정신 속에 문화의식이 깃들여 있어야만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정신적인 성숙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적 주체성을 바탕으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작업은 경제력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전통문화의 하나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백제문화권을 조명하는 것은 매우 가치있는 일이다.

백제문화권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는 백제가 개국하여 멸망할 때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공간적으로는 백제의 문화가 영향을 미친 영역을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백제문화권이라는 용어는 명확한 개념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 영역의 범위가 일정하지 않았고 문화적으로도 백제의 범위 속에 포함되는 것이 달랐으며, 또한 백제가 멸망한 후라도 백제의 문화전통이 남아 있어서 그 일정한 한계를 분명히 가늠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백제문화권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 초반 경주를 집중적으로 개발하자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은 호남지방에서 개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게 되자 신라문화권에 대한 상대적인 용어로 막연하게 사용한 것¹⁾으로 추정된다.

본고(本稿)에서는 백제의 역사·문화·정치·종교·사상·생활 등 기존의 연구 성과 및 업적을 참고하여, 백제사 연구의 현황과 지금까지의 백제문화권 개발상황을 고찰(考察)해 봄으로써 백제문화권의 현재적(現代的) 의미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백제사(百濟史) 연구의 현황

「역사」라는 말은 「과거에 일어난 일, 그리고 그 것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가나

1) 李康承, 「백제문화권 개발의 현황과 과제」 《일민출판》 제3권 제4호, 충남발전연구원, 1997.

역사학자들은 이 과거의 사실들을 기록하여 당대(當代)의 사람들에게 그 진실을 올바르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백제사(百濟史) 연구는 최근까지 남한의 신라사(新羅史) 연구나 북한의 고구려사(高句麗史) 연구에 비해 활발하지 못하였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것은 역사적인 기록물은 대부분 「승자(勝者)편의 자전적(自傳的)인 기록」이라고 말하여 지듯이, 패망한 백제국 자체가 남긴 정사적(正史的) 사료가 거의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백제에 관한 현존 문헌의 한계와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한 고고(考古)·미술사적(美術史的) 발굴 위주의 백제사 연구는 상당히 편향적인 연구 성과를 남기게 되었다.²⁾

근대적인 연구방법에 의한 백제사에 대한 연구는 신라사나 고구려사에 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에 의해 먼저 시도되었다. 그런데 초기에 연구를 진행한 일본인 학자들이 백제사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으로 백제에 대해서 기록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특별한 이유없이 불신하였고, 그들의 백제연구가 순수한 학술적인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정치적 의도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일본문헌(日本書紀) 위주의 역사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처음부터 왜곡된 백제사상(百濟史像)은 정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의 이러한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것이 소위 「임나일본설(任那日本說)」인데, 이것은 곧 「백제사(百濟史)라는 것은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의 지배하에 타율적으로 유지된 역사」라는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왜곡된 백제사상(百濟史像)을 일제시대 초기에 형성된 이후³⁾ 약간씩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날 까지도 일본인 학자들의 백제사 인식에 대한 기준 틀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인들이 이렇게 왜곡된 백제사상을 만들어 낸 것은, 《日本書紀》와 같은 일본문헌의 적극적인 해석과는 반대로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대한 불신과 부정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학자들에 의해 백제사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잘못된 백제사상은 점차 바로 잡혀가고 있는 중이다.

해방 후 우리 사회계에 주어진 과제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왜곡된 백제의 역사를 시정하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백제사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었다.

아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67년, 김원룡(金元龍) 박사의 경우 고고학적(考古學的)인 관점, 즉 서울시 강동구 풍납동에 남아있는 풍납동 토성의 발굴 결과를 토대로 종래 일본인 학자들이 주장해 온 것과는 달리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⁴⁾ 함으로써, 백제 초기사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견해는 이때까지 일본인 학자들이 규정해 놓은 틀 안에서 백제사를 연구해 오던 우리 학계

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동시에 일본인 학자들의 백제사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일침을 가하는 것이었다. 특히 1971년 공주에서 무녕왕릉(武寧王陵)이 발굴되고, 거기에서 출토된 지석(誌石)의 내용이 삼국사기의 기록과 합치됨으로써, 삼국사기의 기록은 이제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천관우(千寬宇) 선생과 이종욱(李鍾旭) 박사의 초기 백제사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백제사상의 정립⁵⁾은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수확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고고학과 문헌사학적 입장에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대한 신빙성이 입증됨에 따라 종래 일제 황국사관(皇國史觀)의 관념적 무기였던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 자체의 허구성도 밝혀지게 되었다. 즉 「임나일본부」란 6세기경 가야지방(伽倻地方)-진주(晉州)일대에 파견된 백제의 군사령부(軍司令部)와 같은 성격의 기구였다는 주장⁶⁾과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란 백제가 구례산(久禮山) 부근에 설치한 기관으로 보고, 그곳에 파견된 관인(官人)이 아마토(大和)정권의 씨성(氏姓)을 갖고 있던 백제 관료였기 때문에 일본부(日本府)가 되었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⁷⁾.

특히, 백제사 연구는 1971년 무녕왕릉의 발굴로 백제고분 연구의 체계적 정립과 여기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하여 삼국시대 여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의 편년(編年)을 가능케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백제문화의 조사와 연구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 또한 기존의 고고학 미술사 위주의 연구성과에 힘입어 백제의 고분(古墳) 뿐만 아니라 토기, 성곽, 사지(寺地), 불상 등의 연구와에도 백제의 언어, 가요(歌謠), 불교, 미륵사상(彌勒思想) 등 문화면에서도 많은 성과가 이룩되었다.

이와같이 해방 후 전개된 백제사에 대한 연구 결과,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연구·축적된 백제사상이 왜곡된 사실이었음이 밝혀졌고, 아울러 보다 올바른 백제사상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도 부단히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백제의 건국 신화 재해석⁸⁾·백제의 국가형성 문제⁹⁾·백제 성립의 역사적 배경¹⁰⁾·백제의 정치¹¹⁾ 등이 체계적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또한, 백제의 도읍지가 한성(漢城)에서 웅진(熊津)으로, 다시 사비(泗)로 천도(遷都)됨에 따라 정치체제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2) 申滋植, 《百濟史 研究의 現況과 課題》 《열린문헌》 제3권 제4호, 충남발전연구원, 1997.
 3) 徐程強, 《백제문화 연구와 개발의 현주소》 《열린문헌》 제3권 제4호, 충남발전연구원, 1977.
 4) 金元龍, 《三國時代前期에 關한 一考察》, 《東西文化》 7권, 1967.
 5) 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下)》 《韓國學報》 3권, 1976.
 6) 李鍾旭, 《百濟初期史 研究史料의 性格》 《百濟研究》 17권,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1985.
 7) 千寬宇, 《後元加耶史(下)》 《文學과 知識》 9-1, 1977.
 8) 申滋植, 앞의 책 참조.
 9) 盧明燦, 《百濟建國神話의 原型과 成立背景》 《百濟史의 理解》, 의연문화사, 1991.
 10) 金柱珍, 《百濟建國神話의 復元試論》 《國史學論叢》 13권, 1990.
 11) 李基東, 《백제의 건국》 《백제의 역사》, 공주대학교 百濟文化研究所, 1995.
 12) 金元龍, 《百濟建國地로서의 漢江下流地域》 《百濟文化》 7.8合輯, 공주대학교 百濟文化研究所, 1975.
 13) 盧明燦, 《백제의 정치》 《백제의 역사》, 공주대학교 百濟文化研究所, 1995.

할 수 있는 웅진시대의 지배세력과 사비시대의 지배세력의 실제¹²⁾가 밝혀지게 되었다. 이제 백제사에 대한 연구는 위에 서술한 제 분야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백제의 대외관계¹³⁾ 및 백제시대의 사상에 대한 연구에까지 미치고 있다.

그리고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논문집: 『백제문화』), 충남대학교의 백제연구소(『백제연구』), 그리고 원광대학교의 마한(馬韓)·백제문화연구소(『마한·백제문화』)의 지속적인 연구와 국내·외의 학술활동은 백제사 연구의 촉진제가 되고 있다. 또한, 백제문화개발연구원의 재정적 지원과 연구·발굴사업은 미진한 백제사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다. 특히 이들 연구소는 정기·비정기적인 국제학술 세미나와 관계 연구자의 발굴지원을 통하여 백제의 역사와 그 문화의 성격을 국제적 안목에서 추구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백제사의 체계적인 정리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미해결의 과제들—백제 초기 도성(都城)의 위치·왕위계보(王位系譜)·백제의 요서영유(遼西領有)·담로제(擔慮制)와 방(方) 군(郡) 면(勉) 체제에 대한 견해 차이·익산별도문제(益山別都問題)·백강(白江) 및 주유성(周留城)의 위치, 그리고 고고학 연구 성과와 백제 문헌과의 연계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학계에서 아직도 이견(異見)과 이설(異說)이 분분하지만, 백제사의 체계적인 정리를 위해서, 그리고 백제문화권의 설정과 개발방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요망되어진다.

3. 백제문화권 개발 현황

우리 한민족이 한 지역에서 몇 천·만년을 끊임없이 살아 내려왔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며, 문화유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역사와 삶의 내용이 풍부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주지하듯이 삼국시대의 문화는 우리 민족문화의 틀이 형성되던 시기의 문화다. 삼국시대를 통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공간과 범위가 정해지고, 이어서 통일신라와 고려·조선 등 통일왕조가 이어지면서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족문화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삼국(三國) 중의 백제문화는 고구려·신라문화와 정립(鼎立)한 우리의 민족문화를 형성한 귀중한 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백제문화에 대한 탐구는 백제사 연구와 마찬가지로 남한의 신라문화, 북한의 고구려문화 탐색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현재적 의미의 온전한 우리의 민족문화는 고구

〈표 1〉 지역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내용(1987~1996)

구분	서울	공주	부여	익산	계
87년	石村洞고분·勞夷洞고분·顯村토성·봉서洞집자리·風納토성(5건)	公山城·寨山里고분·中塚塚·上萊里당간지주·窟谷寺 대웅전 및 대광보살·중앙삼존석불(6건)	부소산성·정림사지·능산리고분·狼蹄里삼층석탑·무량사극락전·영북리쌍보살지(7건)	미륵사지·익산로성 東百里石佛·김제비금제(4건)	22건
88년	임사동 집자리·방어동·석촌동고분·동촌토성(4건)	공산성·송산리고분·감새(3건)	부소산성·정림사지·능산리고분·백제왕궁지(4건)	미륵사지(12건)	12건
89년	—	공산성·송산리고분·新官洞고분·水源寺址·長水洞寺址·長谷寺(5건)	부소산성·정림사지·능산리고분·부여나성·운산별신제(5건)	미륵사지·왕궁평·미륵산성(3건)	13건
90년	—	공산성·송산리고분·斑竹洞당간지주·공주加尺里석탑·공주東院佛석탑·청양西亭里석탑·南穴寺址 九龍寺址(8건)	부소산성·정림사지·능산리고분·부여나성·성주사지·大鳥寺석불·東南里寺址(8건)	미륵사지·왕궁평유적·미륵산성(32건)	19건
91년	—	공산성·송산리고분·수원사지 石壯勇구석기유적(4건)	부소산성·정림사지·부여나성·공남지·능산리고분·靑山城 龍井佛寺址·부처조각龕·동남리사지(10건)	미륵사지·왕궁평유적·황룡사지·저토성·勝境寺址·石佛寺址(82건)	20건
92년	—	공산성·송산리고분·수원사지·석장리·斑竹洞당간지주·남참사지·구룡사지·서원사·청양서정리석탑(9건)	부소산성·정림사지·부여나성·공남지·성흥산성·성주사지·능산리고분·松菊리선사유적·동남리사지·天포寺址(10건)	미륵사지·왕궁평유적·미륵산성·익산쌍릉·재석사지(52건)	24건
93년	—	공산성·石壯勇구석기유적·반죽동당간지주·구룡사지(6건)	부소산성·정림사지·부여나성·공남지·성흥산성·성주사지·송국리선사유적·동남리사지(5건)	미륵사지·왕궁평유적(22건)	16건
94년	—	공산성·석장리구석기유적·송산리고분·東萊五塚址·斑洞당간지주·구룡사지(6건)	부소산성·정림사지·부여나성·공남지·성흥산성·성주사지·송국리선사유적·백제역사재현단지(8건)	미륵사지·왕궁평유적(22건)	16건
95년	—	공산성·석장리구석기유적·송산리고분·동성왕릉지·반죽동당간지주·구룡사지(6건)	부소산성·정림사지·부여나성·공남지·성흥산성·성주사지·송국리선사유적(7건)	미륵사지·왕궁평·리요총석탑(22건)	15건
96년	—	공산성·석장리구석기유적·반죽동당간지주·구룡사지(6건)	부소산성·부여나성·공남지·성흥산성·성주사지·송국리선사유적·왕봉사지·성주사지(7건)	미륵사지·왕궁평·리요총석탑(22건)	15건
계	9건	59건	74건	30건	172건

자료: 문화재관리국, 文化財管理年報 1-10호, 1988~1997년.

12) 李基白, 《倭寇時代 百濟의 民族勢力》(百濟研究) 9輯, 忠南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1978.
13) 俞元敦, 《백제의 대외관계》(백제의 역사), 公州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1995.
姜孟山, 《웅진시대의 백제와 중국》(百濟文化), 公州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1997.

려·신라문화 뿐만 아니라 백제문화를 통해서도 함께 계승·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활발하게 일기 시작한 백제문화권 개발은, 진정한 민족문화의 원형을 찾고, 그를 통해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달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한다¹⁴⁾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1)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착수

백제문화권의 본격적인 개발사업은 1977년부터 시행되었다. 즉 정부는 경주 중심의 신라문화권 개발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제1차 문화재 보수 계획을 세우고 이제까지 산발적으로 시행해 오던 보수사업을 지역의 문화권으로 묶고, 주제별로 정리하여 사업을 계획¹⁵⁾하였다.

그러나 백제문화권의 개발사업은 신라문화권 개발과는 달리 백제문화권의 범위, 개발사업의 방향 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채 출발하였다. 즉 백제는 신라와는 달리 지역이나 시대적인 한계가 뚜렷하지도 못하고, 또 역사와 문화 배경에서 차이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신라문화권 개발사업의 마스터플랜을 그대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적용하였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원래 백제문화권 개발 계획은 서울,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지역을 중심으로 79~89까지 10개년 계획으로 65개의 문화재를 정비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86 서울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이라는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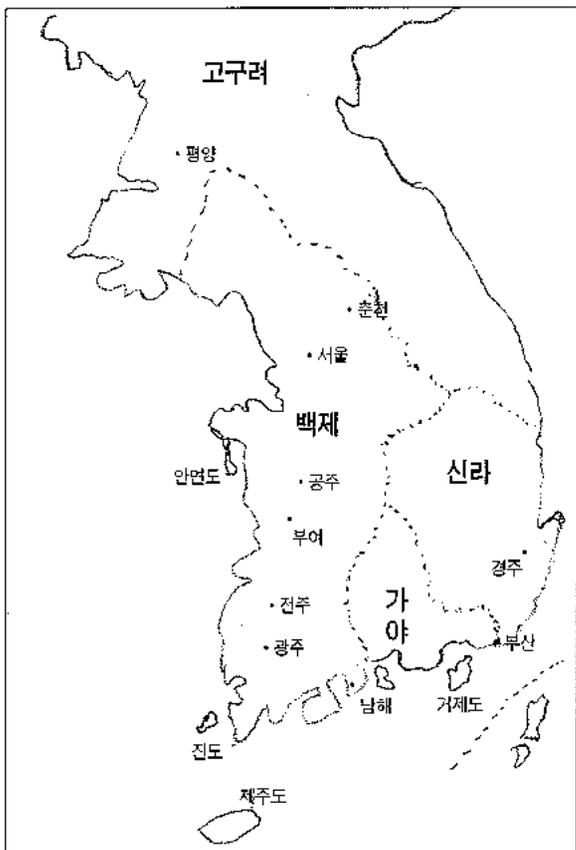
제행사를 치르기 위하여 서울의 문화재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서울지역에 대해서는 1985년 별도로 「고도민족문화유적(古都民族文化遺蹟) 종합복원계획」을 세우고, 서울지역 위주의 조사와 정비사업을 벌였다. 이런 이유로 공주 부여 익산 등지의 개발 사업은, 이미 계획된 조사, 정비 그리고 복원 등의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없었다. 그러다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 끝나고 난 후부터는, 반대로 공주 부여 익산 등지의 백제 유적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문화권 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표1 참조). 즉 백제문화권은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공주 부여 익산 등지로 범위가 좁혀지고 미땅히 포함되어야 할 서울지역은 제외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예는 단적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추진되어온 백제문화권의 개발사업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짐작케 해 주는 것이다.

2)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내용

정부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1년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1993년 6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 공주 부여를 포함한 몇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뒤 이어 1994년 10월,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어 1995년부터 2001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1조 5000여 억원의 투자 계획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백제문화권역의 주민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백제문화권에 거는 우리 지역민들의 희망찬 기대와는 달리, 그 동안의 경과와 경험 등으로 우려 또한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백제 문화권 개발이라는 정부의 공약은 이미 1978년에 있었던 것이나, 여러 차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시적 성과나 결과가 빈약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투자계획 예산도, 대부분 지방비와 민자유치를 계획하고 있고, 국비 투입 계획은 전체 예산의 18% 정도에 불과하여 투자재원의 확보문제가 과제로 남아있다. 더구나 지금까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내용과 추진과정을 살펴 보면, 대부분이 유적 주변의 토지(사유지)매입과 유적 주변을 정화, 정비하는 일이 대부분이었고, 정작 문화재 정비와 개발에는 그리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백제문화권 개발과는 거리가 먼 부분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처럼 백제문화권의 개발사업은 사업이 실시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백제문화권 전반에 대한 종합 개발계획이나, 개개유적의 활용방안도 강구되어 있지 않은 것에 다름 아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공주의 공산성을 어떻게 정비, 복원할 것인지, 또는 부여의 능산리 고분군을 어떻게 활용



전성기의 백제 강역 추정도

14) 徐經錫, 앞의 책 참조.
15) 李濬承, 앞의 책 참조.

하며, 정립사지는 몇 년에 걸쳐 어떤 방법으로 정비할 것인가 하는 뚜렷한 방침이 결여되어 있다. 물론 발굴결과에 따라 유적의 정비 방침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나 백제 문화권을 포괄적으로 정비하는 기본계획을 먼저 세운다면 지금 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신라문화권의 문화유적이 경주에 집중해 있는 반면, 백제문화권의 문화유적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어, 문화 유적의 집중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데, 이는 신라와 백제의 역사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라문화권 개발사업이 경주라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하여, 백제 문화권 개발사업 역시 공주 부여 등과 같이 당시의 수도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진행시키기 보다는 백제유적이 분포하는 백제문화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백제문화권을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어떻게 연계시켜 개발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종합개발 계획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여기에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관광개발이나 지역개발을 위한 교통이나 환경 등 여러 부문에 걸쳐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백제사연구는, 초기에 연구를 진행한 일본인 학자들의 백제사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과 그들의 백제사연구가 순수한 학술적인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정치적 의도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왜곡된 백제사상을 정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방 후, 국내 학자들의 백제사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면서, 일본 학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왜곡된 백제의 역사가 시정되고,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백제사 인식체계가 수립되어 가고 있다.

주지하고 있듯이 백제가 치열한 전쟁에 의하여 멸망되었던 역사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백제는 신라에 비해 처음부터 문헌의 한계와 문화유적의 집중성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부족한 문헌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백제사의 공백은 문화사를 주축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런점에서, 백제사 연구의 현재적 의미로는 적극적인 사료발굴(예:「금석문」과 같은 기록물)과 병행하여, 문헌과 고고학 미술사의 적극적인 연결과 상호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미해결의 과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백제사의 체계적인 정리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큰 과제로서, 각기의 이해관계를 떠나 지속적으로 공동연구와 토론을 거쳐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해 내어야 할 것이다. 백제문화권 개발은, 백제문화의 내용을 입증하는 당시의 문화내용을 잘 보존함으로써 우리 민족문화 창달의 기초를 다지는 것과 관광사업을 내포한 지역

개발이라는 의미¹⁶⁾를 내포하고 있어, 백제문화권 개발에 대한 기대는 지역개발과 문화 발전을 염원하는 관계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

그런데 위의 보전과 개발이라는 두 가지 측면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서로 상반되거나 충돌하기 쉬운 부분이다. 현재 공주시 웅진동(熊津洞) 금강변 정지산(艇止山) 자락에 건설중인 백제 큰 길과 교량은 관광 수요에 의한 경제성의 증대와 지역개발로 연결되는 부수적 효과는 파생된다 하더라도, 백제의 고도(古都)인 공주의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문화재 보존에 역행하는 개발사업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물론 개발과 보존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도 명쾌한 답안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화재는 한 번 잘못 손을 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일회적인 자료이므로 서둘러서 오류를 범하기 보다는 신중하게 자료가 확보된 후에 개발하는 일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백제문화권을 온전히 개발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는 이 분야의 전문가와 충분한 심의 검토를 거쳐 먼저 개발사업의 범위와 방향 등 종합개발계획이 확고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백제문화권은 서울, 충청(공주 부여 서산 예산 홍성 등), 익산 등에 광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이들을 종합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 자원으로서는 관광가치를 충분히 높이지 못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연계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백제문화권을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어떻게 연계시켜 개발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여기에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관광개발이나 지역개발을 위한 교통이나 환경 등 여러가지 부문에 걸쳐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백제문화자원을 관광사업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투자자원을 필요로 하는 반면, 이러한 사업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자자원의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비 지원에 비해 과도하게 투자비율을 점유하고 있는 민자유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넷째, 백제문화권의 그 동안의 발굴 문화재는 상당히 많으나 신라문화권과 비교하여 널리 알려진 대규모의 문화재가 부족함으로, 발굴과 함께 정비 복원에 중점을 두되, 백제사 내지는 백제문화 실제 규명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어디까지나 백제문화의 재현이 본래의 의도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문화재 사적 등 백제문화 유산에 대한 충실한 조사 연구 그리고 보존 등의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6) 尹慶燾, <백제문화권 개발과 충남 발전> (열린문화) 창간호, 충남발전연구원, 1995.

아산 · 천안의 변천

From the Ancient to Today
: The Rise and Development of Asan

신문기 / 호서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by Shin Moon-Ki

1. 아산에서의 온양의 역할과 아산의 비상

1) 근세 이전의 아산

현재까지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의 유물유적이 발견된 바는 없으나, 인근의 당진 지방에서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 많이 발견된 것을 볼 때 이 시기부터 사람들이 아산지역에 거주하였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아산만 지역에서도 선사시대의 유적이 발견되리라 생각되어진다. 현재 발굴된 유물은 청동기 시대의 유물로서 둔포면 둔포리와 염치면 백암리의 석관묘에서 동축, 동경 및 토기가 출토되고, 신창면 남성리의 석관묘에서는 기원전 3세기초에서 말경으로 추정되는 세형동검과 다뉴조문경, 곡옥, 방패형동기 등이 출토되었다.

아산이라는 지명은 백제 때의 지명 아술에서 변화된 이름이며, 백제시대에 탕정군, 아술현, 굴지현으로 구획되었다. 신라의 영역이 되면서 아술현은 음봉현으로, 굴지현은 기랑현으로 개칭되어 현재의 온양인 탕정군의 부속현이 되었다. 탕정군은 신라 문무왕 초기 탕정주로 승격시켰다가 후에 군으로 복귀시켰다. 고려 태조때 천안 도독부를 설치하고 현 아산시의 배방면 일부와 음봉, 탕정의 몇 개 마을을 이에 귀속시켰다. 고려 현종 9년(1018) 음봉현은 인주, 기랑현은 신창현, 탕정군을 온수군으로 고쳐 천안부에 소속시켜 천안과 병합되었다. 인주는 후에 아주로 고치고 감무를 두고, 명종 2년(1172)에 온수현을 다시 분리시켜 감무를 두었다. 이조 태종 14년(1414) 온수를 신창현과 병합하여 온창현이라 개칭하였으나 태종 16년(1416) 온수현과 신창현으로 분리하였다. 그후 세종

24년(1442년) 세종대왕이 신병요양차 온천에 산행하여 온양군으로 승격되었다. 아주는 태종 13년(1413) 아산으로 고치고 현감이 임명되었으나 세조 4년(1458) 아산현을 충청도 관찰사 황효원의 건의에 의하여 온양, 평택, 신창에 나누어 소속시키고 관아의 건물과 토지를 황수신이 모두 차지하였다가 1465년 아산현으로 복귀되었다. 그리고 연산군 11년(1505)에 공신과 비빈궁녀의 사전(賜田)이 많아 경기의 땅이 좁아서 현 천안의 직산현과 함께 경기도에 이속되었다가 중종초에 충청도로 환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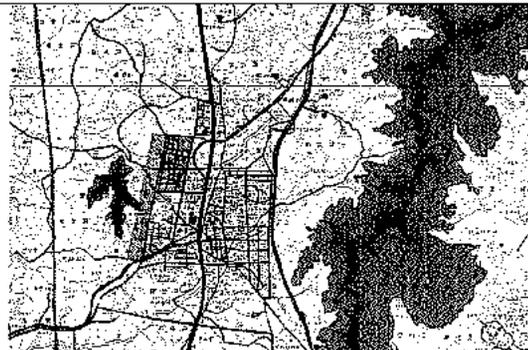
(1) 온양의 역할

아산에서 온양의 역할은 특별하였다. 온양 온천은 발견시기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삼한시대 이전부터 온천이 발견되어 알려졌을 것으로 추측한다. 문헌상 기록된 것은 백제시대 이후이며 온양지방을 탕정군이라 칭한 것도 '탕정(湯井)' 즉 '끓는 우물'이라는 뜻이니 온천을 의미하며, 고려때 온수군의 '온수(溫水)'도 '따뜻한 물'이니 온천을 지칭하는 것이다. 관찰구역의 범위가 인구수를 보더라도 군수를 포함 여건이 되지 않았으나 세종 24년 온양군으로 개칭하고 정 6품 현감에서 정 4품의 군수를 보임토록 한 것도 온천수 때문에 행정구역이 격상된 것이었다. 조선 왕조 이전에는 임금의 온양온천 행궁 기록은 발견되지 않고 세종대왕의 온행 이후 온천욕을 위한 역대왕실의 행궁이 잦았다. 세종 때는 3차례의 온행으로 규모는 분명하지 않으나 현 온양관광호텔 자리에 임시 궁전인 온천행궁이 건축되었다. 이후 세조때 행궁을 중수하고 확장하였는데 그 규모는 내전이 16칸, 외정전이 12칸, 탕실이 12칸, 해파정이 10칸, 함락당이 12칸이었다. 세조의 행궁때 온정(溫井) 바로 옆에 열음처럼 차고 맑은 물이 솟아나서 우물을 파고 신정(神井)이라고 이름지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모두 길조라고 기뻐하며 기록케 했는데 이것이 '주필신정기'이며 이 기록을 비석에 새겨 신정 옆에 세웠다. 이러한 온행을 계기로 아산현의 복구를 상소하여 세조 11년(1465)년 온양, 평택, 신창으로 나누어진 아산현을 복구하였다. 이 이후 현종, 숙종, 영조, 장헌세자가 온행을 하였으며 현종과 영종때는 온행하여 온양에서 문과와 무과의 과거도 시행하였다. 이조 말기 흥선대원군이 온천행

1) 현형을 통수 없는 작은 고을에는 감무를 두었음.



천안시의 도시 및 지형현황
(자료제공: 이재훈)



아산시의 도시 및 지형현황
(자료제공: 이재훈)

공을 수락하고 자신의 별장으로 지정하였다고 하나 대원군의 온천 행차 기록은 발견되지 못했다. 이처럼 온양온천은 널리 알려졌으나 도고면에 있는 도고온천은 신라때 태자가 이곳에 와서 유황천에 목욕을 하고 이곳 사람들에게 민폐됨을 꺼려 숲으로 초정을 메우고 이 유황천을 버려두어 1912년 장항선이 통한 후에 온천시설을 하기까지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2) 근세 이후의 아산

한일합방이후 1914년에 전국 360 군면을 축소 조정하여 210군으로 통폐합시 온양, 아산, 신창 세군을 통합하여 아산군이라 하고 관하에 12개 면을 두고 군청소재지는 온양이었다. 1944년 온양면이 온양읍으로 승격하고 1973년과 1983년 탕정면 모종리, 권곡리와 배방면 남리, 탕정면 신리, 신창면 점량리, 독산리, 실옥리를 온양읍에 편입한 후 1986년 온양시로 승격하여 분리되었다가, 1995년 아산군과 온양시가 아산시로 개편되었다.

(1) 온양 온천의 퇴조

온천 행군은 조선왕조의 왕실 소유의 재산이었으나 흥선대원군이 별세후 소유권이 불확실하게 되었으며 일제 침략후 소유권이 일본인의 수중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온양온천 주식회사' 라는 기업체를 설립하여 시설을 크게 확장하고 지하 깊숙히 온천수를 채취하여 '신정관' 이라는 건판을 달고 영업을 하였다. 일제 패망 후 우리 교통부에서 관리하다가 625때 신정관이 소실되어 그 자리에 '온양 철도호텔' 을 지어 운영하다가 민간에 불하하여 지금의 '온양관광호텔' 이 되었다. 이 신정관은 온양에서의 3층집의 시초이며, 2층집의 시초는 현 온양관광호텔 건물 위치에 1910년경 세운 목조 2층건물인 경남철도 주식회사이다. 4층, 5층집은 1960년대에는 나타났다. 그리고 온양온천에 대중목욕탕이 생긴 것은 1905년경 초가 40평 가량의 반지하 토굴으로 이루어진 시설이며, 본격적으로 현대화된 대중목욕탕은 1920년경 경남철도 주식회사가 위의 시설을 매입하여 신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온양에는 8개소의 관광호텔과 대중목욕탕에서 온천욕을 하고 있으나 영세한 시설 및 온천수의 부족으로 하향세에 있으며, 오히려 도고와 읍봉에 풍부한 온천수가 개발되고 대규모 시설이 투자되어 온양보다 더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2) 공업화로의 도약

현재 아산시를 공업도시의 기반으로 올려 놓고 있는 것은 아산만 방조제 건설이라고 할 수 있다. 아산만 연안은 어류의 공급뿐 아니라 굴, 조개, 김양식 및 염전이 성행한 한기 한 어촌이었다. 그러나 1971년 3월 길이가 150m에 이르는 아산 방조제가 착공되어 저수량 1억 2300만톤의 인공담수호인 아산호가 등장하여 4,674ha에 달하는 새로운 농지 확보뿐 아니라 이 지역의 농업용수의 부족과 역류하는 해수에 의한 농경지의 염해를 해결하였고, 제방위에 12m 폭의 도로가 개설되어 아산-평택간 왕래가 쉽게 되었다. 1979년 아산방조제의 4배가 되는 삼교천 방조제가 건설됨으로써 삼교호가 형성되어 농업 및 공업용수개발, 경지정리, 영농기계화 등 이지역 개발의 혁신적인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1998년 2월 아산호 방조제와 나란하게 6차선 교량을 설치하여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하고 아산만과 접하고 있는 지형으로 인하여 서해안 시대의 핵심도시로 부상되어 배방, 탕정에 삼성전자와 인주 제2공단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건립되는 등 공업도시의 면모도 갖추고 있다. 정부는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 부설계획을 세우고 1992년 천안-대전간을 시범 공사구로 정하여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탕정평야의 일부인 염치면에 역세권 신시가지인 대규모 저층 아파트 단지의 건설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실옥동 및 방축동의 아파트 단지 개발처럼 천한 자본주의 경제원리에만 급급하여 도로의 시야를 막고 주변지세와 전혀 상관없는 아파트 건설이 시의 곳곳에 자행되어지고 있어 개발의 추이가 주목되어진다.

2. 천안이란 지역명칭과 삼거리문화의 변화

1) 근세 이전의 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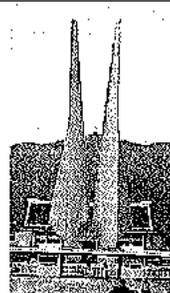
천안시 두정동의 국도변에서 유업형 석검, 석촉 등 신석기시대 유물과 주거유적도 발굴되었으며, 봉명동의 주거지 유적에서 석기류, 무문토기류, 홍도편, 즐문토기편이 발굴되어 이 지역도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역사의 기록으로는 삼한의 맹주인 진왕의 목지국이 직산지역이라고 추정하는 사료들이 있다. 현재의 직산은 천안시의 일개 면에 불과하지만 신라시대에는 현 천안시의 대부분의 땅이 직산 고을의 땅이었다. 또한 이 직산은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이 북



천안의 상징인 개나리꽃이 만개해 있는 천안삼거리 공원 (스케치: 박병주)



천안의 삼도삼거리(기문상권)



독립기념관

로부터 남분하여 처음 도읍을 설치했다고 하는 위례성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이후의 천안시는 시 동부 6개면과 풍세, 광덕을 합친 대목약과 성환, 성거, 입장, 직산, 구 천안시와 안성천 건너편 지역까지 합한 사산 두 지역으로 나누어져 백제 영토에 속하여 있다가, 고구려 장수왕때 고구려 영토가 되었다가 다시 고구려가 나제동맹에 밀려 백제영토가 되었다가,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압박해 들면서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 광덕면 광덕리에 신라 진덕여왕 6년에 진산조사가 창건했다는 광덕사가 이때의 유일한 유적이다.

(1) 고려의 등장과 천안의 지명

후삼국이 할거할 시기에 고려 태조인 견훤에게 지술사 예방(倪方)이 찾아와, 목주 땅 도술이라는 곳에 산의 능선이 뚜렷한 왕(王)자를 나타내며, 그 주위 구릉의 형세가 여의주 형국의 작은 산이 있고 오룡이 서로 구슬을 닦고 있어, 왕자 모양의 산에 산성을 쌓아 군영을 삼고 오룡쟁주의 땅에 민가 삼천호를 심으면 신라와 백제가 싸우지 않고 스스로 투항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태조가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산²⁾에 올라가 지형을 살펴보고 오룡쟁주의 땅에 천안 도독부를 세우고 직산현의 일부와 목주군의 일부와 탕정의 일부를 떼어 천안 도독부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태조 13년(931)에 천안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생겼다³⁾. 그러나 이때는 고을이라고 하기보다는 군사도독부로 고려의 전진 시령부였다.

천안은 후삼국을 통일하기 위한 고려의 전진기지였으나, 삼국 통일 후 국방 경계선이 거란과의 경계인 청천강에서 원산만에 이르는 선으로 이동함으로써 그 의미를 상실하여 소읍으로 전락하였다. 천안이 실질적으로 군사 중심지로 각광받은 시기는 6년에 불과하였으나 명칭만은 그대로 존속하다가, 성종 2년(983)에 도독부가 폐지되고 일반 행정구역으로 편제되어 천안부가 되어 공주목의 소속이 되었고 목천은 청주목의 소속이 되었다. 성종 14년(995) 천안(天安)이라는 명칭은 천자(天子)를 상징하는 명칭이라 주부군의 명칭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하여 환주로 개칭하였다. 현종 9년(1018)에 양광도 소속이 되고 온수, 이주, 신창, 풍세, 예산, 직산, 청양과 풍세현을 속현으로 하여 천안부로 다시 개칭된다. 이때만 해도 큰 고을이었으나 그후 차차로 소군으로 전락하였다. 26대 충선왕때에 천안의 군명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 영주로 개칭했다가 31대 공민왕때

다시 천안부로 환원하고 조선 태종 13년(1413)에 영산군이라 하였다가 백성들이 불편하게 여기며 옛지명으로 호칭하여 다시 천안으로 환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천안

천안과 직산은 교통 중심지에 해당하여 관행의 행차뿐 아니라 역대 왕들의 은행시 유숙하던 고을이므로 근외의 지역에 소속지역을 병설하여 본군에서 부족한 생산품을 충당하는 월경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 목천현은 월경지가 없었다. 천안군의 월경지 3면인 인주면 서편 해안지역인 돈의면, 현 아산시 선장의 해안마을인 덕흥면, 예산 신례원과 아산시 선장의 중간지점인 신종면이 아산과 온양을 지나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어패류 및 소금의 공급에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직산현의 경양면, 언리면, 안중면, 외아천면, 4개처의 월경지도 평택의 해변가 마을이다. 이렇게 천안이 고려시대에도 삼남의 요충지로서 교통의 요지였음을 고려말 천안 부사를 역임한 강호문이 지은 『남원루기』에서도 볼 수 있다.

예전에는 인가와 인적이 드물어 도적을 만나거나 노숙의 곤란도 격으므로 국가에서 편의와 치안을 위하여 원(院)을 세웠다. 천안군 성환읍 대흥리 국도변에 국보 7호로 고려시대 걸작품인 '봉선 홍경사 비갈' 이 단청 비각안에서 고려 8대 현종의 명으로 홍경사를 짓고 광연통화원을 무설로 세워 여행객의 편의를 제공했던 내력을 담고 서 있다. 원에도 원전(院田)이 있어 비용을 충당했으며, 조선 초에는 역과 원이 잘 정돈되었으나, 임진왜란 이후는 거의 유명무실하였다. 험하고 위험한 곳에는 원을 남겨 두었으나, 변화한 거리는 차차로 원이 없어지고 객주나 봉노가 생겨나서 전곡을 받고 여행객을 재웠다. 고려때부터 천안 중심에서 천안삼거리로 잇는 중간에 원거리라고 불렀던 객원이 즐비한 거리가 있었다. 이 원거리⁴⁾도 봉노의 거리가 되었다. 이 이웃한 곳에 천안삼거리가 있다. 천안삼거리는 동으로는 경상감영을 통하는 진천선과 남으로는 전라감영을 통하는 공주선의 분기점으로 길이 세갈래로 갈라져서 삼거리라 하였다. 영호남 각처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천안삼거리에 도착하면 발을 짚어 쉬어야만 했다. 이 당시 영호남에서 원래하는 노

2) 태조 왕건이 율리기 지세로 삼려후 태조산이라 불려진다.

3) 현재 성곽 등 군사도독부 유적의 흔적은 없으나 경자산 부근에 군량창이었던 곳의 마을 이름이 유량동이라 불리는 등 그 명칭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천안시를 동서로 분단하고 있는 천안역을 근경으로 한 도심부(스케치: 박병주)



천안 야외버스터미널과 갤러리아 백화점



아산시 외암리 민속마을

정기에는 천안삼거리가 반드시 휴식처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래서 천안삼거리는 항상 법석거렸다. 원거리에 마방이 많았다는 것으로 보아 길손을 재우는 객주가 많았고, 삼거리는 주막이 많았던 모양이다. 그리고 이 주막에는 요염한 귀생이 많이 있어서 길손을 유혹하였던 모양이었다. 그래서 귀생 능수와 과거보러 기던 과객의 이야기가 설화로 남아 구전되고 천안삼거리 흥타령으로 그 가락이 전해진다.

2) 근세 이후의 천안

고종 32년(1895) 공주부 천안군이 되었다가 다음해에 충청남도 천안군이 되고, 1914년 군면 통폐합 당시 목천, 직산 2군을 통합하였다.

1931년 천안면이 읍으로 승격된 후에 인구 7만 명이 되어 1963년 천안읍과 환성면이 통합되어 천안시가 되고, 다른 면들은 천원군이 되었다가 관민 합동으로 환원을 강력히 요구하여 국회에서 천원군 군명 변경에 관한 법률이 1991년 말에 제정공포되어 1992년 천안군으로 환원하였다. 그리고 1995년 천안시와 천안군이 천안시로 개편되었다. 역사를 통하여 지역민들이 지명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1) 삼거리 문화의 변화

천안은 예로부터 교통의 요충지로서 삼남의 분기점이었으나 경부선 호남선 열차의 분기점이 대전으로 옮겨져 한때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 그후 일본의 민간자본으로 세워진 경남철도가 장항선을 부설하여 새 교통도시로 발전되었으나, 경부·호남 고속도로의 분기점도 대전으로 옮겨져서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예전처럼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시외버스의 분기점은 그대로 유지하고 고속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90년대 초에 현 갤러리아 백화점과 함께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을 고속도로 틀게이트 근처인 신부동으로 옮기고, 그 일대의 전답을 정비하여 고층 아파트 지역과 과밀도를 피하기 위하여 층고 3층으로 제한한 저층 상가주택 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함으로써 구 역세권과는 달리 정비되어진 새로운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최근 정부에서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 계획을 세우면서 호남고속철도가 천안역에서 분기하고, 수도권

전철이 천안까지 연장 운행을 계획하여 다시 중부권 핵심도시로서의 역할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고속전철의 역세권 지역으로서 서부 구릉지대에 1980년대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여 현재 대단위 고층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고속전철이 완공되는 시기에 인구 50만까지 내다보는 수도권 역세에 포함되는 큰도시로 발전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개발은 신부동 지역처럼 위락시설 및 공원 부지확보에 대한 배려와 높이 제한이 엄격하지 않아, 천한 자본주의의 정신에 의해 건설되어 마치 전체 시내가 짓다가 그만둔 공사현장처럼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서울 시가지들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듯하다.

반면에 성환의 경우는 또다른 분위기를 보여준다. 성환지역은 넓은 아산 구릉지대를 이용하여 과수재배와 목축업을 발전시켰다. 성환읍에는 우량종축보육을 위한 국립종축원이 일제때부터 있어서 축산업이 발달하여 젓소가 충청남도내에서 가장 많다. 과수로는 배, 사과, 포도, 참외가 생산되는데 성환배는 근래에 큰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곳의 개구리 참외는 맛이 뛰어나 일제 강점기에는 비행기로 일본까지 실어가기도 하였다. 광복후 노랑고 맛이 단 개량종 참외의 등장으로 생산이 감소되었으나, 최근 성환참외가 당분이 적어 당뇨병 환자에게 효용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면서 주문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들 과수원과 목장지대는 다른 지역에서 보기도 드문 근대적이며 전원적인 농촌경관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현재 대다수의 중소도시에서 행하여지는 것처럼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의거하지않고 천한 자본주의 논리에 의한 아파트의 건축이 이루어져서 지역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현재 인구 약 35만의 천안시에 1970년대 이후 단국대학 천안캠퍼스, 호서대학교, 상명대학교, 신문대학교, 나사렛대학교,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남서울대학교, 천안대학교, 천안공업전문대학, 천안축산원예대학, 외국어전문대학, 기독교신학교 등 13개 대학이 개교하여 수도권 학생들의 대량 유입으로 인하여 이전의 교통권 중심에서 교육도시로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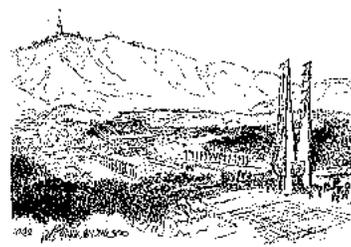
4) 현재의 원성동일.



흑성산(우측 위)과 태조봉(좌측 위)을 전산으로 하는 천안 시가지(스케치: 박병주)



천안의 명물 능수버들이 늘어진 천안천변의 경관(스케치: 박병주)



흑성산을 배경으로 한 독립기념관(스케치: 박병주)

아산 · 천안의 도시탐색

Investigating the City-Asan and Cheonan

이재훈/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by Lee Jae-Hoon

한 지역의 도시, 건축을 논의하는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순수한 의도로써 지역의 역사, 문화, 도시, 건축의 내용을 이해하고,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체성을 탐구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우리지역은 다른 지역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지역은 무엇을 가졌는가? 우리지역의 장점은 무엇인가? 우리지역을 어떻게 설명할까?... 등등과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는 일반성과의 관계로부터 형성될 수 있는 소명의식이다. 근대건축운동의 국제주의 건축양식은 20세기 건축을 주도해 오면서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상자형 건물"을 모토로 세계건축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왔다. 그러나 21세기의 세계는 하나의 이웃이 될 것이며, 앞으로는 인류의 공통문화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경향은 범세계적인(Global) 것과 지역적인(Local) 것의 대립을 야기하였으며, 세계화(Globalism)는 지역성(Locality)을 무시하고 제외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그리하여 20세기 후반 들어 근대기능주의 건축의 한계가 지적되었으며 지역건축에 대한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더이상 세계는 세계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의 대립이 아니라 "지역으로부터 세계로"라는 새로운 모토가 주장되었다.

이러한 시각은 Local이 단지 한 지역의 특수성이 아니라 일반성의 궤도를 넘히는 위치에 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논의는 자신의 발견이라는 낭만적 자세뿐만 아니라 인류보편 문화에의 기여라는 소명의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건축, 도시에서의 지역성은 기후, 지형 등의 지

리적 인자와 인종, 역사, 문화 등의 인문적 인자에 의해 생겨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규모면에서 보거나 인종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 안에서의 지역구분은 사실 큰 의미를 찾지 힘들다. 우리나라의 어느 도시를 가보아도 비슷한 건물에 비슷한 가로망, 비슷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서울이나 대전, 부산이 도시규모의 차이는 좀 있을지언정 도시속에 보여지는 모습들은 대동소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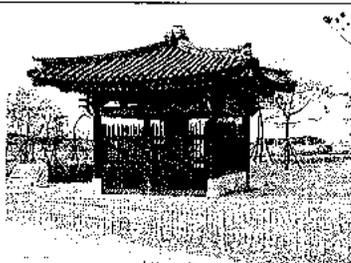
이러한 현상은 대도시뿐 만이 아니라 천안이나 청주, 공주, 김천, 평택 등의 중소규모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디나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고, 길들이 넓게 뚫려 있으며, 상점들이 도열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도시개발이라는 것이 6·25이후의 똑같은 시점에 서울을 표준모델로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지나치게 문제를 간략화하여 보는 눈을 범할 수 있을 것이다.

천안만 하더라도 인구35만의 도시로 1990년까지만 하여도 5층 이하의 건물이 대부분이었으며, 도시의 끝에서 끝까지 자동차로 10분이면 지나치고, 노파 밭을 도시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다.

거리에는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일제시대의 건물들도 눈에 띄며 곳곳에 역사의 향취가 느껴지는 장소들이 있다. 보고자 하는 의도와 깊이가 있다면 걸음으로 보여지지 않는 잠재하는 도시의 특성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걸음으로 보여지는 도시 건축의 모습이 축약되어 다른 도시와 비슷한 양상으로 보여지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거의 전부처럼 보여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건축, 도시의 이면적 문화는 다른 도시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건축, 도시의 지역성이 눈으로 보여지는 한국의 현대 건축 현황에 의해서는 거의 찾아질 수 없는 상황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지역의 문화 측면에서는 그 지역을 드러낼 수 있는 잠재적인 형상이 도사리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지역의 도시, 건축의 특성을 살리는 의의가 되리라 생각한다.



천안시 봉선 흥경사 비갈



천안삼거리



천안시 신부동 저층 상가주택
(건물형태와는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평범한 느낌을 준다)

천안의 도시탐색

고속도로를 따라 내려오다 보면 안성 I. C.를 지나 고속도로 서측면에 길게 늘어 뜨러진 큰산을 만나게 된다. 차령산맥의 줄기이다. 옛날 이 태조가 이곳을 지나면서 그 산의 웅자함에 길을 더 가지 못하고 산에 제를 지내고 지났다고 하는 성거산, 태조산 줄기이다. 고속도로는 이 산 줄기의 끝으로 돌아 천안 I. C.에 도착한다. 즉 천안은 차령산맥의 준령이 잠시 멈춘 지점에 위치한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천안의 지명 태동과 관련하여 볼 수 있다. 삼국사기에서 이곳은 백제, 신라, 고구려가 서로 다투던 전략적 요충지였다고 한다. 전쟁이 끝이 없었으며 한시도 편안한 날이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곳이 편안하면 天下가 便安하다'라는 말로부터 天安이라는 지명이 생겨났다고 한다. 그 만큼 이곳은 3남 지방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주요한 길목이었을 것이며, 조선시대의 천안삼거리(天安三거리)가 비단 그대 생겨난 의미가 아님을 뜻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천안지역이 길목으로서의 요충지이기는 하지만 조선시대 현감이 천안 북쪽의 직산현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리 큰 도움은 아니었던 것 같다. 천안은 일제시대 大田驛과 함께 天安驛이 생겨나면서 의도적으로 커진 도시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교통요충지로서의 역할은 변함없었다.

경부선 철도, 장항선 철도, 안성선 철도가 X자 모양으로 천안을 가로지르며 경부고속도로가 천안을 남북으로 관통한다. 2000년경에는 고속철도가 또다시 남북을 가로지르게 되며,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천안 - 논산간 고속도로가 생겨난다. 주말이면 서해안 방향으로 향하는 자동차들이 천안을 경유하며 지나가는 광경을 볼 수 있다. 그야말로 교통의 요충지이다. 그러나 교통의 요충지로서 교통도시의 의미에 걸맞는 도시, 건축으로는 넓게 뚫린 외곽도로, 대규모의 터미널 건물만을 들 수 있을 뿐이다. 역사적인 천안 3거리는 그 위치가 어딘지도 정확히 고증이 안된 채 조그만 길옆에 공원만을 만들어 놓았을 뿐이다. 교통도시가 갖고 있는 교통시스템의 가시적 모습이나 교통문화의 성숙된 모습, 교통박물관 하나 없는 상황이다. 지

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가졌던 도시의 정체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천안의 또 다른 특징은 천안에는 별이 12개, 용이 14마리, 그 밖에 봉황이 4마리 등 하늘과 관련된 洞 이름이 타 도시에 비해 현저하게 많다는 것이다. 星井洞, 星村洞, 城星洞, 九星洞과 新龍洞, 淸龍洞, 大龍洞, 龍谷洞, 雙龍洞, 三龍洞, 五龍洞과 雙鳳洞, 鳳鳴洞, 鳳接山 등이다.

일반적으로 지명은 지형조건에 따라 붙여지거나, 일제시대를 지내면서 신문명을 상징화하는 洞名이 많은데 천안에서는 하늘과 관계된 별, 용, 봉황의 이름이 많이 붙여져 어떠한 잠재적인 의미가 숨겨진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나 천안의 '하늘 이미지'는 타 도시와 다른 바 없이 도시의 형상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굳이 찾아보자면 천안 단국대학교 앞에 있는 호수(湖水)가 하늘을 담아 보여주는 상징이 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천안의 도시구조는 특이하다. 차령산맥과 고속도로, 기차길의 3축이 남북방향으로 길게 늘어짐으로 해서 사각의 도시이지만 선형적이다. 동측으로부터 산지, 고속도로, 고속도로와 기차길 사이의 구 시가지, 봉점산의 선형에 가로막혀 있는 기차길 서측면의 신 개발지로 연결되어, 이들은 도시의 큰 축을 이루며 도시를 선적으로 분할된 양상으로 보여준다.

개발시기도 달라 각 선적인 도시벨트는 구시가지, 신개발지, 자연녹지의 모습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며, 서로 고가도로와 지하차도 등으로 연결되어 대나무 비구니를 짜듯이 수직, 수평의 제마난 도시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고속전철이 들어서면 또다시 반복될 도시구조로서 천안의 운명적인 도시모습을 예상케 한다. 선적으로 분할된 도시구조를 그 특성으로 살려 자연과 인공, 구시대와 신시대의 조화를 갖는 도시를 일궈내는 것은 현대도시 천안이 만들어갈 수 있는 내적인 가능성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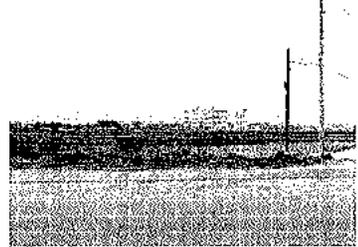
천안에 대학과 연수원이 많은 것은 또 다른 특성의 하나이다. 도시에 바로 인접하여 소위 분위기 나는 큰산이 있고, 전국 어디서나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 덕분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가까스로 벗어난 천안에 많은 시설들이



천안시 성환의 과수원 및 축산농가 전경



천안시 쌍릉동 전철역세권 지역 개발 상태



천안시 성환의 아파트 (시골에 고층아파트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도시주변부에 독립적으로 하나씩 들어섬으로 해서 천안의 기존 도시형태와 조화되지 못하고 분리되어져 있는 현실이다.

그 밖에 천안에는 아직도 농경지가 많고, 옛부터 내려오던 길 형식 때문에 5거리 체계가 남아 있으며, 신개발이 마구잡이 식으로 진행되어 도시 어느 구석이거나 고층 아파트로 들어차 있다. 건물은 모양만 다른 상자곽이며, 터미널 주변에는 음식점들이 들어차 있고 밤이면 젊은아들이 배회하는 조그만 길도 있다. 시내를 관통하는 하천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채 시커먼 물을 흘려 보내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특징들은 다른 도시에서도 일상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일 것이다.

아산의 도시탐색

아산시는 우리나라 중서부의 충청남도 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부 충남권을 관통하는 장항선 철도의 관문 도시이자 서해안 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수도권 배후거점도시이다. 아산시는 구 온양사와 아산군이 합쳐진 도시로 도시적 성격이 나타나는 곳은 구 온양사가지 뿐이며 나머지는 읍, 면의 마을모습으로 남겨져 있다. 시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시 외곽의 마을구성 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건축, 도시의 성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며,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아산시보다는 온양의 인지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구 온양시 일곽을 중심으로 아산시의 도시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 온양시는 차령산맥의 북쪽 줄기에 위치하여 남쪽에는 차령산맥의 지류인 설화연봉이 뻗어 있다. 또 동쪽으로는 무한천, 곡교천이 흐르는 곡창지대가 펼쳐져 있다. 지형적으로 볼 때 시가지 남쪽으로는 산맥이, 북쪽으로는 하천이 경계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또 두 지형사이를 장항선 철도가 지나가면서 3개의 큰 수평축이 온양의 도시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는 셈이다. 천안과는 수평·수직축이 서로 다른 점이기도 하지만 온양의 인구가 7만 정도로 도시규모에 있어 훨씬 작으며 아직까

지는 역세권 중심으로 짜여진 소도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역 앞의 T자형 도로가 중심도로이며 모든 교통은 이곳으로 통한다.

아산시는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온천이 있는 휴양도시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조선 성종왕이 온천을 하고 간 기록을 비롯하여 일제시대 들어서면서 온천지역의 개발붐과 함께 성장한 도시로 관광객을 상대로 한 서비스업이 발달하였다. 구 온양시 자료를 보면 서비스업인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7%로 1·2차 산업에 비해 엄청나게 크며, 3차 산업도 대부분은 음식 숙박업이 차지하고 있다. 관광자원인 온천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이 주된 도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목욕탕, 호텔, 식당 등의 1차적 시설을 제외하면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기능이 아직 제대로 틀을 잡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관광지로써 온천기능 이상의 이미지 연출에 있어서는 별다른 특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온양 관광호텔이 온천 문화의 발상지로서의 의미전달을 위해 銘文을 보관하고 정원을 꾸미고 입구 지붕을 한옥으로 처리하는 등의 단리적 성격을 이룸으로써 온양시가지가 갖지 못하는 부분을 메우고 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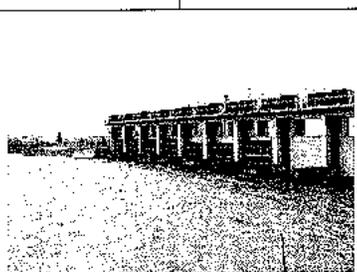
아산 현충사나 온양 민속 박물관, 아산 외암리 민속마을 등의 문화적 관광자원들이 있으나 독립된 도시요소로서 작용하고 있을 뿐 종합적인 도시이미지 창출을 위한 요소로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1970년대 후반 조성된 아산 방조제와 삼교호 방조제는 충남 서해안과 경기도를 육로로 연결하는 중요한 의미의 개발이었다. 천안을 거쳐야만 하던 충남 서해안 권역이 아산을 거쳐서도 직접 연결됨으로서 아산지역에 산업투자를 본격화한 계기가 되었다.

많은 공장들이 시가지를 벗어난 농촌 구릉지에 세워져 자연경관을 변형시켰으며 앞으로도 천안·아산지역에 고속전철역이 생김으로서 더욱더 많은 공장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산시 온양관왕호텔



아산호 방조제



산과 시선을 막고 있는 아산시의 아파트단지

부여지역의 고대문화

A Brief Survey of the Ancient Culture in Puyo

이영훈/ 국립부여박물관장
by Yi Young-H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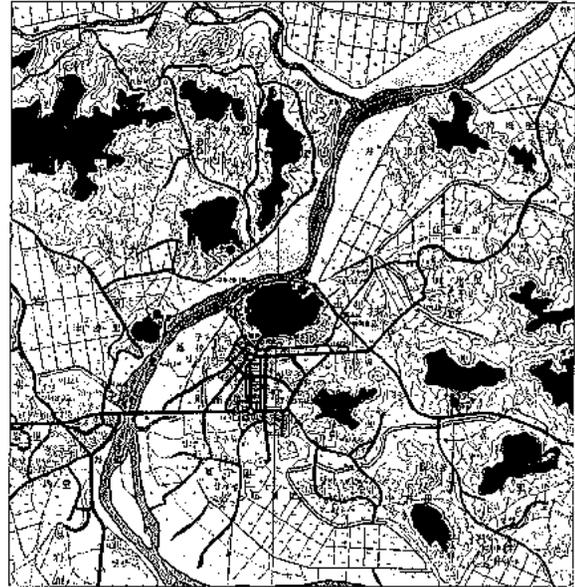
1. 선사시대의 부여

부여지역에서는 구석기시대나 신석기시대의 유물이 일부 발견되고 있으나, 아직 유적이 발굴조사된 적은 없어서 확실한 문화상을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음 단계인 청동기시대의 경우에는 일찍부터 유적이 발굴조사되어 이 시대의 문화상이 비교적 자세하게 알려져 있다.

청동기시대인들은 나즈막한 구릉위에 수심호씩 마을을 이루며 살았는데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이 송국리유적(松菊里遺蹟)이다. 이 유적은 표고 40여 m 정도의 얇은 아산에 넓게 자리하고 있는데, 주변에는 내가 흐르고 넓은 들이 있어 농사짓기에 알맞아 마을이 자리하기에 좋은 환경이다.

이 유적에서 조사된 움집터(竪穴住居址)들은 평면상 방형집터와 원형집터의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전자에서 후자로 변천해 나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방형집터는 벽쪽에 일정한 간격으로 기둥구멍이 있어 맞배집으로 복원할 수 있다. 원형집터의 경우는 바닥 중앙부에 판 타원형의 구멍이 안에 중심 기둥을 세우기 위한 구멍 2개가 있으며 벽쪽으로 치우친 사방에 1개씩 모두 4개의 기둥구멍이 있어 전체적으로 원추형의 집으로 복원된다. 이런 형식의 집터는 전남지방과 경남지방에서도 확인되고, 멀리 일본에



부여시의 도시 및 지형현황(자료제공: 이재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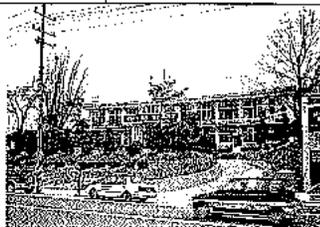
서도 보이고 있어 송국리유적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화가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송국리유적에서는 마을을 방어하기 위한 시설도 확인되었다. 목책(木柵)과 환호(環壕)시설이 그것이다. 목책은 지름 30cm 정도의 나무를 180~240cm 간격으로 세워 울타리를 만든 것으로 방형의 집터들을 감싸고 있었다. 환호는 후대의 해자(壕字)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단면이 V자형에 가까운데 너비 270~380cm, 깊이 110cm 정도이다. 이러한 방어시설은 당시 마을의 규모를 짐작케 해주며 나아가서 마을과 마을 사이의 관계 등 사회구조를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초기 철기시대(기원전 3세기~기원전후)에 해당하는 유적으로는 무덤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무덤에는 동검(銅劍)·꺾창(銅戈)·구리거울(銅鏡)·동탁(銅鐸) 따위의 청동기와 함께 쇠칼과 쇠도끼 따위의 철기류 및 유리대롱옥이 부장되어 부여지역에서 발달한 청동기와 철기 및 유리 제작기술 등 당시의 독특한 문화양상을 보여준다.



부여를 대표하는 경관인 백마강 낙화암(스케치: 박병주)



부여 도서관



부여읍사무소

2. 백제시대의 부여

알다시피 부여(사비)는 538년부터 660년까지 120여년간 백제의 도읍지였다.

백제가 도읍을 공주에서 부여로 옮긴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공주지역의 공간 협소가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다.

이 천도 계획은 동성왕(東城王) 때부터 추진되어 오다가 성왕(聖王) 16년(538)에 완료되었다. 백제는 부여의 진산(鎭山)인 부소산 남쪽에 왕궁을 짓고 외곽에 길이가 약 8km에 이르는 나성(羅城)을 쌓아 본격적인 도성(都城)의 모습을 갖추었으며, 이 왕도는 지역에 따라 5부(部)로 나누어졌고 각 부는 다시 5항(巷)으로 나누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사비 시기는 문화적으로도 가장 융성하였던 때로서 특히 불교문화가 발달하여 정림사(定林寺)를 비롯한 많은 절들이 나성 안팎에 세워졌다. 또한 나성 밖에는 왕릉을 비롯한 교분들이 조성되었다.

근년에 이르러 이러한 사비시기 도성의 모습을 밝히고자 하는 고고학적인 발굴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먼저 왕궁터를 찾는 발굴조사가 부여읍 관북리 일원에서 실시되었는데, 당시의 건물터·축대·도로·연못 등의 유구와 함께 금속품과 토기류 등 수준 높은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어 사비 시기의 왕궁이 이곳에 자리했음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 가운데 부여문화재연구소 앞 지역에서 발굴조사된 백제시대의 도로 유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로는 동서, 남북으로 교차하는 일부 부분이 발견되었는데 너비는 남북방향의 대로가 8.9m, 동서방향의 소로가 3.9m로서 각각의 좌우에는 배수구가 만들어져 있었다.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에는 판돌로 조립된 암거시설도 있었다.

이러한 도로 유구 등의 자료로 볼 때 왕도에서 5부 5항제에 의한 조리제(條里制)가 실시되었던 것은 거의 확실하다. 그러나 아직 조리제에 의한 도시공간구획의 전모를 밝히는 어렵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를 검토해 볼 때 최소한 현재의 부여읍 관북리와 쌍북리 및 동남리(정림사터 뒷편) 일대에는 조리제에 의한 도시계획이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일환으로 앞서 이야기한 도로가 개설되었던 것이며, 관북리와 쌍북리에 있는 현재의 도로시설의 일부는 이미 백제시대부터 있었던 길을 이용한 것이 밝혀졌다.

한편 부여지역에서 발견된 백제시대의 건물터는 궁궐터·절터·움집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궁궐터는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부여문화재연구소가 있는 관북리 일원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바, 이곳에서 궁궐의 전모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당시 내성(內城)으로 추정되는 건물의 일곽이 확인되었다. 이 건물들은 높이 1m가 넘는 성토층위에 지어졌는데 기단은 외적(瓦積) 또는 화강암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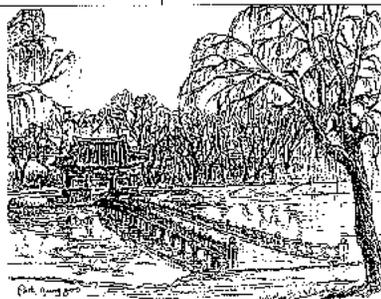
대표적인 절터(寺址)로는 군수리절터·용정리절터·정림사터·능산리절터 등을 들 수 있다. 이 절들은 1탑1금당식으로 남북자오선상에 세워졌으며, 용정리절터와 능산리절터는 나성 밖의 절이며 군수리절터와 정림사는 나성 안에 있는 절이다. 정림사를 제외한 나머지 절들에는 목탑이 세워졌으며 모두 6세기 중엽이라는 연대를 갖는다. 이로 보아 6세기 중엽에는 불사를 여러 곳에 세울 정도로 국가경영이 정상 궤도에 올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금동대향로가 출토되어 유명해진 능산리절터는 567년에 창건한 성왕(聖王)의 원찰(願刹)로서 강당(講堂)의 구조가 집안에 있는 고구려시대의 동대자유적(東臺子遺蹟)과 비슷하여 양자간의 문화교류를 엿볼 수 있으며, 백제시대의 것으로는 처음으로 다리(橋)가 발견되어 주목된다.

움집터로는 부소산성내 반월루부근 유적과 정림사 강당터 동쪽 부근 유적을 들 수 있다. 부소산성 반월루부근 움집은 산성 내부에 있던 군사시설의 일부로 추정되고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4m 정도인 네모난 집으로 아궁이와 구들시설이 있었다. 정림사 강당터 동쪽 부근 움집은 내부에 아궁이와 구들시설은 없었지만 Y자로 된 배수로 시설이 있었다.

부여지역의 백제교분으로는 석실분(石室墳)을 비롯하여 웅관묘(熊棺冢)와 화장묘(火葬墓) 등을 들 수 있다. 화장묘를 제외한 무덤은 나성 밖에 조성하는 것을 엄격하게 지켰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성왕릉(聖王陵)이 포함된 능산리고분



백제 왕도 부여의 중심사찰이었던 정림사지(스케치: 박영주)



백제 별궁의 연못 가운데 포용정이 보인다.(스케치: 박영주)



부여 청소년 수련관

군이 나성에 인접된 외곽에 자리한 것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백제는 '산성의 나라'라고 부를 만큼 많은 산성을 쌓았다. 산성은 석축과 토축의 두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성벽은 판축기법으로 쌓은 것이 많아 주목된다. 부여읍 주변만 해도 10여개의 산성이 있으며 이들 산성은 모두 부소산성에 그 거점을 두고 있다.

3. 오늘의 부여

왜 부여를 이야기하는가. 왜 사람들은 지방의 조그마한 한읍(閑邑)에 지나지 않는 부여를 찾아오는가. 왜 부여에 와 백제를 회고하고 옛 왕국의영광을 회상하는가. 그것은 백제의 수도로서 백제의 문화유산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백제 시대 이래의 자연환경이 거의 훼손되지 않은 채 원형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부여는 그 원형을 잃어가고 있다. 현재 우리들의 개발육구는 부여라고 예외가 아닌 것이다. 건축 등 각종의 공사로 인해 알게 모르게 많은 문화유산이 인멸되어 가고 있으며 자연환경은 변형, 훼손되어가고 있다. 부여다움을 잃어 가고 더 이상 다른 도시와 다를 바가 없어 되어가고 있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5층 이상의 아파트가 없는 도시였지만 머지않아 더 높은 아파트가 괴물처럼 들어 설 것으로 우려된다.

더 이상 부여가 부여답지 못하다면 더 이상 부여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 백제의 문화유산을 개발의 이름으로 없앤다면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백제를 없애며 부여가 개발되어서는 아니된다. 백제 없는 부여는 정신이 없는 부여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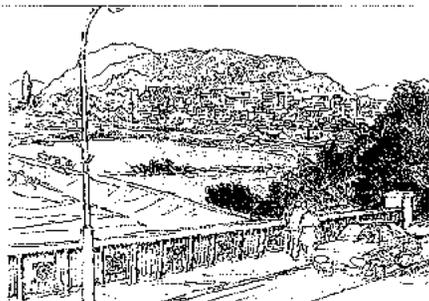
삼국사기는 백제의 건축을 평하여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하지 않았다(儉而不陋 華而不侈)고 하였는데, 오늘날 우리가 부여에서 일으키고 있는 건축은 어떠한가. 또한 건축은 환경을 생각할진대 오늘날의 건축은 과연 자연환경을 진정 고려하는가. 백제의 지형은 거의 그대로인데 우리는 너무 오만하지 않은가. 오늘날 우리의 건축정신

은 백제인의 건축정신과 얼마만한 상관관계가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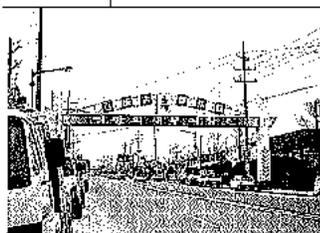
백제도 살리며 오늘날의 부여도 살리는 길은 다름 아니다. 신부여(新扶餘)를 만드는 일이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을 떠나야 한다. 그리하여 지금의 부여는 백제 때로 돌려 놓자. 그래야 백제도 살고 부여도 아니 부여 사람도 산다. 지금의 부여에서 선조의 흔적을 뽐내고 앉아 있으면 절대로 희망이 없다. 도시기능을 다른 곳으로 옮기자. 50만도시 딱딱하면 짓는 괴력(?)을 지닌 우리가 아닌가. 3만 인구의 도시 하나 만들기는 속된 말로 누워 떡먹기일 것이다. 왜 이것을 못하는가.

부여읍내의 중심에는 저 유명한 정림사터 오층석탑이 있다. 이 탑은 마치 부여의 벤치마크와 같은 구실을 하듯 당당하게 서 있다. 백제인이 짓고 고려와 조선시대의 선조들이 잘 남겨 우리에게 전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처럼 천수백년을 견딜 수 있는 건축물을 지었는가. 선조가 물려준 것을 잘 간직하고 있는가. 부실공사로 인해 무너졌거나 거추장스럽다고 없애버리지 않았는가. 돈에 눈이 멀어 조상의 무덤을 파헤치지 않았는가. 또한 치욕적인 것이라 하여 부수어 버리지 않았는가. 일부에서 건물은 사라져도 역사는 남는다고 아우성도 쳐보았지만 역시 우리는 철저히 부수어 버렸다. 건물이 남아야 역사가 남는다. 눈에 보아야 추체험(追體驗)하면서 역사를 뒤돌아 보는 것이다. 이제 부터는 남기자, 그리고 터고(據古)하자 그리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자.



백제교에서 본 부여 시가지, 뒤에 보이는 산이 부소산(스케치: 박영주)



부여 초입 아치



부여중학교 체육관

역사도시 부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The Future of Puyo, The Historical City

한필원/ 한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Han Pil-Won

1. 부여읍의 이미지와 구조

1) 중심과 상징의 도시

'무궁해 났기'에서 '금동향로'로 버스정류장 안내대의 그림이 바뀌면서 행정구역은 논산군에서 부여군으로 접어든다. 그렇지만, 부여읍의 도시영역이 따라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좀더 차를 몰고 가야 '여기부터 부여가 시작되는구나!'라는 느낌이 오는 장소가 나타난다. 우측에 있는 능산리 고분군과 건너편의 오산(일명 오살미)마을로 규정되는 그 장소는 좁혀진 지형 탓인지 다소 긴장감을 준다. 능산리 고분은 1993년 우리를 놀라게 한 금동향로가 출토된 곳이고 오산마을은 한옥 일색의 풍경을 가진 농촌마을이다.(사진 1) 부여로 들어가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4번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도시의 입구가 직감된다. 바로 이곳에 백제시대의 외성(外城)인 나성(羅城)이 있었으니, 역사의 두께를 가진 장소는 우리에게 항상 특별한 느낌을 주는 모양이다.

도시의 이미지에 걸맞게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입구영역에서 3.9km의 거리에 하나의 광장이 나타난다. 그리고 소방서가 위치한 이 노드(Node 1)에서부터 도심이 시작된다. 그런데 소방서 노드에서부터 도시공간 여기저기에 이빨 빠진 부분들이 목격된다. 그곳들은 발굴이 일어나고 있거나 발굴의 흔적이 남아있는 역사의 현장이다. 비어있는 역사의 현장과 과도한 스케일의 가로는, 잘 짜여진 도시가 주는 긴장감 대신에 느슨하고 허한 느낌의 도시를 만들어내고 있다. 소방서 노드에

서 남쪽으로 부여군청이 있는 노드(Node 2)의 계백장군상을 향해 바라보면 중앙로가 완만한 경사를 따라 올라가며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스카이라인이 펼쳐진다. 가로수와 전봇대가 커보이는 4차선의 이 가로는 지나치게 넓고 건물로 잘 규정되지 않아서 짜임새가 없어 보인다.(사진 2) 더욱이 군청 노드에 있는 계백장군상 너머로는 도시화지역이 중단되며, 가로는 궁남지(宮南池)를 향해 무한대로 확산되어 버린다. 가로의 양쪽 면이 묘한 대조를 이루는 백제로에서는 이런 허한 느낌이 더하다. 백제로의 동쪽 면은 반 이상이 부여중학교와 정림사지의 담장으로 구성된다. 한 도시 중심가로의 한 면이 거의 담으로만 규정되었다는 사실은 특이하다. 우리가 익히 아는 도심의 가로는 자극(磁極)처럼 엄청난 집적의 힘을 가지기 때문이다.(도면 1, 사진 3)

그러나, 공간적으로 허한 도시 부여가 맥없이 느껴지지 않은 것은 왜일까? 그것은 도시에 강력한 중심과 상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군청 노드가 바로 도시의 공간적 중심이다. 또한 여기에는 중요한 행정시설과 농협이 들어서 있어 도시기능의 중심이기도 하다. 이 광장의 가운데에 세워진 계백상은 중심을 확인시켜 주며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동쪽(박물관쪽)에서는 계백의 정면을, 서쪽(규입쪽)에서는 계백이 탄 말의 엉덩이를, 북쪽(소방서 노드쪽)에서는 계백의 좌측면을 바라보면서 도시에 들어선 우리는 자신의 방향을 확인하며 중심을 향해 이끌린다. 이렇게 계백은 죽어서도 도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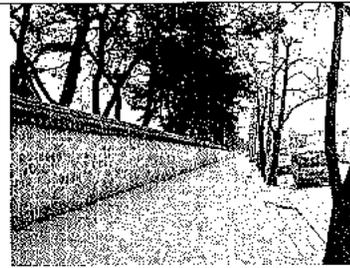
부여는 걷고 싶은 도시이다. 도시의 전체적 스케일이 걸을 만큼 만만하다. 이 도시를 걸으면서 우리는 반복되는 몇 개의 형태 이미지들을 만난다. 정림사지 5층 석탑의 옥개석을 연상시키는 지붕형태, 그것은 관공서 건물에 빠짐없이 적용되었고 박물관과 청소년수련원과 같은 대규모 건물에서는 물론 버스 정류장의 지붕까지 일관되게 쓰인 모티브이다.(사진 6) 백제의당 문양의 벽체는 군민체육관 등에 쓰였으며 산경문전(山景文壇)이나 구름무늬 전돌(渦雲文塼)의 문양은 보도블록 등에 나타난다. 이런 모티브들이 일관되게 형태와 장식요소로 나타나서 도시의 상징이 되고 있다.



〈사진 1〉 능산리 고분군



〈사진 2〉 중앙로



〈사진 3〉 백제로에 면한 정림사지의 담

2) 계획도시 부여의 구조와 현상

도시의 주산(主山)인 부소산에 있는 반월루(半月樓)라는 이름의 전망대(표고 75m)에 오르면 동쪽을 제외한 삼면이 강줄기에 휘감긴 시가지가 한 눈에 들어온다.(사진 5) 부여는 백마강으로 불리는 금강의 하류에 의해 규정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동쪽으로는 부소산으로부터 금성산, 필서봉으로 이어지는 산지가 자리잡고 있어서 부여의 도시영역은 더욱 명료하게 정의된다. 이 영역 안에 백제시대에 계획되었을 도성(都城)공간은 일제시대에 새롭게 틀지워졌다. 일제는 백제의 역사성 위에 내선일체(內鮮一體)를 꿈꾸는 신도(神都)의 도시계획을 얹어 놓았다. 그후에는 금강의 수운(水運)이 쇠퇴하고 호남선으로부터 격리된 덕에 부여는 근대도시로 전환되지 못했다.(부여군지, 1987, p.69) 오히려 금강 건너편의 규암이 더 넓은 배후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일제시대 이후 부여의 정체(停滞)는 따지고 보면, 그후 지속된 백제에 대한 사적(史的), 정치적 왜곡과 과소평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일제시대 도시공간의 틀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일제에 의해 1940년대 초 도시계획이 추진되면서 관북리 구도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시가지가 새로운 블록체계의 도심으로 이동되었다. 그리고 주로 단층 음식점 건물로 이루어진 구 시가지는 정체된 도시 부여의 상징적 장소로 남겨져 있다.(사진 4) 새 도심 구성의 핵심은 앞에서 군청 노드와 소방서 노드라고 표현된 두 개의 광장을 꼭지점으로 한 격자형 가로체계이다. 두 개의 노드를 이어서 중앙로가 이루어지고 그 동쪽에는 백제로가 나란히 형성되었다. 두 가로로 규정되는 남북 770m×동서 200m의 커다란 블록을 이 글에서는 도심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도심은 현재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주변에는 주거지가 위치한다.

이 두 선의 영향력으로 짜여진 도심 면의 내부도 규칙적인 작은 블록으로 분할되어 있다. 곧 두 가로와 나란히 남북으로 두 길이 나서 도심은 남북방향으로 긴 세 켜로 구획된다. 그리고 80~100m 간격으로 나란한 동서방향의 길들이 그 세 켜를 관통한다. 남북 방향의 세 켜 중 유독 가운데 켜만은 중

간에 또다시 동서방향의 길이 나서 도심은 균등한 크기의 작은 블록들로 분할된다. 그리하여 지도를 보면 공교롭게도 도심의 중앙에 일(日)자가 나란히 나타나 보인다.(도면 1 참조)

두 노드를 잇는 축(중앙로)에는 관공서, 교회, 시외버스 터미널 등 도시의 주요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필지가 가로면을 향해 좁게 분할되어 있지 않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축의 응집력은 약하다. 가로에 면하면서도 동서향이 아닌 남향을 한 건물들 또한 그것을 말해준다. 도심 바깥쪽으로는 서쪽에 도심의 질서를 따르는 하나의 켜가 형성되어 있다. 이곳은 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도로폭이 5~6m에 달한다. 부여는 주 가로는 물론 이연도로까지 과도한 스케일로 구성된 것이다.

자연조건에 의해 규정된 도시영역과 일제의 도시계획을 한꺼번에 벗어나는 도시광역화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기 시작한 것은 근래의 일이다. 도시의 광역화를 위해서는 도시영역의 삼면을 제한하고 있는 금강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1968년 준공되고 1997년 확장된 백제대교를 통해 도시광역화는 시작되었다. 도시를 서쪽으로 확장시키는 이 다리를 통해 금강 양쪽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각각 수행했던 부여읍과 규암리가 통합될 수 있게 되었다. 북쪽으로는 현재 규암면 합정리 일대에 백제역사재현단지가 아슬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곳을 부여읍과 잇는 사비교가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앞으로 부여읍과 규암리, 그리고 합정리는 금강을 사이에 둔 삼각형의 세 꼭지점으로서 도시기능을 분담하고 상보적인 역할을 하며 광역 도시체계로 발전할 것이다.

2. 도시건축의 상황

1) 부여의 도시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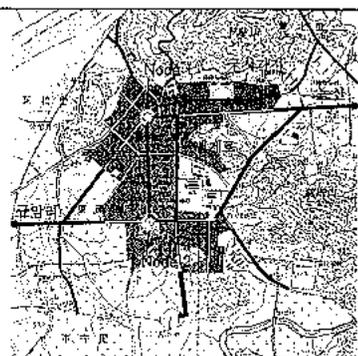
건축법 시행령 8조의 4항에 의하면 문화재에서 100m 이내에 자어지는 건물은 도시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부여군 건축위원회에서도 이를 근거로 신축 건물의 층수와 미관을 심의한다. 따라서 이제까지 부여 시가지는 5층 이



〈사진4〉 관북리 구시가지



〈사진5〉 부여읍 시가지 전경



〈도면1〉 부여의 도심구획

하의 건물로, 특히 부소산성 주변은 3층 이하로 제한되어왔다. 결과적으로 부여의 시가지는 주로 저층의 상업용 건물들로 채워지고 있다.

일제시대에 계획된 도시답게 부여에는 당시의 건물들도 적지않게 남아 있다. 특히 4번 국도에서 소방서 노드에 이르는 가로변에는 그러한 건물들이 독특한 가로경관을 만들고 있다.(사진 7) 그러나 일제시대의 근대건물들은 점차 현대의 상업건물로 대체되면서, 상징적이거나 기념비적인 건물의 경우 대개 전통 양식의 건물로 변환되고 있다. 예외라면, 부소산기슭의 부여 객사(客舍) 뒤에 자리잡은 부여문화재연구소 건물 정도일까. 김수근 선생이 박물관으로 설계한 이 건물은 전통을 인용한 도시의 상징을 채용하지 않았다. 1967년 신문 사회면의 톱기사로 장식한 이 건물의 왜색 시비는 건축적 사건에 일반인들이 가세한 몇 안되는 일 중 하나이다.

‘근대에서 전통으로’, 이러한 양식의 변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도시의 중심인 군청 노드이다. 이 장소에는 농협, 읍사무소, 군청, 군민회관이 북동쪽 모퉁이로부터 시계방향으로 군청 노드를 둘러싸고 있다. 이들 건물의 공통점은 외관상 전통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직설적으로 전통양식을 표현하고 있는 건물은 읍사무소로, 일층의 기단 위에 한옥의 2층이 올라앉은 형식으로 지어졌다. 반대로 전통건축의 양식을 추상화시켜 가장 세련되게 표현한 것은 농협건물이다. 그러나 이 건물의 전통 역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며 도시건축의 진실성과는 무관하다. 이 사실은 건물 뒤편의 주차장을 이용한 사람이면 쉽게 알게 된다. 한옥지붕의 형태적 특징을 차용한 전면과 달리 건물의 후면은 아무 생각없이 밋밋하게 처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군청이나 군민회관에서조차 지붕만은 한옥의 지붕 또는 정림사탑의 옥개석을 확대한 모양이다. 1978년 신축된 부여군청의 자리에는 1944년에 세워진 벽돌조 2층의 근대 건물인 옛 청사가 있었으니 군청은 이 도시의 건축이 겪어온 양식상의 변화를 한 몸으로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이 노드에서 멀지 않은 곳의 가로변이나 이면 주거지에서도 벽체는 근대성을 지향하면서도 지붕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듯 전통건축의 지붕을 얹은 집들이 간헐적으로 들어서 있다.(사진 8~10)

최근에 지어진 몇몇 건물을 제외하면, 부여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도시건축은 무표정하고 특징없는 어느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상업건물들이다. 부여사람들이 ‘박스’라고 부르는 이런 건물들은 요즘 우리 도시들에서 흔히 보이는 ‘튀고 싶어하는 건축가에 의한 튀는 건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주변에 겸손히 적응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지도 않다. 백제로의 한 면도 상업이나 업무 용도의 저층 건물들로 규정된다. 이 도시는 물론 나아가 백제문화권의 상징인 정림사지를 길 건너편에 면한 이 가로면은 건물을 앉히기 매우 부담스런 장소임에 틀림없다. 바라건대, 정림사지에 대한 배경처럼 겸손한 가로면을 떠올리지만 실재는 건물 높이만 유사할 뿐 건물의 디자인, 재료, 색채에서 통일성이 없는 면이 형성되어 있다. 공공기관인 한국통신의 건물도 그러한 통일성의 결여에 기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림사지의 동측으로 가서 도시를 배경으로 돋보이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보려는 우리의 시도는 헛수고로 끝난다.(사진 11)

2) 도시주거의 현 주소

부여에서는 한가지 행복한 일이 있다. 우리가 대도시에서 너무도 식상한 고층 아파트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그러나 부여의 주거문제를 건축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주거지가 도시블록과 전통마을이라는 두 가지의 대비되는 맥락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두 조건에 부합되는 주거유형을 각각 모색하는 것은 부여의 도시발전에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도심은 직교좌표의 블록으로 정형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반면 도심을 벗어나면 주변 지형조건에 자연스럽게 적응하여 형성된 전통마을들이 분포한다. 도심과 그 주변 블록의 주거지에는 대개 1970년대의 소위 집장사집들이 있다. 소방서 노드의 남동쪽 모퉁이에 지어진 수정맨션이라는 주상복합 건물은 예외에 속한다. 1~2층은 상가이고 3~5층은 아파트인 이 건물은 부여 도심에서 도시주택으로 의도된 유일한 예인 것 같다. 도심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면 군수리 같이 범람원(汎濫原)에 위치하거나 산기슭 완사면에 자리잡은 마을들이 분포한다.



〈사진6〉 버스정류장의 지붕



〈사진7〉 일제시대의 건물들



〈사진8〉 부여읍사무소

전통마을공간에 있는 재래주택은 대개 일자형의 농가이지만 중정리의 민칠식씨 집처럼 격식을 갖춘 대규모의 주택도 존재한다. □자형의 평면을 가진 민칠식씨 집은 건물과 마당이 독특하게 결합된 구성을 가지고 있다.(도면 2)

한편으로, 부여에서는 도시주거의 유형을 모색함과 더불어 그것을 문화관광 상품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본다. 민칠식씨 집같이 격식을 갖춘 주택이나 문화적인 인물과 연결되는 주택은 문화관광의 대상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예로 도시의 규모는 부여보다 크지만 도시의 입지조건, 공간구조, 하물며 유명한 문인과 정치인의 연고지라는 점까지 부여와 유사한 중국의 사오싱(紹興)에서는 관광 대상의 대부분이 주택이다.(사오싱은 루신(魯迅)의 고향이며 조우언라이(周恩來)의 원적지이다.) 그 도시에서는 전통주택, 특히 루신을 비롯하여 치우진(秋瑾), 조우언라이, 차이위안페이(蔡元培) 등과 관련있는 집들을 잘 유지관리하며 관련되는 자료를 전시하므로써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택은 그것이 인물과 관련되었을 때 많은 것을 암시하고 연상시킴으로 좋은 관광자원이 됨을 보여준다. 부여에도 꺾대기는 가래로 우리에게 익숙한 신동엽 시인의 집이 동남리에 있고, 중정리에는 민칠식씨 집과 같이 격식과 풍부한 건축적 내용을 갖춘 전통주택이 있다. 그러나 신동엽 생가는 아랫한 기와로 지붕이 개량된 채 대문만 열려져 있을 뿐 집의 내부는 들여다 볼 수도 없어서 시인의 체취를 느끼고 확인할 도리가 없다. 민칠식씨 집은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보수 중인 것을 보면 앞으로도 관리는 잘 될 것으로 보이나 도대체 어디에 붙였는지 찾기도 힘든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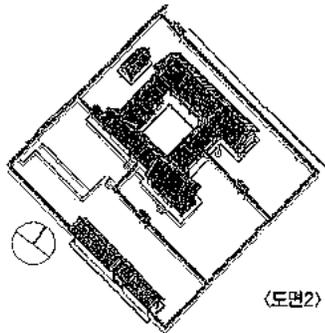
3. 문화관광도시 부여의 가능성

부여는 찬란하고 비장한 백제의 유적을 안고 있는 역사도시이며 한편으로는 배후 농촌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현대도시이다. 도시의 곳곳에서 유물을 찾고 발굴하는 시간에 한편에서는 전국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수박을

모아 파는 소란스런 경제적인 활동이 벌어진다. 도시민들의 관심도 유물에서 수박으로 옮겨가기 때문인지 근래에는 부여에도 소비문화가 급격히 파급되고 있으며, 주택문제와 주차난 등 현대도시의 부정적 요인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무튼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성으로 머물러서는 안되는 현실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한 도시가 이렇게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 성격으로 규정되는 데서 도시의 앞날에 대한 고민은 시작된다. 이 도시성격의 모순을 해결하는 길은 현대도시의 시스템을 갖추면서 역사성을 활용하여 도시의 경제적 기반으로 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곧 명실상부한 문화관광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관광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시 전체를 열린, 또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부여에는 오래 전부터 박물관이 있어왔다. 부소산 기슭의 객사에 있던 박물관은 그 뒤의 김수근 선생이 설계한 건물로, 그리고 다시 동남리의 새 박물관으로 옮겨왔다. 이제 부여박물관은 시설도 좋고 볼 것도 많다. 그러나 도시 자체가 박물관의 역할을 하지 않고는 문화관광도시라고 할 수 없다. 사실 더 좋은 박물관은 이미 거리에 있다. 그러나 부여향교와 같이 잠겨있는 문화재들, 신동엽 생가와 같이 아무도 살지 않고 전시물도 없는 문화재들로는 열린 박물관을 이룰 수 없다.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문화재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말이다. 백제로에 면한 정림사지의 담장도 이런 의미에서 재고해보아야 한다. 그 담장의 높이가 고중에 의한 것이 아닐 바에는 걸으면서 5층 석탑이 시각적으로 접근되도록 낮추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버스 안에서도 담장만 보일 뿐이다. 더욱이 그 말끔한 담장은 보행욕구를 감소시키며 백제로의 가로수 밑에 모이곤 하던 노인들을 몰아내므로써 도시기능을 희생한 결과물이 아닌가?

도시의 가로가 활기있고 매력있어야 사람들이 걸으며 문화재를 찾게 된다. 물론 구아리(舊衙里) 시장, 여관 골목 등 특색있는 가로가 있지만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으로 활기 있는 가로가 부족한 상태이다. 그리고 가로에는 도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쉼터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도시의 상징인 두 노드의 중심녹지에도 사람들이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도록 했으면



〈도면2〉 중정리 민씨주택
(□자형 평면)



(사진9) 부여 농협

좋겠다. 교통신호체계를 조정하면 가능하리라고 본다.

문화관광도시가 되려면 도시에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 다른 도시와 차별성이 없다면 굳이 그곳을 찾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도시를 구성하는 세포와 같은 건축물들은 도시의 정체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체성있는 도시건축이란 통일성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도시건축이 이미지 요소의 차이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의 통일성에 기여하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도제한이라는 소극적 정책에서부터 그러한 도시건축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부여에 관계있는 관료,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이 합의를 이끌어내어야 하겠다.

부여는 1960년 음으로 승격한 도시이며 현재 3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점차 몸집이 커가는 도시이다. 하지만 현대도시로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미비하다. 한 예로 하수처리 시스템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동필 부근의 취수장으로 석목, 웅정, 정동 등지의 하수와 축산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당국과 주민들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왕벌에 도시 전체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여느 현대도시와 같이 주거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인구증가와 건축규제로 인해 주택재고가 부족해졌고 주택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인접한 논산에 주거를 마련하고 부여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생겨난다고 한다.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부여와 달리 논산에는 미분양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 역시 규암쪽으로 고층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등 해결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관광도시로서 부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주거양식을 개발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도시의 조건에 맞는 저층고밀의 특성있는 주거유형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가로변에서는 주상복합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교통문제는 광역적으로는 통과교통인 4번 국도를 남쪽 궁남지 외곽으로 우회시키므로써 도시 교통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1997년 말에 결정된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되었다. 그리고 완만한 경사도를 가진 도심의 교통과 주차문제는 자전거를 이용하므로써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본

다. 사실 80년대 이전에는 간선도로의 중앙에 녹지분리대가 있었으니 그러한 폭을 차도에서 되찾으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 시행 중인 노상주차 시스템과 같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앞으로 도시의 발전방향을 생각할 때, 부여는 일제시대 도시계획의 틀에서 어떻게 나름의 고유한 틀로 변형시키고 정착시켜 나가느냐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마치 신궁의 터에 그 주춧돌을 디디고 삼충사(三忠祠)가 서듯이 일제의 도시를 딛고 새로운 현대도시로 탈바꿈해야 할 시점에 부여가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부여는 현대도시로서 많은 문제와 과제를 안고 있으나 또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하나씩 해결해가려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노력에서 부여가 가진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하게 된다. 필자는 또한 부여의 입구인 능산리를 되스치며 '우리 나라의 문화관광도시로서 이만한 가능성을 가진 도시는 없다.'라고 단정하고픈 유혹을 떨치기 힘들었다.

필자와 함께 도시를 답사하며 부여의 근현대사에 관한 사실(史實)들을 설명해줘 이 글을 쓰는데 큰 도움을 준 부여고등학교 국사 교사 장세욱 선생에게 감사드린다.

(참고문헌)

- "인형식 가족 분석을 중심으로 한 건축위계 패러다임의 진화(1997),
- 목원대 · 한남대 건축공학과 대학원 「부이군지(1987)」, 부여군지편찬위원회
- 손정목(1990), 「양재강철기 도시계획연구」, 일지사
- 안창호(1996), 「한국 근대건축 50년」, 도서출판 재원



(사진10) 가보변 건물(벽체의 근대성과 지붕의 전통성을 엿볼 수 있다.)



(사진11) 정림사지 5층 석탑과 백제로의 가로면

살아있는 역사박물관 공주

The City as a Living Museum-Kong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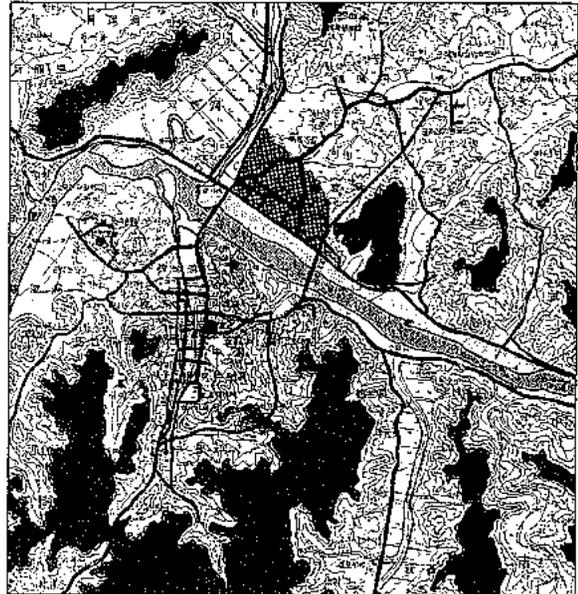
이해준/ 공주대 사학과 교수, 한국역사민속학회 회장
by Lee Hae-Jun

“문화와 교육”으로 상징되는 공주
살아있는 역사박물관 공주
곳곳에 남은 역사와 문화현장들
“도시이미지”와 공주 건축의 미래

‘문화와 교육’으로 상징되는 공주

공주는 흔히 ‘문화도시’ ‘교육도시’로 불려진다. 공주는 백제의 왕도로서 무령왕릉과 공산성이라는 상징적 백제유적이 남아 있는 곳이다. 그러나 공주에는 비단 이같은 백제의 역사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60여 년의 웅진백제의 역사보다도 더 길고 오랜, 그리고 복잡한 역사의 흔적들이 공주 땅에서 이루어졌다. 공주가 조선시대 충청도의 감영이 위치했던 곳임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함께 그 이전의 통일신라시대나 고려시대 그리고 근현대사의 과정에서 공주가 충청지역 역사문화의 중심지였던 모습에 주목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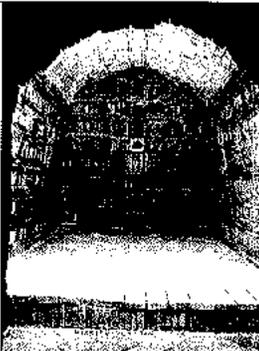
백제의 왕도였던 서기 5세기 이래 공주는 천 오백여 년간 충청도의 행정 및 문화, 교통, 물산의 중심 거점으로 줄곧 살아 있었던 것이다. 또한 흔히 지목되는 공주의 도시



공주의 도시 및 지역현황 (자료제공: 이해준)

이미지는 교육도시 라는 점이다. 이는 50여년 역사의 초중등 교사 양성기관인 공주사대와 공주교대가 있는 까닭이다. 공주에서 근대학교가 설립된 것은 1898년 민족계 사학인 공주사립 소학교에 이어 1905년에는 기독교 선교계통의 영명학교가 설립되어 근대 교육의 요람으로 많은 인재를 양성하였다. 그후 일제시기에는 충남을 대표하는 교육기관들, 예를들면 공주고등보통학교, 공주여자고등보통학교, 공주농업학교, 공주여자사범학교가 들어섰고, 특히 1938년에는 공주여자사범학교(공주교육의 전신)가 개교하여 교육도시 공주의 도시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 해방후인 1948년에는 중등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주사범대학이 신설되어 우리나라 중등교사 양성의 중추로 명성을 인정 받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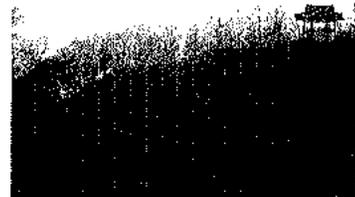
이외에도 공주에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충남교원연수원, 충남공무원연수원, 운수연수원 등의 재교육기관이 밀집되어 있다. 이 역시 교육도시로서의 전통이 그 기반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아같은 전통기반으로 오늘날 공주에는 4개의 대학(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공주전문대학, 웅진전문대학)을 포함하여 도합 70여 개의 학교가 있으며, 학생수가 전



무령왕릉의 현실 내부와 북쪽 벽 모습



공주목지도중의 '公山城' 부분(조선후기)



공주역사의 산증인 공산성

주민의 30%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살아있는 역사박물관 공주

공주는 백제시대에야 백제의 왕도였으나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그후 부여로 새 왕도가 옮겨간 이후도 여전히 왕도로서의 이력에 필적하는 위세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이후 당군에 의한 웅진도독부의 설치, 그리고 당군이 축출된 이후에는 웅천주로 이름을 바꾸어 충청지역의 13개 군, 29개 현을 통괄하는 행정중심지로 존속하게 하였다.

고려에 의하여 반도가 재통일되면서 태조 23년(940) 공주는 명칭을 공주로 바꾸었다가 본격적인 지방제도의 개편이 완료되는 성종 2년(983) 전국에 12목이 설치될 때 공주목으로 승격되어 다시 충청지역의 행정중심지로 부각된다.

이같은 변화를 거쳐 조선시기에 들어오면 공주에는 충청감영의 소재지이자 관찰사가 위치하는 행정의 중심지로 부상한다. 즉 임란 직후인 선조 31년(1598)에는 충청감영이 공주로부터 공주로 이전되므로써 명실공히 충청도의 수부로서의 정치·행정·문화의 중심지가 된다. 감영의 공주 이전에 따라 충청도의 명칭은 공충도(公忠道)·공홍도(公洪道)·공청도(公淸道) 등으로 불리워지기도 하였다. 정조조에 이르러 한때 충청도를 충청남북도로 분할한 적이 있었지만 감영은 여전히 공주에 두어졌으며 얼마후 다시 충청도로 합하여졌다. 따라서 조선시기에 공주에는 많은 역사의 흔적들을 남겼다. 임진왜란때 공산성은 조명연합군의 주둔지로서 기능하였고, 호란 직후인 이괄의 난때는 인조가 공산성에 피천하여 머물기도 하였다. 한편 19세기말 혼돈의 시대에 공주지역은 우리의 근현대 역사를 운동으로 받아들인 보수와 진보세력의 각축 현장이었다. 감영은 보수적인 국가권력의 대행기구였고, 서구세력에 대한 방어지휘부로서 기능하였던 반면, 그에 대항하는 세력의 공격 목표도 되었기 때문이다. 황새바위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된 것도 감영이 이곳에 있어서였고, 그런가 하면 1894년 농민 항쟁군이 우금티를 넘어 감영을 공격의 목표로 정하였던 것도 바로 그러한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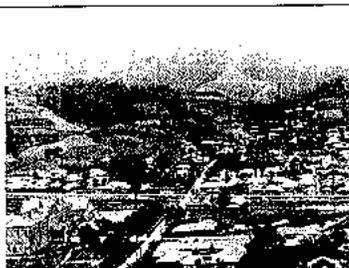
한편 일제초기에도 충청남도 도청이 공주에 위치하여 공주는 여전히 충남의 행정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공주가 갖는 도시적 기능과 지리적 중심성은 일제 시기를 맞으면서 변화된다. 그것은 특히 1905년 경부선 철도와 1914년 호남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인근의 신흥 도시 대전이 경부선과 호남선을 연결하는 교통 거점으로 급격히 부각되었던데 비하여, 전통적 기반을 잃은 공주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정책과 맞물려 일로 약화의 길을 걷게 된다. 그 결과 1932년 충남 도청은 공주로부터 마침내 대전으로 옮겨졌고, 이후 반세기만에 대전은 인구 1백만을 웃도는 한반도의 중추적 도시로서 성장한 반면, 공주는 근대화의 변화의 물결로부터 삼과 같이 소외되고 말았다.

곳곳에 남은 역사와 문화현장들

물론 백제가 망국의 한을 안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져간 것처럼, 공주는 근대화의 변화 속에서 잊혀져간 도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런 까닭으로 공주는 다른 신흥, 혹은 발전한 도시들이 개발의 과정에서 잃었던 '문화·자연의 조화속에 고풍스런 분위기'를 아직도 많이 간직하고 있다. 의도적이었던 그것이 아니었던 간에 마치 아껴둔 것처럼.

공주가 1천 5백년전 백제의 왕도로 선택되었던 도시임을 상징하는 유적들이 바로 무령왕릉과 공산성이고, 국립공주박물관은 바로 그러한 백제문화의 자취를 보여주는 전시장이다. 그러나 공주에는 비단 이같은 백제의 역사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60여 년 남짓한 웅진 백제의 역사보다도 더 길고 오랜, 역사의 흔적들이 공주땅 곳곳에 마치 살아있는 박물관처럼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남아 있다.

공주에는 백제 왕도 이전의 유적들도 많다. 우리나라 구석기문화를 대표하는 석장리 구석기 유적이라든가 금강연안에서 발달했던 선사문화 유적은 바로 그러한 흔적이다. 이를 기반으로 백제는 이곳에 왕도를 정했던 것이고, 그 이후로도 공주에는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다. 예컨대, 통일



1930년대의 공주



곰나루에 복원된 고평사당(웅진단)



공주의 근대교육의 요람이었던 공주영명학교(현재는 영명고등학교)

신라말 경주를 중심으로 벌어졌던 왕위쟁탈전의 전초전이 이곳 공주에서 김헌창에 의하여 시도되었던 것이라든지 왕건과 견훤의 후삼국 쟁패과정에서 공주가 그 점거의 제1목표가 되는 것, 또 거란의 침입을 맞아 현종이 일시 머물렀던 자취, 무신정권기에 소위 '명학소의 난'이라 불려지는 망이·망소이의 천만군이 제일 먼저 공략한 곳도 공주였다.

그뿐이 아니다. 고려말 왜구와 정유재란때 왜적이 쳐들어 온 것, 공산성 쌍수정에 이괄의 난을 피해 왔던 인조의 유적이 있는 것, 천주교 신자들이 불잡혀 죽은 황새바위 유적이 공주에 있는 것, 동학농민혁명의 깃발이 우금치에서 드날렸던 것 등등이 모두 공주의 그러한 역사였다. 그리고 그 흔적들이 공주지역에는 곳곳에 고스란히 유적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다. 공주는 진열장 안의 유물이 아닌, 생생한 역사의 숨결이 곳곳에 보전된 '살아있는 박물관'인 셈이다.

'도시이미지'와 공주 건축의 미래

이상에서 필자는 공주의 역사성을 부각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쯤에서 우리는 과연 '현재의 도시 공주'가 그러한 이름 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의식과 준비를 하고 있었는가 묻고 싶다. 각 시대, 각 지역의 문화는 그 문화가 생겨나는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갖게 마련이다. 따라서 지역문화·향토문화는 그것을 과연 어떠한 시각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치는 크게도 작게도 보이게 되어 있으며, 이를 '가꾸고 다듬는' 정성에 의해 본연의 가치가 되살아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변화 과정을 역사적인 시각으로 정리하려는 노력,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공주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의 과제이다. 공주가 문화와 역사의 도시라면 그것은 문화와 역사가 생성되고 발전될 수 있었던 배경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시말하면 공주의 문화유적에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그 시대에 왜 공주지역에서는 그런 문화가 생겨났고, 그것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공주사람들의 이야기를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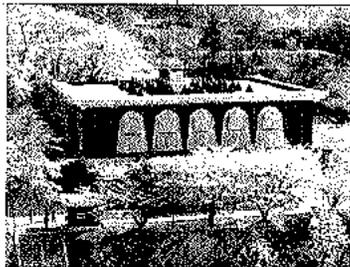
이렇게 공주가 문화와 교육도시 공주로서의 이름 값을 제대로 지니기 위하여는 여러 형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백제문화권의 문화자료를 총체적으로 정리한다든가, 공주의 문화 자료를 지역민이나 공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한다든가, 그리고 공주문화의 상징성이 물씬 풍기는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번의 기획이 목적하는 역사도시 공주의 건축문화같은 것도 그 중요한 아이템이 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역사학도이다. 따라서 건축을 주제로 하는 본 기획의 중심 논의를 전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주가 갖는 문화적 특성 탓으로 한편으로는 필자같은 문화와 역사연구자들이 보는 시각도 참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근년에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이러한 공주의 문화적 자산들을 가시적인 관광상품화 하기 위한 노력들도 없지는 않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공주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희망중 하나이고, 계획에 의하면 이는 백제문화 유적의 보존 정비 이외에 방문객, 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대규모 문화 관광시설의 설치를 포함하고 있다. 그것을 보면 공주 무령왕릉에 가까운 웅진동 곰나루 일대에 공주문화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것은 그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곰나루지역 40여 만평에 2001년까지 1천 8백여 억을 들여 사적지와 연계하는 콘도, 호텔, 골프장, 쇼핑센터, 놀이시설 등 관광시설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일반적인 관광객 유치 차원의 개발이라고 생각될 뿐, 공주의 '도시 이미지'를 의중에 두거나 이를 의식하는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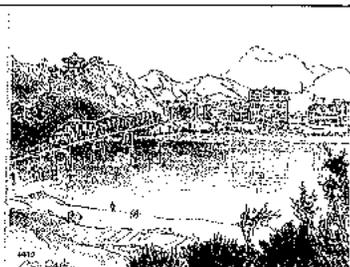
개발과 보존은 공주사람들이 갖는 하나의 딜레마이다. 문화유적의 보존은 개발의 제한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반대로 각종 개발사업의 활발한 전개는 쉽게 문화유적과 환경의 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적 공감대에 토대한 발전의 방향 수립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적 발굴의 모습은 매우 제한적이다. 백제문화에만 치중된 경향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곰나루 관광단지보 아전·복원된 선화당



공주박물관 전경



곰나루터에서 본 공주대학교와 공산성 (스케치: 박영주)

앞서 언급한 바처럼 공주는 1천 5백년간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였고, 그에 따른 다양한 유적과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공산성의 성곽과 각종의 전통건물들, 그러가 하면 현재의 거의 자취를 찾아볼 수 없게 되어 버렸지만 공주목과 충청감영의 건물들(宣化堂, 布政司, 東軒)이 인근의 곰나루에 이전 복원되어 있다. 아마도 현재의 도심 속에 그러한 원형을 복원한다거나 정비하는 일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작은 규모의 전시관에 당시의 축소모형들을 전시한다든가, 문화적 성격을 지니는 건물들의 설계와 건축에 이러한 고풍을 되살려 보는 것이 필요하다.

백제의 고도라거나 문화도시로서의 특징과 성격을 상징화한 현대 건축물들도 얼마든지 구상될 법한데, 이점에서는 아직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주제와 의식이 살아있는 신건축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공주라는 도시 이미지와 부합될 수 있었으면 더없이 좋지 않겠는가.

다음으로 공주가 역사와 문화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까닭은 역시 공주가 지닌 자연지리적 조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외곽으로는 금강과 계룡산, 차령이 그것이고, 도시 내부로 보면 공산성과 제민천, 우금치, 곰나루가 바로 그러한 상징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지리적 환경들을 보존하면서, 그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공주에서는 제민천의 복개가 거론된 적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공산성과 인접한 곳과 봉황산(충청감영의 鎭山)에 10여 층의 아파트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입주자나 사업자들에게는 매우 상품성있는 계획일지 모르나 공주의 도시 이미지와 장기적인 개발전략으로서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제민천의 복개로 인한 도시 하천의 고갈과 하수구화는, 어쩌면 공주 시민의 전원적이고 자연적인 정서를 고갈시킬 것이 뻔하다. 또 스카이라인의 상실과 골절은 '문화도시 공주'의 명목가치를 반감(半減)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금치는 동학농민혁명의 최후 격전지이기도 하지만, 공주의 남쪽 관문이다. 이곳에 농민혁명을 기리는 기념탑과 상징조형물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건축쪽에서 유념해 하나의 상징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와함께 공주와 금강은 뿔뿔히 뿔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바로 그러한 점을 도시계획과 건축에서 유념할 필요가 있다. 금강변의 도로나, 주변 경승지에 마련될 휴게공간이나 시설물들은 아름답게 구상한다면 이는 '전통'과 '자연', '현대'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금강주변에는 공산성과 곰나루라는 문화 상징들이 있고, 옛부터 이름난 정자나 집성촌들이 있다. 이들을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직하며, 이와함께 도심을 관통하여 관광도시 공주의 얼굴을 퇴색시키는 도로망의 문제도 정리되어야 할 것이고, 핵심 문화공간인 공주의 구 중심가는 지근한 거리의 유적들을 자전거나 도보로 관광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다른 측면은 공주가 교육도시로서 그 깨끗한 이미지를 가진다는 것과 관련되는 생각이다. 공주가 교육도시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교육도시로서의 전통과 분위기를 다른 도시와 구별하여 느끼기는 쉽지 않다.

공주에는 조선시대의 향교가 도심속에 그윽한 정취를 지닌채 잘 보존되어 있으며, 한국 근대교육의 산실인 영명학교와 선교사들이 사용했던 건물들이 남아 있다. 그런가 하면 곳곳에 일제시기의 근대식 건물들도 아직 적지 않게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들도 모두 건축학부면의 자원이고, 새로운 문화 상품으로써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들이다. 이를 건축부면에서 새롭게 활용한다면 교육도시 공주라는 도시이미지와 잘 부합되는 아이템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공산성입구의 쌍아치형 문(스케치: 박병주)



송산리 고분군. 왼쪽이 무령왕릉(스케치: 박병주)



공주 시가지. 중앙에 공산성과 누각이 보인다.(스케치: 박병주)

공주시 도시계획, 관학민 협동의 도시계획은 가능한가?

Kongju City Planning, Is the Official-Academical-Civil Cooperation Possible?

조기호/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by Jo Gi-Ho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공주는 백제 문주왕 원년 475년부터 성왕 16년 538년까지 남하시대 백제의 왕도로 성장한 이래 한반도에서 손꼽을 수 있는 몇 안되는 역사도시로서 문화, 관광,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도시이다.

앞으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등 공주를 통과하는 교통망이 완성되면 충남의 중심축상에 그리고 격자망 교통로의 결절지에 위치하게 되어 그 중심지 기능도 수행하게 될 것이고, 신라문화권의 개발과 비교되어 시작되고 있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관광도시로서의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기능들을 원활히 수행하면서 모든 주민이 만족하는 편리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의 건설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여야 할까?

녹지는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은 상업지역으로, 공원은 유원지로, 마을은 취락지구로, 도로폭은 좁게 건널음은 높게, 이와 같은 요구들은 비단 공주시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모든 도시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이해관계가 얽힌 그 많은 주민의 민원을 모두 만족스럽게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공주와 같은 고도(古都)는 어디를 파도 기와장이 나온다는 농담과 같이 공사를 시작하다 보면 자주 문화재가 발견되기 때문에 역사학계의 보존요구와 거주민의 재산권 문제가 상충되기 십상이며, 또한 관에서 추구하는 공주시의 미래상 실현욕구와 사업을

하는 이들의 영리추구 목적을 추가한다면 공주시 도시계획은 모든 사안이 사사건건 그야말로 난제인 것이다.

이렇듯 복잡한 이해관계가 융용되어 있는 도시계획은 한 도시의 미래와 도시민의 생활을 결정짓는 범위와 같기 때문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사이다. 따라서 민주자치시대의 도시계획은 관례대로라는 명제아래 관의 주도로 진행되는 것 보다 관학민(官學民)의 상호 협력하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주시는 이러한 관학민 협력의 도시계획에 대한 시험장이라 할 만큼 최근 몇 해 동안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적지 않은 사례를 중심으로 관이 시민과 학계와의 협력과 갈등을 경험했다. 이제 이러한 사례들을 선형사례로 살펴 보면서 공주시 도시계획의 관학민 협력 가능성을 그려보고자 한다.

먼저 관학민 타협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제민천복개문제부터 살펴보자. 제민천은 공주시를 관통하는 도시소하천으로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의 많은 도시소하천이 그러했듯이 심각한 하수오염으로 악취가 진동하는 하수구에 불과했고, 남하시대의 백제 왕도로 채택될 정도로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입지 한 공주는 항상 용지난과 교통난에 시달려 왔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민천의 복개문제가 등장하여 80년대 말부터 끊임없이 복개의 노력이 경주되었고, 선거 때마다 이에 대한 언급이 재개되었다. 그리하여 공주시에서는 몇 차례 복개계획을 수립하였고 그에 대한 시민들과의 찬반논쟁이 지속되었다. 특히 시민단체들과 제민천 하안의 재래시장 상인들의 의견과 제민천 인근 상가 및 유흥가업주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이의 조정이 필요하였다. 이에 공주시에서는 공청회와 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진행시켰다.

이 때 언급된 복개의 타당성과 효율성 논리는 비교적 쉽게 납득이 가기 때문에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쓸데없는 반대나 일삼는다고 비난하기 쉬운 그 상대편 의견의 고려가치를 살펴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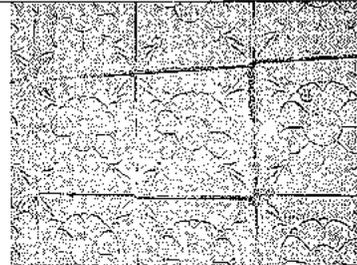
다음은 당시 공주시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공산성(공주 초입 이미지)



공주시 중심지 시가지 전경



공주시 보도블럭 문양

“하천은 우리 몸의 혈관과 같다. 혈관의 피는 온 몸에 물과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또 온 몸에서 신진대사로 발생한 각종 노폐물을 수거하여 그것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운반한다. 그러나 하천이 복개되면 하천에 햇빛에너지와 산소의 공급이 차단되어 생물이 살 수 없는 하천이 되고, 결국은 색은 피가 흐르는 혈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안목으로 도시하천을 복개하여 그 부작용을 체험한 선진국에서는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이미 복개한 도시하천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고 있다.

또한 도시하천은 도시의 인문환경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이고, 하나의 도시를 자연과 인공이 조화되는 도시로 가꾸는데 필요한 귀중한 보배 자원이다. 그리하여 국내외의 도시환경생태를 중시하는 도시에서는 하천환경관리에 아주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공주시를 흐르는 제민천은 공주시의 노력으로 하상정비가 완료되었고, 공사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단계에 이르러, 맑은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천의 수상생태계 뿐만 아니라 하천변의 생태계도 복원될 수 있어, 관광의 도시 공주시를 자연과 조화된 환경도시로서의 문화관광도시로 가꾸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끗한 물이 흐르는 제민천을 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제민천변에 꽃과 나무를 심어 벌과 나비가 찾아오는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제민천변의 축대를 따라 나팔꽃과 덩굴식물들을 식재하여 제민천변에 화단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공주시의 계획대로 제민천이 복개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1. 전국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도시소하천 살리기’ 운동이 공주시에서는 실현되기 어렵다.
2. 하천이 밀폐되면, 햇빛과 신선한 공기의 공급이 차단되어 하천의 자체 수질정화능력이 저하되고, 수질이 악화될 것이다.
3. 신선한 공기의 도시내 흐름을 방해하여, 도시의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대기 순환 및 정화능력을 감소시킨다.

4. 하천과 하천변의 생태계가 파괴되어 하천의 수중생물과 하천변의 녹색식물 및 곤충 같은 생명체가 사라질 것이다.

5. 도시경관이 자연과 괴리된 삭막한 경관으로 변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6. 많은 공사비를 투입하여 추진한 차집관공사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하천정화 및 하천생태계 복원효과를 감소시킨다.

7. 하천복개공사와 하수종말처리장공사는 그 취지가 상충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8. 홍수시에 효과적인 하천관리가 곤란하고, 하수차집관거 보수공사시에 중장비의 투입이 어렵다.

9. 공주시내 지하수가 오염된다.

10. 복개하천에서 악취와 유독개스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하천공원을 조성하지 않고 복개하면, 관광의 도시 공주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의 정신건강 및 교육도시 공주시의 학생과 청소년들의 정서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하천을 복개하려는 주목적인 주치난해소는 하천복개로 일시적인 작은 효과를 볼 수도 있었으나, 날로 증가하는 한국의 자가용 증가추세를 고려해 볼 때 근본적인 시내 교통난 해소정책을 실현하지 않는 한, 이 일시적인 주치난해소 효과는 가까운 시일 안에 사라질 것이다.

공주시의 교통문제는 지금 전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내교통정책과 모조를 맞추어야 한다. 즉 대중교통수단을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질과 량을 개선하고, 교통로주변을 정비하고 가꾸며, 인도와 자전거통행로를 확충하여 건강에 좋은 만보걷기운동과 자전거통행을 장려하고, 구시가지 내부의 외부차량 통과와 자가용통행은 가능한 한 억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제민천은 복개하지 말고, 맑은 물이 흐르고 꽃이 만발하며, 벌·나비가 찾아오는 하천생태계로 회복시켜, 제민천하천공원을 조성하고, 하천변에 천변산책로를 만들어, 문화·역사의 도시, 관광의 도시, 교육도시 공주를 자연과



공주 교대



공주 공설운동장



기본번의 음식점

조화된 환경도시로 가꾸면, 당대는 물론 후대에 두고두고 칭송 받는 자치행정의 귀감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상가와 유흥기업주들의 변이 강하여, 일부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였으나, 시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담당 공무원들이 진지하게 경청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이 공청회 이후 공주시에서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민천 복개계획을 철회하였다. 이제 수립되었던 예산으로 하천 친수계획과 하안생태복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단계에 와 있다.

다음으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백제큰길 건설사업을 살펴보자. 백제큰길은 공주시를 통과하는 금강에 교량을 건설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부여읍까지 금강변을 따라 22.5km의 4차선 및 2차선이 이어지는 관광도로이다. 이 백제큰길은 몇 해전 그 당시의 정치풍조에 영향을 받아 선거와 관련 서둘러 추진된 제2 공주대교의 위치선정과 기공식에서부터 논란이 시작되어, 이 교량이 후에 백제큰길에 연결되면서 그 노선과 교량의 위치선정문제로 광학민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초기에 무슨 논리로 교량과 도로의 현 위치와 노선이 선정되었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우나 당시 관할 국토관리청에서도 입지선정에 불만이 있었던 곳으로만 전해진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정책결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주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위에서 불평만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단정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도시건설의 주요사안인 교통로의 계획 및 건설문제로 진통을 겪은 이 사안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 그 원인을 문제점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수렴하여야 할 주민의 의견인 당시의 최대민원이었던 시민단체들의 변을 들여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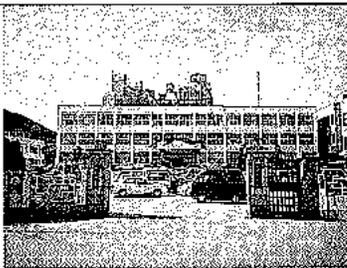
“백제대교의 건설을 중단하라! 왜 중단해? 잘못됐어도 다리 하나가 더 건설되면 좋은 일이지! 그러나 같은 돈이 그것도 적지않은 액수의 국고가 공주시민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주시민이 사용하기에 편리하지 않게, 더 나아가서는 공주시의 발전에 해가 될 수 있도록 사용되고 있다면, 왜라는 의문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백제큰길사업과 백제대교건설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1. 백제큰길의 시발점인 백제대교는 정안천변 쌍신제방 농고동쪽 23번 국도에 연결되고 있는데, 현재 공주시를 천안과 수도권으로 연결하고 있는 이 23번국도는 1998-2002에 건설될 천안-공주-논산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면단위 통행로로 전략하여, 교통량아, 즉 수도권과 천안방면에서 공주로 유입되는 또는 공주를 통과하는 교통량이 급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백제큰길의 시발점 및 연결로써의 백제대교는 그 위치가 바람직하게 선정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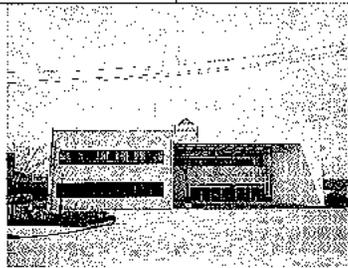
2. 백제대교는 공주시의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시내 교통을 위한 교량으로써도 그 위치선정이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현 위치대로 교량이 건설된다면 강북에서 강남으로 유입되는 대부분의 차량은 신관동에서 농고앞까지 불필요하게 우회하여 사적공원앞(무령왕릉 뒷산)까지 운행한 다음, 다시 금강교 앞까지 ㄱ자 형으로 빙 돌아서, 시내중심도로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이 교량을, 공주시 서부 중심지를 통과하도록 건설하려는 4차선 25m 도로(제민천 하류 서측에서부터 시의회, 부고, 시청을 경유하는 도로)에 연결시킬 계획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공주시 서부 중심지 통과 4차선 25m 도로계획은 계획구간 안의 많은 주택을 철거하여야 하며, 공주시를 역사관광도시가 아닌 구시가지의 일산이나 분당과 같은 신도시처럼 변모시키는 계획이고, 보상비를 비롯하여 공사비가 공주시의 예산규모로는 담당하기 힘들며, 공주의 역사 유적지를 파괴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이미 대다수의 주민(민원)과 시의회 및 공주시도시계획자문회의에서 모두 반대되었었다.

4. 금강을 직선이 아닌 사선으로 길게 통과하



공주시청사 별관



공주시립도서관



공주우체국

여 비둘기 아파트 전면에 대규모 고층 입차교차로가 건설되면 관광도시 공주의 자랑인 금강변의 경관을 훼손할뿐 아니라 비둘기 아파트 일원의 주거지에 소음, 진동, 대기의 오염을 초래한다.

5. 4차선 25m의 대규모 도로가 무리한 곡선 반경을 그리며 무령왕릉 뒷산인 정지산을 절개하며 통과하기 때문에 사적공원을 훼손하고 무령왕릉의 경관을 훼손한다.

6. 추월선이 있는 4차선 25m 도로가 제방을 쌓아 그 위로, 곰나루와 금강변을 따라 검상동까지 건설되면, 백제권개발사업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주문화관광단지와 금강은 분리되고, 곰나루와 금강변을 찾는 관광객과 공주문화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곰나루와 금강변으로의 접근이 어렵다.

7. 공주문화관광단지의 진입로는 단지건설에 정부지 등부에 4차선 25m 도로로 이미 계획되어 있고, 이 진입로에서 관광단지안으로 4개의 도로가 다시 세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건설되고 있는 백제대교에서부터 검상동까지의 4차선 25m 도로개설은 과잉공급이며, 곰나루와 금강변의 자연환경만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8. 이 도로와 교량은 공주를 체제관광지가 아닌 통과관광지로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주관광단지의 방문객이 단지내에 주차하고 난 후에 곰나루와 금강변을 자유롭게 산책하고, 놀이도하고, 자전거도 타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연공간친화 기회를 감소시키고, 금강변을 따라 부여까지 신속하게 드라이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9. 현 계획대로 보행환경이 중요한 관광단지내에, 추월선이 있는 4차선 25m 도로가 완공된다면, 공주문화관광단지에 차량공해와 피해가 예상된다.

10. 현 계획대로 백제대교가 건설되면, 대청호 건설 이후 높아지고 있는 금강의 하상과 더불어, 금강교, 정안천교, 금성교(제민천하류에 낮게 건설된 교량), 백제대교(제민천이 금강으로 유입되는 지점의 서안에 위치함)의 4개 교량이 'M' 자형으로 물 흐름을 막아 홍수시에 제민천의 범람과 역류를 돕기 때문에 하수고조시에 공주시가 침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다.

이러한 문제점의 지적과 함께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도 있었다.

1. 공주시는 심의중인 공주시도시재정비계획이 확정될 때까지(즉, 도시계획이 충남도로부터 승인되고 법적 효력을 발생하여 백제대교와 백제큰길의 노선이 확정될 때까지) 백제대교의 공사와 백제큰길의 곰나루관통노선 건설을 보류해 줄 것을 국토관리청에 요청해 주십시오.

2. 백제대교의 위치를 다시 선정해 주십시오. 교통로 노선의 결정은 시의 업무소관이지만 공주시가 원한다면 저희 단체들이 노선 및 위치선정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정치를 준수한다면 몇 개의 안을 정한 후에 그 장단점을 전문가에게 분석하도록 의뢰하고, 공청회를 통하여 여론수렴을 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3. 백제큰길 노선중 사적공원의 무령왕릉 뒷산 정지산에서 검상동까지의 구간 4차선 25m를 삭제 폐지하고, 이 부분에 자전거로와 산책로를 건설하며, 이 노선을 위해 책정된 예산으로 곰나루 주변 금강변에 곰나루하안공원을 조성해 주십시오.

4. 공주시의회는 시정견제기능을 수동적으로 수행하지 말고, 이 사업과 같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시민 대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시민의 대표로써 문제해결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합니다.

5. 공주시는 이미 민선자치시대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도 잘못됐다고 인정되는 문제점을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한 시민 대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과감하게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6. 교통로나 교량과 같이 앞을 내다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사안의 신중한 결정을 위하여 공주시는 장기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민에게 알려 주십시오.



백제대교건설과 정지산



공주시 가로풍경



공주진문대

더 늦기 전에 우리 모두 함께 중지를 모아 조금
만 더 앞을 내다보면서 백제권개발사업에 투자되는 국고를 백
제권 내의 모든이에게 독이 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
선책을 찾아봅시다.”

“한편 풍수의 이론으로 정지산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변으로 진
행된 당시의 논란들은 공주-부여간 기존의 국도 확포장사업과
백제큰길사업의 중복투자문제, 정지산에서의 연꽃무늬막새 등
백제의 중요 유적 발굴, 공사진행정도와 투자비용 등과 함께 이
중 삼중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진통을 겪다가, 정지산 통과 부분
을 터널시공으로 추진하는 안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터널통
과부분의 지형이 낮고 지반이 약하며, 터널로 연결될 교량진입
부가 하안 상대편의 높이 때문에 상당히 높게 건설되기 때문에
난공사가 예상된다.

그 다음으로 공주시 교통에 건설된 대우아파트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대우아파트 사건은 무령왕릉이 건
너다 보이는 향교앞 구시가지 요지에 18-20층의 고층아파트 건
설을 계획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사례는 대기업이 지방중소도
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힘의 종력법칙이 작용한 특이한 사례이기도 하다.

대우아파트문제의 발단은 건설공사중 유적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문화재관리국 주도로 현지조사
가 실시되었으나 유적은 이미 공사중 멸실되어 보존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유림과 시민단체들의 구시가지내
고층아파트건설반대 입장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허가
자나 사업자의 입장도 고려되어야 하고, 시민의 의견도 반영해
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되었으나, 결국은 계획대로 아파트가 건
설되어 완공단계에 이르렀다.

이밖에도 도시계획수립과정에서 언급을 생략
하는 여러가지 의견이 상충되는 사례와 다음에 그 일부를 열거

하는 요구사항들이 있었다.

신시가지인 신관동의 주거단지건설 예정지로
계획된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로폭의 계획
을 변경하여 줄 것, 공주대학교 후문 앞 학생의 이용이 많은 대
학로는 자전거 및 인도 전용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일방통행
이나 외부통과차량 통행 제한 등으로) 계획하여 줄 것, 구시가
지를 미관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 대학교 주변을 교육 및 연구지
구로 지정하여 줄 것(대학교 주변에 유흥업소가 증가하여 면학
분위기 파괴, 폭력사건 증가, 학생들의 등하교시 폭행사건 발
생), 산성공원의 강변대로에서 잘 보이는 유적들을 야간조명하
여 줄 것, 환경담당부서를 확대 개편하고 도시계획과와 같은 공
간계획부서를 환경부서에 편제시켜 줄 것, 사적지인 공산성 주
변의 아파트건축을 재고해 줄 것 등의 요구사항들도 많았으나,
지연관계상 자세한 언급을 생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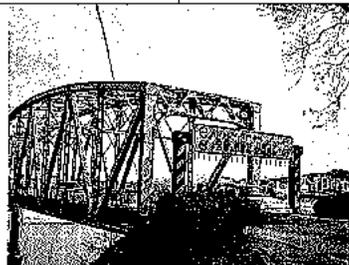
지금까지 언급한 사례들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선협 후의 현명함을 적극 활용해야, 같은 우를 다
시 범하지 않는다는 상식의 확인이다. 이는 자신의 경험뿐만 아
니라 타인의 경험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타도시와의 경험교류참
구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중앙부처 차원에서 선협사례 공람
과 교정되어야 할 행동지침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주시 도시계획의 미래상을 그려보기 위하여
좀더 도시특성을 살펴보자.

전세계적으로 고도(古都)의 주민들 입장에서
는 관광사업이 활발하면 조상덕 그렇지 못하면 조상탓이 되는
데, 공주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은 기대를 갖고 찾아왔다가
실망을 안고 돌아간다. 따라서 유감스럽게도 관광을 표명하는
도시 공주에서 관광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아주 미약하다.
그리고 공주시에는 고용효과나 세수를 기대할 만한 산업의 입
지도 없다. 단지 교육도시의 특성상 외지학생들과 공무원의 체



대우아파트의 건설과 그 위치



금강교



공주대학교 정문과 상정탑

류효과가 약간 있을 뿐이다.

이러한 도시특성과 함께 문화재와 잠재적 발굴 가능 유적 때문에 도시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고, 시민과 학계와 관공서의 도시개발에 대한 의견이 자주 상충되는 공주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그 도시계획의 미래상을 그려야 할까?

공주시가 지닌 장점을 들라면 아직 개발이 덜 된 산과 강이 있고, 고도(古都)의 매력과 교육도시의 기능이 살아 있으며 앞으로 교통의 결절지에 위치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입지를 살려 백제를 고도답게 개발하고, 공주의 관광을 통과관광에서 체재관광으로 유도하여 관광수입도 증가시키며, 거주 시민과 방문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깨끗하고 윤택하게 살고 방문할 수 있는 다소 이상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여야 할까?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 공주시를 생태도시개발 시범도시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상과 이론이 현실과 실천에 앞선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학계의 견해이기도 하지만, 관학민 협력을 위한 학측 의견을 고려한다는 견지에서 사례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생태도시개발 시범도시사업은 환경부에서 96년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시범도시로 지정되면 학술적·재정적 지원이 뒤따르게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종합검진을 통한 전문 재정비계획의 수립이 수반되는데, 공주시는 타도시에 비해 이에 적합한 타당성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볼 수 있다.

공주시가 생태도시개발 시범도시로 지정이 되면, 먼저 친환경적인 개발로 도시환경의 훼손과 오염으로부터 도시민의 삶의 터전을 보호할 수 있고, 환경문제의 세계화 추세와 함께 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의제 21'을 작성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주시와 같이 관광개발과 보존의 갈등이 깊은 하부 자치단체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보호업무가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역사, 문화, 관광의 도시로 많은 보존유적이 존재하고, 계룡산과 금강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교육의 도시로서 유수의 많은 중고교와 4개 대학이 존재하고 있는 공주의 특성을 살릴 수도 있다.

또한 공주시는 이제 막 백제권개발사업이 시작되어 개발 초기단계에서 각종 개발사업들이 계획되고 있고, 일부는 계획이 실행되고 있으나 이들 개발사업들은 생태도시건설과는 거리가 먼, 환경파괴적 개발로 진행될 우려가 높다. 공주시가 생태도시건설 시범도시로 지정이 되면 백제권개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공주시의 모든 개발사업이 미래지향적 친환경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학계와 환경부의 도움을 받아 재 검토될 수 있고, 개발계획의 오류가 사전에 시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의 집행단계 또는 완성단계에서 뒤늦게 발견될 수 있는 많은 문제점과 갈등 및 사회적 비용을 예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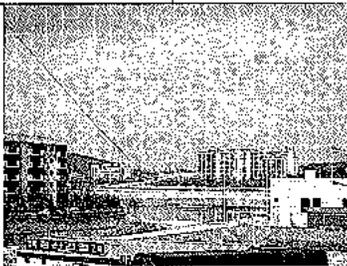
모범적인 생태도시로 개발이 되면 쾌적한 관광도시, 교육도시의 기능을 살려 친환경 시범교육도시로 건설될 수 있고, 이에 알맞은 생태관광, 문화역사관광, 체험관광, 교육관광 등의 체제형 관광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으며, 이의 활용은 시민과 탐방객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공주시 도시계획수립과정에서의 관학민의 의견대립과 절충 및 그 교훈 그리고 도시계획의 미래상까지 살펴보았다. 도시계획수립과정에서 종전과 같이 지방유지의 힘이 강하게 느껴진다든지, 주민의견의 수렴반영단계가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주민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주민들의 요구는 단순히 사익을 쫓는 민원을 위한 민원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며, 경청해야 할 타당한 민주형평성의 공동체논리가 내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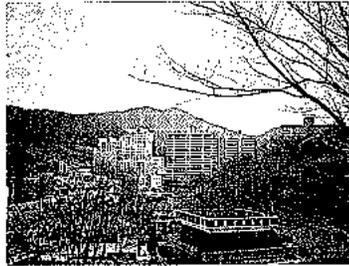
이제 공주시의 미래상과 민원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주민참여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관학민이 민주적으로 지혜를 모아 도시계획을 함께 수립한다면, 도시계획의 효율성을 형평성과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달성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그곳에 살기를 원하는 공주시로 한발짝 더 다가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관학민 협동의 도시계획수립이 현실성이 결여된 이상적인 꿈에 불과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웅진전문대 앞 원룡 주택들



강북의 신개발지 아파트 스카이라인



강남(육연동)의 아파트

백제문화권의 현대건축

Today's Architecture of BackJea Cultural Region

고인룡/ 국립 천안공업전문대학 건축과 교수
by Koh In-Lyong

“장소(place)라는 것은 삶이 일어나는 공간을 의미한다. 즉 장소는 특별한 성격을 가진 공간이다. 고대 이래로, 장소의 혼(Genius Loci)이라는 것은 매일의 일상 생활을 통하여 절하고 관계하는 구체화된 실체로서 인지되어 왔다. 건축은 장소의 혼(Genius Loci) 또는 장소의 정신(Spirit of Place)이 가시화된 것을 의미한다…….”

—Christian Norberg-Schulz / 「Genius Loci」—

들어가기: 조각그림 만들기

건축은 우선 사람의 삶의 흔적이다. 따라서 건축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기반으로 살아온 삶의 부분을 이해하고 그 조각을 맞추어 하나의 생활문화를 발견한다.

현대건축은 현재의 생활을 반영한 것이므로 생활의 차이가 있다면 그 모습도 달리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생활의 차이가 없고 그 배경이 유사하다면 비슷한 결과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 역사적 배경을 독특하게 지닌 지역은 얼마간이라도 그 역사의 흔적을 갖고 있기 마련이지만 그것이 생활사적(生活史的)으로 단절되어 남아있다면 현재의 생활과 연결되지 못한 낯선 대상물이 되어 버릴 수 있다. 전통건축이 그러한 '오브제'로서 위치될 수 있듯이 우리시대에 지어진 동시대의 건축물(현

대건축)도 역시 생활에 뿌리하지 않으면 단지 특이한 집 정도의 또 다른 무관한 대상물이 되어 버릴 수 있다. 현대의 건축이든 과거의 건축이든 그 지역의 삶과 생활에 영향을 주고받는 건축물이 지역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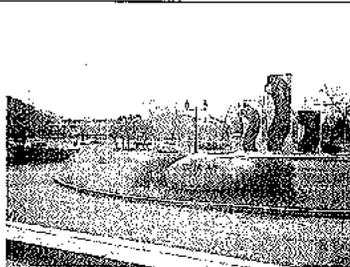
동시에 지역성이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고 그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건축물들은 새로운 삶과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점차 새로운 지역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 공주의 경우 백제의 고도(古都)이지만 동시에 교육의 도시라는 지역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동시에 일단 형성되어 알려진 지역성은 쉽게 변화되지 않기도 한다. 천안의 경우 주변에 13개의 대학이 있지만 교육의 도시라는 이미지만 보다는 교통의 도시(천안 삼거리부터 유래하는)나 호도파자가 더 먼저 떠오른다.

그러므로 현재의 건축에서 지역성과 관련하여 우선 거칠게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먼저 가장 이상적으로는 지역적 특성과 정서를 담고 있는 건축물들이 있을 것이고 둘째, 지역의 특성과 정서에 영향을 주는 건축물로 대개는 도시구조

〈표1〉 지역성과 관련한 구분

지역적 특성을 담고 있는 건축 (또는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적 정서, 전통성이 담겨지도록 디자인된 건축 지역의 역사를 담고 있는 유적이나 모티브를 사용하는 건축 지역의 생활과 일체 되어 있는 건물들 시장, 전통적인 가로, 주택가 등 자연적 조건에 순응하는 건축물 익명의 주택이나 일반적으로 자기 주장이 없는 소규모 건물들 도시의 배경(Ground)형성
지역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건축 (또는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을 연결하는 역사, 터미널 지역의 주요한 관공서 주요건물(Node)이나 대학건물
지역적 특성과 무관한 건축 (또는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설계 등에 의해 지어지는 건물 지역적 특성의 고려없이 건축적 유행을 따른 건축물 아파트와 같이 전국 어디서나 발견되는 건축

1) 현재의 건축이란 현대에 지어진 건축만이 아니라 현재 있는, 과거 유적에서부터 현대의 건물 모두를 말한다.



천안삼거리공원



천안의 LG기숙사



천안의 스마트시티 빌딩

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건축물, 관공서나 대학교 같은 건축물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특성과 무관한 건축물²⁾로 지역요소와는 무관하게 건축가나 사용자의 취향을 반영하는 건축물이나 표준설계에 의한 건물이나 아파트와 같이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건물축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은 이들 지역의 건축물들을 위의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스케치하고 현재의 모습을 살펴, 지역성(Locality)의 반영이라는 현대건축의 한 과제를 돌아보고자 한다.

현대건축과 지역성: 건축스케치

아산/천안의 현대건축

요사이 지방의 중소도시를 방문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새롭게 지어진 고층아파트이다. 말하자면 아파트가 도시의 랜드마크가 된 셈인데 도시의 외곽지역에는 여지 없이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다. 충청도의 완만한 지형을 생각할 때 아파트는 하늘과 맞닿아 있는 마천루로 중소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수직적으로 자르고 있다.

이러한 예는 천안, 아산(온양), 공주에서 예외 없이 발견되는 특징인데 한 도시를 결정하는 초입이미지에 큰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는 익명의 건축들이 도시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역사적인 배경을 지닌 도시의 경우 역사적 유적 형상(Figure)이라면 도시의 건축에 배경(Background)적 역할은 산과 강과 같은 자연적 요소와 중소지방도시의 가장 일반적인 건축물들인 인공적 요소를 들 수 있는데 천안과 아산의 경우 평지에 위치한 도시로 자연적 배경보다 인공적인 배경으로 어느 도시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익명의 건물들이 일종의 이미지의 배경으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익명의 건물 대개는 일반적인 주거나 3~5층의 중소규모의 근린생활시설들이다.

천안과 아산(구 온양)의 지역성과 밀접한 가장 중요한 건물로는 무엇보다도 역사(驛舍)이다. 그럼에도 천안역과 온양역(정식 명칭은 온양온천역)은 대조적이다. 경부선의 천안역은 구 천안시의 중심으로 광장과 T자형 가로구조를 지닌 전형적인 역세권을 거느리고 있다. 이곳으로부터 천안시청까지 가장 변화한 새로운 형태의 상업건물이 들어서고 있다.

이 역을 중심으로 구 도로를 따라 천안의 구 상가들이 형성되어 (삼도상가)이고 1~2층의 오래된 건물에 새로운 상점의 대리점들이 들어섬에 따라 입면만 덧붙이는 개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서울 입구정동을 비롯한 모든 중소도시의 모습이기도 하다. 또 하나 천안의 중요한 교통시설인 터미널 주변은 구 시가지와 대비되는 신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8차선의 넓은 도로 변으로 백화점, 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이 모여있고 가장 문화적 외관을 풍긴다고 인식되는 '스몰시티' 건물(아미도 조각공원과 주변의 조각들 그리고 경사지붕과 벽돌외관 및 영화관 등에서 이런 이미지를 받고 있는 듯하다)과 구 시가지보다 규모가 큰(5~7층) 상업건물들이 넓은 대로의 가로벽(Street Wall)을 구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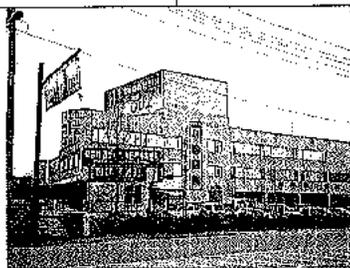
대상으로 하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천안은 가장 과거의 문화재로부터 자유로운 곳이다. 따라서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들이 지역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독립기념관과 대학교 캠퍼스이다. 독립기념관은 천안의 병천에 류관순사적과 연관되어 그 지역적 연계성을 지니며 현재 천안의 또 다른 상징이³⁾ 되고 있다. 특히 독립기념관 주변의 상가는 한옥지붕으로 지정한 경우도 있어 그 영향이 큼을 알 수 있다.

대학교의 경우 특히 가장 규모가 큰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의 경우 경부고속도로의 우측에 안서호와 함께 위치하고 천안의 초입이미지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모든 대학들이 지역적 특성을 지녔다기 보다는 학교자체의 색(School Colour)을 지니고 있지만 지역의 경제구조나 도시구조를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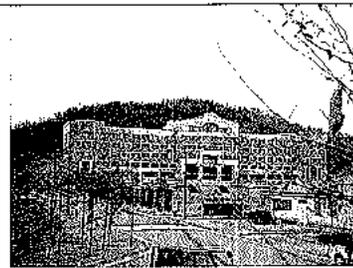
2) 사실 무관한 건축물이란 없다. 무관한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을 왜곡하거나 변형시키는 요인이 되는 건축물이다.
3) 천안의 이장표나 안내판에는 버들잎문양과 독립기념관의 모습이 자주 보인다.



온양온천역사



아산터미널



선문대학교 아산캠퍼스

■ 천안/아산 현대도시건축의 지역성 경향

지역적 특성을 담고 있는
건축(또는 요소)

지역성에 맞는 건물

지역성과 무관한 건물



천안삼거리공원/역사특성



삼도상기/기존상권



천안역



터미널 주변가로



천안C부근 아파트군
(천안의 초입이미지)



천안교보빌딩



독립기념관



자유시장



시외버스터미널/
갤러리아백화점



고속버스터미널



천안시민회관



새롭게 조성된
근린생활시설군



LG 기숙사



스몰시티



충청남도청소년회관



천안시청



APT와 스카이라인



상명대학교



단국대천안캠퍼스



천안공업전문대학교



천안시립도서관



TP1



천안대학교



천안외국어전문대



남서울산업대



삼산종합빌딩



천안북일고/여고



신문대학(천안)



충무로/가로정비 후

천안

아산



외암리 민속마을



온양저일관광호텔



온양민속박물관 정문



온양민속박물관 상설관



신도리코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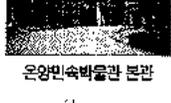
아산시청



온양온천역



아산터미널 주변



온양민속박물관 본관



신도리코 아산기숙사



그랜드호텔



아산 현충사



호서대학교



아산터미널



온천(여관)가로



신문대학교(아산캠퍼스)

시키는 요인이다. 또 대학은 대학가와 지방대학의 특징인 하숙촌을 형성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 일정한 특성을 지니게 된다. 또 각 개개 건물의 경우 학교마다 가지는 특성을 나타내고 유명작가의 작품도 많이 있어 가장 다양한 현대의 건축적 성과물을 지닌 장소이기도 하다.

교보빌딩으로 대표되는 표준화된 건축물들은 자체의 이미지통합작업에는 성공하고 있지만 그 지역적 특성과는 거리가 있다. 농협,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과 같은 이러한 종류의 표준설계는 비슷비슷한 70~80년대의 관공서 건물과 함께 전국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동일한 이미지를 갖게되기 마련이다.

아산(여기서는 과거 온양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의 경우 온천이 가장 중요한 생활의 축을 형성한다. 따라서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관광객을 의식한 한옥의 요소를 사용하고 있다. 온양온천역과 온양관광호텔, 그리고 온양민속박물관 정문에서 전통적 한옥 또는 70년대식 철근콘크리트 처마의 한옥이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려고 한 예이다. 물론 조선 시대로부터 유명한 온천이므로 한옥의 모티브를 살리고 있지만 대개 지역의 건축이 지역성이나 전통성을 표현할 때와 연결되어 있다. 사실 온양을 더 잘 나타내는 중요한 이미지는 역에서부터 여기저기서 보이는 온천표시(湯)이다. 호텔과 여관은 아산의 가로벽을 형성하고 있는 주요한 건물들로 전통적인 이미지보다는 특색을 표현하기 위해 과도한 디자인(Over Design)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적을 알 수 없는 요소의 집합과 장식으로 혼란한 가로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아산시청과 아파트는 역시 지역성과는 무관한 요소들이다.

공주의 현대 건축

공주의 가장 큰 이미지는 금강이다. 그리고 공산성과 무령왕릉으로 이어지는 백제유적이 도시의 상징성을 높여준다. 특히 무령왕릉 초입의 다리난간은 이러한 지역임을 의식해서 많은 여러 전통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고 입구 문도 무령왕릉의 내부에서 재질과 형식을 차용하고 있다.

금강을 중심으로 남쪽에 구 도시(가장 중요한

현대 건축물로는 시청사와 문예회관, 공주박물관 그리고 공주천주교성당을 들 수 있다)와 북쪽에 신도시(터미널과 공주대학교가 가장 중요한 현대건축물이다)로 구분된다.

남쪽의 건물들은 과거의 시간을 상징하며 일상적인 건물로 형성되어 특별히 디자인된 건물을 보기 힘들다. 단지 언제나 그렇듯이 한옥의 모티브를 지닌 지붕을 가진 시청사 건물이 전통의 도시임을 암시해 주고 있고 공주박물관은 무령왕릉의 출토유물을 위해 만들어진 건축으로 당시의 전통건축해석을 보여주는 건물이다. 이와 함께 공주시청사는 아마도 공주에서 전통성을 가장 많이 의식한 건물일 것이다. 새로 지어진 건물들로는 공주문예회관, 공주도서관, 공설운동장/실내체육관(공사중) 등이 있는데 비교적 전통논의에서 자유로운 형태를 지니고 있다. 특히 공설운동장의 입구에 서있는 한옥문과 장승은 흥미롭다.

공주시 역시 새로 지어지는 고층 아파트가 수직적 선으로 스키아라인을 바꾸고 있다.

강북의 경우 평지에 터미널과 공주대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새로운 상업거리와 아파트로 비교적 구시가지쪽(강남)의 기존 경관에 영향을 덜미치고 있다. 이 지역 역시 여러 대학이 주요한 경관구성요소인데 특히 공주는 교육도시라는 이미지로 그 중요도가 더하다. 공주교대와 공주대학교 등이 많은 대학과 전문대학이 있는데 공주대학교의 경우 중앙에 세운 상징탑이 강남에서 강북으로 향하는 주요한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형태적으로 봐서 각 대학의 경우 특별한 경관을 찾을 수 없고 단지 붉은 벽돌 마감과 아치형의 아무리가 자주 눈에 띄었다.

공주의 경우 주요한 관공서가 시청을 제외하고 주도로의 이면 도로에 위치하는데 전형적인 관공서 건물로 주위의 일제시대 건물들과 함께 구도시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부여의 현대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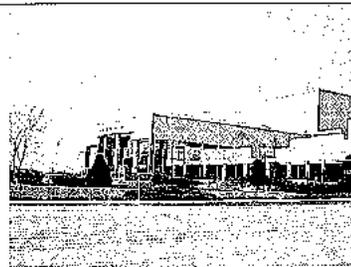
부여에는 높은 건물이 없다. 그래서 시각적 충격이 거의 없는 장소이다. 공주 쪽 초입의 아치에서는 70년대식 문화의 모습이 그리고 육교의 청사초봉을 닮은 가로등, 버스정



공주성당



공주의 가로(이면관청가)



공주문예회관

■ 공주/부여 현대도시건축의 지역성 경향

지역적 특성을 담고 있는 건축(또는 요소)

지역성에 맞는 건물

지역성과 무관한 건물



공산성(초입이미지)



금강교



공주성당 (구 랜드마크)



공주시청사



공주시청사(별관)



아파트(강남)



바닥포장 석문양



공주기로1



공주박물관



공주대학교/상징탑 (신 랜드마크)



대전법원공주지청



아파트(강북)



공주기로3 (이면 관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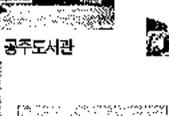
공주기로2



공주교대



공주공설운동장



공주신내체육관



공주우체국



무령왕릉 입구문



무령왕릉 진입다리 (상징이미지 도입)



공주전문대



웅진전문대



공주문예회관



가로건물 1



유금지유량탑



가르번 예식장



원룸지하촌



가로건물 2

공주

부여



부여전경



부여문화재단관 (구 부여박물관)



청소년수련관



부여초입이미지 (초입이미지)



농산리교본



부여기로



부여박물관



아파트2



아파트 1



버스종류장 표식



부소산성입구기념물길



군인회관/문화원



부여군청



농협 2



계백장군상



부여읍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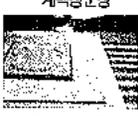
부여도서관



부여장로교회



바닥포장석문양



귀문전돌(바람판난간)



가르번 옥상주택



부여중학교 체육관



농협 1

류장의 표식에 보이는 “부여사랑”과 백제금동대향로(지역적 대표상징물로 사용되고 있는 듯하다)의 그림 그리고 보도블록의 문양 등이 현재 부여의 지역성 찾기의 의지로 보인다.

부소산과 백마강이 자연적 이미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대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건축물로 우선 “백제문화재관리소(구 부여박물관)”가 있다. 우리나라 전통성 표현논의의 시작이 된 건물로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는 대부분의 공공건물이 한옥지붕이나 부분을 모티브로 하여 지어져 있는데 이 또한 부여건축의 특징이다.

신 부여박물관의 경우는 90년대 초 설계경기에 의해 낮은 층고에 단으로 이루어진 건물로 구 부여 박물관과는 대조적이다. 부여군청, 부여읍사무소, 군민회관, 부여도서관, 부여중학교 체육관, 일반주택의 옥상옥에 까지 한옥의 모티브를 다양하게 사용한 예들로 부여는 전통에 대한 고민이 큰 지역임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어디나 그렇듯 표준설계에 의해 지어지는 건물들은 지역과 관계없이 들어서 있고 부여의 민간건축물을 대표하는 교회와 여관은 이국적(?)이기까지 하다. 특히 여관건물은 부여유스호스텔을 제외하고 다양한 장식으로 치장되어 기존 부여의 인상과는 다른 모습이다.

부여는 층고의 제한을 받는 곳이어서 다른 지역과는 달리 아파트가 그 맹위(?)를 떨치지 못하고 있는데 5층에 경사지붕으로 오히려 인상적이었다.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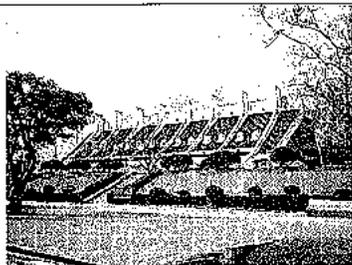
각 지역별로 주마간산 식의 스케치와 ‘지역성’이란 보이지 않는 주제와 관계지어 배열하였다. 부분적인 비평과 정리보다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살피고자 함이 목적이었다. 물론 보다 정확한 자료들에 의한 분석의 특이 필요하며, 지역성의 반영여부나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일종의 ‘이미지 맵(Image Map)’으로 나열된 사진으로 각 지역의 특징을 드러내고자 했는데 이는 다분히 주관적이다. 사실 이

미지란 상당히 주관적이기도 하다. 더욱이 ‘지역성’이라는 것의 반영 결과가 잘되었든 아니면 지역성(전통성)이라는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미지가 왜곡된 경우이든 모두 다 지역성의 영향을 받은 건물로 보았다.

사실 현재의 시점에서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여러 건축물이 그 지역의 복합적인 지역성을 형성하고 있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많은 건축물 또한 배경으로서 하나의 경관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와 논의가 부족하였다. 우리가 지역성을 논의하고 이의 활용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지역이 지닌 지역성의 구체적인 정의와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료의 수집이 선행되고, 이를 가시적인 것으로 개발 활용해야 한다. 대개의 경우 지역성은 전통성이라는 보편적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즉 과거의 전통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가장 흔한 건축적 강조로 한옥의 모티브를 이용하고 있고 이는 지역성이 지니는 개별성보다는 우리나라 여기 저기서 발견되는 전통성의 보편적인 해석이라는 느낌이 강했다.

부분과 전체라는 주제로 생각하면 부분은 전체를 벗어나서는 안되지만 각 부분이 지니는 개별적 특성을 잃어버리면 집합적 의미의 전체가 아니라 그저 하나가 되어 버린다. 따라서 다양성을 지닌 지역성의 발견과 그 구체적인 개발에 대해 보다 많은 연구와 시도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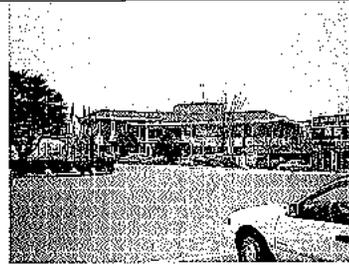
백제문화권의 현대건축은 아직 많은 부분에서 분명한 방향과 결과를 지니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백제문화권의 장래를 밝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개발로부터 소외당하던 지역이 공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그래서 환경이라는 새로운 보물을 발견하듯이 백제문화의 가시화된 개발이 지체된 만큼, 그 속에서 새로운 지역특성의 발전과 전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여 문화재관리소(구 부여박물관)



부여 군민회관/문화원



부여군청

좌담: 지역문화경관과 현대 도시, 건축

Landscape of Regional Culture and Contemporary Urban Architecture

- 일 시 / 1998. 2. 13. (금) 15:30 ~ 18:00
- 장 소 /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건축공학과 세미나실
- 참석자 / 정무웅(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진행)
- 고인룡(천안공업전문대학 건축과 교수/정리)
- 김억수(공주대 중문과 교수, 백제문화연구소 소장)
- 심영섭(호서대 건축학부 교수)
- 이재훈(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 이천규(충남건축사회 회장)
- 이해준(공주대 사학과 교수)
- 최맹식(부여문화재연구소 소장)



좌담회 광경(진행 / 정무웅 교수)

정무웅 _____ 오늘 좌담회는 건축사지에서 주관

하는 도시건축 탐방기획 그 중에 백제문화권의 한부분인 공주, 아산, 부여 도시건축 탐방기획의 부분으로 개최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작간 하지만 자연지형적인 조건 때문인지 아니면 예전부터 여러 나라로 나뉘어 있어서인지 그래서 독특한 지역문화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획의 구성상 백제문화권을 역사도시로 "공주, 아산, 부여지역" 하고 "전주, 익산, 군산지역" 두 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제문화권의 첫 번째 논의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논의의 방향과 주제는 먼저 지역성이란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두 번째는 이 지역의 특성은 무엇인가?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가? 세번째로는 이 지역이 옛부터 내려오는 역사 문화 흔적들이 매우 강한 개성을 지니고 있는데 고유한 지역성을 나타내는 요소(경관요소)를 찾아 보고자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개발과 보전이란 문제로 이런 지역의 자립화, 도시구조의 재편성에 따라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개발, 보존

의 현대화 측면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개발과 보존이란 문제는 양립적인 문제로 항상 발생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성이란 얘기는 지방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 지역이란 말은 많이 쓰는데 지역성이란 개념이 무엇이고 왜 지역성을 논하고 지역성이라는 것을 논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재훈교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훈 _____ 지역성은 로컬리즘이라고 하는데

요. 건축·도시분야에서의 지역성을 얘기할 때는 기후·지형과 같은 지리적인 입장에서 생겨나는 특성과 인종이나 역사 문화 등에 생겨날 수 있는 인문적 특성 두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리적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밖에 안되는 짧은 거리고 이 속에서 지리적 변수가 많지 않아 과연 지리적 인자에 의한 지역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종이나 역사 문화적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삼국시대라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지만, 1000~1500여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그 후 1000년 이상 단일한 국가체계를 지켜온 나라에서 과연 인문적 인자에 의해 구별될 수 있는 지역성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지역성이란 것을 한국전체의 한국성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도시나 건축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울이나 부산, 대전, 광주 등의 대도시나 천안, 아산, 공주 이런 소도시들을 보더라도 대도시나 소도시 할 것 없이 일반사람이 느끼기에는 어디에 갔더니 어떤 특색이 있더라 할 정도로 구별지를 만큼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역성을 논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한 사건 또는 없는 특색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측면까지도 부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역성을 논의하는 배경을 두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먼저 지역자체의 특성을 찾겠다라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접하고 있는 환경은 국제화라는 시각에서 보편타당한 문화를 건축이나 도시에 이식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있었고, 그런 시각에서 생겨질 수 있는 모순과 문제점들을 보상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지역성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즉 현대 건축에서 부각되고 있는 지역주의, 즉 로칼리즘의 시각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지역성을 가지고 있는지, 각 지역적으로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세계화(글로벌)에 의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21세기의 건축·도시적 사명이다라는 시각에서 지역성 논의가 긍정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루는 지역을 보면, 백제문화권으로 묶여져서 아산·천안지역과 공주, 부여가 함께 묶여졌는데, 사실 천안·아산을 백제문화권으로 포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백제문화권을 광역적인 시각에서 지역적으로 구별되는 하나의 특성으로서 아산·천안도 포함시켜서 이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무용 이재훈 교수께서 지역성이 있느냐? 지역성을 왜 얘기해야 하느냐를 글로벌시대의 한국성이라는 범위까지 넓혀서 그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문화, 역사 인류의 삶을 연구하시는 이해준교수님께서 지역을 나누게 된 취지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준 전체적으로 이재훈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세계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보면 한국은 또 하나의 지역일 뿐입니다. 그리고 백제문화권 하면 한국에서의 한 지역이지만 백제문화권이라는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지역성이 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을 지키고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성을 건축에서 보여주는 예는 드물니다. 인상적으로 '여기는 지역 냄새가 난다'고 느낀 곳으로는 전주'가 있는데 전주에는 시청도 한옥이고 역사도 한옥이고 시내버스 정류장이 한옥스타일로, 물론 전주는 지역성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차치하고 그것 하나가 무척 강한 인상을 줍니다. 지역성이라는 것을 건축에서 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론적인 것이고, 어느 지역에서 그곳의 냄새가 풍기는 것을 지역성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감나무가 많은 감나무골에서는 감을 가지고 만들어 낼 수 있는 음식이 여러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지역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서적으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지역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일른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이 각각 다르고, 시대가 다르

며 아무리 백제문화권이고 백제의 고도였다고 하지만, 백제의 왕조시대에 살았던 사람하고 지금의 공주시사람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 정서적으로 깔리는 전통적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역성을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건축이 대부분 이런 지역성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있고, 그런 점에서 오늘의 모임이 시기적절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을 포함해서 모든 문화에서 차별성을 지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지역은 저 지역과 차이가 있다라고 할 때 이 차이를 통해서 그 지역 사람들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화하고 자원으로 활용해서 건축에서 하나의 아이টে으로 활용하면 지역의 정서에 맞고 차별성을 지닌 상품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쪽에서 지역성을 접근하면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고인봉 지역성을 말할 때 먼저 다른 곳과 무엇이 다른지가 전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라는 시점에서 차별성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백제권이라는 구분을 위한 특성도 오늘의 상황에서 분명하게 발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극적으로 개방된 자연형태에서 다분히 폐쇄적인 건물구조나 방어적 특성유지라는 점에서 주장되는 지역성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중부문화권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성에서 근거를 두고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이 더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할려고 하면 보다 적극적인 개념에서, 다른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진정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중소도시를 얼핏 보면 어디가나 비슷비슷한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비슷비슷한 주택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의 생활조건과 경제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보면 차이가 없는 것이 당연할 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데 반드시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70년대 말부터 80년 들어서면서 이 지역에 나름대로 지역적인 냄새, 한국적인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공공건축물들을 중심으로 한국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지역주민들이 동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 번 논의가 됐으면 한다. 어떤 면에서 최근에 지어지는 지역특성을 지닌 건물들은 전통적, 한국적이라는 광역적 개념에서 접근되어 한국적인 건물이라고 이해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이 지역에 맞는 형태이고 공간인지 하는 점은 좀 더 생각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준 _____ 동의할 수 없는데요. 개방적, 즉 낮고 넓은 지역특성을 피해로 연관시켜 폐쇄적인 지역특성이라 했는데, 역사적인 도시치고 폐쇄적 아닌 곳이 없습니다. 공주는 천안이나 부여에 비해 더 폐쇄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명맥이 유지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략적인 목적에서 나온, 말하자면 방어적 목적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도시는 거의 그렇지요. 부여만 해도 공주에 비해 개방적이므로, 그래서 그곳에 도청을 가져다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안은 지금 신도시로 펼쳐나가지만 공주는 지형상 공업 단지가 설 수 없는 곳이지요. 또 천안같은 곳은 고려나 조선시대에 행정도시가 될 수 없는 곳입니다.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별성을 강박관념을 가지고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살아남는 방법이기 때문에 절박한 것입니다. 그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지역 이미지를 살려줄 때 도시도 살고 건축도 차별성을 갖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봐야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없는 것을 찾는다는 것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건축물의 전통성표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 시청건물을 짓는데 주민들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가능한 한 전통적인 분위기를 살려달라고 하는 정도이고 이를 건축가가 나름대로 해석할 때 지역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박물관이면 그 박물관의 스타일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여박물관을 웅집형식으로 지었다니 일본식이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만큼 의식수준이 따라갈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요. 지금 이 모임을 갖는 것도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논의하는데 의의가 있으니 거기에서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정무웅 _____ 경관, 즉 landscape란 일정한 어느 지역에서 보여지는 것의 한계, 범위로 이야기 할 수 있고, 어느 지역의 경관요소는 자연적 경관과 '인공적 경관', '문화적 경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적 경관은 자연적 요소이고, 인공적 경관은 도시구조나 건축을 포함한 인위적 요소이며 문화적 경관은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 생활양식, 역사적인 유적이나 유물을 포함해서 문화적 경관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과연 이 지역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논해보도록 하죠. 아산, 공주, 부여의 특성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하고 그런 것의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어 보죠.

김익수 _____ 신라문화권은 경주를 중심으로 개발을 해왔음에 비해 백제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 측

면에서 보면 신라문화권에 비해 집중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권은 문화, 유적이 산발적이고 영역이 넓습니다. 지금까지는 신라문화권에 비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제문화권에서의 유적이나 유물발굴의 관계에 있어선 지역간의 연계를 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제권의 수도가 충남권인 공주와 부여이지만 공주와 부여만 조사할 수는 없는 것이며, 백제문화권은 전북 익산, 영산강 유역까지 분포되어있기 때문에 산발성이 강하고 신라문화권과 비교하면 집중성이 떨어지므로 지역성 또한 떨어집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차별화되는 요소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해준 _____ 백제문화권의 권역을 설정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충청권에 관한 얘기, 그 지역의 특징을 얘기하는 것이 나올 듯 싶습니다.

심영섭 _____ 문화권에 한정짓지 말고 백제문화권의 성격이나 천안, 아산, 공주, 부여가 우리 국토의 중부 지방에 있다는 점, 현대의 상황 등에 대한 논의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무웅 _____ 백제문화권이라는 용어를 쓰다보니까 이 지역의 범주나 이해의 동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백제문화권이 공주, 부여, 아산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공주, 부여, 아산을 얘기하는데 이 지역이 백제문화권에 속해있다고 정해놓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심영섭 _____ 건축쪽에서도 지역적 특성을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경관이 특별히 뛰어난 것도 없습니다. 다니다 보면 낮은 구름지를 끼고 촌락이 아꼈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이 백제문화로 거론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건축적인 관심이 박물관에서 역사 공부하듯이 그런 식으로 끝났고 실무건축계에서는 상당히 소홀히 다루어졌습니다. 건축사들에게는 현대적인 관점에 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무웅 _____ 공주, 부여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시대에 관계없이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것 자체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차별성이고 지역성입니다. 이 지역의 특성 중 하나가 다른 중소도시하고 유사한 점이 있겠지만 도시의 스케일과 도시의 스케일을 결정하는 요소 중 중요한 것이 자연적인 요소입니다. 이 자연적 요소 중 산과 강에 대한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다 작다하는 것보다도 산과 강이 도시 스케일을 결정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그 안에 있는 구조물로서 도로, 건축물 등이 이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천규 이 지역의 건물형태, 다시말해 옛 선조들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양 찾기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최맹식 백제는 4차례 정도 수도를 옮기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는 금강 하류에 어쩔 수 없이 강을 끼고서 수도를 정착하게 되었고 그것이 부여까지 오게 되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소형 또는 대형의 저장고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도망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무엇을 숨긴 다든가 하는 것인데 저장고나 생활양식 등이 옛날부터 그런 면이 보이지 않으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신라와 같은 베타적이고 고정적인 것과는 차이가 나는 특성을 이룬다고 봅니다. 또 고분들은 잘해야 토기 몇 점과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한 것들도 어려운 생활양식이나 살기 위한 수단, 빨리 옮겨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물·유적 등이 파괴가 심하기도 하지만 옮겨 다니는 삶 속에서 대형으로 할 수 없었으리라 봅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특질입니다.



최맹식 공주 같은 경우 현재 개발 등에 의해서 옛날 고도로서의 성격·특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여는, 유적은 몇 개 없지만 고도제한 등으로 비교적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발이나 계획이 주어질 경우에 유적이 몇 개 남아있지 않지만 그 부분을 중심으로 유의하면 오히려 유리한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이재훈 천안, 아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죠. 우선 '천안'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살펴보면 삼국사기에서부터 그 배경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삼국시대에 이 천안지역이 백제, 고구려, 신라가 치열하게 싸우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배경은 이 지역이 전략요충지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지형적으로는 천안을 고속버스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항상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서쪽으로 거대한 산맥이 가로막고 있고 그 산맥의 줄기가 끝나면서 나오는 평지가 이 천안입니다. 그래서 접경으로 신라와 백제가 만나고, 고구려가 내려와서 고구려까지 겹치는 그런 지역으로, 이 지역이 편안하면 천하가 편안할 것이라는 예측적인 측면에서 '천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천안'이란 곳은 하늘아래 가장 편안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가장 편안하지 않은 장소, 가장 전략적이고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 결국 교통이 사통팔달되는 전략적 요충지다라는 것에서 천안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

이 백제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는가에 대해서는 사료관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조선시대까지도 천안지역이 많이 번창했다는 얘기는 없고 오히려 직산현 이라고 해서 천안에서 북쪽으로 약간 떨어져 있는 곳에 현 소재지가 있는 상황으로 봐서 일제시대 이후에 철도가 개설되면서 발전된 도시로 규정지어야 할 것입니다.

교통도시의 개념은 조선시대 '천안삼거리' 노래도 있듯이 교통의 요지였고 일제시대때 역사가 설치되면서 철도역사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천안의 교통도시적 특성은 여전히 이어져 교통의 중심지로 철도나 고속도로가 지나고 고속전철이 지나가면서 지형적인 여건과 함께 이곳으로부터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좀 낭만적인 시각으로 보면, 천안에 있는 동명을 보면 성정동, 성촌동, 구성동, 성성동 등 별성(星)자가 들어가는 동네 이름이 많은 것이 특색입니다. 이 이름이 언제 들어섰는지는 알 수 없지만, 천안의 하늘 천(天)자하고 관련해서 '하늘의 별'이라는 연관성에서 별이 들어간 동네 이름으로 생겨난 것 같고, 외룡동, 삼룡동, 오룡동, 구룡동, 대룡동 같이 하늘에 살고 있는 상상의 동물인 용(龍)자가 동네하고 관련해 생겨 났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천안'이라는 고유한 명칭의 '천' 자에서 유추할 수 있는 이미지가 동네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나 건축에 어떤 특성으로 생겨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아직 도시적 특성으로, 물리적인 형태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활용한 천안의 특성을 찾아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무웅 천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아산, 공주, 부여이지만 아산과 천안이 상당히 인접해 있고 현대 도시계획 쪽에서도 아산과 천안을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속철도 기차지 같은 것도 천안, 아산절경에 두어 여기에 신도시 개발계획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치 트윈시티와 같은 동반적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천규 아산(구 온양)은 온천이 유명하고 이로 인해 한동안 호황을 누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천안이 교통중심지로서 시세가 아산에 비해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산에서는 삼성전자 등의 대규모 전자단지를 유치했습니다. 앞으로는 천안, 아산이 지역적으로 같은 도시형태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무웅 아산과 천안의 관계는 천안이 교통의 요지로, 온양의 천연적인, 자연적인 조건을 관광객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관계는 하나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아산을 자연적인 요건 중에서도 온천을 기반으로 한 관광

수입이나 도시개발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심영섭 _____ 아산은 85년부터 95년까지 10년 동안 인구증가율이 0.02%에 불과합니다. 인구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즉 도시적인 발전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온양에서 온천이 나오면서부터, 관광지로 갑자기 커졌지만 그 주변은 농경지로 지난 1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고속전철이나 서해안 개발 등으로 급속도로 발전되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천안을 거쳐서 아산을 갔지만, 서해안고속도로가 아산 서쪽으로 열리고, 고속전철역사가 생기므로 해서 전체적인 도시구조가 변할 것입니다. 역세권이 아산, 천안지역에 다 걸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산, 천안이 한꺼번에 통합되듯이 될 것입니다. 대전·충남지역을 세 부분으로 나눌 때 대전권과 천안·공주·부여권, 서해안지역으로 나누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맥락에서와는 별개입니다. 아산지역은 온천과 함께 관광지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온양시가 아산시로 바뀌면서 아직도 혼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아마도 온양 온천이라는 강한 지역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역의 특색이 오랫동안 형성되어 내려온 경우인데 이를 통해 보면 천안이 되었던 공주, 부여가 되었던 그 지역의 관광자원이나 문화자원 그리고 서해안지역의 교통과 아산지역의 새로운 개발 등을 총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정무웅 _____ 공주지역의 특색을 살펴보죠.

이해준 _____ 지역성 특성, 차별성 이미지를 말하기 전에, 요사이 형성되는 신도시나 새로운 건축물이 모두 비슷한 것만이 나오는데 지역성이나 차별성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렇게 승부를 해서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공주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공주는 오히려 남겨진, 아껴둔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휴가철에 가는 콘도를 지을 때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호텔 같은 콘도를 짓고 있습니다만, 공주나 부여는 고개하나 넘어 동네 있는 식으로 자연스러운 촌락형성과 자연조건, 그와 더불어 백제문화유적들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콘도를 지을 때 지역의 전통적인 특성에 맞추어 시골풍이 나는 것을 지었다면 더 상품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공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권이라고 하지만 공주를 백제로 한정시켜 보는 것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공주는 통일신라, 고려, 조선 1500년 동안에도 교통·행정 중심지였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절대기치로 따지면 무령왕릉을 따라갈 것이 없지만, 수적으로 따지면 조선시대 것이 80% 정도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공주하면 도시가 깨끗하다고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아마 공주라는 이름에서부터 그렇게 느

끼는 것 같은데, 화려하거나 요란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전통적으로 문화와 교육의 이미지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일제시대까지 도시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개화기건축이나 일제시대의 건축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도 주의해야 할 특색입니다. 그리고 차별성을 보면 금강, 공산성, 계룡산 등이 공주의 역사를 있게 한 고유한 자연조건과의 관계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공주 시내의 문화적, 전원적으로 기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강북쪽으로 신도시가 형성되고 강남지역은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강남의 남단부에 시창이 들어서는 것을 보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주는 문화와 교육이 대표적인 상징이 되고 있으며 여기에 상품적 가치를 높여주는 하나의 상표로서는 백제의 왕도(고도)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천규 _____ 도시계획측면에서 좋은 것을



짚어 주셨는데, 부여나 공주는 강북에 신도시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데 공감합니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건설된 건물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일제시대 건축을 전부 제한해 없애 버린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치욕은

있지만 현재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므로 역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준 _____ 저 역시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정무웅 _____ 각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이제부터는 이를 근거로 개발·보존·현대화라는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명이나 문화는 제일 중요한 것이 편의성이라 보는데 삶에 있어서의 편의성을 문화적인 요구나 감성적인 요구(Wants)와 같은 것으로 제어하지는 못합니다. 편의성 위주의 요구를 사회적인 조직이나, 도덕관념들을 통해서 통제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존과 개발은 서로 양립되는 것이라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례를 얘기하고 그 해결방안이 무엇이 있겠는가 논의해 보죠.

김역수 _____ 백제문화권을 개발함에 있어

서 문화재를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 관광사업과 지역개발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존과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에 모순, 충돌하기 쉬운 부분이므로 이러한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화롭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발의 측면에서 예를 들면

'94년도에 백재문화권개발사업을 발표했는데, 그때 55개의 사업을 확정짓고 '95~' 2001 7개년 계획으로 1조 5천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8%만 국비로 하고 나머지는 민자유치로 진행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정부의 시책 발표 이후에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국비 18%이후 나머지 82%를 민자유치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발표한 것은 신중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봅니다.

이해준 _____ 예를 들어 봉황산 밑에 15층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그곳에 입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상품성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등산하고 주변의 경관이 아파트에 한눈에 들어오는 등 거주자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상업적 가치가 올라가 그곳에는 업자들이 덩벼듭니다. 그러나 문화재에 관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봉황산 밑에 15층 빌딩이 올라서면 자연환경의 중요한 요소인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거주인이나 개발업자는 그 좋은 땅에 건물을 못 올리니까 또 싫어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가 바로 개발과 보존의 갈등인데 이는 편의성이라기 보다 당장의 이익이나 아나면 장래의 이익이나 하는 다시말해 장기적으로 볼 것이냐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그곳에 건물을 짓는 것이 상품성도 있고 편의성도 있고 좋은데, 장기적으로 봐서 그 도시에 어느 것이 더 값어치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선을 긋지 않으면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 편의성에 따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욕을 먹더라도 길게 보면 이 자원을 살려줘야 그것이 결국 가치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 문화경관은 한 번 깨져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수 천, 수 백년 동안 형성된 것이지만 자연의 선을 자른다든지, 문화재를 파손하면 순식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것이냐,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 이것이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보존이나 발전이나, 이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김역수 _____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94년 12월 말쯤 인가에 우연히 능산리 고분군이 있는 논산 국도변을 지나는데 이 부분을 불도저로 밀고 있던군요. 문화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전혀 통고도 없이 그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라 해서 공설운동장 건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보시키고 발굴을 하였는데 그곳에서 많은 문화유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곳을 지역의 문화적 상품가치를 인정해 보존하기로



하였습니다. 문화재의 상품가치를 인정한 경우로 이런 것이 보전과 개발이라는 상징적인 예라 할 수 있겠지요.

심영섭 _____ 건축계에서도 개발과 보존의 문제를 생각하는 방향이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첫째는, 우리 정책 중에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만, 경주나 인사동의 예와 같이 한옥보존이다 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규제조치가 많다 보니까 생활하는 삶이 빠져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보기는 좋은데 거기에 실제 사는 사람들은 거부하는 것이지요. 그곳 사람들의 삶이 빠진 상태에서 정부에선 문화요소를 가시적인 세트(Set)보듯이 하다보니까 동의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지켜질 것은 지켜지면서 변화하는 연속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단기적인 생명력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너무 있는 그대로만 유지하고 심지어는 보존까지 하려는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은 건축의 시각적 측면에 대한 것으로 그래도 어디를 갔을 때 도시의 이미지나 특성을 얘기할 때는 시각적인 것으로 건축물을 많이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적 정서나 문화 및 특성을 건축에 이미지화 시켜야 합니다. 공주, 부여의 경우 기존(과거)의 인공적인 것으로서의 건축물들은 현재 찾아볼 수 없고, 경주나 전주처럼 조선시대나 일제시대 때부터의 건축에 대한 보전도 그리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공주, 부여나 천안, 아산도 도시계획 구상을 보면 아직도 2차원적인 평면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지도 놓고 최단거리로 길 뚫고, 폭 얼마 정하고 하는 식으로 상당히 물리적이고 계량적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을 대비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도시설계가 시행되는데 도시는 3차원이다라는 기본개념에서, 김포공항에서 서울로 오면서 남산을 보려면 어디는 건물을 낮춰야 되고 한강변은 어떻게 해야하고 하는 식입니다. 특히 공주, 부여 같은 역사성이 있는 도시들은 도시설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인공적인 것이 별로 없으니까 기존의 자연경관들 강, 산들이 도시를 접근하면서 어떻게 보일지, 이런 것 등이 3차원적으로 고려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여의 경우 건물의 높이를 5층 이하로 규정하는데 그것에 따른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을 무조건 일률적인 기준으로 무리하게 규제 할 것이 아니라, 점적으로 되면 연속성이 없어집니다. 5층이 아니라 3층으로 묶을 때는 면밀히 조사해서 3층으로 묶고, 10층으로 풀어줄 수 있는 곳은 10층으로 풀어주고, 아니면 도시의 한쪽으로 개발을 하는 것처럼 3차원적으로 경관이나 문화재를 도시의 시각적인 이미지구성 요소로 만들어 나간 후에 점차 내부적으로 나오는 여러가지 이면에 깔린 문화적인 요소들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건축이나 도시계획쪽에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재훈 _____ 공주보다는 부여가 훨씬 더 역사도시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개발이 안되어 옛날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심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발이 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옛날 모습을 살려주는 것인데 그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는 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소유자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계산해서 10층, 5층, 3층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상대적으로 3층이나 5층의 소유자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에서 옛날 18세기, 19세기 때 지었던 건물들을 역사가 짧은 나라다 보니까 20세기에 들어서서 개발을 제한했는데, 이때 시에서 개발시 얻어질 수 있는 개발이익과 제한으로 인해 얻지 못하는 부분을 환산해서 보상해준 예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도 참고할 만 합니다.

정무웅 _____ 먼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나 유적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현대의 실용성 문제라든가 교육적 가치로서의 문제 등에 따른 문화재의 우수성 정도 등에 따라 종류를 나누고 구별을 지어야 적절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문화재나 지역문화를 다루는 상설기구 같은 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준 _____ 적어도 문화재 부문에 있어서는 이론과 현실이 맞지 않습니다. 현실은 이론과 편익성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고인룡 _____ 이 지역의 문화재는 산재한다고 했는데 이를 근거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문화재를 중심으로 개발한다고 할 때 문화재를 마치 섬과 같이 고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울타리 쳐놓고 오허려 생활과 격리시키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따라서 여러 문화재를 점적으로 보기보다는 도시전체와 연계된 선적인 개념으로 보아 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문화재를 물리적으로 만져지거나 보여지는 것으로 한정하지 말고 물리적인 문화재와 비가시적인 생활, 문화, 풍습 등과 같은 무형의 것도 개발하여 이를 담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리적 문화의 연결선과 무형의 생활문화의 연결선이 입체적으로 한 도시에 부여되면 종합적인 도시의 이미지, 즉 특성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과거 지향적인 문화와 함께 우리사회의 현재적 생활과 특성을 시간적인 축을 따라 과거와 연결지어 계속 개발, 보존한다면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지역특성이 형성될 것입니다. 건축, 도시는 그러한 흔적을 지닌 공간, 형태를 적극적으로 가시화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명식 _____ 부여에는 시나 도 단위에만 있는 문화재 관리과가 있으면서도 행정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재 확인 여부도 없이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형편이니까요. 행정당국의 의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문화가 밥 먹여 주냐?"고 말할 정도입니다. 정책적인 지원이 지도자의 강한 의지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무웅 _____ 문화재 보전, 개발의 총동등에 따른 대안으로 이런 안을 처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관·개발업자가 참여하는 분쟁조정기구와 같은 모임이 필요합니다.

이천규 _____ 정치부터 정책까지 이를 결정할 때는 그 분야의 전공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입법에서 정책시행 단계에 전문가들의 진출, 참여와 의견반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무웅 _____ 끝으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지역성, 전통과 현대, 개발과 보존 등 이런 문제점들을 역사적인 중소도시 건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해 보도록 하죠.

심영섭 _____ 도시의 성격을 장기적인 입장에서 건축이란 개발이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편익성에 너무 심취(마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문화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문화적 기반 즉, 인프라가 더 중요합니다. 개발이나 건축 계획은 건축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표준설계와 같은 것이 여러 도시를 무대 세트 같은 도시로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건축가의 개개인에게 맡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준 _____ 도시나 건축의 디테일의 한 부분에 전통 무늬나 이미지를 부여해도 전체적인 이미지가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부여와 같이 보도블록에 전통문양을 넣은 경우가 그런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전체적으로 전통화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조각이나 기타 작은 부분을 살리면 그 지역의 상징성이 구체화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느낌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 온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에서도 이러한 쪽에 관심과 의식이 있는 분이 건축설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어떤 건축과 교수님은 오래 전부터 토기를 수집하고 있는데 그런 분의 설계는 보다 전통적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도시의 스케일에서는 이런 관심을 가진 여러 전문가가 연대

하여 지역적 모티브를 살려 디자인해야 할 것입니다.

정무웅..... 사실 전통의 문제는 건축인들에게 있어서도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지만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일 것입니다.

최맹식..... 도시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기념탑과 같은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아무리 뜻이 좋고 그 자체의 의미가 크다고 할지라도 지역의 정서와 다르게 제안되면 그것이 세워진 지역 전체의 인상을 바꾸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어디의 충혼탑과 같은 경우들입니다. 부여의 경우 새로 건설하는 다리 난간을 백제의 이미지를 살려 처리한 경우나 가로등의 변형 같은 경우는 바람직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해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성을 보존하기 위해 돌담을 쌓거나 성을 다시 복원하는 일이 있는데,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아까 고교수가 지적했듯이 그 유물의 배경작업이 우선 필요합니다. 즉 그 유적의 가치와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의 마련과 그 유적과 관련된 문화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성의 모형을 만들어 시내나 어떤 박물관 등에 전시를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다 가깝게 접근하고 문화적 이해를 높이는 계기로 중요하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고인룡..... 모형 뿐 아니라 생활모습이나 공간까지도 만들면 더 좋을 것이다. 공간 속에서 지역성을 느끼게 하여 그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공간의 디자인 등에 지역의 특성요소를 주제나 소재로 반영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훈..... 지역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건축, 도시적 방법에는 세 가지 정도로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지점에 있는 문화재나 모티브들, 천안의 경우에는 천안삼거리나, 천안역사, 태조산 그리고 호수를 들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의 각 지점들에서 지역적 특성을 풍길 수 있는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그 주변을 개발해 나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둘째로, 그 지점들이 보다 적극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것을 엮어주는 가로형성이 필요합니다. 어느 지점 기령, 터미널이나 역과 같은 곳에 방문객이 내렸을 때 터미널(역)부터 어느 지점까지 계속되면서 그 곳에서는 그 지역의 특성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거나, 그 가로에서만은 그 지역의 특성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



다. 셋째로, 부여나 공주처럼 역사적으로 통칭해서 말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 전체를 묶어주는 법적인 제한을 한다든지, 어떤 요소를 통일감있게 처리하는 경우처럼 전체적인 규제를 하는 경우입니다. 기령 이 지역에는 충수의 제약이라든지, 일산 신도시와 같은 경우처럼 단독주택의 특색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평지붕을 못쓰게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보도블록은 특정한 것으로만 한다든지 벽 또한 특정한 재료로 한다든지 하여 지역전체를 묶어주는 성질을 부여하여 그 지역적 특성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정무웅..... 건축의 표현 문제에 대한 주제만 가지고도 여러날 토론을 벌여야 할 것 같습니다.

김억수..... 건축하는 분들도 역사 문화적인 고층 쪽에 신경을 써서 백제문화권에서는 그 쪽에 대한 고층을 통해 건축에 반영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대적인 의미의 건축에만 너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낙후되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군요.

이해준..... 현재의 상황을 박물관설립의 예를 들어보면, 원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정리하고 관리할 담당자가 임명된 후 전시의 방향과 전시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가와 협의하여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먼저 예산 세우고 대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지은 후 관리를 위해 관장이 오고 전시물을 구입, 수집하며 학문적인 지원이 가능한 학예관을 임명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설계 후 전시물과 조화되지 않는 박물관도 나오는 것이고 지역적 특성의 획득에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방향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심영섭..... 문화재 쪽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다보니 건축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이해준..... 건축하시는 분들끼리 한 번 더 모임을 가지시죠. (웃음)

정무웅..... 장시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좌담주제나 건축사협회의 기획의도가 섬들리 어떤 정답을 구하거나 해결방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동기가 필요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식이 점차 고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부딪혀야 할 실천적, 말하자면 디자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논의는 부족했지만 그 이전에 건축과 관련된 문화 사회, 생활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늘 긴 시간 좌담의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천년대 성당건축

Historical Authenticity Expressed in Architectural Styles of the Church for 21st Century

호세 라파엘 모네오의 「천사의 모후 성당」 Cathedral of Our Lady of the Angels

박태형 / 재미건축가, First Enterprise 대표
by Arthur T. Park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시내 한복판에는 지금 세계적인 건축가 호세 라파엘 모네오(Jose Rafael Moneo)가 설계한 천사들의 모후 대성당(Cathedral of Our Lady of the Angels)이 지난해 9월 착공식에 이어 건축되고 있다.

하버드대학에서 미국의 최고 건축가들을 양성하는데 전력하였던 라파엘 모네오의 건축이념과 철학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이 성당은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거세게 불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적 건축풍에 대한 그의 답변으로 해석되고 있다. 역사적 윤리성이 어떻게 현실속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서, 지나치지 않은 절제된 현대 건축의 추상성속에서 미래를 통해 계속 전달되는 역사적 이념을 건축을 통해 잘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 라파엘 모네오의 건축세계를 천사의 모후 성당 건축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건축가 라파엘 모네오

1937년 스페인에서 내란중 출생한 모네오는 어린 시절을 스페인 프랑코에서 보냈고, 예수회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마드리드에서 학업을 마친 그는 1961년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디자이너인 덴마크의 건축가 존 우트존(Jon Utzon)과 일하였고 그후 2년동안 사실리와 로마에서 특별 연구원으로서 고전적인 건축교육을 받았다.

이후 모네오는 1970년 세계 곳곳의 젊고 유망한 인재들의 관심을 끌던 뉴욕의 피터 아이젠먼 건축/도시계획 연구소(Peter Eisenman's Institute for Architecture and Urban Studies)에 들어갔다.

모네오는 1980년대 중반까지 마드리드의 아토차 기차터미널과 메리다의 로마예술국립박물관의 설계를 맡았는데 그중 로마예술국립박물관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단순한 표현성에 대응하여 자신의 각별한 역사적 이해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이후 하버드 건축디자인 대학원의 학장으로 취임하여 형식적인 이론과 허구적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양극사이에서 방향을 상실한 건축설계 학도들이 나아가 할 좌표로서 보다 진지하고 윤리적이기까지 한 건축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건축의 윤리적 근본에 큰 관심을 보였던 건축의 대가 모네오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 겸허함을 배우게 되었다.

호세 라파엘 모네오는 건축이란 존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그 무엇을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프로젝트를 안에서 건축의 진실성을 하나의 수양으로 여기며 모든 형태들 위의 이론을 찾아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그에게 건축이란 미래를 향한 성급한 표현이 아닌 시적 추구의 동시에 도덕적 임무였다. 1990년 하버드 건축디자인 대학원의

충장직을 떠난 이후 모네오는 설세없이 건축을 통해 그의 생각과 소신을 실현해가고 있다. 그는 현재 워싱턴주의 스페인 대사관지와 스톡홀름의 현대미술/건축박물관을 디자인 중이며, 휴스턴의 미술관, 스페인 산 세바스티안의 쿠르사알 강당과 국회센터는 건설중에 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 대교구의 마호니 추기경은 1996년 9월 그의 교육 배경이나 작품의 철학적, 윤리성을 기초로 그를 천사들의 모후 대성당의 건축가로 임명하였다. 그는 또한, 마호니 추기경이 이를 발표한 바로 다음날 그를 세계에 생존하는 위대한 건축가들중 하나로 명명한 1996년도 프리즈커상을 수상함으로써 그의 거인성을 명백히 하였다.

천사의 모후 성당-건축 배경

로마에서 발굴된 후 미국 카톨릭교회의 부흥을 위해 미국으로 전해진 성녀 비비아나의 성체를 모시기 위해 1876년 벽돌과 모타르로 건축된 천사의 모후 성당은 이후 늘어나는 카톨릭신자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개축, 혹은 신축되어야 한다는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다 마침내 1994년 노스리지 지진으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하게 되었고, 구 성당을 개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1천8백만달러에서 2천만 달러 규모에 이르자, 로스앤젤레스 대교구의 마호니 추기경은 119년동안 유지되어온 성당을 철거하기로 결정. 이어 4백50만의 카톨릭신자들로 구성된 대교구를 대표하는 새로운 성당을 건축한다는 계획을 1996년 7월 발표하였다. 또 5.53에이커에 달하는 부지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로부터 구입하였다. 이 신축성당의 건축가로서 라파엘 모네오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 명의 로스앤젤레스 토박이 건축가들인 프랭크 기어리와 보다 미래 지향적인 율동의 미를 추구하는 팀 페인이 적임자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예상대로 이번 성소 디자인의 최고 선택권자인 마호니 추기경은 그 자신이 생활화해온 카톨릭 교회 철학에 근접한 모네오의 디자인을 채택하였다.

모네오를 임명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지금까지 세계를 무대로 모네오가 창조해온 건축물들이 세심한 역사성과 존재성을 미래적인 건축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2000년 9월에 완공예정인 천사들의 모후 대성당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2000년의 역사를 정리함과 동시에 앞으로 천년간의 역사를 재창안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마호니 추기경은 예보하였다.

천사의 모후 성당-건축 규모

새로이 건축될 성당은 거의 3천명에 달하는 신자들과 미사를 드릴 수 있고 제대에는 미사집전 성직자들을 3백50여명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공사비는 약 5천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5개의 주요 건물들은 본당, 약 3에이커에 달하는 오픈 플라자, 주차장, 성당사무처 및 컨퍼런

스 센터와 대주교, 성직자들의 숙소로 구성되어 있다.

1997년 9월 21일 시공되어 2천년 여름까지 약 3년간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헌정식은 2천년 9월 4일로 잡혀 있다.

현재 성당의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초기 건축현금은 단머피재단과 토마스/도로시 리비재단에서 제공하고 있다. 종탑에는 38개의 종을 달아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출하도록 건축될 예정이다. 지진에 대비하여 기초공사시에 기초분리공법(Base Isolation System)을 도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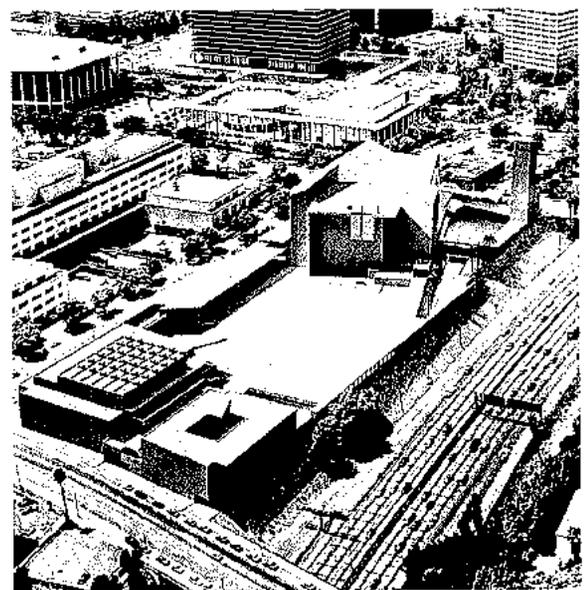
유리자재는 대부분 알라비스타 유리를 이용하여 자연채광이 손쉽게 성당내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건축된다. 또한 성당의 지붕은 구리재를 사용하여 밤과 낮에 건물이 빛을 환하게 발휘하도록 자재선택하였다.

천사의 모후 성당-디자인

최근 모네오의 영혼의 중심지는 다름 아닌 냉철한 세속적 도시 로스앤젤레스에 있다. 모네오와 같은 유명 건축가가 로스앤젤레스의 한 복판에 건립될 성당건축에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신에 대한 경건함의 표출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그는 후기산업사회의 진진으로 문화적인 면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주의나 극도의 개인주의적인 문화경향을 극복하면서도 과거, 현재, 미래를 한데 연결시켜주면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의 중심에 인간의 세속성과 다양한 차이를 초월하여 신 앞에 하나의 일체감과 유대감을 느끼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성당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다.

모네오에게는 성당 건축이아말로 과거 및 현재의 역사 및 이념을 미래에 전달해 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21세기 성당건축 양식

수단이다. 과거 성당의 벽과 천장, 그리고 건물 기둥에 그려진 각종 벽화와 건물은 과거 및 그 시대의 역사를 동시대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모네오는 '성당건축은 단순히 역사성이나 신의 절대성을 표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화되고 있는 세계에서 다양한 인종적, 이념적 차이들을 융합하여 하나라는 일체감을 줄 수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로스앤젤레스에 세워질 천사의 모후 성당에서도 모네오는 이와 같은 자신의 종교관을 표출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모네오는 성당양식으로 르네상스양식이나 로마네스크양식보다는 고딕양식이 신의 완벽성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양식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 성당의 건축양식으로 모네오는 바로크 풍을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인간과 신의 접촉을 자연채광을 통하여 신비스럽게 잘 표현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채광을 활용하여 인간에 대한 신의 경외감, 성소의 신성함을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5천만달러 규모의 <천사들의 모후 대성당>의 설계에 있어서 모네오는 깔끔한 스타일의 스페인식 저택을 상기시키는 건물의 형상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 작업을 통하여 그는 로스앤젤레스 시안에 정신적인 융합의 뼈대를 굳게 지속적으로 강화시켜나갈 영적인 힘을 심어보려 하고 있다. 매일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삶 자체를 돌이켜 볼 수 있는 공간, 좀 더 높은 차원의 명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공간의 창조를 통하여 영적 승화에 대한 긍정성을 재인식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의 작품에 배어 있는 역사의 진실성에 대한 신념은 대단하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건축 언어가 미래성을 추구하는 로스앤젤레스 시에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 성전의 디자인에 있어서 마호니 추기경은 모네오로 하여금 무질서를 피해 개개인의 믿음생활과 직무상의 예비생활을 위한 공간들을 분리해줄길 바랬고, 모네오는 성전 건축 평면도를 과감하게 재구성함으로써 이 요구에 응했다. 로마 카톨릭교회의 전통적인 성전 디자인에서는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건축 언어가 신성함과 고결함을 나타내는 도구였다.

모네오의 컨셉트는 이러한 전통의 연장으로 강렬한 생동감을 더한 불균형한 형태들간의 통일된 정서의 조화를 보여주려는데 있다. 대성전, 추기경 관저, 교구센터, 종탑, 그리고 명상을 위한 정원이 드넓은 플라자 건물을 중심으로 구성된 점이 전통적인 미션 양식과 흡사하지만 건물들의 설계 자체는 놀라울라 만치 현대적이다. 중앙부의 예배공간이 방해받지 않도록 채플들이 외부로 향하여 연결되게 설계되었고 대성전은 대지의 남서쪽 코너에 펼쳐진 특별한 장식이 없는 거대한 콘크리트의 외관을 지녔고 플라자 또한 아케이드를 이룬 인도로 둘러싸인 꾸밈없이 광대한 건물이다. 대성전은 이처럼 거침없이 펼쳐진 형태의 건물들에 정신적인 무게를 더해준다.

역할을 하는 듯하다. 이 대성전의 아름다움은 형태를 시작하면서도 현대적인 비전으로 현실화시키려는 모네오의 능력으로부 터 비롯된다.

모네오는 도시의 중심부에 거리로부터 엄숙하게 내면으로 향하는 이상적인 환경을 창조해 낸 것이다.

모네오의 대성전은 건물 그 자체가 섬세한 영적 행렬의 일부이다. 방문객들은 플라자의 맨 끝에 위치한 지하 주차장이나 아케이드를 지나는 대계단을 통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서게 된다.

교회 건물의 전형적인 입구인 본당 회중석의 뒷부분에 이르기까지 거리는 긴 아케이드를 통해 플라자를 가로질러 제대편으로 입장하여 내부의 보행로를 지나는 11미터나 된다. 성전의 뒷부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돌아서서 제대를 볼 수 있는데 이 여정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이다. 모네오는 방문객들에게 쉽게 얻어지는 영성을 설교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좀 더 깊이 있는 묵상의 시간을 할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건축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의 모험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긴 여정이 무미건조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주교 관구는 로스앤젤레스의 카톨릭교회 역사 이야기를 그릴 벽화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2천년대 후세대들에 의하여 서서히 완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행렬감은 여러 정원들의 구조에서도 되풀이되는데 이를 통하여 방문객들은 넓은 플라자로부터 보다 사적인 명상의 공간들로 인도된다.

성전 북쪽 측면의 외부는 유리로 되어있고 외부로 향한 채플들은 명상의 정원과 종탑이 바라다 보이는 위치에 있다.

외부조경과의 시각적인 연결로 채플안의 분위기는 경이로우리 만큼 정적이 된다. 채플 뒷면은 이중벽 시스템을 사용하여 빛이 여러 공간으로 퍼질 수 있도록 하고 외부벽은 거대한 스테인드 글라스 장식된다.

내부벽은 수평으로 쪼개어 빛이 아래로부터 채플 안으로, 또 고창층으로부터는 본당 안으로 은은히 스며들게 하여 인상적인 조명이 되도록 디자인하여 성전 건물 자체가 빛, 사람, 그리고 영혼의 여과기가 되는 듯하다.

천사들의 모후 대성당은 총체적으로 자연, 인간, 그리고 신이 평화로이 공존하는 신성한 공간으로 완성될 것이다. 고결한 영혼의 성체를 도시의 혼돈속에 과감하게 기획함으로써 모네오는 영적인 자혜로서만이 이해될 수 있는 신세계를 창조해가고 있는 것이다.

모네오의 대성당과 프랭크 기어리의 디즈니 홀이 모두 완성되면 로스앤젤레스 시내 중심가는 대조적인 이데올로기의 경이로운 무대가 될 것이다. 천사들의 모후 대성당은 각박한 도시의 삶 속에서도 영혼의 자유를 가능케 하는 성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협회소식 / 123

건축계소식 / 126

현상설계경기 / 132

인터넷 건축여행 / 137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40

신입회원 / 142

협회소식 KIRA news

**시·도건축사회 98년도
제1회 임시총회 개최**

본협회 임시총회는 오는 3월 26일
개최

우리협회 시·도 건축사회의 98년도 제 1회 임시총회가 전북건축사회를 시작으로 2월 20일부터 27일 기간중 각 시·도건축사회별로 개최됐다. 각 시·도건축사회의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97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이 부의안건에 상정됐으며 일부 시·도에선 '98년도 제 1차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대의원 개선'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한편 본 협회 임시총회는 오는 3월 26일 (목) 10시 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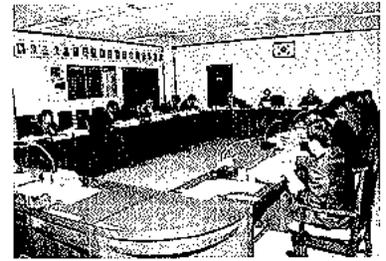
본지는 이번 시·도건축사회 임시총회의 안건별 의결내용을 본 협회 임시총회 소식과 함께 4월호에 자세히 게재할 예정이다.

이사회 개최

「98년도 제1회 임시총회」
3월 26일 개최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승인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98년도 제2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2월 10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업무보고에 이어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의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사회 광경

■ 제2회 정기이사회

〈부의사항〉

- 제1호의안 : 98년도 제1회 임시총회 개최일시 및 장소변경의 건
- 98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98년 3월 26일(목) 10시 협회 대강당에서 개최기로 함
- 제2호의안 :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단, 결선투표와 재투표시에도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로 당선을 확정하는 조항을 추가하되, 문안작성은 회장에게 위임기로 함.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

- 제24조(당선후보) ①(현행과 같음)
② 단일후보일 경우에는 신임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 득표시 당선을 확정한다.
③ 1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득표 2인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로 당선을 확정한다.
④ (폐지)
⑤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투표를 실시하되, 재투표시에도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로 당선을 확정한다.
- 제25조(재선거) ①~③(현행과 같음)
④ 단일투표자에 대한 신임투표시 득표수가 과반수 미만일 때

98년도 위원회 구성

유사 위원회 통폐합해 14개 위원회로 전체 위원수도 줄여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올해 우리협회를 이끌어 나갈 위원회조직이 새로 구성되었다. 협회는 이번 위원회 구성에 있어 그간 유사한 기능을 해 온 일부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연금정산위원회 등 일부 임무가 완료된 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전체 위원회 수를 기존 19개(분과위 포함)에서 14개로 축소하는 한편 전체 위원수도 줄여 각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하였다. 위원회조직 및 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98년도 위원회 위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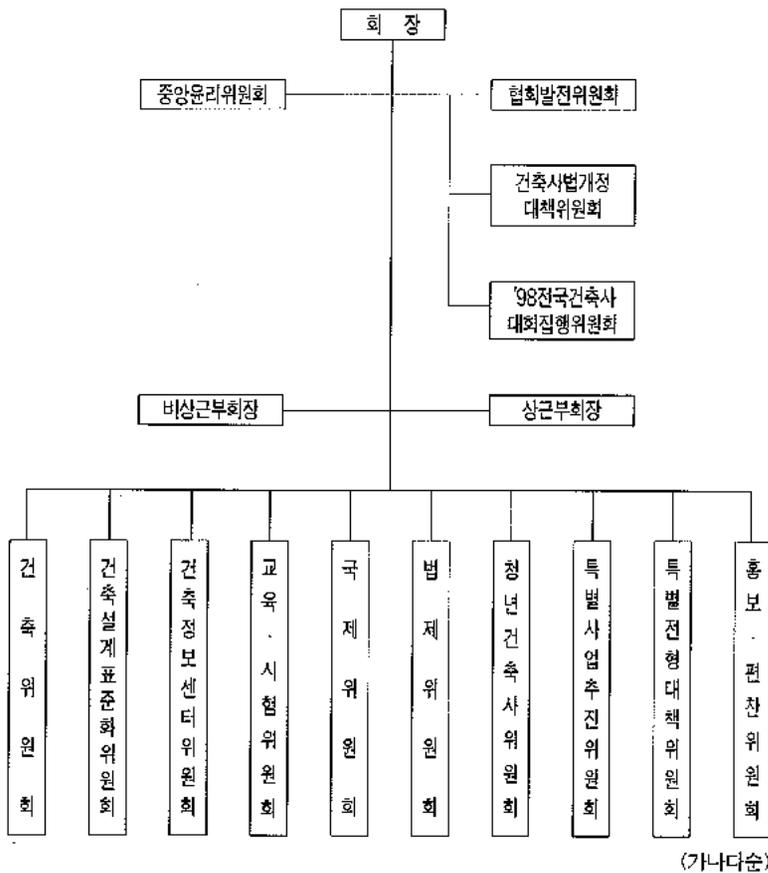
('98. 2. 1일 현재)

-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 전학주)
정효환(부위원장) 김인곤 김인모 나은택 박래운 박상호 박영희 송승호 이종만 이종태 임경모 임두현 지 순(이상 회원), 김명윤(고문변호사/당연직)
- 협회발전위원회(위원장 : 김무언)
김충광 김태웅 김화자 박서홍 배동권 신문섭 이관영 이문우 이일윤 이의구 이종관 이종정 조태종 정환호 허종오(이상 회원)
- 건축사법개정대책위원회(위원장 : 이세훈)
김기완 김기철 김순명 민경민 변종환 최광수(이상 본협회 이사 6인), 시·도건축사회 회장 (16인), 이철호 한옥현 한응룡(회원 3인)

- '98전국건축사대회 집행위원회(위원장 : 김광욱)
각 분과위원
- 건축위원회(위원장 : 김우성)
김창일 문숙경 이규창 장응재(이상 회원), 심우갑 이정만 이철우 김수암 강병욱(이상 외부인사)
- 건축설계표준화위원회(위원장 : 김창수)
김익성 이석우(이상 회원) 동정근 김수암 김철수 박준영 이종진(이상 외부인사)
- 건축정보센터위원회(위원장 : 김지덕)
김규성 맹광태 백경국 안길원 인의석(이상 회원), 김병일 권우룡 김태수 윤인성(이상 외부인사)
- 교육·시험위원회(위원장 : 김봉훈)
김상경 박연심 옥태범 이찬영(이상 회원) 정우웅 최찬환 김복수 장동찬(이상 외부인사)
- 국제위원회(위원장 : 이정근)
김주석 김지덕 김홍일 백경국 오근석 이관영 이근창(이상 회원)
- 법제위원회(위원장 : 조태중)
권기창 임기철 이복 조순영(이상 회원) 김영하 윤혁경(이상 외부인사), (전문위원 : 최찬환)
- 청년건축사위원회(위원장 : 김영웅)
김지호 박건규 이상임 이재림 이창구 주영정 함인선(이상 회원)
- 특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 이종정)
김경희 김동휘 김택성 류정영 박규남 안택영 이철호 최재웅(이상 회원)
- 특별전형대책위원회(위원장 : 안영준)
김세호 김진식 김형배 백운학 정찬익(이상 회원)
- 홍보·편찬위원회(위원장 : 방철린)
-홍보분과 : 서천식(위원장) 김용철 유원재 윤여욱 이웅우 이재림(이상 회원)
-편찬분과 : 방철린(위원장) 송효상 양남철(이상 회원), 동정근 심명섭(이상 외부인사)
-전문위원 : 김광현, 이정만(이상 외부인사)

<98년도 위원회 조직표>

('98. 2. 1일 현재)



(가나다순)

*기 타 : 경력관리위원회, 노사협의회, 예산편성위원회, 인사위원회

「동북아건축협의회」

3월16일부터 제주에서 개최

한·중·일 대표단 모여 건축사자격 상호인증제 도입 등 공동관심사 협의

한·중·일 3개국 건축계 대표단으로 구성된 「동북아건축협의회」의 제2차 회의가 오는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된다.

「동북아건축협의회」는 지난해 한·중·일 3국을 주축으로 결성된 국제건축교류 협의체로 현재 우리 협회를 비롯해 중국의 전국등록건축사협회, 일본의 일본건축사회연합회 등 건축관련 민간대표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3개국의 건축사 대표 5인과 건축관련 정부부처 대표 1인 등 모두 18명이 참가해 지난해 1월 북경에서 열린 제1차 총회에 이어 급변하는 국제건축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아시아국가간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국가간 협력사업추진 ▶건축사자격 상호인증제도 ▶시장개방에 따른 공동대응방안 등 중요 현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WTO체제에 따라 국제 건축계에서 첨예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건축사자격의 상호인증제도」에 관한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감사간담회 개최

상반기감사 중점사항 및 감사방향 협의

우리협회 감사간담회가 지난 2월 24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

에는 본협회 김영석, 송기준 감사를 비롯해 전국 시·도건축사회 감사들이 참여해 98년도 상반기 정기감사실시에 따른 중점사항 및 감사방향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시·도건축사회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올해 상반기 정기감사는 시·도건축사회가 2월중에, 본협회는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실시된다.



간담회 광경

「건축행정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건교부, 우리협회등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법 개정시 반영

건설교통부는 지난 2월 5일과 6일 양일간 협회회관 회의실에서 전국의 시·도 공무원과 건축사 그리고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 등을 참석시켜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앞으로 있을 건축법과 건축사법 개정시 기본방향 설정에 반영하리므로 국민편익 위주의 건축행정을 구현한다는데 의의를 두고 개최된 이날 관계자 회의에서는 「건축행정의 간소화 및 건축기준의 합리화」, 「건축사제도 개선」, 「건축행정 정보화 시스템」 등 세가지 주제에 대해 업계와 관계 공무원들간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건교부는 앞으로 토론회를 한 번 더 열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3월중 공청회를 개최하고, 입법예고를 거

쳐 올해 9월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건축사회, 송 자 총장

초청 「조찬강연회」 개최

「21세기 환경변화와 건축사의 역할」 주제 강연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지난 2월19일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송 자 명지대 총장 초청 조찬강연회를 가졌다.

IMF시대의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건축문화창달의 책임을 짊어진 건축사와 건축사사무소의 향후 진로와 역할울 모색해 보고자 마련된 이날 강연회에서 송자 총장은 「21세기 환경변화와 건축사의 역할」을 주제로 서울건축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강연하였다.

이날 송자 총장은 「전문성을 제고하고 팀워크를 맞춰 나감으로써 무한경쟁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21세기 지식사회에 대비함과 아울러 건축사 여러분도 세계일류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건축사회는 지난해에도 한완상 전부총리와 조순 전서울시장, 오명 전건설교통부장관 등 사회 저명인사들을 연사로 초청해 조찬강연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강연회 광경

서울건축사회, 상설 취업소개창구 개설

각 학교 협조받아 구인·구직자 연결

IMF한파로 실직 및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건축사회(회장 이세훈)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을 위해 상설 취업소개창구를 개설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건축사회 취업소개창구는 서울 및 수도권 각 학교로부터 취업희망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협조받아 운영중인데 경제난에 따른 취업난 해소뿐만 아니라 회원사들에게는 인력채용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나 직원을 채용하려는 건축사사무소는 서울건축사회(02-581-5715~8)로 문의하면 된다.

「98년도 건축사예비시험」 오는 5월 10일 실시

시험과목은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계획

98년도 건축사예비시험 일정이 확정 공고됐다.

올해 예비시험은 오는 5월 10일 치뤄지며 시험과목은 건축구조와 건축시공, 건축계획 등 3개 과목으로 객관식 선택형 문제들이 출제된다.

시험장소는 오는 4월 28일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관에 공고된다(본지 '98년도 건축사예비시험 시행 공고 참조, 145쪽).

건축계소식 archi-net

신임 건교부장관에 이정무씨

경북 산산 출신으로 13~15대
국회의원과 자민련 원내총무 역임

이정무 전 자민련 원내총무가 건설교통부장관에 임명됐다. 신임 이정무 장관은 경북 산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한국 JC회장과 민정당 원내 부총무, 13~15대 국회의원, 자민련 원내총무를 역임했으며 평소 시원시원하고 막힘이 없는 성품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축허가건수 52%나 격감

서울시 1월중 건축허가건수 조사결과,
경기침체 및 투자위축 등으로 건축경기 위축 계속될 듯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한파로 서울의 건축허가건수와 연면적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달 19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구제금융 이후인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동안의 건축허가건수는 모두 1천53건으로 1년전 같은 시기의 2천1백89건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서울시는 또 1월중 건축허가 연면적은 45만1천5백26㎡로 지난해 1월의 93만9천4백11㎡보다 51.9%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주거용 건축물은 60.7%,

비주거용은 41.7%가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관계자는 "경기침체와 건축자재비 상승 및 자금난 악화에 따른 투자 위축 등의 요인으로 올 한해 건축허가면적은 지난해에 비해 30%~4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건축가협회 21대 회장에 김한근씨

부회장은 황일인, 김창수, 오기수씨
피선돼

김한근(주. 한엔김건축 대표)씨가 지난 달 18일 열린 한국건축가협회 총회에서 21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또 수석부회장은 황일인(주. 일건건축사사무소 대표)씨가, 부회장은 김창수(주.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씨와 오기수(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스페이스·오 대표)씨가 피선됐다.

신임 김한근 회장은 36년생으로 한양대 건축공학과와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방부 건설본부와 국방과학연구소 건설실장, 델타건축연구소 대표,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96년부터는 한국건축가협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해 왔다. 현재는 (주)건축사사무소 한엔김건축을 운영하고 있다.



김한근 신임 건축가협회 회장

서울건축사회, 상설 취업소개창구 개설

각 학교 협조받아 구인·구직자 연결

IMF한파로 실직 및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건축사회(회장 이세훈)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을 위해 상설 취업소개창구를 개설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건축사회 취업소개창구는 서울 및 수도권 각 학교로부터 취업희망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협조받아 운영중인데 경제난에 따른 취업난 해소뿐만 아니라 회원사들에게는 인력채용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나 직원을 채용하려는 건축사사무소는 서울건축사회(02-581-5715~8)로 문의하면 된다.

「98년도 건축사예비시험」 오는 5월 10일 실시

시험과목은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계획

98년도 건축사예비시험 일정이 확정 공고됐다.

올해 예비시험은 오는 5월 10일 치뤄지며 시험과목은 건축구조와 건축시공, 건축계획 등 3개 과목으로 객관식 선택형 문제들이 출제된다.

시험장소는 오는 4월 28일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관에 공고된다(본지 '98년도 건축사예비시험 시행 공고 참조, 145쪽).

건축계소식 archi-net

신임 건교부장관에 이정무씨

경북 산산 출신으로 13~15대
국회의원과 자민련 원내총무 역임

이정무 전 자민련 원내총무가 건설교통부장관에 임명됐다. 신임 이정무 장관은 경북 산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한국 JC회장과 민정당 원내 부총무, 13~15대 국회의원, 자민련 원내총무를 역임했으며 평소 시원시원하고 막힘이 없는 성품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축허가건수 52%나 격감

서울시 1월중 건축허가건수 조사결과,
경기침체 및 투자위축 등으로 건축경
기 위축 계속될 듯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한파로 서울의 건축허가건수와 연면적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달 19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구제금융 이후인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동안의 건축허가건수는 모두 1천53건으로 1년전 같은 시기의 2천1백89건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서울시는 또 1월중 건축허가 연면적은 45만1천5백26㎡로 지난해 1월의 93만9천4백11㎡보다 51.9%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주거용 건축물은 60.7%,

비주거용은 41.7%가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관계자는 "경기침체와 건축자재비 상승 및 자금난 악화에 따른 투자 위축 등의 요인으로 올 한해 건축허가면적은 지난해에 비해 30%~4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건축가협회 21대 회장에 김한근씨

부회장은 황일인, 김창수, 오기수씨
피선돼

김한근(주. 한엔김건축 대표)씨가 지난 달 18일 열린 한국건축가협회 총회에서 21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또 수석부회장은 황일인(주. 일건건축사사무소 대표)씨가, 부회장은 김창수(주.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씨와 오기수(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스페이스·오 대표)씨가 피선됐다.

신임 김한근 회장은 36년생으로 한양대 건축공학과와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방부 건설본부와 국방과학연구소 건설실장, 델타건축연구소 대표,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96년부터는 한국건축가협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해 왔다. 현재는 (주)건축사사무소 한엔김건축을 운영하고 있다.



김한근 신임 건축가협회 회장

한국건축가협회상

당선작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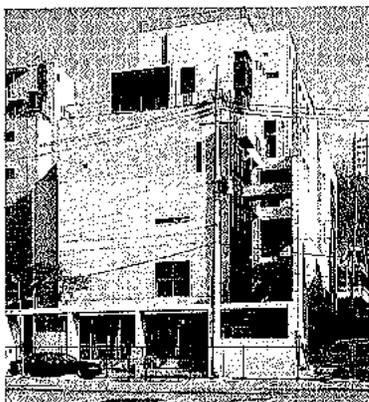
'동승동 문화공간' 등 7개 작품 선정

한국건축가협회는 지난 2월15일 지난해 완공된 국내 건축물 가운데 창작성과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에게 주어지는 「한국건축가협회상」의 당선작과 매년 한국적 건축미가 뛰어난 작품과 건축가에게 수여되는 「엄덕문건축상」, 그리고 특별상인 「아천건축상」, 「초평건축상」의 각 수상자를 발표했다.

올해 「한국건축가협회상」 당선작에 선정된 작품은 건축가 승효상(이로재건축 대표)씨의 '동승동 문화공간',故 장세양씨의 '공간 신사옥', 민영백(주. 민설계 대표)씨의 '성북동 빌하우스', 김원(주. 광장건축 대표)씨의 '광주 가톨릭대학교', 최두남(최두남건축 대표)씨의 '샬터화랑', 김낙중(중원건축 대표)씨의 '시네플러스', 유걸(유걸건축 대표)씨의 '밀알학교' 등 모두 7작품이다. 또 「제9회 엄덕문건축상」은 재미건축가 김태수씨의 '금호미술관' 이, 제11회 아천건축상에는 조병수(조병수건축연구소 대표)씨의 '일산 ㄱ자집' 이 각각 선정됐다.

이밖에 건축발전에 공로가 큰 건축인에게 주어지는 「초평건축상」은 (주)종합건축의 이승우씨가 수상했다.

한편 건축가협회는 지난 2월 16일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98년도 임시총회에서 각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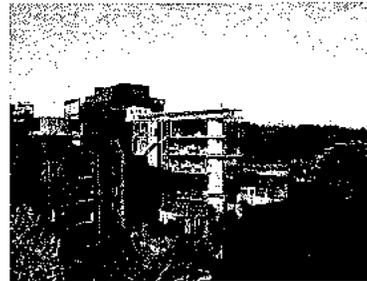
동승동 문화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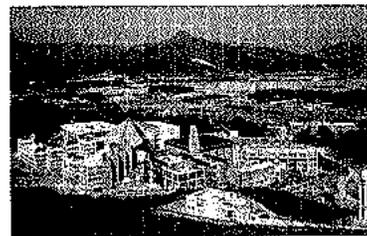
밀알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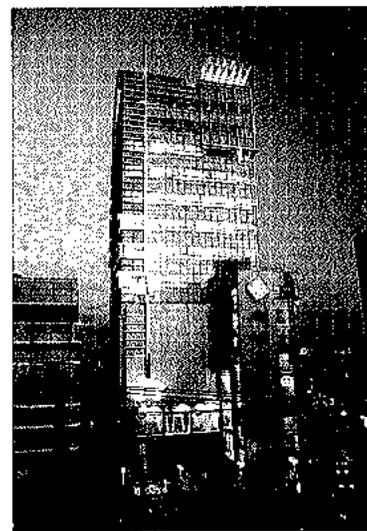
성북동 빌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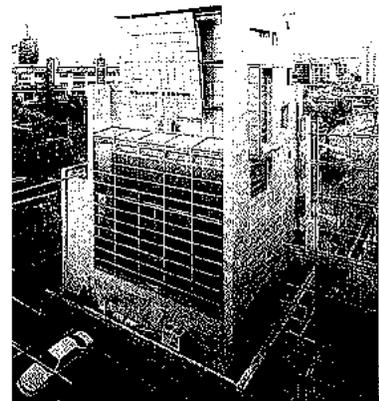
공간신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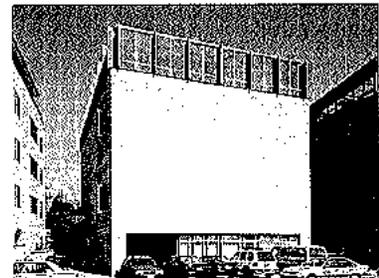
광주가톨릭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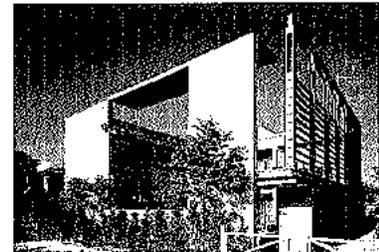
시네플러스



샬터화랑



금호미술관



일산 ㄱ자집

한국건축역사학회

'98 춘계 학술발표대회

오는 3월 21일 홍익대 와우관에서

한국건축역사학회에서는 오는 3월 21일 (토) 오전 10시부터 홍익대 와우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건축역사학회측은 올 한해동안 모두 여섯차례에 걸쳐 정기 학술발표대회 및 월례발표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중 학술발표대회는 3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홍익대에서 개최하고 월례발표

회는 4~6월과 10~11월에 매달 1회씩 각각의 주제하에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건축역사학회는 이번 춘계학술대회를 위해 3월 10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표논문물을 접수중이다.

문의 : 한국건축역사학회(성균관대 건축공학과 윤인석 교수 / 0331-290-7558)

■한국건축역사학회 98년도 연구발표회 일정

- 정기학술대회
- 춘계: 3월 21일(토) / 홍익대 와우관
- 추계: 9월 19일(토) / 홍익대
- 월례발표회
- 4월 18일(토) / 서양사
- 5월 16일(토) / 부산·경남의 건축 (장소: 부산)
- 6월 20일(토) / 이론, 비평, 설계
- 10월 17일(토) / 도시사 및 주거사
- 11월 21일(토) / 조선고·중세 및 마을

토탈미술관 「건축아카데미」 제6기 수강생모집

전후 현대건축을 다룬 "건축의 이해 III" 강좌개설

서울 평창동에 위치한 토탈미술관에서는 98년도 건축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좌는 오는 3월 5일 개강해 11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두시간씩 진행된다.

특히 이번 강좌에서는 르 꼬르뷔제를 비롯해 루이스 칸과 알바 알토, 안도 타다오 등 현대건축을 이끌어 온 세계 유명 건축가들의 작품세계를 들여다봄과 아울러 20세기 후반 현대건축의 흐름과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므로써 건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돼 관심이 모아진다. 토탈미술관은 1차 원서접수 기간을 2

월말까지로 정했지만 50명의 전체 정원 가운데 결원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한해 첫강의가 열리는 3월 12일까지 2차 수강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수강료는 30만원으로 수강생에게는 미술관 무료입관, 특별강연 등 각종 행사 초대, 미술관 출판물 증정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문의 : 토탈미술관(02-379-3994~5)

제4회 '탈도시주택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결과 발표

당선작에 홍재승씨의 '關' 등 10점 뽑혀



기존의 도시집합주택에 대한 탈도시집합주택의 설계방향을 제시코자 월간 '이상건축'이 주최한 제4회 탈도시주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홍재승(정립건축)씨의 '關' 등 10점이 당선작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건축가 조성룡씨와 김영삼씨가 심사를 맡았고 총 244점의 응모작 가운데 당선작 10점과 가작 10점, 입선작 10점 등 총 30점에겐 상이 주어졌다. 당선작은 다음과 같다.

- ◆당선작 명단
- 關(홍재승 / 정립건축)
- Habitat Landscape(박철형 / 경상대 건축공학과)
- 歸結(강민성 / 충남대 건축공학과)

- INNOVATION on the Private Open Space(이제현 /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 Void & Open Space(박은주 / 명지대 건축학과)

- Political Topography(지정우 / 중앙디자인)

- 모여살기(김영수 / 서울시립대 대학원)

- 도시+집합+나×너(박명원 / 부경대 건축공학과)

- 도시의 흔적(안우석 / 동국대 건축공학과)

- 火水木金土(손영복 / 정일엔지니어링)

경실련 제2기 「도시대학」 개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도시문제 전반에 대해 폭넓게 조명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도시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제2기 「도시대학」이 지난 2월 25일 개강했다.

지방자치단체 의원 및 관련 공무원, 실무자, 학생 등 도시문제에 관심있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개설된 이번 강좌는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주2회씩 오는 4월 10일까지 서울 정동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강의에서는 도시행정과 주민참여, 현대 도시사회와 시민운동, 도시교통, 도시하천관리, 도시계획, 도시시설물 안전관리 등 도시문제 전반을 주제로 한 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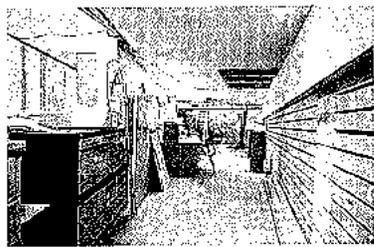
과 워크숍으로 진행되고 있다.

강사로는 권태준(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유재현(전 경실련 사무총장), 김병준(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박수남(건설교통부 시설안전과장), 이창우(서울시정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권원영(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씨 등 17명의 분야별 전문가 및 사회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02-764-3832)

조병수작 '성북동 스튜디오 주택' 제1회 CRI-ARC AWARD 수상작에 선정

월간 '건축인 POAR' 독자 선정



조병수작 성북동 스튜디오 주택

월간 '건축인 POAR'가 창간 2주년을 기념해 실시한 「제1회 CRI-ARC AWARD」 수상작 심사결과 '성북동 210번지 스튜디오 주택'을 설계한 건축가 조병수(조병수건축 대표)씨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여타 국내 건축상과는 달리 CRI-ARC AWARD 수상작은 지난해 월간 '건축인 POAR' 6~12월호에 소개됐던 6개 작품의 현역건축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1월 독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해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특히 이번에 수상작으로 선정된 '성북동 주택'은 심사에 참여한 대다수 독자들로부터 과거의 흔적과 현재가 중첩되도록 하면서 잃어버린 시간의 가치를 건축적으로 다시 찾아낸 점이 주목을 받았던 것

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이 행사와 같은 시기에 실시된 제3회 간향건축문학상 심사에서는 졸업을 앞둔 건축학부생의 사유를 잔잔하게 그린 김은정(부산 동의대 건축과 4년)씨의 '깊고 황량한 나의 세 번째 우물'이 가작에 뽑혔다.

간향건축문학상의 경우 이번엔 당선작 없이 가작 1편만이 선정됐으며 수상작품은 '월간 건축인 POAR' 3월호에 게재된다.

제7회 「김태수 해외건축여행 장학생」 선발

40세미만 건축설계분야 건축인 대상

김태수 해외건축여행 장학재단이 올해의 장학생을 찾고 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태수 해외건축여행 장학재는 그동안 건축설계분야의 젊고 유능한 건축인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해 엄격한 자격심사를 거쳐 그중 1인에게 미화 1만달러의 해외여행 경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해 왔는데 올해 최종 선발자 역시 여행 목적지나 여행기간 등을 자신이 직접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을 마치고 국내 건축사사무소에 근무중인 40세미만 자로 이전에 외국 유학 사실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청마감은 4월 30일까지로 아래 주소로 자신의 건축작품이나 글(그림·조각·건축 등에 관한 글 포함, 학위논문은 제외)이 수록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면 된다.

• 포트폴리오 제출처

TaiSoo Kim Partners
285 Farmington Avenue,
Hartford, CT06105,
USA
(전화 860-547-1970, 팩스 860-249-

0695)

• 신청서 배부·접수 및 문의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06-64 성리빌딩 2층
(주)티에스케이건축사사무소
(전화 02-588-2703, 팩스 02-588-2706)

「프랑스 건축모형전」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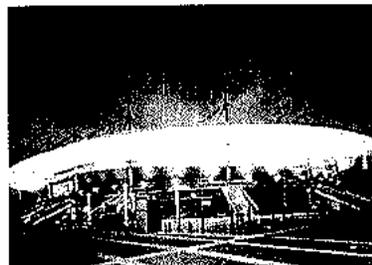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 건축모형작품 전시

아시아 각국에서 활동을 해온 프랑스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들의 건축모형작품들이 2월 20일부터 3월 7일까지 프랑스 문화원에서 전시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건축가 폴 앙드레의 「상하이 국제공항」을 비롯해, 장마리 유티엘의 「남서울 TGV역사」, 장마리 샤프르티에의 「상하이 오페라하우스」, 장폴 비기에의 「말레이시아 신도시」, 마키리·주볼레나의 「프랑스 스타디움」 등의 건축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프랑스 외무성 산하 예술진흥협회(AFAA)와 외무부 등이 공동주최한 이번 전시회는 문화가 다른 외국 건축인들의 아시아지역에 대한 시각과 작품해방을 엿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문의 : 프랑스문화원(02-734-9768)



강석원씨, 한불문화협회 회장취임

한·불 문화교류 증진 기대돼

강석원 한국건축가협회 전 회장이 지난 1월 22일 한불문화협회(A.C.C.F: Association Culturelle Coreano Francaise) 제8대 회장에 취임했다.

현재 천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한불문화협회는 프랑스 유학생과 유학 희망자들을 위한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주한 프랑스 대사 장폴 레오 대사가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미국임산물협회, 「목구조 주택 기술세미나」 개최

앞서 충남대에선 '목구조 설계특강' 열어

미국임산물협회 한국사무소(소장 안경호)는 미국산 목재에 대한 정보와 올바른 기술이전을 위해 지난 2월 24일 '목구조 주택 기술세미나'를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했다.

국내 목구조주택관련업계 전문가 150여명이 참가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 양국의 관련전문가 6명이 연사로 출연해 목재와 공학목재, 창과 문, 방부목 등에 관해 강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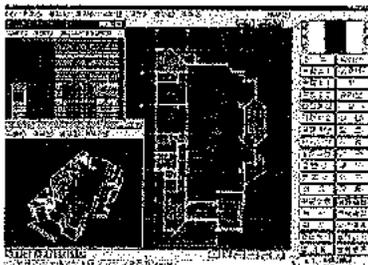
미국임산물협회는 또 이에 앞서 한국목조건축협회(회장 장상식 / 충남대 교수)와 공동으로 지난 2월 16일부터 5일간 충남대에서 '목구조 설계특강'을 개최하였다. 목조건축업계 설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특강에서는 목구조 설계에 대한 원칙과 이론, CAD 디자인, 구조설계프로그램 등에 대한 강의 및 실습이 펼쳐졌다.

한편 한·미 양국의 목조건축업계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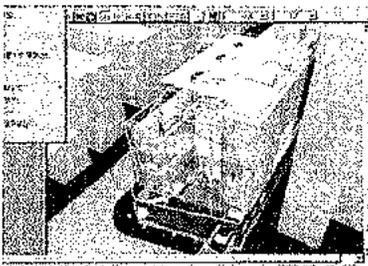
자들은 이들 행사를 통해 자리를 같이 하고 관련 정보교환은 물론 최근의 목재업계 불황극복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펼쳤다.

설계전용 한글3차원 캐드 'ARCHI-EAGLE 4.0' 출시

한국 NCC, 기존 3.5버전에 기능 추가



FINAL-A1.JPG



FINAL-T1.JPG

지난해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건축설계 전용 한글 3차원 캐드인 'ARCHI-EAGLE'이 더욱 새롭고 강력해진 기능의 세버전을 발표했다.

3차원 캐드는 기존의 2D캐드가 2차원 작업후 필요에 따라 전문요원에게 이를 다시 의뢰해 2D도면을 이용해 3D작업을 하였으나, 3차원 캐드인 'ARCHI-EAGLE'은 1인 작업만으로도 투시도는 물론 렌더링과 심의용 2D도면까지 자동작성되도록 돼 있어 그간 비싼 비용으로 인해 3차원작업을 망설여 왔던 중소 설계사무소에 2D와 3D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뛰어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함께 직관적 건축설계를 가능하게 한 3차원 캐드 'ARCHI-EAGLE 4.0'은 기존의 3.5버전에 비해 풍부한 3D라이브러리를 갖추고 있으며, 이중벽과 이중창호 그리고 AutoCAD third parts에서 지원하는 모든 창호표현과 2D블럭을 지원하여 2D도면의 자동작성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구조도면과 보·기둥리스트의 자동작성기능을 새롭게 추가하고 3D렌더링 프로그램인 'ArchiTrend TOMATO 2.0'의 첨가로 2D도면에서 3차원 투시도와 렌더링까지를 지원하는 통합 패키지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특히 'ARCHI-EAGLE ver 4.0'은 건축설계 전용 3차원 한글프로그램으로 사용자가 쉽게 잊을할 수 있다는 점과 이중창, 출창, 코너창 미서기, 여닫이 등의 창호와 이중벽 등의 표현이 쉽다는 점 그리고 Auto CAD에서 어떠한 한글을 사용하더라도 완벽한 호환이 가능한 점 등이 큰 특징이다.

또한 최초의 한글 렌더링 프로그램인 'ArchiTrend TOMATO 2.0'은 렌더링 프로그램으로서의 기능들 외에 50종 약 4천여가지에 이르는 풍부한 건축·인테리어 라이브러리, 나무와 전용 3차원 블럭, 각 도시의 월/시간별 태양각도 측정 측정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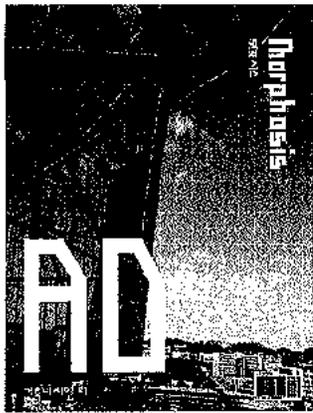
제품에 관한 문의는 NCC Corporation 본사(02-489-0289) 또는 각지방 NCC 공인딜러에게 하면 된다.

건축신간 안내

건축전문지 'AD' 창간
건설정책과 제도
건축법규 해설
도시디자인의 근대사

■ AD 창간호

아직 이렇다할 국제적인 건축전문잡지가 없었던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국제 건축전문잡지가 새로 창간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월간 '건축과 환경'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까지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한 AD誌는 국내외 현대건축가들을 엄선해 그들의 대표작을 철저히 조명하고 아울러 보다 전문적인 시각에서 세계건축에 접근하고자 매호마다 세계적 건축사가들의 비평을 실고 있다.

또 이책은 특정 건축가를 선정, 그의 작품세계를 집중조명하는 3권의 작가집과 세계 각국에서 발표되고 있는 신작의 주인공 및 신진 건축가들의 작품모음집 3권 등 매년 6권씩 발행된다.

특히 작품모음집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독특한 작업을 하는 건축가들이 주로 다루지게 된다.

3월 창간호에서는 Thom Mayne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 온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건축가그룹 Morphosis에 관한 기사와 그들의 최근 작품 「센타워(Sun Tower)」, 「ASE디자인 센터(서울)」, 「Blades House(대만)」, 「Prado 내소날 박물관(미국 캘리포니아)」 등이 게재돼 있다.

건축과환경(02-661-2456) 발행 / 128~160쪽 / 5×7배판 / 3만원(연구료로 1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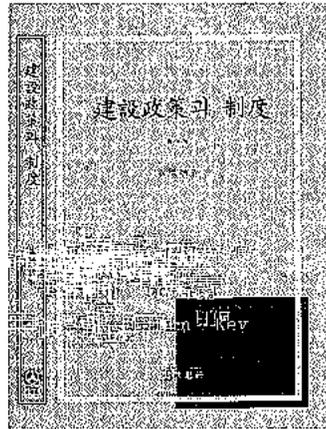
■ 건설정책과 제도

우리나라 건설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정책적 문제점들에 대한 논리적인 의견들이 제시된 책이 나왔다.

이 책은 필자인 서울시립대 최찬환 교수가 그간 각종 언론매체에 논문형식으로 기고한 글들을 정리해 한데 엮은 것으로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건축설계에 이어, 제2부에선 건설

정책분야로서 감리, 종합건설업,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Turn-Key), 건설사업관리(CM)에 관해, 제3부에선 건축법제분야로서 건축법 및 관련법규의 주요



과제에 대해, 제4부에서는 도시계획분야로서 도시설계, 상세계획, 계획제한구역, 준중량지역의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의견이 실려 있다.

따라서 이책은 IMF시대를 맞아 어려움에 처해있는 건설업계가 오늘의 난관을 헤쳐나가는데 적지않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최찬환총 / 도서출판 세진사(02-922-6371~3)발행 / 신국판 / 432쪽 / 1만 2천원

■ 건축법규해설

이 책은 건축법규 및 건축관련 법규에 관한 해설서이다.

98년도 개정판으로 출간된 이 책은 1977년 초판발간 이후 매년 한 두차례씩 개정판이 발간될 정도로 건축실무자뿐만 아니라 행정관계자와 학생, 일반에게까지 폭넓게 활용돼 왔다.

이 책은 법체계에 따라 관련법규의 내용과 질의회신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요약 정리해 놓은 것은 물론 도표 등의 자료들이 함께 수록돼 있어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이 책은 실무전문가를 위한 일반용과 학생용이 따로 발간돼 있다.

전경배, 최찬환총 / 도서출판 세진사(02-922-6371~3) 발행 / 4×6배판 / 일반용 : 2260쪽 / 5만원 / 학생용 : 1001쪽/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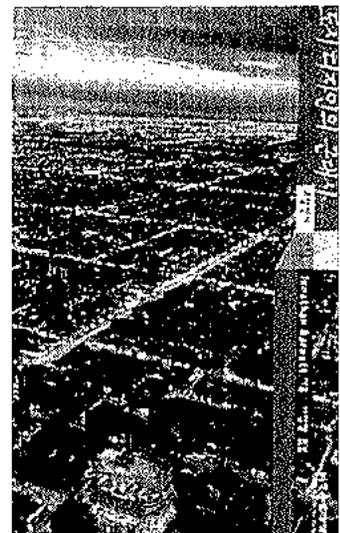
■ 도시디자인의 근대사

도시디자이너 조나단 바넷이 저술한 이 책에는 지난 5세기 동안의 도시디자인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도시디자인적 관점에서 산업회 이전의 시대로부터 근대의 도시사회를 거쳐 현대에 이르는 도시의 발전과정을 도시의 형성배경 및 이념, 도시구성, 형태의 논리 등으로 체계있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책에는 도면들과 사진 등 많은 자료가 곁들여 있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돼 있다.

조나단 바넷총 / 이정형 옮김 / 도서출판 국제(02-359-7606)발행 / 245쪽 / 7천원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운수종사자 복지센터

서울 여성 플라자

운수종사자 복지센터

Welfare Center for
Transportation Agents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는 운수종사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운수종사자 복지센터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총 6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당선작에 (주)향도시건축(조상훈+지원술)안, 우수작에 (주)어반네트건축(홍성천)안을 각각 선정, 그 결과를 지난해 12월 17일에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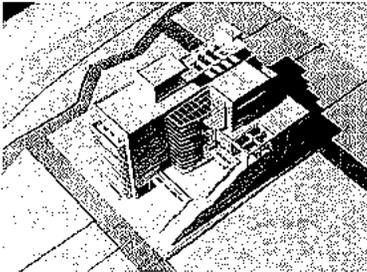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김중현(경희대), 김지덕(유신건축), 박서홍(한양대), 이문보(동국대), 정진국(한양대), 최찬환(서울시립대)

▶ 당선작 / (주)향도시건축(조상훈+지원술)



조감도



모형도

대지위치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1063-1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도시설계지구
대지면적	3,257.1㎡ 중 1,650㎡
도로현황	6m도로(2면 접합)
건축면적	1,062.90㎡
연면적	5,264.20㎡
건폐율	64.42%
용적률	200.90%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층수	지하1층, 지상5층
최고높이	21.4m
외부마감	THK30 화강석버너구이, THK24필러복층유리
주차대수	법정 - 28대, 설계 35대
설계담당	민병권, 윤재원, 정미숙, 박상범, 정양호, 위재성, 김태우

계획목표

교육, 문화, 후생복지 및 편의시설의 확충으로 운수종사자의 자질, 복지 향상을 위해 운수종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문화복지공간의 '장(場)'을 마련, 인식전환의 장소성을 부여하고 운수종사자 및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환경제공은 물론이고 시민의 열린공간이 되도록 한다. 또 미래지향적이면서 전문화된 교육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계획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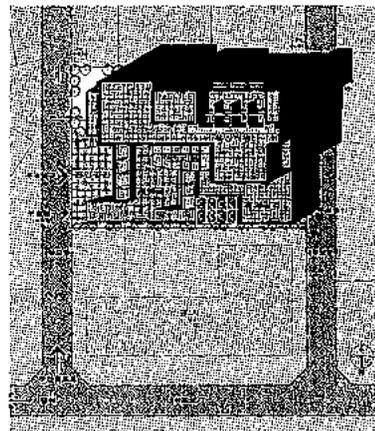
새로운 대중교통문화를 만들어가는 운수종사자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교육복지회관을 계획키 위해 진입과정에 상징성 부여하고, 복지편익시설 및 교육시설에 적합한 합리적 공간구성과 테라스를 통한 외부와의 연계로 기능성과 공공성을 살렸고 도시계획상의 적극적인 자리 매김이 되게 하였다.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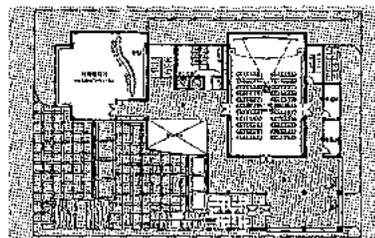
대지축과 도로축에 의한 배치와 시선축에 의한 향 배치를 하였고 보행자와 차량의 입구분리로 동선을 분리하였다. 또 입체적 휴게공간(계단식 옥상정원)으로 각종 마다 마당을 형성하였고 옥외 주차시설을 최대로 확보하여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꾀하였다.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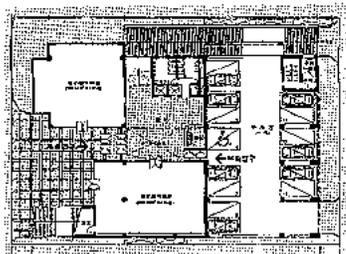
기본모듈이 5.5×12, 5.5×6.2m로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평면구성하여 일조, 채광의 쾌적성을 증대하였고 내·외부 계단의 역할분리 및 주·부 계단실의 역할을 분리하였다. 또 각층마다 용도에 따라 입구를 달리하여 동선을 분리하였고, 옥외공간의 연계성을 적극 활용 옥상에 휴게공간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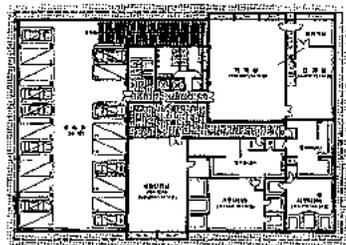
배치도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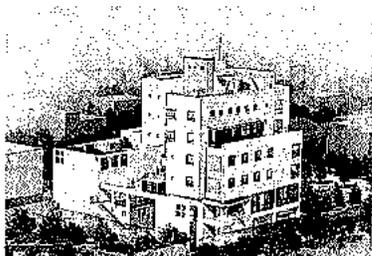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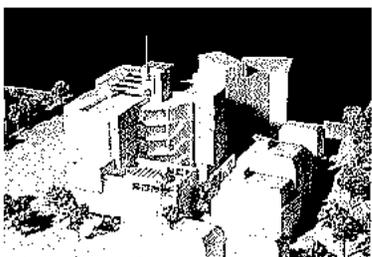


외측면도

▶ 우수작 / (주)어반네트건축(홍성천)



조감도



모형도

대지위치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1063-1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도시설계지구
 대지면적 1,650㎡
 도로현황 동측 : 6m도로 접합, 서측 : 6m
 도로 접합

건축면적 985.5㎡
 연면적 5,325.1㎡
 건폐율 69.7%
 용적률 218.3%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층수 지하1층, 지상6층
 최고높이 24.4m
 외부 마감 예폭시계, 스프레이 타일재
 설비 F.C.U+A.H.U 방식
 주차 법정 - 25대, 계획 - 26대
 조경 법정 - 247.5㎡, 계획 - 296.1㎡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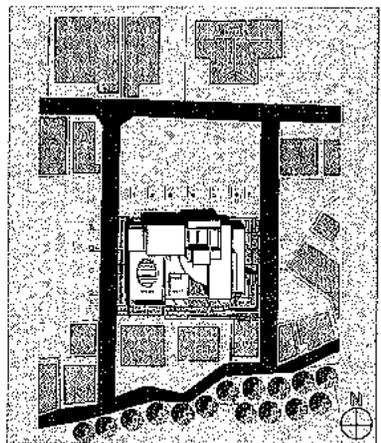
- 교육, 문화, 복지기능의 분리 및 통합
- 기능군의 유기적 동선체계
- 융통성있는 공간구성 - 장래변화에 대처
- 모듈계획 - 기본모듈 : 0.3m×0.3m (기능성, 시공성, 유지보수 등 고려)
- 구조모듈 : 7.5m×7.5m, 7.5m×6.6m
- 평면의 Dead Space 배제
- 에너지 절약형 설계
- 저층부는 'ㄷ'자 형으로 내정과 같은 Deck Space를 포용하는 공간구성
- 고층부는 'ㄱ'자 형으로 관악산을 향한 조망을 극대화시키는 공간구성
- 지하층에서 6층을 관통하는 중앙 Hall을 통한 동선의 분리 및 통합
- 상호기능의 연결 및 분화
- Sunken-Garden, 중정 Deck Space, 옥상정원 등의 외부공간의 연결 Sequence 형성
- 쾌적한 실·내외 공간 구성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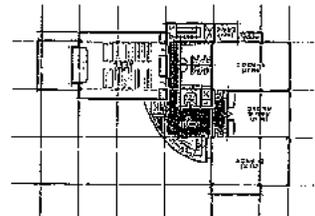
- 구조미와 기능의 연결을 통해 조형미 고취
- 진입축에 일치된 건물구성으로 이용자에게 친밀감 부여
-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이미지 표현
- 상하부 동선의 축인 중앙 Hall이 외부마당에 면하도록 하여 정적인 외부공간에 조형미 부여(투명성)
- 'ㄷ'자 형과 'ㄱ'자 형의 Mass가 중첩되며 구성되는 입체감과 이에 따른 공간의 상호관입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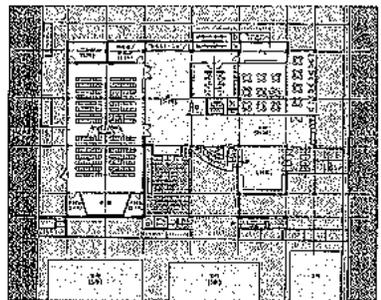
- 동서 양측의 6m도로에 의한 사선제한에 따라 중첩되는 Mass 및 남측 인접건물(APT)에 의해 야기되는 민원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Mass의 Set-Back
- 남측 상부의 관악산을 향한 View를 극대화시키는 단면구성
- 효율적인 층고계획
- Sunken-Garden → 중정 → Deck Space → 옥상정원으로 연결되는 외부공간의 Sequ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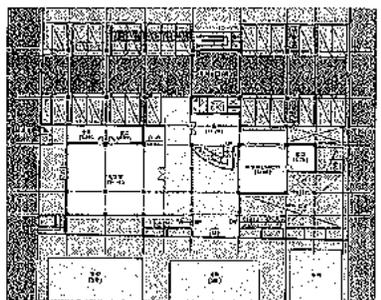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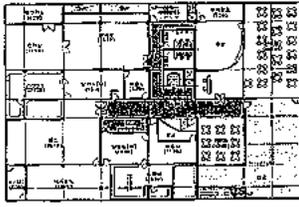
4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서울 여성 플라자

Seoul Women's Plaz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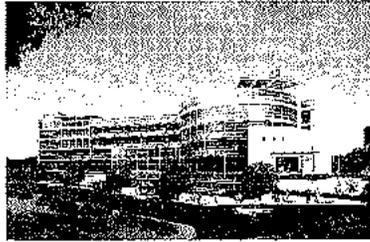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는 한국 여성의 역할을 상징하는 중심센터 설립을 위해 서울 여성 플라자 현상설계 경기를 실시. 총 13개 작품 중 당선작에 (주)거화종합건축(황장석+최창도)안, 우수작에 (주)범한종합건축(최광수+강근웅)안, 가작에 (주)그림한건축(김한일)안을 각각 선정. 지난해 12월 26일 발표했다.

이번 심사에서 당선작으로 선정된 (주)거화종합건축안은 심사위원으로부터 설계기준에 가장 충실한 작품으로서 대지 레벨차를 이용한 옥외공간의 적극적 활용과 이를 적절히 도입하여 주 출입구를 옥외에서 2개소로 분산하여 계획한 것이 좋은 착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서측 입면의 많은 Class면의 여름철 오후 과도한 열 획득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검토를 요하는 지적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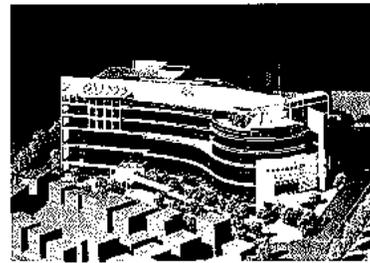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강석원(한국건축가협회), 김무언(하나그룹), 김석철(아키반건축), 김익(홍익대), 박용환(한양대), 서상우(국민대), 심우갑(서울대), 정명원(서울건축), 최찬환(서울시립대)

▶ 당선작 / (주)거화종합건축(황장석+최창도)



투시도



모형도

위치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45-1, 2, 3, 4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대지면적	6,488㎡
건축면적	3,180㎡
연면적	21,200㎡
건폐율	49.10%
용적률	202%
층수	지하3층, 지상5층
설계담당	임영진, 제갈훈, 목의균, 류리

이 계획안은 21세기 한국 여성의 역할을 상징하는 중심센터로서 여성 관련 국내·외의 정보와 교류의 열린공간, 남녀 평등 및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 지원을 위한 거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공공센터, 건강한 여성문화 창작에 기여하는 문화기능을 수행하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여성의 사회 진출에 따른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적용한 질높은 사회복지센터를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계획 대지는 노랑진로와 대방로가 만나는 교차 블록내에 위치하며 대지의 4면은 주택이 이면 도로에 접하고 있는 부정형의 형태인 동시에 주위에는 주택 등 소규모의 건축물들이 360°의 파노라마로 펼쳐져 있다.

대지의 전면 부분은 시설이용자 또는 지역민에게 제공되는 옥외 문화공간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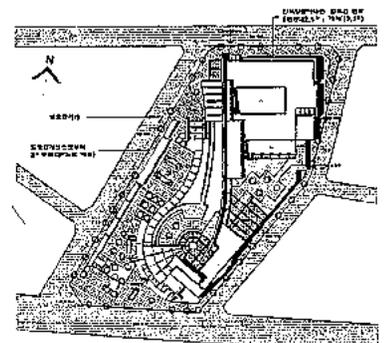
도시의 물리적 상황을 완충시켜주는 마당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옥외 공간은 제공된 주위 환경에 순응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레벨차를 두었으며 선형광장을 지나면 대지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유선형의 유리벽이 등장하는데 이 투명한 유리벽은 내부와 외부의 유기적 흐름을 표현한 것이다.

대지를 가로지르는 유선형의 유리벽은 내부와 외부의 유기적 흐름을 표현한 것이다.

대지를 가로지르는 유선형의 유리벽은 건축물속의 어느 곳에 있든지 탁트인 시야를 제공하며 장소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제공한다. 또한 Solid한 화강석과 Void한 유리를 주요 재료로 사용함으로써 투명과 불투명의 조화, 리듬의 반복에 의한 긴장감과 통일성을 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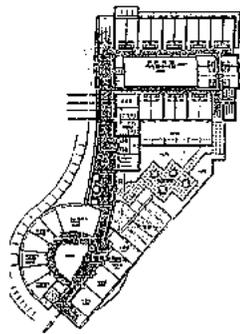
서울 여성 플라자의 공간은 크게 교류기능, 편의기능, 정보기능으로 대별되며 이를 총괄 기능구획이 아닌 동별로 기능을 구획하였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어프로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건물의 정면으로 향하는 주진입을 제외하고도 각 기능별로 별도의 출입구를 마련하여 4방향으로부터 직접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Entrance를 배치하였으며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해 지하주차장의 출입구를 1층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내부 중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채광 및 환기에 원할성을 추구하였으며 4층, 5층은 옥상정원과 휴게공간으로 쾌적하고 조망좋은 공간을 부여하여 상시 이용자 및 일반 이용자들의 창조적 사고와 휴게를 위한 장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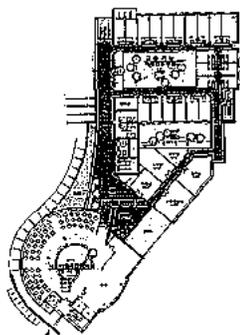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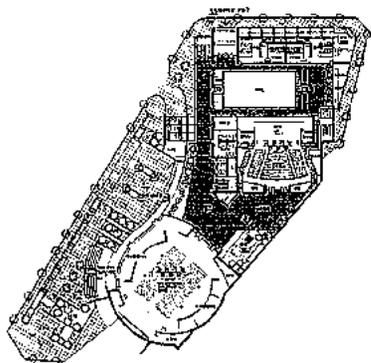
▶ 우수작 / (주)범한종합건축(최광수 +강근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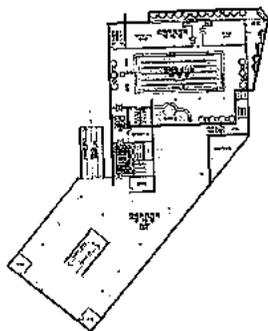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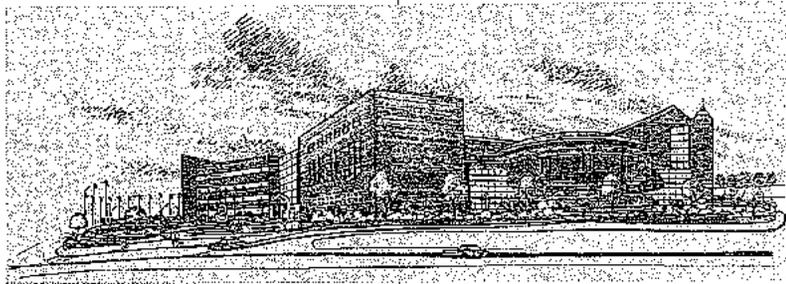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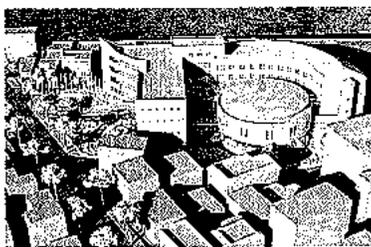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스케치



모형도

대지위치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45-1, 2, 3, 4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6,487.5㎡
도로현황	남측 15m도로, 좌측 6m도로 북측 8m도로, 우측 6m도로
건축면적	2,919.5㎡
연면적	18,732.73㎡
건폐율	45%
용적률	176.92%
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규모	지하2층, 지상5층
최고높이	28.2m
외부미감	외벽 - 변색벽돌+회강석 속두기 창호 - 불소수지 알루미늄 커튼 월, T-24mm 컬러 복층유리 지붕 - 동판잇기(철골트러스)
주차대수	129대
조경면적	1,050㎡

배치계획

대지 서측 6m도로와 평행한 축을 건물의 주축으로 잡았고, 정면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전면 15m도로에는 기벽을 형성하였다. 또 건물 남쪽에는 개방된 진입광장을 두었고, 진입차선 확보 및 교통 흐름의 원활을 위해 전면도로 경계선은 3m 후퇴시켰다. 그리고 대지 형태의 순응하는 배치를 위해 주변경관과의 조화 및 유기적 연계를 고려하였다.

평면계획

건물 상층부 전면에는 정보관리, 사무기능, 후면에는 교육훈련, 회의, 숙박기능 건물, 저층부에는 편의 및 주차장을 설치하여 장애인과 노유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적극 도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트리움과 내부 열린공간을 통하여 자연채광 및 쾌적성을 고려한 환경적요인을 강조, 에너지 절약형 건물이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관련 기능별로 Zoning화시켜 각 기능들이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각각의 개별성을 부여받게 하였고, 또 정보화 발달 개념을 적극 도입, 미래지향적 계획으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규격화된 모듈을 채택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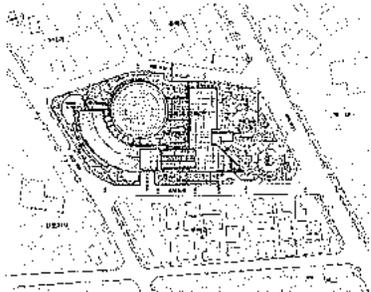
입면계획

주변 환경과의 균형적 질서 및 조화를 도모하였고 적정 안배와 변화감있는 조형성으로 일반인에게 친밀감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입면에 명확한 질서와 통일감을 부여, 21C 여성플라자로서의 상징적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또 정·부 사무동은 직선형, 연수·숙박동은 곡면형으로 Mass를 분절하여 기능성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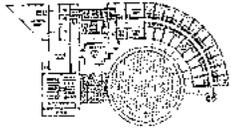
단면계획

상층부는 사무, 정보, 교육연수, 숙박, 하층부는 편의, 체육, 주차, 설비시설을 두어 층별로 용도 배분계획하였고 또 지형의 고저차를 이용 일반이용객과 상시이용객의 출입구를 분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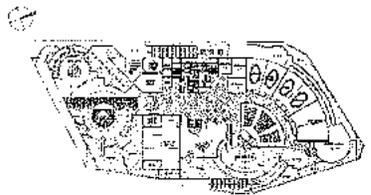
그리고 건물 중앙의 아트리움과 Open 공간구성으로 빛의 확산을 유도, 아트리움과 실내조경, 휴게공간 등에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였다.



배지도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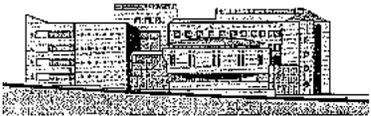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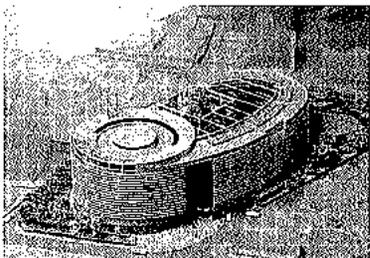


지하2층 평면도



우측면도(동측면도)

▶ 가작 / (주)그림한건축(김한일)



모형도

대지위치 동작구 대방동 345-1, 2, 3, 4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6,488㎡
도로현황 15, 8, 6m
건축면적 3,132㎡
연면적 21,375㎡
건폐율 48.27%
용적률 190.75%
구조 철근콘크리트
층수 지하3층, 지상5층
최고높이 21.85m
외부미감 알미늄 패널+24mm복층유리+스텐레스 스틸막, 화강암
설비 냉난방 - FCU+AHU방식, 수·배전설비, 동력설비, IBS설비
주차 지하1층 - 23대, 지하2층 - 57대, 지하3층 - 72대, 계 - 152대
조경면적 1563.1㎡
설계담당 김찬일, 김원영, 김현식, 이근수, 유태성, 김지훈, 양지윤

상징성

서울 여성 프라자는 21세기 한국 여성의 역할을 상징하는 중심센터로서 여성스러움이 돋보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열린공간

국내·외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첨단 정보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고려하고 앞으로 서울 여성 프라자가 전반적인 정보교류의 주역이 되도록 한다.

활동지원

현재 각계 각지에서 여성들의 권리 보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을 명확하고 체계적인 근거로서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단체간의 화합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활동 지원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공공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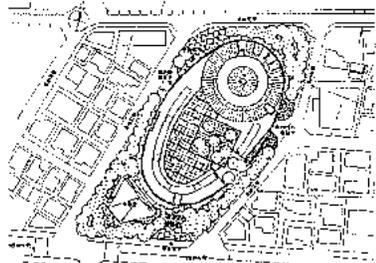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시설을 포용하여 건강한 여성문화정착과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한국의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한다.

주제의 상징

부드럽고 포근한 여성을 이미지화하고, 한편으로 우리 어머니들의 과거 역사속에

서 보여준 강인하고 질제됐으며 언제나 자신을 낮추어 살아왔던 모습으로부터 자신있고 당찬 현대 여성들의 근본 원동력을 알려주는 의미에서 건물의 형태를 구상한다.

그러므로, 건물은 크게 2개의 Volumn으로 구성되고 각각의 Volumn은 부여된 의미를 건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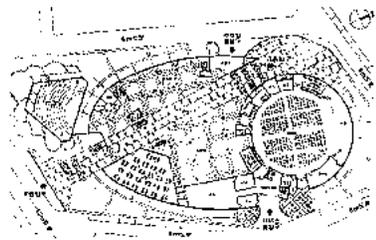
배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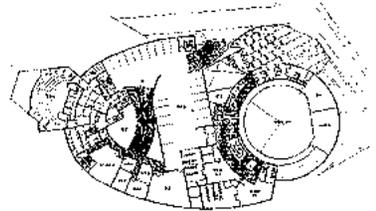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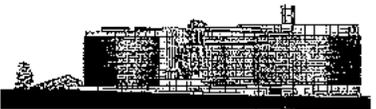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동측 입면도

윈도우95에서의 인터넷 접속하기

1. 설치에 앞서

본 글은 모델을 이용하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천리안을 이용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실행에 앞서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가) 모델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PC에 모델을 설치한다.

모델은 38.4 Kbps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나) 인터넷 브라우저(Netscape, Internet explorer가 대부분 임)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최신 버전 4.01이 나와 있고 Netscape의 경우 4.04가 최신 버전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모두 버전 3.0 이상이면 무방하다.

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PC통신 천리안 ID가 있는지 확인한다.

PC통신 ID는 어느 회사 ID도 무방 하지만 여기에서 시범을 보이는 내용이 천리안을 이용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니 만큼 천리안 이용자는 그대로 실행하면 되고 다른 PC통신 이용자의 경우는 해당 업체 제공의 인터넷 서비스 메뉴얼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PC통신 천리안의 경우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협회 폐쇄이용자그룹(CUG)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상이 준비되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외형적인 준비는 일단 끝이 난다.

그럼 지금부터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컴퓨터의 환경을 설정하여 주는 방법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알아보자. 인터넷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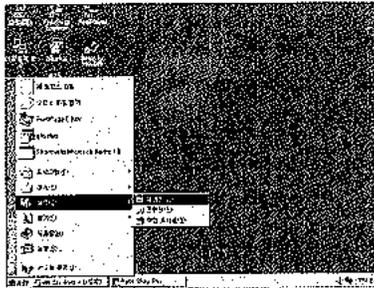
접속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및 프로토콜, 어댑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설치한다. 만약 소프트웨어 및 프로토콜, 어댑터가 설치되어 있다면 '3. 전화접속 네트워킹의 설치 및 소프트웨어의 설정'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

2. 프로토콜 및 어댑터의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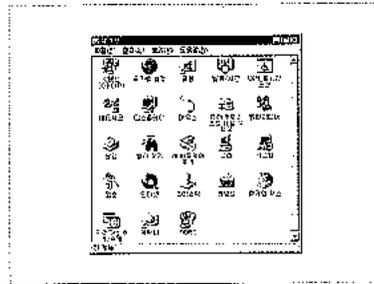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브라우저는 Windows환경에서 작동하므로 Windows의 환경을 조정해주어야 한다. 특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Windows95의 경우 환경 설정이 매우 편리하게 되어 있다.

가) 네트워크의 구성

'내컴퓨터' -> '제어판' -> '네트워크'를 선택하면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윈도우가 나타난다.



제어판 실행



네트워크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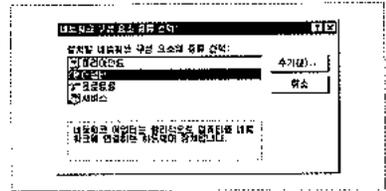
여기서 새로운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하려면 '추가(A)...'를 누르면 필요 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네트워크 초기 화면

나) 장비의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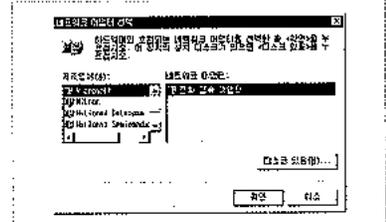
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를 추가할 수도 있다. 여기서 '어댑터'를 선택하고 '추가(A)...'를 누른다.



네트워크 구성요소 추가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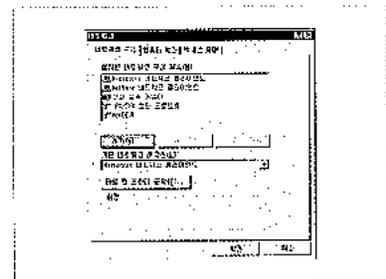
다) 어댑터 선택

제조업체는 'Microsoft'를, 네트워크 어댑터는 '전화접속어댑터'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른다.



네트워크 구성요소 추가화면

라) '확인'을 누르면, 몇가지의 네트워크 구성요소가 설치된다. 이때 '전화접속어댑터'만 남기고 나머지 구성요소들을 삭제한다.



네트워크 기본 설정 화면

마) 전화접속 어댑터가 선택된 상태에서 '추가(A)...'를 누른다.



전화접속 어댑터만 있는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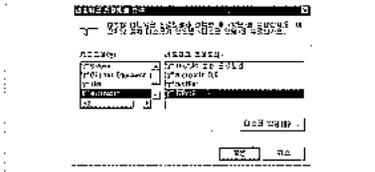
바) '프로토콜'을 선택한 후 '확인(A)...'를

누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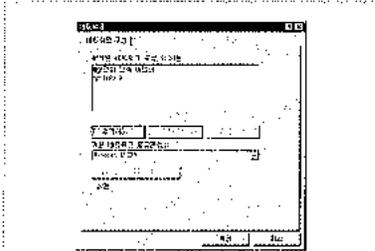
프로토콜 추가 화면

사) '제조사'는 'Microsoft'를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TCP/IP'를 선택, '확인'을 누른다.



TCP/IP 추가

그리고, 네트워크 구성에는 '전화접속 어댑터'와 'TCP/IP'가 설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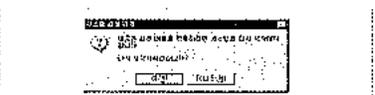
전화접속 어댑터 및 TCP/IP 설치 위의 과정을 처음하는 경우에는 Windows95 CD-ROM 타이틀을 준비해야 한다.

'TCP/IP'를 선택하고 '등록정보' 버튼을 누른다(또는 선택한 후 더블클릭한다). 'TCP/IP등록정보'는 6가지 설정항목이 있는데,

IP 주소	자동으로 IP주소 지정
DNS구성	165.194.1.1

위의 두가지 항목만 설정한 후 '확인'을 누른다.

시스템 설정 변경 완료되면 재부팅을 해야하므로 '예(Y)'를 선택한다.



시스템 재부팅 화면

3. 전화접속 네트워크의 설치

'내 컴퓨터' - '제어판' - '프로그램 추가/삭제'를 선택하여 '윈도우설치' 항목페

이지를 선택한다. '통신'에 'V' 표시를 하고 '자세히' 버튼을 누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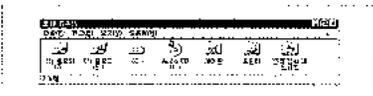
프로그램 추가 항목

'전화접속네트워크'에 'V'를 표시하고 '확인'을 누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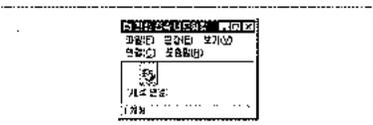


전화접속 IC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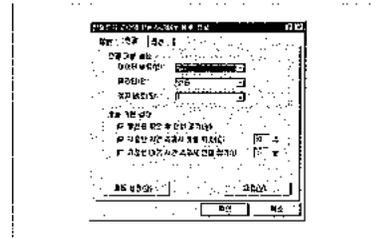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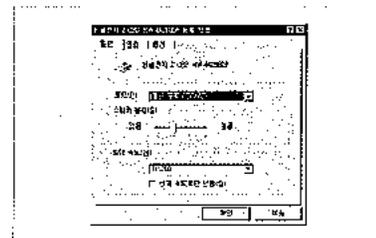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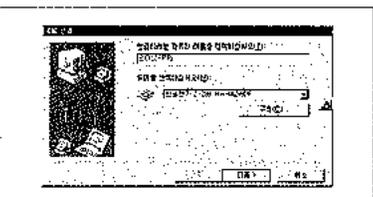
접속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을 경우 Windows95의 초기화면에 있는 '내 컴퓨터'를 선택하면 '전화접속네트워크'이라는 폴더가 생성되어있을 것이다. '전화접속네트워크' 폴더를 더블클릭한다.



'새로연결' 아이콘을 더블클릭한다.



'연결하려는 컴퓨터 이름'에 '인터넷 PPP'이라고 입력하고 '모뎀'에서는 설치된 모뎀을 선택하고, '구성' 버튼을 누른다.



'연결' 항목페이지를 선택하여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데이터비트 :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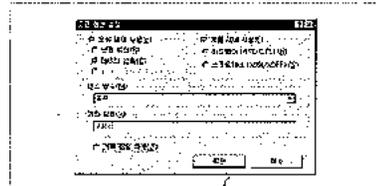
패리티 : 없음

정지비트 : 1

(V)지정한 시간 초과시 호출 취소 (60)초

와 같이 수정하고, '고급' 버튼을 누른다.

'고급옵션설정' Windows에서 아래와 같이 수정한 후 '확인'을 누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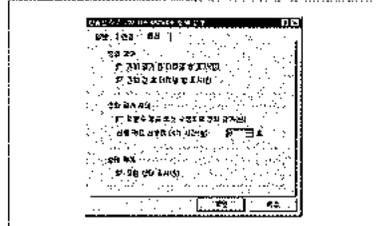
(V)오류 제어 사용 : '데이터 압축'에만 V 표시

(V)흐름 제어 사용 : '하드웨어' 선택
변조방식 : 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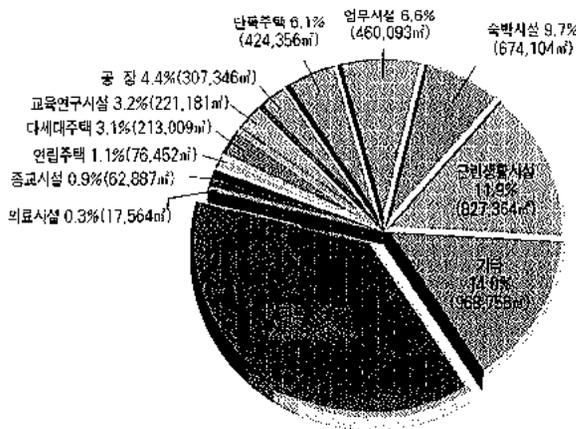
기타설정 : at&fx3

(V)기록 파일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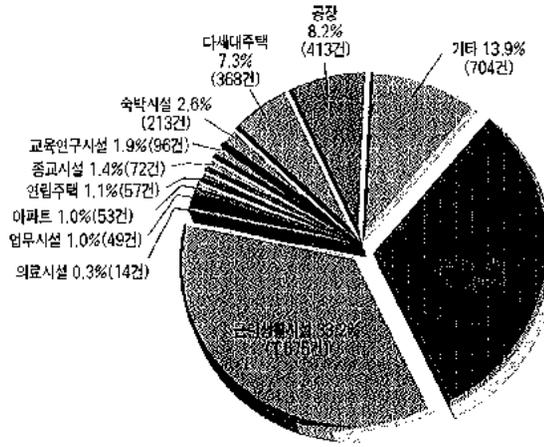
단, 기타 설정은 모뎀초기화 명령으로 자신의 모뎀에 알맞게 지정하여야 하는데, 노트북중에 PCMCIA모뎀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n3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용도별 구성비(1998년 1월분)



연면적 (총 6,931,810㎡)



건수 (총 5,052건)

용도별 합계 현황(1월분)

구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계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단독주택	1,294	1,357	404,727	120	126	19,112	6	6	517	1,420	1,489	424,356
다세대주택	363	401	212,337	5	5	672	0	0	0	368	406	213,009
연립주택	57	60	76,452	0	0	0	0	0	0	57	60	76,452
아파트	49	235	2,677,048	4	4	1,650	0	0	0	53	239	2,678,698
근린생활시설	1,471	1,523	729,298	177	183	45,946	27	29	52,120	1,675	1,735	827,364
종교시설	48	61	43,543	23	38	15,232	1	1	4,112	72	100	62,887
의료시설	5	5	10,842	8	8	5,764	1	1	958	14	14	17,564
교육연구시설	34	48	140,060	59	60	78,695	3	3	2,426	96	111	221,181
업무시설	43	53	447,458	4	5	7,476	2	2	5,159	49	60	460,093
숙박시설	112	116	665,469	18	18	7,382	1	1	1,253	131	135	674,104
공장	254	320	224,879	153	197	80,332	6	6	2,135	413	523	307,346
기타	500	605	807,478	189	225	116,140	15	16	45,138	704	846	968,756
합계	4,230	4,784	6,439,591	760	869	378,401	62	65	113,818	5,052	5,718	6,931,810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1월분)

구분	1997년			1998년			대비			연면적 비율(%)	비고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	1,648	1,661	3,217,537	773	779	3,537,819	(875)	(882)	320,282	10.0	
부산	799	1,137	1,213,929	526	776	813,158	(273)	(361)	(400,771)	-33.0	
대구	285	285	172,191	44	44	81,798	(241)	(241)	(90,393)	-52.5	
인천	391	406	514,205	125	132	240,478	(266)	(274)	(273,727)	-53.2	
광주	86	104	67,595	59	73	56,020	(27)	(31)	(11,575)	-17.1	
대전	138	143	89,281	178	178	154,942	40	35	65,661	73.5	
울산	0	0	0	62	62	55,050	62	62	55,050	-	
경기	1,119	1,308	762,280	2,121	2,348	1,168,021	1,002	1,040	405,741	53.2	
강원	230	254	85,518	169	190	82,461	(61)	(64)	(3,057)	-3.6	
충북	236	337	294,608	192	248	316,096	(44)	(89)	21,488	7.3	
충남	305	233	276,981	138	120	54,092	(167)	(113)	(222,889)	-80.5	
전북	108	108	183,725	56	56	34,557	(52)	(52)	(149,168)	-81.2	
전남	217	235	115,960	76	82	37,974	(141)	(153)	(77,986)	-67.3	
경북	309	353	143,803	225	260	130,672	(84)	(93)	(13,131)	-9.1	
경남	527	639	401,588	253	302	150,624	(274)	(337)	(250,964)	-62.5	
제주	96	112	59,849	55	68	18,048	(41)	(44)	(41,801)	-69.8	
합계	6,494	7,315	7,599,050	5,052	5,718	6,931,810	(1,442)	(1,597)	(667,240)	-8.8	() =미이너스

설계도서신고현황

98년도 1월분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1월분 7백5십9만9천50㎡ 보다 8.8%(6십6만7천2백40㎡) 감소한 6백9십3만1천8백10㎡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1월 누계 7백5십9만9천50㎡ 보다 8.8%(6십6만7천2백40㎡) 감소한 6백9십3만1천8백10㎡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12월분 1천1백1십5만8천4백26㎡보다 37.9%(4백2십2만6천6백16㎡) 감소한 6백9십3만1천8백10㎡의 실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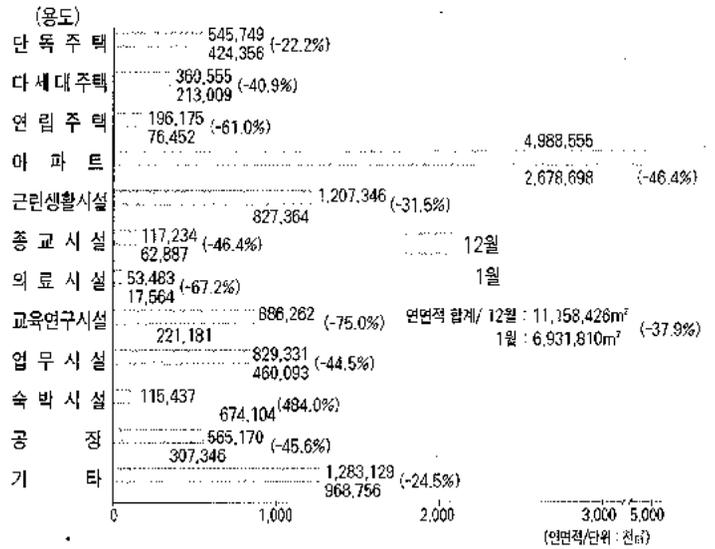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분	1997년도	1998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	3,217,537	3,537,819	320,282	10.0%
대전	89,281	154,942	65,661	73.5%
울산	0	55,050	55,050	—
경기	762,280	1,168,021	405,741	53.2%
충북	294,608	316,096	21,488	7.3%
감소지역				
부산	1,213,929	813,158	(400,771)	-33.0%
대구	172,191	81,798	(90,393)	-52.5%
인천	514,205	240,478	(273,727)	-53.2%
광주	67,595	56,020	(11,575)	-17.1%
강원	85,518	82,461	(3,057)	-3.6%
충남	276,981	54,092	(222,889)	-80.5%
전북	183,725	34,557	(149,168)	-81.2%
전남	115,960	37,974	(77,986)	-67.3%
경북	143,803	130,672	(13,131)	-9.1%
경남	401,588	150,624	(250,964)	-62.5%
제주	59,849	18,048	(41,801)	-69.8%
합계	7,599,050	6,931,810	(667,240)	-8.8%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연면적 기준)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1월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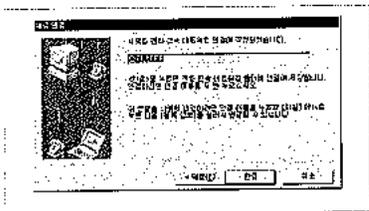
구분	1997년			1998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등 수	연면적	건 수	등 수	연면적	건 수	등 수	연면적		
단독주택	1,883	1,935	582,989	1,420	1,489	424,356	(463)	(446)	(158,633)	-27.2	
다세대주택	526	573	313,260	368	406	213,009	(158)	(167)	(100,251)	-32.0	
연립주택	76	78	150,707	57	60	76,452	(19)	(18)	(74,255)	-49.3	
아파트	111	322	2,613,432	53	239	2,678,698	(58)	(83)	65,266	2.5	
근린생활시설	2,189	2,261	1,230,894	1,675	1,735	827,364	(514)	(526)	(403,530)	-32.8	
종교시설	61	65	54,880	72	100	62,887	11	35	8,007	14.6	
의료시설	21	24	39,823	14	14	17,564	(7)	(10)	(22,259)	-55.9	
교육연구시설	106	120	304,776	96	111	221,181	(10)	(9)	(83,595)	-27.4	
업무시설	75	75	280,253	49	60	460,093	(26)	(15)	179,840	64.2	
숙박시설	164	193	204,249	131	135	674,104	(33)	(58)	469,855	230.0	
공장	509	738	651,991	413	523	307,346	(96)	(215)	(344,645)	-52.9	
기타	773	931	1,171,796	704	846	968,786	(69)	(85)	(203,040)	-17.3	
합계	6,494	7,315	7,599,050	5,052	5,718	6,931,810	(1,442)	(1,597)	(667,240)	-8.8	()=마이너스

'옵션' 항목페이지에서 '연결제어란' 과 '상태제어란' 을 아래와 같이 표시한다.

연결제어란 : 전화 건 후 터미널 창 표시에 V표를 한다.

상태제어란 : 모뎀상태 표시에 V표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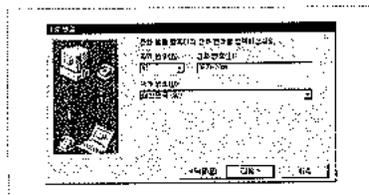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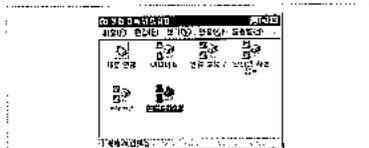
위와 같이 수정을 한 다음 앞 화면으로 돌아가 다시 **확인** 을 클릭하면 처음 나왔던 새로연결 Windows로 돌아간다. '다음' 버튼을 누른다.



'완료' 버튼을 누른다.

전화접속 네트워크 그룹에 인터넷PPP 아이콘이 만들어졌다. '인터넷PPP' 를 선택후 메뉴의 '파일(F)' 에서 '등록정보' 를 선택한다.

(또는 인터넷PPP 아이콘을 마우스로 한번 클릭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몇가지 메뉴가 나타나는데, 그중 등록정보를 선택하면 된다.)



'서버종류(T)' 버튼을 클릭하고 아래와 같이 맞춰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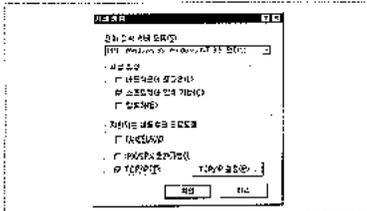
전화접속 서버 종류 : PPP : Windows 95, Windows NT, 인터넷 고급 옵션 : 소프트웨어 압축 가능만 선택

(네트워크에 로그온, 암호화는 선택하지 않는다.)

지원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 : TCP/IP 만 선택

(NetBEUI, IPX/SPX호환기능은 선택하지 않는다.)

('국가번호와 지역번호사용(S)' 에 V 표시가 되어있으면 설정해제한다.)



그 다음 'TCP/IP설정(P)' 버튼을 누른다.

(o) 서버에 할당된 IP주소 사용

(o) 할당된 서버 주소 사용

기본 DNS : 165.194.1.1로 맞춰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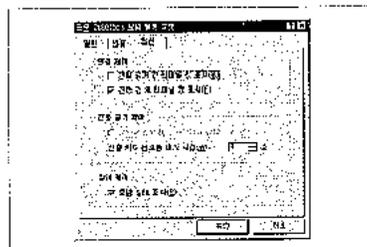
(V)IP헤더 압축 사용

(V)원격 네트워크에 기본 게이트웨이 사용



위와 같이 맞춰준 다음 **확인** 을 누른다.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 가면 **확인** 을 누르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인터넷PPP Windows에서 다시 '구성' 버튼을 눌러 '옵션' 항목페이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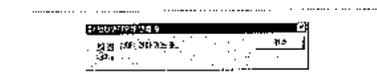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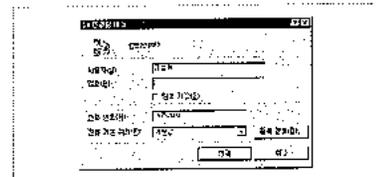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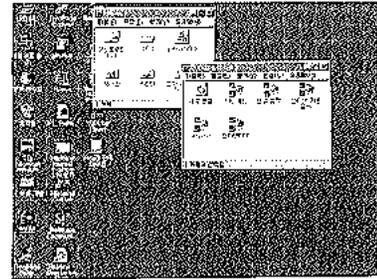
연결제어란 : 전화건 후 터미널 창 표시에 V표를 한다.

상태제어란 : 모뎀상태 표시에 V표를 한다.

위와 같이 맞춰준 다음 **확인** 을 누른다.

천리안 인터넷서비스 이용하기

㉠ 전화접속네트워크 PPP 접속 단축 아이콘을 만들었으면 바탕화면에서 마우스로 선택해 실행한다(단축 아이콘이 없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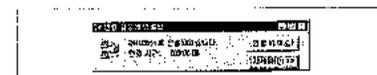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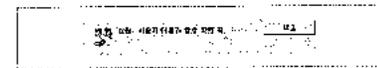
면 내컴퓨터 → 전화접속네트워크 → '천리안 PPP 접속' 을 선택).

㉡ '인터넷PPP' 연결할 대상 화면이 나오면 사용자에는 천리안 이용자 번호(ID)를 넣고, 암호에는 천리안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연결' 버튼을 눌러 접속을 시도한다.

㉢ '천리안 PPP에 연결중' 화면이 나오고,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확인하는 과정이 보인다.



㉣ 확인 과정후 '천리안 PPP에 연결됨' 이라는 화면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접속이 된 것이니 Netscape 나 Explorer등의 웹브라우저를 실행하면 된다.



㉤ 종료
- 실행되어 있는 웹브라우저를 종료한다. (File → Exit)
- '연결해제' 를 눌러 접속을 해제한다.